

연구보고 2013-16

#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연구

최윤경 민정원 김기환 이세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세계 각 국은 지속되는 변화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창출, 만들어가는 대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뇌 연구, 친환경산업, 3D 프린터, 온라인개방교육과 같이 미래사회의 동력과 기제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 강국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육아정책은 어떠한 미래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젊은 세대(대학생, 미혼성인남녀, 영유아부모)와 전문가가 바라고 예측하는 미래 모습에 대해 육아지원정책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육아지원정책의 상승 추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 수요에 대해 전망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았으며, 더불어 보육·교육 교직원수와 기관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래사회의 특정 수치를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의 정책이 고려하지 못한 부족한 점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래 중장기 전망과 단기 수요예측의 두 가지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여, 단기정책과제와 중장기 미래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논의된 미래사회 전망과 예측을 통해, 우리사회 미래 인적자원인 영유아를 지원하고 양육하는 육아지원정책이 행복하고 창의적인 미래사회 도래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설문조사에 충실히 응해주신 응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래연구로서 육아정책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력을 뜻 깊게 생각한다.

2013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차 례

요 약 .....	1
I. 서론 .....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내용 .....	10
3. 연구방법 .....	11
4.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	12
II. 연구의 설계 .....	14
1. 미래연구의 동향 .....	14
2. 수요예측 연구 .....	18
3. 육아정책 관련 미래연구 .....	25
4. 연구설계 .....	29
III.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	37
1.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예측 .....	37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예측 .....	48
3. 기관 및 교(직)원수 예측 .....	51
4. 요약 및 시사점 .....	54
IV. 2040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 .....	56
1. 육아관점의 미래사회 전망 .....	56
2. 육아지원정책 중장기 수요 전망 .....	67
V.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제언 .....	87
1.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 .....	87
2.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동인 및 예상 시나리오별 쟁점 .....	88
3. 바라는 미래사회 도래를 위한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과제 .....	90
참고문헌 .....	96

Abstract .....	100
부 록 .....	101
1. 면담참여자 특성 및 면담내용 .....	103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그래프) .....	125
3.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수요 예측(표) .....	141
4. 지역별 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표) .....	151
5. 미래육아지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영유아부모용) .....	157
6. 조사표 분석 결과 .....	168
6-1. 2040 한국의 미래 전망 .....	168
6-2. 2040 영유아부모의 자녀양육 형태 전망 .....	184
6-3. 육아지원정책 쟁점에 대한 비교 전망 .....	195
6-4. 2040 육아지원정책 전망(3개 내용영역별) .....	206

## 표 차례

〈표 II-1- 1〉 미래연구방법론 동향에 따른 구분 .....	16
〈표 II-1- 2〉 미래연구의 주요 관심분야 재분류(Marien & Millenium Project) .....	17
〈표 II-2- 1〉 노동생산성 관련 시나리오별 입력값 .....	22
〈표 II-2- 2〉 전형적인 물 수요예측 형식 및 적용분야 .....	24
〈표 II-4 1〉 전략적 미래예측의 단계별 과정 .....	30
〈표 II-4 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CLA의 수준별 영향요인 구성 .....	35
〈표 IV-1- 1〉 포커스그룹인터뷰 면담 분석 .....	60
〈표 IV-1- 2〉 응답자 특성 .....	63
〈표 IV-2- 1〉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	71
〈표 IV-2- 2〉 미래 2040년도 삶의 만족도 예상 .....	72
〈표 IV-2- 3〉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 영유아부모 .....	74
〈표 IV-2- 4〉 현재 자녀양육 만족도 - 영유아부모 .....	75
〈표 IV-2- 5〉 향후(추가) 출산 의향 - 미혼성인, 영유아부모 .....	76
〈표 IV-2- 6〉 향후 추가 자녀 계획(추가 희망 자녀 수) - 영유아부모 .....	76
〈표 IV-2- 7〉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1순위) .....	77
〈표 IV-2- 8〉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 - 영유아부모 .....	78
〈표 IV-2- 9〉 아동 입양 의향 .....	79
〈표 IV-2-10〉 아동 위탁양육 의향 .....	80
〈표 IV-2-11〉 자녀 연령별 이상적 양육 형태 .....	80
〈표 IV-2-12〉 영유아 자녀가 현재/미래 다니는 기관 - 자녀 전체(첫째+둘째+셋째) .....	81
〈표 IV-2-13〉 국가 무상지원 1일 5시간 제한으로 변경 시 기관 이용 의향 .....	82
〈표 IV-2-14〉 취약가정 선별 지원으로 전환 시 기관 이용 의향 .....	82
〈표 IV-2-15〉 양육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시 기관 이용 의향 .....	83
〈표 IV-2-16〉 상기한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	83

## 그림 차례

[그림 II-2- 1]	계량적 접근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의 비교-효과적 수요예측방법과 사례 .....	19
[그림 II-2- 2]	교육과정별 취원아수의 실제와 추정 .....	20
[그림 II-2- 3]	미래지향적 국회를 향한 제도화 과정 .....	21
[그림 II-2- 4]	생산성 시나리오의 계수값(좌측)의 변화와 생산성(우측) 변화 비교 .....	22
[그림 II-2- 5]	목적·환경 조건별 수요예측기법 .....	23
[그림 II-3- 1]	2005, 2010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육아정책의 수요와 공급 전망 .....	26
[그림 II-4- 1]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 연구모형 .....	36
[그림 III-1- 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2003~2012) .....	37
[그림 III-1- 2]	유치원 이용 아동 수(2003~2012) .....	38
[그림 III-1-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	39
[그림 III-1- 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동일시기, 동일연령 추계인구 대비) .....	39
[그림 III-1-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2003~2018) .....	41
[그림 III-1- 6]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값 .....	42
[그림 III-1- 7]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0세) .....	43
[그림 III-1- 8]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1세) .....	44
[그림 III-1- 9]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2세) .....	44
[그림 III-1-10]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3세) .....	45
[그림 III-1-11]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4세) .....	45
[그림 III-1-12]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5세) .....	46
[그림 III-1-13]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값 .....	46
[그림 III-1-14]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예측값 .....	47
[그림 III-1-15]	연령별 전국 유치원 이용률 예측값 .....	48
[그림 III-1-16]	연령별 전국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 .....	48
[그림 III-3- 1]	국공립·사립 유치원 수와 교사 수 .....	51

[그림 III-3- 2]	유치원당 교사 수 .....	52
[그림 III-3- 3]	전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수 .....	53
[그림 III-3- 4]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외), 직장어린이집 수 .....	53
[그림 III-3- 5]	어린이집 교직원 수 .....	54
[그림 IV-1- 1]	2040년 한국의 미래 전망(3개 영역) .....	66
[그림 IV-2- 1]	2040년 한국의 육아 전망 .....	67
[그림 IV-2- 2]	육아지원정책 쟁점의 방향성 .....	69
[그림 IV-2- 3]	현재 및 미래 삶의 만족도 .....	71
[그림 IV-2- 4]	현재 삶 만족도와 2040 삶 만족도 비교 .....	73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	103
〈부록 표 3-1〉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	141
〈부록 표 3-2〉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예측 .....	146
〈부록 표 4-1〉 지역별 유치원 이용률 예측 .....	151
〈부록 표 4-2〉 지역별 유치원 이용 아동수 예측 .....	154
〈부록 표 6-1- 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의 삶의 질 ...	168
〈부록 표 6-1- 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의 행복 .....	169
〈부록 표 6-1- 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결혼율 .....	170
〈부록 표 6-1- 4〉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출산율 .....	170
〈부록 표 6-1- 5〉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가족구조의 변화 · 171	
〈부록 표 6-1- 6〉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	172
〈부록 표 6-1- 7〉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 구성원 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 .....	173
〈부록 표 6-1- 8〉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 174	
〈부록 표 6-1- 9〉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175	
〈부록 표 6-1-10〉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 176	
〈부록 표 6-1-1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의 활용 .....	176
〈부록 표 6-1-1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 177	
〈부록 표 6-1-1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시민의 정치참여 · 178	
〈부록 표 6-1-14〉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과학기술강국 .....	179
〈부록 표 6-1-15〉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인공지능/로봇의 증가 179	
〈부록 표 6-1-16〉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남북통일 .....	181
〈부록 표 6-1-17〉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81	
〈부록 표 6-1-18〉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다문화/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	182
〈부록 표 6-1-19〉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 .....	182
〈부록 표 6-2- 1〉	2040 양육전망 1) - 아버지 양육참여 증가 .....	184
〈부록 표 6-2- 2〉	2040 양육전망 2) -영유아부모의 부모 역할/기능 축소 ...	185
〈부록 표 6-2- 3〉	2040 양육전망 3) -남녀 가사노동 분담 .....	185
〈부록 표 6-2- 4〉	2040 양육전망 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	186
〈부록 표 6-2- 5〉	22040 양육전망 5)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상승 .....	187
〈부록 표 6-2- 6〉	2040 양육전망 6) -비혈연 돌보미 이용률 상승 .....	188
〈부록 표 6-2- 7〉	2040 양육전망 7)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증가 .....	189
〈부록 표 6-2- 8〉	2040 양육전망 8) -육아지원기관 부모 부담 비용 증가 ...	189
〈부록 표 6-2- 9〉	2040 양육전망 9) -육아지원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 .....	190
〈부록 표 6-2-10〉	2040 양육전망 10) -영유아 사교육 이용 증가 .....	191
〈부록 표 6-2-11〉	2040 양육전망 11) -영유아부모 및 부모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증가 .....	192
〈부록 표 6-2-12〉	2040 양육전망 12) -육아 관련 산업 확대 .....	192
〈부록 표 6-2-13〉	2040 양육전망 13) -양육의 일정부분을 인공지능/로봇이 담당	193
〈부록 표 6-3- 1〉	육아정책의 방향성 1) - 영아 기관이용 vs. 가정내 양육 ·	195
〈부록 표 6-3- 2〉	육아정책의 방향성 2) - 유아 기관이용 vs. 가정내 양육 ·	196
〈부록 표 6-3- 3〉	육아정책의 방향성 3) - 보편지원 vs. 취약계층 선별지원	197
〈부록 표 6-3- 4〉	육아정책의 방향성 4) - 공교육·보육 구축 vs. 사교육·보육 수요 인정 .....	197
〈부록 표 6-3- 5〉	육아정책의 방향성 5) - 기관이용 전일제 무상지원 vs. 반일제 차등지원 .....	198
〈부록 표 6-3- 6〉	육아정책의 방향성 6) - 기관이용 정규과정만 지원 vs. 특별활동시간까지 추가 지원 .....	199
〈부록 표 6-3- 7〉	육아정책의 방향성 7) - 현금 지원 vs. 물품/서비스 지원	200
〈부록 표 6-3- 8〉	육아정책의 방향성 8) - 기관 이용 비용 지원 vs. 가정 양육수당 지원 .....	200
〈부록 표 6-3- 9〉	육아정책의 방향성 9) - 기관 비용 자율화 vs. 규제 .....	201
〈부록 표 6-3-10〉	육아정책의 방향성 10)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 vs. 일원화 ..	202
〈부록 표 6-3-11〉	육아정책의 방향성 11) -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	203
〈부록 표 6-3-12〉	육아정책의 방향성 12) - 육아지원 확대 시 지속가능성 ..	203

〈부록 표 6-3-13〉	육아정책의 방향성 13) -인구감소 지속 시 미래 전망	204
〈부록 표 6-4 1〉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1) - 육아휴직	206
〈부록 표 6-4 2〉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2) - 양육비 지원 증가	207
〈부록 표 6-4 3〉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3) - 보육료/교육비 지원 증가	208
〈부록 표 6-4 4〉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4) - 양육수당 지원 증가	208
〈부록 표 6-4 5〉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5) -국공립 기관 증가	209
〈부록 표 6-4 6〉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6) - 민간/사립 기관의 중요성	210
〈부록 표 6-4 7〉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7)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211
〈부록 표 6-4 8〉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8) - 지역사회 공동 육아 증가	212
〈부록 표 6-4 9〉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9) - IT기술의 양육 환경 기여	213
〈부록 표 6-4-10〉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215
〈부록 표 6-4-11〉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1) - 취약가구 지원 강화	215
〈부록 표 6-4-12〉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2) - 다문화/외국인 가족 양육지원 증가	216
〈부록 표 6-4-13〉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3) - 손자녀 양육지원 수당 지원	217
〈부록 표 6-4-14〉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4) - 다자녀가구 지원 증가	218
〈부록 표 6-4-15〉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5) - 국내 입양 문화 개선 및 국내 입양 증가	219
〈부록 표 6-4-16〉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6) - 해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 증가	220
〈부록 표 6-4-17〉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7) -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221
〈부록 표 6-4-18〉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8) - 나홀로 아동 예방 및 지원 강화	221
〈부록 표 6-4-19〉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9) - 시설 아동 지원 강화	222
〈부록 표 6-4-20〉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10) - 위탁양육 활성화	223
〈부록 표 6-4-21〉	‘아동의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224
〈부록 표 6-4-22〉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1) - 맞벌이 가구 지원 증가	225

〈부록 표 6-4-23〉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2) - 양질의 여성 일자리 증가	225
〈부록 표 6-4-24〉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3) - 재취업하는 여성의 수 ...	226
〈부록 표 6-4-25〉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3) - 일·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 확산·	227
〈부록 표 6-4-26〉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4) - 보육·교육 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	228
〈부록 표 6-4-27〉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1순위 ...	229

##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2- 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서울)	125
[부록 그림 2-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서울)	125
[부록 그림 2- 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부산)	126
[부록 그림 2- 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부산)	126
[부록 그림 2- 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인천)	127
[부록 그림 2- 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인천)	127
[부록 그림 2- 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대구)	128
[부록 그림 2- 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대구)	128
[부록 그림 2- 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울산)	129
[부록 그림 2-1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울산)	129
[부록 그림 2-1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강원)	130
[부록 그림 2-1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강원)	130
[부록 그림 2-1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충북)	131
[부록 그림 2-1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충북)	131
[부록 그림 2-1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충남)	132
[부록 그림 2-1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수 예측(충남)	132
[부록 그림 2-1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전북)	133
[부록 그림 2-1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전북)	133
[부록 그림 2-1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전남)	134
[부록 그림 2-2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전남)	134
[부록 그림 2-2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북)	135
[부록 그림 2-2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북)	135
[부록 그림 2-2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남)	136
[부록 그림 2-2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남)	136
[부록 그림 2-2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광주)	137
[부록 그림 2-2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광주)	137
[부록 그림 2-2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대전)	138
[부록 그림 2-2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대전)	138

[부록 그림 2-2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기) .....	139
[부록 그림 2-3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기) .....	139
[부록 그림 2-3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제주) .....	140
[부록 그림 2-3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제주) .....	140
[부록 그림 7-1-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 가정 .....	173
[부록 그림 7-1-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 문화, 경제 .....	180
[부록 그림 7-1-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세계정세 흐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83
[부록 그림 7-2-1]	2040년 육아/양육 형태 전망 .....	194
[부록 그림 7-3-1]	육아정책의 방향성 .....	205
[부록 그림 7-4-1]	자녀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전망 .....	214
[부록 그림 7-4-2]	아동복지향상정책 전망 .....	224
[부록 그림 7-4-3]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전망 .....	228



# 요 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2~2013년부터 영유아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제로 모든 영유아자녀 가정이 일정수준의 서비스 또는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현장에서는 정책에 따른 수요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부모 역시 현재의 육아지원 인프라에서 확대된 육아지원의 선택권을 실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 육아지원정책은 단기적 수요예측과 중장기 미래전망이 선행되어야 정책효과와 실행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육아친화적인 사회로의 정책목적 달성이 용이해짐.
- 본 과제는 '미래연구'와 '수요예측'이라는 미래와 현안의 두 축을 고려한 미래연구로서의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당면한 현안과제 대응 뿐 아니라 미래 선도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나. 연구내용

-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의, 연구 경향, 그리고 그 간 논의된 미래연구 방법론 고찰을 통해 육아정책의 미래연구가 답아야 할 연구내용과 방법을 탐색
-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 2040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
- 2040년 미래 한국 영유아와 부모의 양육형태와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 단중기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육아지원정책 수요 제언

### 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

- 온라인 설문조사, 수요예측 계량분석
- 집단심층면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회의

## 라.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 육아관점 미래연구의 첫 시도로서, 예측·전망해야하는 대상과 기간의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중장기전망과 단기예측의 2가지 연구의 틀을 적용함.
- 육아관점의 미래 전망에 기초하여 미래사회 전망에 필요한 기타 요소들(예: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주의 가치관, 과학기술과 ICT사회로의 변화, 남북통일의 정세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 2. 연구의 설계

- 본 연구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전망하는 성격을 가짐. 이러한 연구의 방향을 '정책개발 도구로서의 전략적 미래전망과 예측'으로 설정함(김동환 외 2010).
  -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미래를 대응, 선도하는 전략의 수립을 위해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 등 거시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요를 알아봄. 이를 통해 현재의 저출산 대응과 육아지원정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예측의 정확성보다 미래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도모함. 즉 수요자 대중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서의 미래 전망을 제시함.
- 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당면한 단기정책 수요의 파악을 위해, 향후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함.
  -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수 및 이용률, 교원수, 기관수에 대해 과거 10년간의 전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변량 시계열분석을 하였음.
- 2040년의 미래 중장기 전망을 위해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미래 육아지원의 수요를 내용영역별로 구성함. 이를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 인과다층구조분석(CLA)(Inayatullah, 2004)의 방법을 참조하여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여 미혼성인남녀, 영유아부모, 각 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미래전망 분석을 실시함.

- 미래 육아지원 수요를 (1)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과 사회문화적 기반의 구축, (2)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 (3)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존중되는 근로환경의 세 가지 정책 어젠다로 도출함.

###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수 예측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수를 감쇄추세지수평활법에 의해 예측한 결과, 향후 5년(2014~2018년)간 만 1, 2세 영아의 기관이용 아동수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 0세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만 3세 기관이용 아동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린이집이 다소 큰 기울기를 보임. 만 4, 5세는 대체로 현재 이용 아동수를 유지하거나 감소하여 하향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임.
-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제도 등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는 대상은 만 0~1세로 보임. 저출산 대응과 육아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0~2세 영아 대상 기관인프라와 질 관리 정책이 중요하게 요구됨.

#### 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

- 어린이집 이용률의 경우, 만 1~2세 이용의 상승으로 5년 후 이용률이 80~90%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0세 이용률의 증가폭은 만 1~2세보다는 낮으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만 4~5세는 과거 이용률과 유사하게 지속되거나 지역별로 소폭 하향 조정 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만 4세: 37~39%, 만 5세: 31~32%) 만 3세의 경우 2012년 57%에서 향후 5년간 5%p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이용률은 향후 5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수요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용아동수, 이용률) 수요는 지역별로 기관유형에 따라 상이한 증감의 예측을 보임. 이는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와 인구유입, 기관 인프라와도 관련된 것으로, 유보 인프라

구축과 수급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부록 2, 3, 4 참조).

#### 다.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및 교(직)원수 예측

- 유치원의 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기관당 4명을 넘어 2012년 4.5명 선에 이름.
  - 선형적인 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유치원당 교사 수가 약 5.5~5.6명으로 예상됨. 유치원 기관의 증가세는 멈췄지만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18년까지 약 47,000~48,000명(8,500개원x5.5명) 수준으로 교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어린이집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의 비중이 큰 가운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증가 추세가 가파름.
  - 법인(외) 유형의 어린이집의 경우 2005년경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반전되어 오히려 기관수가 줄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기관수가 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숫자가 미미한 수준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판단할 때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중심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음.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기타지원인력의 경우도 어린이집 기관수의 선형적 증가추세에 맞추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영유아수를 고려할 때, 늘어나는 교사와 기관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수급의 관리와 설치·인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기관인프라와 교사에 대한 수요는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의 두 가지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함.

### 4. 2040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 가. 2040 육아지원정책 중장기 수요전망

- 2040년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형태'를 전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증가', '남녀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전망이 가장 우세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 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육아관련 산업의 발달로 시장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비혈연육아도우미 서비스의 이용과 사교육의 이용도 증가세로 전망되어, 영유아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의 형태가 공·사영역에서 다양해지며, 이용량이 증가함.
- 현재 쟁점이 되는 육아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수요는 ‘영유아기 공보육·교육체제의 마련’과, ‘영아의 가정내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임.
- 2개 의견 중 택일하게 한 결과, 유아의 기관이용, 모든 영유아대상의 보편적 복지, 기관의 정규시간에 한정된 지원, 양육수당의 현금 지원, 기관비용상한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 육아지원확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인구감소시 사회적 대응과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특징적인 것은 영유아기 사보육·교육 체제와 영아의 기관이용에 대해 지지하는 응답률이 각 24.3%, 27.6%로 전체 1/4 내외로 나타난 점임. 또한, 특별활동/특성화활동 시간에 대한 비용지원, 기관비용의 자율화, 유보 이원화 유지에 대한 전망, 인구감소가 지속되어도 사회는 적응적, 안정적인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등이 약 40% 이상의 응답률로 전망된 수요가 적지 않음.
- 미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항목으로 추출된 3개 영역(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아동복지와 권리가 보장되는 육아환경, 영유아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함.
-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많이 요구된 항목은 ‘남녀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보편화임. 그 다음으로 영유아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양육비 지원의 증가’로 나타남.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참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중시함.
  - 둘째,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폭력의 처벌 강화’, 그리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강화’임. 보편적 지원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강화를 요구함.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취약가족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 상황에서의 보편적 모니터링 체계 확보의 필요성이 나타남.

- 셋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수요를 보인 가운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가장 많이 전망됨.
- 삶의 만족도 평가와 전망에서 현재 삶의 만족도(긍정응답률 56.2%) 대비 전반적으로 미래 2040년의 삶의 만족도(72.0%) 전망이 높음. 영유아부모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 56.3%가 만족함.
  - 젊은 연령일수록, (대)도시지역 거주, 그리고 고소득일수록, 취업자일수록 등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많을수록 미래 육아관련 전망(출산율, 결혼율 등)이 긍정적임. 전문가집단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
- 출산-입양-위탁양육의 의향 조사 결과, 출산의 경우 대학생 남녀(남92%, 여90%), 미혼성인남녀(남85%, 여83%), 영유아부모의 추가출산의향(부32%, 모28%)의 순으로 나타남. 자녀 입양 의향은 전체 8.9%, 위탁양육 의향은 8.3%로 저조함.

#### 나. 2040 미래사회 전망

-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에 앞서, 육아의 관점에서 바라고 기대, 예측하는 미래 사회 모습에 대해 전망함.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온라인상담 및 온라인 교육지원의 활용, 다문화/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인공지능과 로봇의 증가, 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 정착의 5가지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출산율, 결혼율, 가족가치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저조하여, 미래사회 출산율의 회복과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보임.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는 현재보다 감소하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그 다음으로 50~60%대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과학기술강국, 가족구조의 변화 및 다양성,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개인의 삶의 질, 개인창업의 증가 및 영향력,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증가, 개인의 행복, 시민의 정치참여임.
- 2040 미래 한국사회는 개인의 삶을 안정적 영위하는 1~2인 가구 단위의 생활양식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증대됨.

-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족구조가 줄어들어 따라 자녀 양육 가구는 고유한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음. 영유아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족의 고유성을 고려한 사회정책과 육아지원이 필요함.

## 5. 결론 및 제언

### 가.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

- 2040 미래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어젠다는 ‘행복’ 추구하고 ‘공유’, ‘다양성(비정형화)’의 허용임.
  - 출산율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성인 대상, 특히 여성(母)에 집중된 정책이 아닌, 남녀 양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균형 잡힌 지원체계와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으로서의 육아지원정책이 요구됨.
  - 부모도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공동체 참여가 가능한 육아환경이 필요함.
  - 물리적으로 거시지표(출산율, 여성취업률)를 끌어올리려는 정책보다는, 이미 태어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그들의 아동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질적·사회문화적 접근이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임.
  - 기존의 결혼과 부부, 가족의 범주와 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운용이 가능해야 함.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 체제, 교육·보육과정,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시간, 서비스 제공자(교사, 돌보미 등)의 제 측면에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의 질 관리는 안정된 시스템의 구축으로 규제와 관리감독, 평가가 아닌 신뢰와 행복에 근거한 자발적 참여의 지원의 과정으로 변화함.

### 나.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동인 및 예상(안)

- 본 연구결과, 2040 미래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을 수요를 가늠하는 주요 동력(driving force)은 ‘출산율’과 ‘복지수준’임.
  - 영유아 수의 감소라는 인구분포의 문제와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출산율과 사회전반의 복지수준 추구가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수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임.

□ 본 연구결과, 출산율(X축)과 복지수준(Y축)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가능한 한국의 육아 관련 미래상(시나리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예상됨.

- 1) 출산율 현재수준(합계출산율 1.23명) 유지 - 사회전반의 복지수준 향상
  - 현재시점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시나리오임. 사회전반의 복지수준 요구로 인해 육아지원의 내용과 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나,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출산율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영됨. 육아지원정책의 확대와 발전은 부모지원의 확대에 국한되지 않아야 함. 부모외, 영유아의 아동권과 행복, 교사의 권리와 사회적 존중, 영유아 부와 모에 대한 일·가정양립의 지원과 배려와 같은 사회문화적 인식과 가치의 접근을 필요로 함.
- 2) 출산율 현재수준보다 증가(약1.50~1.80명) - 사회전반 복지수준 향상
  - 다문화/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남북통일이 실현되고 동아시아 교류가 활발해지는 환경임. 통일 대비 북한 영유아지원과, 보다 세밀한 한국 고유의 다문화 정책이 요구됨.
  - 또한 육아지원정책의 지속적 확대로 내국인의 출산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임. 혼인관계의 부부 법적 규정이 비혼 동거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산과 양육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것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함. 입양과 위탁양육모와 같은 비혈연가족관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 남녀,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와 유연한 근로문화와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한 사회분위기임.
- 3) 출산율 현재보다 떨어짐(약1.20명 이하) - 사회 복지수준 현재수준 유지
  - 육아지원의 설계가 양적 지원의 확대와 현재의 전달체계 인프라를 유지하는 경우임.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비스와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교사양성, 질 관리, 부모지원의 확대, 국가수준 공통과정의 질적 운영의 기본 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 경우 저출산 타개의 정책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움. 가장 지양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로, 현재의 질 관리체계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기본 정책요소를 충실히 추진해나가야 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는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은 위험 뿐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사회는 미국발 경제침체, 원자재가의 불안, 자연재해의 증가, 이주민의 증가, 화석연료의 감소 및 오염의 증가 등 예측 가능한 혹은 불가능한 위협요소의 등장 앞에 '불확실성'을 하나의 명제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처럼 증대되는 위험과 위기로부터 새로운 기회와 대응전략을 창출하는 준비과정은 중요하다.

영국, 핀란드, 싱가포르, 미국, EU, UN 등 세계 각 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미래예측을 국가의 생존과 지구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 미래 연구결과를 국가 정책과 미래 전략의 수립과 입안에 중요한 과정으로 제도화 하였다(김현곤 외, 2009). 특정 과학기술과 사회적 트렌드의 출현이 갖는 의미와 파장, 미래 영향에 대해 각 국의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대처와 이슈화를 통해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는 각 국의 독자적인 노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유엔미래포럼,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 등으로 미래사회의 생존과 먹거리는 과거와는 다른 기제를 갖는다는 정책적 선도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한국 정부는 초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1, 2차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2006~2010, 2011~2015)의 핵심은 유아교육·보육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1, 2차에 걸쳐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지원체계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2012년부터는 영유아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확대 강화하여 바야흐로 모든 영유아자녀 가정이 일정수준의 서비스 또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2013년

으며, 만 3~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아기 무상 보육·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

그러나 2012년 영아무상보육의 시행 당시 제한된 수요예측으로 영아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2013년 양육수당의 지원의 확대(보건복지부 2. 25 보도자료<sup>1)</sup>) 일부 지자체에서는 '13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재정부족으로 현금지원 중단 위기에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예: 중앙일보 기사, 2013). 영아보육과 가정양육수당 등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당면한 수요예측이 적절히 선행되어야 재정지원의 규모가 파악되고, 정책효과와 실행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육아친화적인 사회로의 정책목적 달성이 용이해질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육아지원정책이 가져오는 미래사회 위협에의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한 중장기 논의가 수반되어야, 현재의 육아정책 설계와 로드맵이 실행력을 갖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에 좀 더 가까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래전망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육아지원정책의 확대와 재정투자는 방향성을 잃은 재정 부담이 되어, 바라는 미래사회로 다가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제를 통해, 초저출산이 극복된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세상과 같이, 우리가 바라고 목표로 하는 미래사회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의 설계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은 40여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본 과제는 '미래연구'와 '수요예측'이라는 미래와 현안의 두 축을 고려한 융합적인 설계에 기초하였다. 우선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안과제인 서비스와 현금 지원에의 향후 5년간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양육비지원과 교사 및 기관 수요 규모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 향후 30년 뒤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다가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요의 요인과 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정책이 어떠한 제한점과 시의성을 갖는지 점검하고, 미래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향후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 2. 연구내용

---

1) 2013년 2월 25일 09시 현재, 보육료 신청은 약 28.6만 명, 양육수당은 68.4명이 신청함. 2013년 만 0~5세 약 319만 명이 보육료 138만 명, 유아학비 61만 명, 양육수당 120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함(보건복지부 2. 25일 보도자료).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육아정책 및 관련 연구에서 미래예측과 전망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부족하므로, 미래연구의 개념과 의의, 기존 연구의 경향과 결과, 그리고 그 간 논의된 미래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과제의 육아정책 미래연구가 담아야 할 연구내용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미래연구의 한 영역으로서의 수요예측의 방법과 관련 연구를 고찰,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둘째, 단기예측을 통해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요소인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현재의 경향성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예측되는 단기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육아지원설계가 고려해야 할 당면 과제를 탐색하고 관련된 정책수요와 그 규모를 파악하였다.

셋째, 2040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였다. 개인, 가족,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과학 등 육아와 관련된 요인별 전망을 통해 약 30년 뒤 우리나라 미래의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래 육아 전망의 토대와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넷째, 2040년 미래 한국사회 영유아부모의 자녀양육의 형태와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중장기 수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육아의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어젠다를 도출하고,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를 가늠하는 주요 동인에 근거하여 미래안을 예상하였다. 예상되는 2040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단·중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방향과 단기적으로 우선 대비해야 할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미래연구의 동향, 축적된 결과 등 국내외 미래연구 사례를 고찰하여 육아정책의 미래연구 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 연구방법을 설계하였다.

#### 나. 수요예측 계량분석

축적된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단자료<sup>2)</sup>를 활용하여 과거의 이용 추이를

고려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현재의 육아지원설계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단·중기적으로 발생할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 다. 설문조사

미래 부모가 될 청년세대(600명)와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600명), 전문가집단(165명)을 대상으로 2040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기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의향, 바라는 미래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수요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 육아정책의 설계와 전망, 그리고 단기에측의 정성적·정량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 라. 집단심층면접 및 전문가면담

청년, 미혼 성인,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그리고 전문가(아동복지, 미래연구)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전망과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수요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특성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육아관점의 미래연구의 첫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특징, 그리고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제한된 정책영역과 대상(예: 원아수, 교원수 예측)으로 한정된 연구가 아니므로 고려해야할 전망과 예측의 범주가 크다. 동시에 최종적으로 예측, 전망해야하는 정책변수는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이다. 이러한 대상과 기간의 광범위함을 고려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미래연구가 수행하는 1년차, 2년차 순의 단계적 연구설계가 아닌 1년과제로서의 구성을 위해 중장기전망과 단기에측의 2가지 연구의 틀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이는 최근의 미래연구들이 2~3가지 이상의 방법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본 과제의 유용한 특징이

2) 통계청 자료, 보육통계, 교육통계 자료를 사용함. 양육수당 이용은 축적된 자료가 거의 없어,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지 못함.

자 동시에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수요 전망은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사회 전망은 또 다른 연구영역으로, 이를 위해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할 요소를 추출하고 시나리오를 구상하는데 연구기간이 소요되므로, 본 과제에서는 미래사회 전망을 육아 관점의 요소로 한정하여 접근하였으며, 미래연구방법으로서의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사회 전망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예: 노동시장의 변화, 가족주의 가치관, 과학기술과 ICT사회로의 변화, 남북통일의 정세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 II. 연구의 설계

이 장에서는 미래연구와 수요예측 등 관련 연구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설계에 필요한 절차와 요소들을 파악하여 연구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연구설계의 방법론적 근거와 내용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 1. 미래연구의 동향

#### 가. 미래연구의 범주

미래연구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어느 한 가지 범주와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미래예측은 기술, 시장, 조직, 정책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일련의 전략을 제시하는 가치 창조적 행위로 이해된다(권기현, 2008). 미래예측(Foresight)을 추세연장의 예측(Forecasting)과 구분하여, 전자가 후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영숙 외, 2011).

첫째, 미래사회연구는 ‘미래연구(futures studies, futuring, futurology)’ 등으로도 불리며 미래에 대한 이해, 예측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규범적인 제안과 현재 사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박영숙 외, 2011). 국가 또는 민간의 차원에서 전문가집단 또는 기관을 구성하고 이슈, 메가트렌드 도출하며, 포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예: 미래기획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의 미래융합연구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미래연구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정보화 기획단 등).

둘째, 수요예측은 소비자가 구입할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예측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업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며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예측 연구는 사기업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다양한 영역과 주체를 넘나들며 수행되고 있다(예: BP Energy outlook 2030(BP Global, 2013), 삼성경제연구소 효과적 수요예측방법과 사례(삼성경제연

구소, 2013), Energy Demand Models for Policy Formulation(World bank group, 2009) 등).

셋째, 수요예측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범주로 ‘정책수요 연구’는 정책분야의 예측으로, 국가의 공공 투자가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예비타당도 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예로는 입법조사처의 입법정책기반 수요예측 모형 개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수요예측 재조사사업,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수도권교통수요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관광수요예측,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의 교통수요예측,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용인경전철 민간투자 사업관리 및 항만수요예측센터사업 등이 있다. 육아정책분야에서는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와 수요에 기초한 재정전망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예: 김현철 외, 2000a, 2000b, 2002, 2009; 장명림 외, 2013; 김은영 외, 2013).

광의의 미래연구는 상기한 3개 범주의 연구를 포괄하기도 하나, 협의의 미래연구는 첫 번째 장기적 미래전망 연구에 국한시키며, 이것이 최근의 미래연구(또는 미래예측)의 경향이기도 하다<sup>3)</sup>.

## 나. 미래연구의 동향

미래연구는 예측과 추정 외에도, 참여방식, 네트워크 형성, 전략과 비전의 수립, 구체적 행동의 지향을 필요로 하는 체계화된 노력이다. 많은 국가에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공공정책을 설계할 때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간 갈등을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에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예: 핀란드의 국회 미래상임위원회, 헝가리의 미래세대위원회, 이스라엘의 미래세대위원회, 스코트랜드의 미래포럼 등)(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우리나라도 미래연구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기술적 예측 위주로 진행해왔으며, 미래연구와 국가 혁신시스템 및 국가 전략수립과 연계가 부족한 점, 미래연구 수행의 토대가 미흡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이세준 외, 2008).

미래연구는 방법적으로도 변화하여, 단순예측에서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낳는 것으로 진화하였으며, 불확실성의 제거보다 예측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관점으로 변화하여 비선형적 예측을 허용하고 있다(김현곤 외, 2009). 짐데이터(J.

3) 본 연구에서 미래연구는 후자의 협의의 장기전망과 단기예측을 포괄한 광의의 범주 양자로 봄.

Dator)는 “미래연구란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소수 미래학자에 의한 연구를 지양하고 대중의 관점과 의견에 근거하여 미래를 연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서의 미래연구는 “미래사회의 결과를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대중의 직관과 전망, 의견이 반영된다(예: Australia 2020 Summit, 2008). 왜냐하면 미래사회에의 대응은 단순히 미래예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실천, 협의를 필요로 하기 구체적 행동과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송영조, 2013).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ICT 기반의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미래예측이 가능한 가운데에서도 미래전략연구로서의 미래연구방법은 여전히 과학적 원리와 비과학적 방법이 혼용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김현곤 외, 2009).

〈표 II-1-1〉 미래연구방법론 동향에 따른 구분

과학적 원리의 연구방법론	과학·비과학적 요소 혼합연구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 스캐닝</li> <li>·텍스트 마이닝</li> <li>·브레인스토밍</li> <li>·트렌드 영향 분석</li> <li>·교차 영향 분석</li> <li>·퓨처스 휠</li> <li>·기술예측 및 평가</li> <li>·경제통계학적 모델링</li> <li>·퓨처 로드맵</li> <li>·시스템 모델링</li> <li>·시나리오</li> <li>·시뮬레이션 게이밍</li> <li>·델파이 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설, 일기, 신화, 공상과학, 예술작품, 대화 등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조사</li> <li>·인과계층분석(Causal Layered Analysis)</li> <li>·개인의 통찰과 직관에 의한 분석</li> <li>·이머징이슈 탐색 및 분석</li> <li>·세대분석(Age-cohort Analysis)</li> <li>·미래 비저닝 워크숍</li> </ul>
<p>: 과학적 연구, 데이터수집, 경험적 예측, 논리적 사고, 기술의 활용을 강조</p>	<p>: 객관적 정보 축적과 함께 욕구, 두려움, 가치관, 상상, 의지 등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요인에 의한 미래의 모습 구상에 초점</p>

자료: 김현곤 외(2009). 성공적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연구방법론.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요약문.

미래연구의 목적도 변화하여, 과학기술 위주에서 미래사회 전반의 변화로 예측영역이 확대되고, 단순 미래예측에서 공공정책의 수립에 대안을 제시하고, 현세대 중심에서 미래세대 중심으로 확대되어, 몇몇 국가에서는 미래예측 보고서

를 정기적으로 발간, 정책입안의 중요 단계로 상시화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러한 가운데, 미래연구에서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구성하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영역과 관련 요인의 제시에 관심을 갖는다. Michael Marine의 미래연구(1996, 김현곤 외 2009, p11에서 재인용)에서는 세계의 미래, 글로벌 경제, 종교와 국가, 국방과 군축, 지속가능성, 환경문제, 식량과 농업, 사회와 정치, 경제와 도시, 건강, 교육, 커뮤니케이션, 과학과 기술,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들로 14가지로 제시하였다. 유엔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글로벌 기회(Global Opportunity)는 15가지로, 지속적인 성장의 성취, 장기 글로벌 관점의 정책 구상,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올 가능성,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적인 정권으로의 전환, 다양성과 윤리적 가치의 공유, 인구증가율 감소,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전략, 대체에너지자원의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글로벌화, 바이오기술의 발전 속도 증가, 윤리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발전, 여성과 기타 소수집단의 경제적 자치 증가, 새롭고 직관적이고 때로는 대립되는 생각에 대한 탐색, 유망한 우주 프로젝트 추구, 제도의 개선(중앙집중화에서 분권화, 계층화에서 네트워크화된 조직으로의 진화) 등이다(UN Millenium project, 2012; 김현곤 2009 p13 재인용).

〈표 II-1-2〉 미래연구의 주요 관심분야 재분류(Marien & Millenium Project)

1	지속가능한 발전	10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2	과학기술	11	윤리와 가치
3	에너지	12	노동
4	비즈니스와 경제발전	13	종교
5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14	도시화와 지역이슈
6	사회 및 정치적 이슈	15	전쟁과 범죄
7	다양성, 민주주의, 평등, 인권	16	평화와 안전
8	생태계, 환경, 자원	17	제도
9	건강, 웰빙, 복지	18	미래의식: 미래에 영향을 주는 창의성과 의사결정

자료: 김현곤 외(2009). 성공적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연구방법론.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13p.

## 2. 수요예측 연구

### 가. 수요예측 연구의 유형 및 기법

미래연구의 한 영역에 해당하는 수요예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4)5). 수요예측 방법을 구분하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여기서는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성적 예측은 전문가의 주관에 의한 판단적 예측방법으로 과거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수리적 통계 분석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델파이기법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반복 질문하면서 이전 논의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와 피드백을 알려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유재국 외, 2012). 둘째, 판단적 회귀분석예측법(Judgmental bootstrapping)으로, 전문가들에게 수요 예측에 관련된 변수들에 가상의 값을 부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를 전문가가 예측하여 예측치를 기반으로 회귀분석하여 변수들의 특성(예: 민감도)과 예측 모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박성배 외, 2012).

정량적 예측은 미래에 예측되는 목표물의 양을 과거 일정기간동안 수요의 형태나 패턴을 분석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첫째, 시계열 예측은 과거 일정 기간에 동안 누적되어 온 자료의 흐름(예: 자기 상관, 안정성 등)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타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과거 자료를 필요로 하며 자료에 대한 이해와 검증, 안정성 여부 등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양하다. 거시경제, 금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외부 충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한 반응을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성배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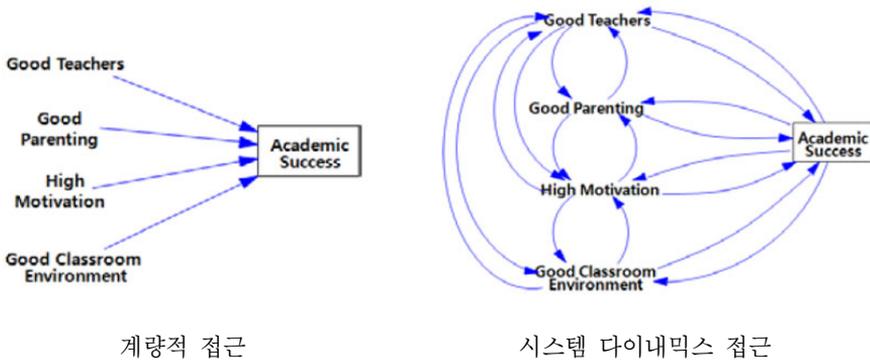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은 이동평균법의 응용형태로 모든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며 가까운 과거의 데이터에는 큰 가중치를 주고 먼 데이터에는 작은 가중치를 주어 분석한다. ② ARIMA 모형(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은 확률개념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추세, 계절요인

4) 유재국 외(2012). 입법 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5) 박성배 외(2012). 효과적 수요예측방법과 사례. SERI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등 비정형적 환경요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여 높은 차수의 경향성 및 불특정 비정형적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박유성 외, 2002).

둘째, 인과형 예측기법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예측 할 수 있다. ① 회귀분석법은 인과예측기법의 대표적 기법으로, 시계열 자료보다는 횡단면 자료를 주로 사용하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하여 과거 수요자료와 변수의 선형관계를 통해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게 된다(박성배 외, 2012). ②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은 시스템 내부의 다수의 개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구조를 모형화하여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변화과정을 다양한 시나리오 아래 구현·분석하는 수학적 방법으로 최근 국내에서 적용된 바 있다(유재국 외, 2012).



자료: 박성배 외(2012). 효과적 수요예측방법과 사례. SERI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p 42

[그림 11-2-1] 계량적 접근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의 비교-효과적 수요예측방법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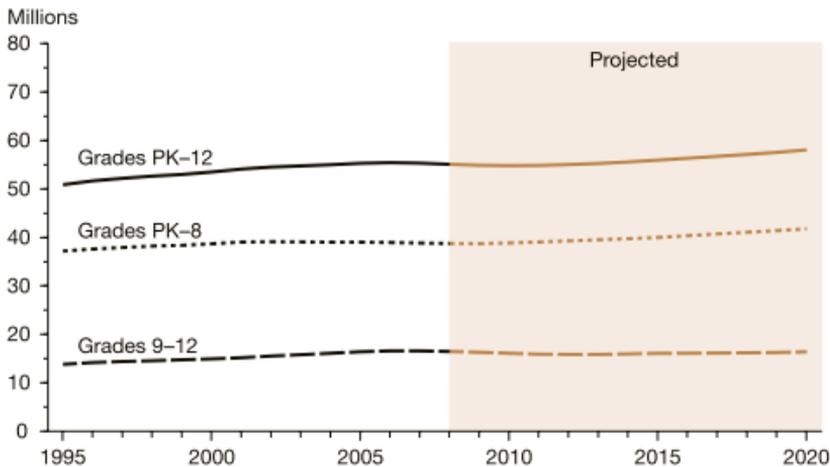
## 나. 수요예측 연구 고찰

상기한 수요예측의 기법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분야

미국 교육부 산하 국가통계센터(NC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소속 통계센터(IE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에서 수행하는 「교

육통계 예측보고서(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로 2011년 39회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NCES, 2011). 이 예측보고서는 미국 통계청(Census Bureau)의 출산율, 국내이주율, 국외이민율, 사망률에 대한 가정과 2000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초·중·고등, 평생 교육의 등록자수, 졸업자수, 교원수, 비용을 2020년까지 추정된 결과를 적용하여 미래 교육관련 수요 및 인프라에 대한 예측을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있다(NCES, 2011).



자료: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20.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11,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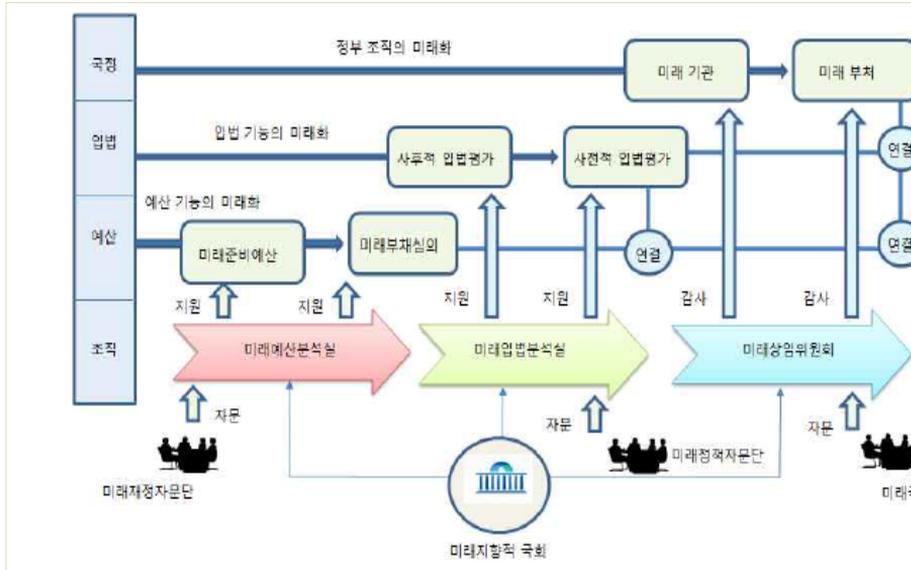
[그림 11-2-2] 교육과정별 취원아수의 실제와 추정

한국에서는 김현철(2000a, 2000b, 2002, 2009)의 중장기 유아교육 수요 예측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현철(2000a, 2000b)에서는 한국교육통계연보의 34년간 유치원기관수, 유치원 원아수, 교원수 자료에 대해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여 향후 10년간 통계치를 예측하였다. 대상연령의 인구수, 여성 경제활동인구수, 평균 가구원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독립시계열로 예측 모형에 적용되어 유치원 원아수 및 교원수가 예측되었으며(김현철, 2000a, 2000b), 2009년 연구를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 자료에 근거하여 시계열자료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적용, 2009~2013년 5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연령별 수요규모를 예측한 바 있다(김현철, 2009).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수요를 자기비용에 의한 기본적인 이용 아동 수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에 의한 신규 이용 아동 수로 구분하여 투입하였으며, 수용예측모형은 각 수요에 대해 이동평균모형과 시나리오

분석법으로 구분하여 적용 예측한 후 최종 통합 수요를 제시하였다(김현철, 2009).

## 2) 재정·입법·정책분야

재정입법 분야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 중,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간 기획으로 진행한 입법·정책 수요예측 시리즈 2010(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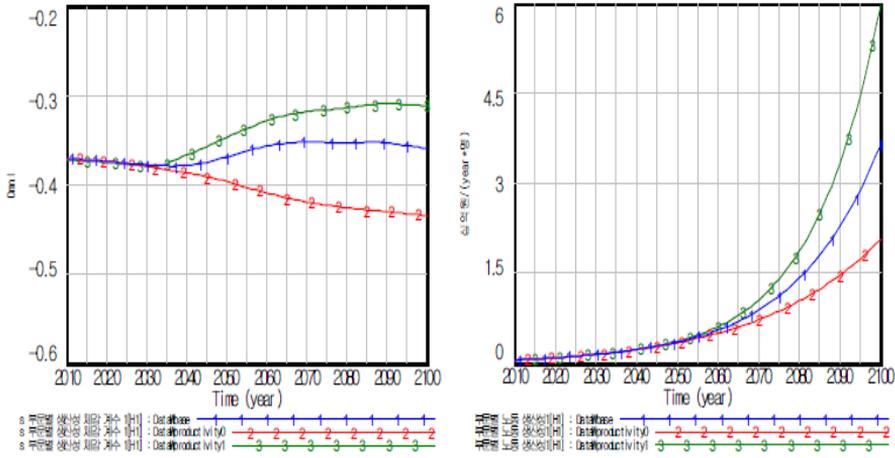


자료: 김동환 외(2010).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용역보고서. p 168.

[그림 II-2-3] 미래지향적 국회를 향한 제도화 과정

2010년부터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의 합리적 공급에 필요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을 수행, 2010년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에 기초한 기본모형을 개발하였고, 2011년에는 내부 전담연구팀에서 개발모형의 활용과 논리검증의 보완작업을, 2012년부터 전담팀에서 활용사례를 보고서로 발간중이다(7). 연속연구의 수행을 통해 미래세대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입법부 조직안을 제시한 바 있다(유재국, 외 2012, 그림 II-2-4 참조).

- 6) 유재국 외. NARS 정책보고서-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국회입법조사처 2012
- 7)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목록
  - 1호-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2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 3호- 장기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시사점, 4호- 공무원 인력의 수요예측과 시사점(계획 중)



자료: 유재국 외(2012).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p 85.

[그림 II-2-4] 생산성 시나리오의 계수값(좌측)의 변화와 생산성(우측) 변화 비교

다음은 시스템다이나믹스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사회 노동생산성을 예측한 연구 결과로서 시나리오별 노동생산성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별로 관련 변인들에 대한 정보값을 <표 II-2-1>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

<표 II-2-1> 노동생산성 관련 시나리오별 입력값

분류	입력변수	변수설명	시나리오 이름									
			기본	에너지	식품	주택	주택2	일자	인구	인구2	생산	생산
			base	energy	food	housing	housing 2	labor	pop	pop2	prodctivity0	prodctivity1
			B	E	F	H	H2	L	P	P2	PD0	PD1
노동 생산성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농업 임 업 및 어업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숫 자가 클수록 빨리 체감함)	50	50	50	80	50	50	50	80	50	51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광업	-	50	50	50	80	50	50	50	80	50	33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제조업	-	50	50	50	80	50	50	50	67	50	33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전기가 스증기 및 수도사업	-	50	50	50	80	50	50	50	80	50	17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건설업	-	50	50	50	80	50	50	50	80	50	68
	부문별 노동생산성 체감 계수 서비스업	-	50	50	50	80	50	50	50	41	50	36

자료: 유재국 외(2012). 입법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p 85.

3) 산업·마케팅 분야<sup>8)</sup>

2010년 기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을 때(PD0), 기본(B)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었을 때(PD1) 등 시나리오별로 조건과 입력 변수를 <표 II-2-1>과 같이 결정하고 예측값의 추이를 살펴보았다(유재국 외, 2012). 즉관련변인의 입력값을 조건별로 타당하게 설정하여 입력해야하므로 논리구조 상 연결고리간 관계를 수치화하는 작업에 고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마케팅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예측 연구사례로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보고서를 들 수 있다(박성배 외, 2012). 제품과 소비자의 특성, 경쟁제품의 출시 여부, 유통과정과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과 여러 범주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상시 시장조사와 규칙적 재확인으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1) 수요분석의 목적(미래예측, 시뮬레이션 등), 2) 과거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 3)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그림 II-2-5 참조)(박성배 외, 2012).

	전문가 활용	선호도 분석	데이터분석
기존 제품 수요 예측	델파이, Judgemental Bootstrapping	컨조인트 분석, 인덱스 분석, 정보 예측 시장	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공지능경망
신제품 수요 예측	델파이	컨조인트 분석, 정보예측 시장	확산모형
시뮬레이션	Judgemental Bootstrapping	컨조인트 분석	회귀분석, ECM, VECM, 시스템다이내믹스

자료: 박성배 외(2012). 효과적인 수요예측방법과 사례. SERI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p 57.

[그림 II-2-5] 목적·환경 조건별 수요예측기법

### 3) 공공분야

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미래수요 예측은 물, 에너지(예: 원자력발전 에 의한 전기에너지), 교통 및 주거 수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 중 물에 관한 수요예측은, 미래 필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 공급이 필요한지 혹은 물 부족량이 예상되는지,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단기 공급부족 또는 비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 사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물 값과 요금

인상에 따른 용수기관 재정과 물 사용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Billings, & Jones, 2008). 예측시계는 시간, 1일, 주, 최대 2주를 예측하는 초단기, 1~2년을 예측하는 단기, 7~10년을 예측하는 중기, 10~50년을 예측하는 장기로 이루어지며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표 II-2-2).

〈표 II-2-2〉 전형적인 물 수요예측 형식 및 적용분야

예측형식	예측시계	적용
장기	10~50년	원수 공급, 시스템 용량결정
중기	7~10년	용량결정, 정수장 및 급배수 시스템 개선, 투자, 물 요금설정 단계결정
단기	1~2년	예산, 추적 및 평가 프로그램, 재정예측
초단기	시간, 1일, 주, 최대 2주	최적화, 관리 시스템 운영, 펌핑

자료: R. Bruce Billings, Clive V. Jones(2008. Forecasting Urban Water Demand.. p 5.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요소로는 ① 인구, 고용, 기술, ② 일기 및 기후, ③ 가격, ④ 효율 및 보존 프로그램, ⑤ 급배수 시스템의 물리적 퇴화, ⑥ 미래 물 손실의 추정 등 다양한 관련 영역의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Billings, & Jones, 2008). 또한 1) 예측방법의 선정, 2) 자료수집 및 분석, 3) 예측 모델 확인, 4) 예측 모델의 추정, 5) 모델의 통계적 타당성 진단, 6) 신뢰구간을 포함한 예측 생산, 7) 예측 결과 평가, 8) 의사결정자들에 의한 예측 결과 사용, 9) 예측 오차의 소급 분석 등, 9단계 예측과정의 공식적인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물 수요예측을 시도한다(Billings, & Jones, 2008). 예측 모델로는 주관적 방법, 외삽법, 중회귀법, 비모수법 등이 있으며 예측목적, 자료 유효성, 예측 정확도, 예측 모델의 성능 및 진단에 따라 물 수요예측방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진다(Billings, & Jones, 2008).

공공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수요예측 사례는 전력 수급에 관한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3). 올해 2013년~2027년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적용되었던 미시적 관점에 거시적 관점을 추가 도입, 모형화 하여 예측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미시모형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을 3대 15개 부문(주택용 2, 상업용 3, 산업용 10)으로 분류,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변화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측

하는 것이고, 신규모형인 거시모형에 따르면 미래 경제성장 저망, 전력소비 추세, 주요 선진국의 전력수요 성장패턴 등을 반영하여 전력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다(지식경제부, 2013). 경제성장,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전기요금, 기상전망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2013년~2027년의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량을 산출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2013).

### 3. 육아정책 관련 미래연구

육아지원정책 관련하여 미래연구로 분류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육아 관련하여 미래전망과 추이분석, 수요예측을 실시한 관련 연구들을 예측시기<sup>9)</sup>별로 살펴보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육아지원정책 관련 미래 수요예측 연구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제시된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동향 자료의 축적과 그 변화에 대한 논의가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변인에 관한 종단적 추이와 미래수요 전망을 가능하게 한 연구들이다. 양육 및 출산, 가족 가치관 연구도 육아지원정책 관련 수요(예측) 연구의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 가. 중장기 연구

한국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김현철(2000, 2002, 2009)의 중장기 유아교육 수요 예측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김현철(2000)은 한국교육통계연보의 34년간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수, 교원수 자료에 대해 회귀분석법, ARIMA 모형을 적용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향후 10년간 통계치를 예측하였다.

또한 외국의 육아지원정책 관련 수요예측 연구로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연구 사례를 들 수 있다(Statistics Research Branch,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2002). 북아일랜드의 지역형평성 위원회, 고용부처, 보육파트너십 4개 기관, 경제정치학과 교수로 구성된 연합연구팀에서 북아일랜드 지역의 육아 관련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보육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보육서비스가 부족해서 여성의 취업률이

9) 수요예측에서 단기와 중기, 장기 예측의 구분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본 절에서는 5년 이상 예측을 중장기 수요예측으로, 5년 미만 예측과 논의에 대해서는 단기 수요예측으로 분류하였다. 수요예측과 구분하여 미래연구에서는 20~30년 이상에 대해 중장기라는 표현을 쓴다.

낮은 것인가? 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수요 전망 연구가 진행되었다(Statistics Research Branch,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2002). 연구방법으로는 육아 공급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과 부모 대상 설문조사, 기존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고, 여성취업률 변화 시나리오(동일/상승)로 5년 후, 10년 후의 보육시설과 개인대리양육자(day nurseries(creches), registered childminders, unregistered childminders, after-school clubs)의 수요 및 공급을 제시하였다(Statistics Research Branch,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2002). 북아일랜드의 육아정책 수요예측연구의 결과표 일부를 사례로 제시하면 [그림 II-3-1]과 같다.

**Table 1:** Projections of number of childcare places needed to 2005 and 2010

	Professional/Managerial		Other Occupations		Total
	Part-time	Full-time	Part-time	Full-time	
Projected increase in employment to 2005	700	500	31,700	-10,200	
Projected increase in employment to 2010	1,300	500	56,000	-23,200	
<b>Senario 1: to 2005</b>					
Number of jobs to be taken by mothers of children under 12 (33.6% of total)	235	168	10,651	-3,427	
<b>Required number of childcare places:</b>					
Registered Childminder	44	48	1,047	-485	654
Day nursery/creche	28	18	607	-45	608
After school Club	19	10	426	-55	399
<b>Total in first three categories</b>	<b>91</b>	<b>75</b>	<b>2,080</b>	<b>-585</b>	<b>1,662</b>
Unregistered childminder	55	56	1,406	-929	588
<b>Scenario 1: to 2010</b>					
Number of jobs to be taken by mothers of children under 12 (33.6% of total)	437	168	18,816	-7,795	
<b>Required number of childcare places:</b>					
Registered childminder	82	48	1,850	-1,104	876
Day nursery/creche	52	18	1,073	-101	1,041
After school club	35	10	753	-125	672
<b>Total in first three categories</b>	<b>169</b>	<b>75</b>	<b>3,675</b>	<b>-1,330</b>	<b>2,589</b>
Unregistered childminder	102	56	2,484	-2,112	529

자료: Statistics Research Branch,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childcare in NI. Labour Market Bulletin. 2002.

[그림 II-3-1] 2005, 2010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의 육아정책의 수요와 공급 전망

이 외에도 정경희·김유경(1997)의 「지역별 보육 수요와 정책방안」, 이미화 외(2008) 등의 「유치원 교사 수요 전망」 등 보육·유아교육 아동수나 참여율, 교사수 등에 대한 수요예측 연구가 있었다.

김현철(2009)은 지금까지 수행된 육아지원정책 관련 수요예측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보육분야의 관련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2001~2003년 이후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중장기 예측이 어려워 단기 예측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둘째, 유아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연구는 시계열분석에 의해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측값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외부요인의 영향에 탄력적이지 못하다. 셋째, 육아지원정책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극심하여, 정책변수가 주요변수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정책 변화 또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 등으로 장기 예측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김현철, 2009).

## 나. 단기 연구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5년 미만의 단기 수요예측 연구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단행본을 중심으로 1년의 단기 수요예측연구를 수행한 사례를 검색한 결과, 국내 경제전망과 시장동향편에서 선정한 2013년 국내경제 10대 이슈 중 육아정책의 영유아 무상보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복지와 뉘프(NOOMP)의 갈등'에 대해 논한 것이 있다(The economist한국경제신문, 2013). "뉘프란 '복지 확대는 찬성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반대한다(NOOMP: Not Out of My Pocket)'는 현상"(The economist한국경제신문, 2013, 94p)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양육지원의 정책 및 보편적 복지에의 수요가 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수행하는데 사회적 합의와 실천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당면한 정책수요 발생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측과 진단으로, 관련된 연구와 보도자료의 결과들을 인용, 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된 보도자료 성격의 단기진단과 예측이다.

## 다. 육아가치관 관련 미래전망 연구

앞서 논의한 미래연구 및 수요예측 연구의 개념과 틀에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으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장기적인 수요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30년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가족변화와 삶의 모습을 예측함으로써, 여성·가족정책 영역과 범주를 발굴하고 주요 가족지원정책 설계를 도모하는 4개년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 한국 가족변화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전망하였다면, 2012년 연구를 통해서는 미래 가족변화 관련 여성·가족 정책 전망을 구체화하여 시나리오로 제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장혜경 외, 2012).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의해 가족변화 관련 주요 환경변인을 인구, 정치, 경제, 과학기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별과제로 탐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일반인의 수용도와 선호 및 준비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 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임신출산 및 수유, 동거 및 비동거 가족생활실태, 자녀양육 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행동에 대한 종단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등(김승권, 2011), 미래 한국가족의 전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미래전략적 접근과 인구학적 접근 등의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이삼식 외, 2012).

그 밖에 유소년 인구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1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와 동태, 가족규모 및 생애주기적 변화에 기초한 미래 가족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왔다(예: 김은설·최혜선, 2008; 곽인숙 외, 2013; 최윤경 외, 2013; 이정원 외, 진행중). 국내연구를 통해 가족전반과 사회동향의 변화에 대한 주제별 전국 실태자료도 종단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그 경향분석과 추세가 곧 미래전망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예: 가족실태조사, 성인지통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통계청 사회동향조사 등). 세계적으로도 가족변화에 근거한 미래전망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2011)의 2030 미래가족변화 전망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의 4개 요인에 기초하여 경제적 성장이 지속된 미래사회 시나리오(Golden Age scenario)와 세계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Back to the Basics scenario)로 나누어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미래연구와 수요예측 연구의 동향과 관련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수요예측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연구 경향과 육아지원정책을 나누어 탐색하였는데, 전자에 대한 연구는 정책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후자의 육아지원정책 변인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단기예측과 중장기 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지원과 관련된 미래연구의 부족이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 그 이유는 첫째, 아직까지도 육아지원정책이 다른 분야의 정책 실행과 투자에 비해 시급성이나 중요도 면에서 낮은 순위로 인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의 육아지원정책의 경향을 볼 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감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예산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의 수립이 제대로 된 미래 전망이나 수요예측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셋째,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육이나 유아교육의 수요예측을 위한 전국 실태적 규모의 데이터의 축적이 어려워 사실상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부재가 크며, 관련 정책 변수의 변화가 큰 점도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연구설계

이 장 1절에서 3절의 미래연구관점의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의 설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방법과 절차의 검토

본 연구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미래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전망적 성격이 있으므로 연구의 방향을 ‘정책개발 도구로서의 전략적 미래전망과 예측’으로 설정하였다(김동환 외 2010). 이에 따라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미래를 대응, 선도하는 전략의 수립을 위해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향후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주요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 등 거시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정책의 제한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단, 예측의 정확성보다는 미래 방향성을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도모함을 밝힌다.

김동환 외(2010)가 제시한 전략적 미래예측의 3단계- 1) 정보의 조기발견과

분석, 2) 미래예측 지식의 축적, 3) 미래 정책 옵션의 개발 -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과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가 대입 가능하다(Martin & Irvine, 1989 p24; 김동환, 2010 p7 재인용).

〈표 II-4-1〉 전략적 미래예측의 단계별 과정

단계	정보 발견, 분석	지식의 축적	정책 옵션 개발
목표	체계적 증거수집	주제선별	미래 시나리오 제시
과정	‘환경스캐닝’ 불연속 경향 등, 이슈에 대한 정보의 관찰과 증명	중요도, 포괄성, 정책지원 가능성, 타당성, 실현성 고려	가능성, 타당성, 개연성, 선호성 고려. 심층면담조사, 문헌고찰
적용 방법	맥락적 관점에서의 인간발달 생태학적 환경(Bronfenbrenner 외 1993)	CLA기법, 시계열분석	일반인,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
범위	-경제성장률 -여성경제참여율 -결혼율 -출산율 -가족형태 -기관서비스이용률 추이 -교직원 자격, 수 변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가치관 -서비스 및 현금지원 수혜 및 이용률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아동의 복지 향상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보편 vs 선별 정책 -공보교육 vs. 사보교육 -공공성 vs. 자율성 -시설보육 vs. 가족 친화적 양육지원 확대 -현금(아동수당) vs. 서비스(양육수당) 지원

자료: 김동환 외.(2010).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용역보고서. p5~8의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과정을 도식화함.

## 나. 수요예측 방법

### 1) 수요예측 기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 단기수요예측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검토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수요전망과 예측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기반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시계열 분석이란 관측시점까지의 과거 시계열 데이터가 예측치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과거수치를 근거로 자기상관과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점검하여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가 많을수록, 변동이 규칙적일수록, 영향요인을 잘 선정할수록, 미래값 예측이 더 정교해진다. 그러나 1965년부터 시작된 문교통계연보와 1991년부터 대체된 교육통계에 비해 보육통계에서 보육 참여아동에 대한 만 5세까지의 연령별 자료가 수집된 것이 2001년부터이며 연령구분 범주가 통일된 시점은 2002년부터,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03년부터이므로 자료의 시계열 수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국의 보육·교육 자료 상황을 고려하여 김현철(2000a, 2000b, 2000c, 2009), 정택희 외(1998, 1999)등이 진행한 연구는 유치원, 초등, 중등 중심의 교육 학생수, 교사수로 국한되어 있으며, 적은 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모형을 추정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모형, 지수평활모형,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국내 선행 연구자들이 활용한 방법 중 가장 적은 자료수로 예측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수평활법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축적된 시계열 길이가 짧아 장기 예측의 정확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떨어지고 새로운 정책 변수의 출현도 예상되므로 실효성 훼손의 가능성이 커 향후 5년간을 전망하도록 설정하였다.

둘째, 육아지원정책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에서는 예측을 하려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수 등을 종속 시계열로 하고, 이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 시계열을 발굴하고 독립시계열들이 종속 변수에 대하여 끼치는 영향력을 함수형태로 검토한 후 미래값을 추정한다. 실제 정택희(1998, 1999), 김현철(2000a, 2000b, 2002, 2009) 등도 여성 경제활동인구수, 평균 가구원수, 일인당 가처분소득 등 여러 영향 변수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정책변수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공통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정책변수의 효과는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사업 또는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의해 부모가 가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자녀를 기관에 보내기로 결정하거나, 집에서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정부 정책에 의한 발생적 수요라 한다(김현철, 2009). 0~만 5세 보육료 교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부담이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보·교육기관의 이용률 변화(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된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 수요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지 못한 시기에 본 연구가 진행되어 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 하위 70% 또는 50%에게만 보육료·교육비가 지원되던 때의 정책효과로 2013년 이후 미래 사회의 무상지원 정책에 의한 발생적 수요를 전망하기는 더욱 어렵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가 국정과제로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선정하였고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등 보·교육에 대한 국가 주도적인 구체적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비선형적, 확산적 변화가 예상된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로 신규 확충하여 전체 보육 아동의 30%수준까지 확대하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b), 여성경제참여율을 2017년까지 61.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정량 분석에서는 종속 시계열 변수 자체의 과거 자료 부족과 유보통합 등 다층 다분야의 영향요인의 선별과 및 이들의 되먹임 구조(feed-back)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한 변화를 “정책에 의한 발생적 수요”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기 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정된 상태에서(독립시계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변량 시계열분석을 실행하여 보·교육 이용 아동, 교직원, 보·교육 시설의 향후 5년 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2017년 예상되는 0세 아동 수는 45만 명이고, 이중 현재 보육율 증가 추세를 적용하여 단변량 시계열 분석을 통해 0세 보육정율이 18만 명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공보육 비율 20%를 적용하였을 때 2017년 3만 6천명이 국공립에 다닐 수 있지만, 2017년 공보육 비율 30% 목표(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b)를 달성하려면 5만 4천명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야 하므로 즉 1만 8천명을 신규 국공립 2,175개소 및 기존 시설을 확충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책 수요가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양육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관찰되면 일방적인 시설확충보다는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창출 등 사회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

또한 2012년 여성 전체 취업률 53.5% 대비 유자녀 여성 취업률이 42.5%로 가정하였을 때 여성 취업률 대비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의 비중(79.4%)이 2017년에도 유지된다면, 2017년 여성 취업률 61.9%이 달성되었을 때 유자녀 여성 취업률은 49.2%이 된다. 2017년 보·교육 기관의 예상 수용인원이 현재와 같이 220만 명이고, 어머니들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2012년과 2017년에 큰 차이가 없다면

(2012년 기준 75.2%),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2017년 아동인구 270만명 중 200만 명이 보·교육 시설에 다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보·교육기관의 정원증축률이 5년 후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하여 향후 5년간 보·교육시설의 확충 또는 취업모 등 필수적 수요 위주의 선별적 정책을 고려하는 등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단변량 시계열예측

영유아 인구수는 우리나라 공식 인구인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활용하였고(박유성 외 2010; 통계청 2010, 보육통계 2012의 연도별 영유아 추계 인구에서 재인용) 시설의 어린이집(0~만 5세 기준)과 유치원 아동수(만 3~5세 기준)는 보육통계와 교육통계 연보자료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하였다(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03~2012;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2003-2012).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보육 교육 이용 아동 수에 대한 시계열 예측을 위해 감쇄추세지수평활법(damped-trend linear exponential smoothing)을 활용하였다. 본 방법은 시계열의 변동이 빠르지 않고, 시계열의 증가추세가 점차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과거 자료의 추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모형의 기본 형태는 식(1)과 같고,

$$\begin{aligned} Y_t &= \beta_0 + \beta_1 t + \epsilon_t, \\ L_t &= \alpha Y_t + (1 - \alpha)(L_{t-1} + \delta T_{t-1}), \\ T_t &= \gamma(L_t - L_{t-1}) + (1 - \gamma)\delta T_{t-1} \end{aligned} \quad (1)$$

$k$ 차 예측식은 식(2)와 같다.

$$\hat{Y}_t(k) = L_t + \sum_{i=1}^k \delta^i T_t \quad (2)$$

식(1)에서  $Y_t$ 는 원래의 시계열을 나타내며,  $\alpha$ ,  $\gamma$ ,  $\delta$ 는 순서대로 평활가중치(level smoothing weight), 추세평활가중치(trend smoothing weight), 감쇄평활가중치(damping smoothing weight)를 나타낸다.  $L_t$ 와  $T_t$ 는  $\alpha, \gamma, \delta$ 에 의해 계산되는 평활시계열이다.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은 확률모형에 기반을 둔 예측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값을 이용한 모수의 가설검정결과는 의미가 없다.  $Y_t = \beta_0 + \beta_1 t + \epsilon_t$  는  $Y_{t+k}$ ,  $k \geq 1$  인 경우의 값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정  $\alpha, \gamma, \delta$ 와 마찬가지로  $\beta_0, \beta_1$ 의 가설검정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S의 모수추정결과에서 검정결과가 제시되는 이유는 SAS에서는 지수평활법의 모수추정에 ARIMA 프로시저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모형이 얼마나 실제 자료에 잘 적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적합통계량이 기준이 된다. SAS에서 제공되는 적합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이다.  $Y_t$ 를 원래의 시계열이라하고,  $\hat{Y}_t$ 를 예측시계열이라고 했을 때 MAPE는 식(3)으로 정의된다.

$$MAPE = \frac{100}{n} \sum_{t=1}^n \left| \frac{Y_t - \hat{Y}_t}{Y_t} \right| \quad (3)$$

MAPE가 10% 보다 작은 경우 적합이 잘된 경우를 나타내며, 5%보다 작은 경우는 개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합이 매우 잘되었음을 의미한다.

## 나. 일반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미래 전망

인과다층분석(CLA)은 사회현상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미래 현상을 예측하는 미래연구 기법의 하나로, 미래 관련 요인을 가시적 현상, 사회적 구조적 원인, 세계적 흐름과 담론, 무의식의 4차원으로 구성한다(Inayatullah, 2004). 즉, 무의식에서 세계적 흐름과 담론, 사회적 원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려할 수 있어 조건, 상황에 따라 연구범위의 확장이 용이하며, 다학제 간의 담론이 가능

하며, 또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한 정책 결정과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미래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CLA의 다층적 요인의 구성을 참조하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다차원 요인 중 ‘사회문화, 정책’과 ‘현상’ 수준의 가치적 변화를 변인으로 하였다. 또한 아동 발달에 대한 맥락적 관점에서의 생태학적 환경(Bronfenbrenner, 1979)을 기준으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사회과 국가, 세계경제 등 각 차원의 주요 요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평정하게 하였다. 현상 수준의 주요 변인으로 보·교육 이용 아동 수를 선정하였고, ‘사회문화, 정책’ 수준에서는 인구학적요인으로 결혼율, 출산율, 가치관 변화를, 양육환경으로 세제혜택,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 기타 인프라 확충 등을 살펴보았다.

〈표 II-4-2〉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CLA의 수준별 영향요인 구성

수준	영향요인
현상	영유아수, 기관수, 교원수, 혈연·비혈연 대리양육 서비스 이용률, 기관 서비스 이용률, 현금지원 수혜율 등
사회문화, 정책	만혼화, 여성의 경제참여율, 유자녀 여성의 경제참여율, 교사자격, 교사임금, 유보통합, 국공립 시설 비중, 근로문화의 변화(육아휴직, 근로유연제, 출퇴근시간), 정부지원에 의한 발생적 수요, 세제혜택,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등
담론, 관념	경제성장률, 육아가치관, 결혼 가치관,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 국제사회 기준 달성에 대한 국가목표(OECD 등), 국가의 이데올로기(복지, 자유경쟁 등), 세계 정책의 흐름 등
무의식, 신화, 은유	유교문화, 가족주의, 소비중심 물질주의, 단일 민족주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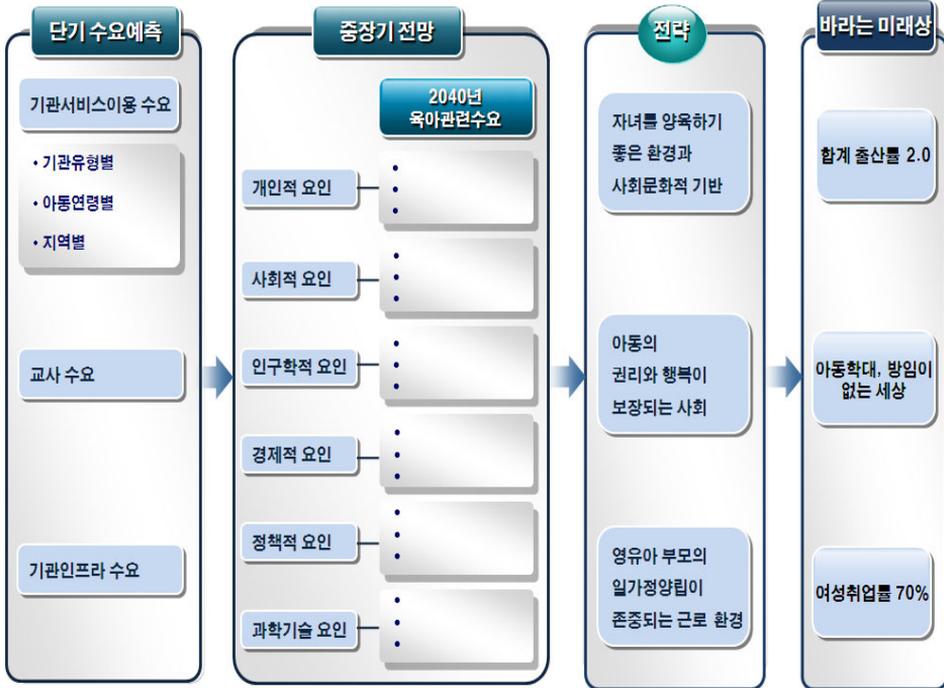
## 다. 연구모형

이상의 정성적, 정량적 연구기법의 적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전망, 예측하고자 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변인을 [그림III-4-1]로 구성, 제시하였다. 단기적 수요 예측과 중장기 전망이 정성적, 정량적 기법으로 방법론적으로 예측시기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예측·전망하고자 하는 미래변인은 육아지원정책의 수요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단기예측을 통해 육아지원의 확대에 당면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을 육아관련 생태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

며, 또한 미래사회에 바라고 필요한 육아환경과 양육형태의 전망을 통해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미래전망과 육아관련 요인, 그리고 바라는 미래상에 다가가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세 가지 전략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 조사와 관련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결과이며, 이는 다시 설문조사와 예측결과를 통해 재구성되었다. 즉, 제시된 육아지원정책의 세 가지 전략은 본 과제에서 미래 육아지원정책을 예측, 전망하기 위한 도구이자 결과이며,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육아관련 정책 목표와도 수렴하였다.

수요예측의 결과치와 설문조사 결과, 심층면담결과가 육아지원 미래연구 과정의 환류에 반영되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11-4-1]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 연구모형

### Ⅲ.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에 대한 단기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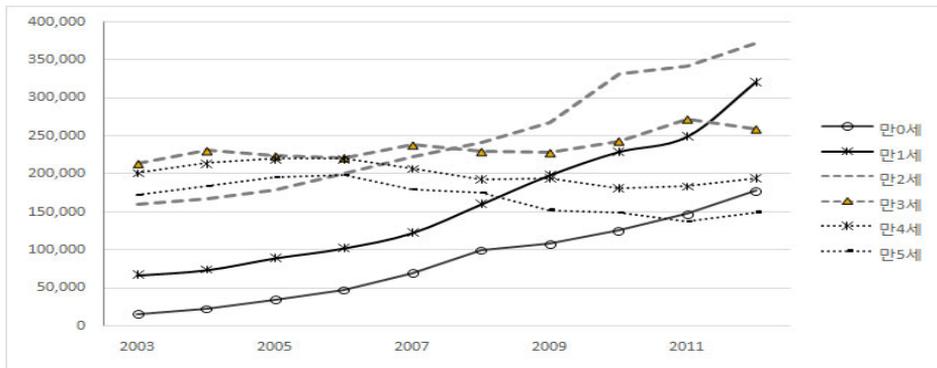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영아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당면한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항목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전국 연령별 지역별 수요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육아지원의 확대에 따른 현재 시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과제를 탐색하였다. 2012~2013년 무상 보육·교육 및 양육수당의 지원체제로, 당면한 기관서비스 이용(율)의 추이와 함께 교사, 기관수에 대한 향후 5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현재 육아지원정책이 기관인프라와 서비스내용, 인력수급 등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논의하였다.

#### 1.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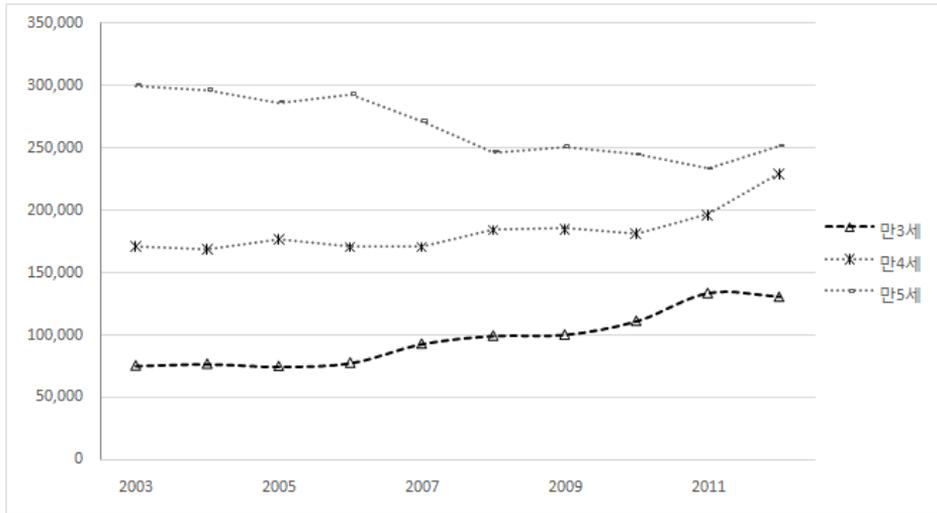
##### 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

###### 1)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수 추이(2003~2012년)

시계열 예측 분석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03~2012;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2003~2012)의 시도표(time plot) 그림을 그려 기존 기관서비스 이용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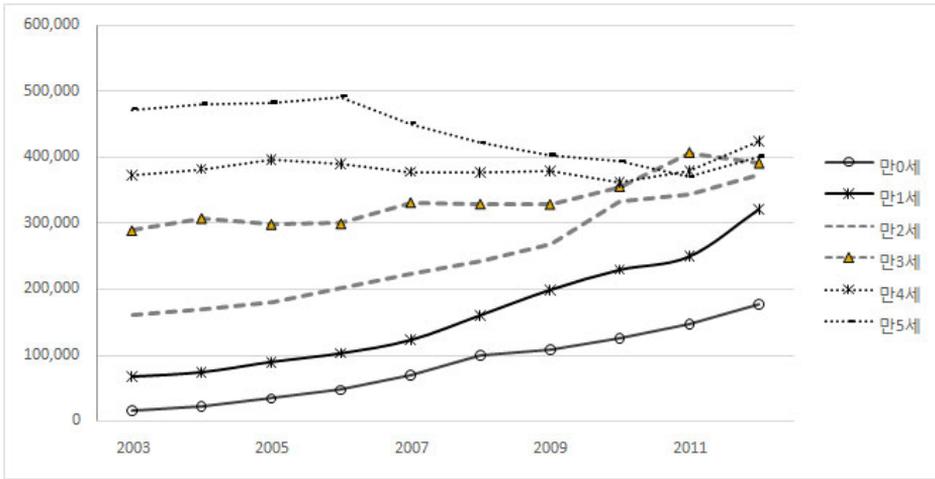
[그림 III-1-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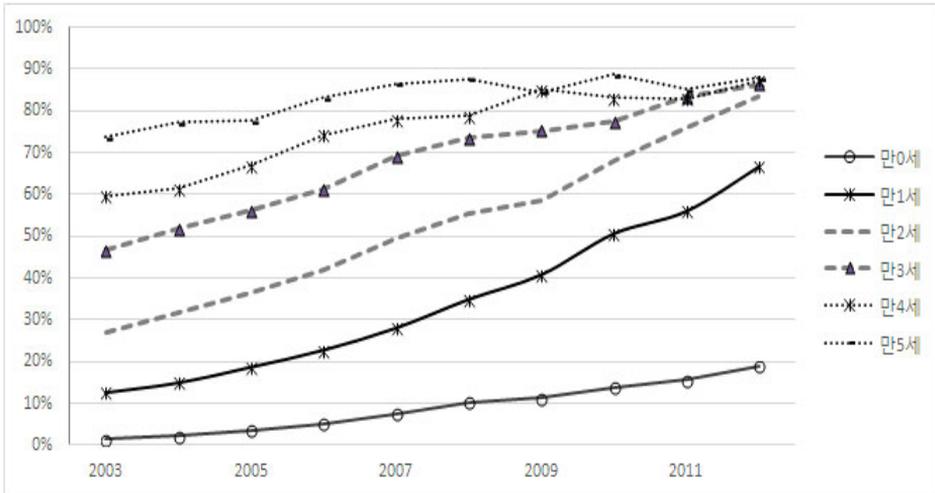
[그림 III-1-2] 유치원 이용 아동 수(2003~201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최근 10년 경향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만 3, 4, 5세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만 1, 2세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 이용 아동 수도 어린이집과 같이 연령별 특징이 있었는데 만 3, 4세의 경우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만 5세의 경우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가 2012년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 이용 아동수를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 3~5세에서는 이용자 수에 변동이 크지 않는 반면, 만 1~2세에서는 증가세가 비교적 뚜렷하다. 이에 대해 유형화가 가능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 수로 시도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III-1-3]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가 만 1~2세 집단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나 만 3~5세 집단은 만 4세를 기준으로 약 40만명 수준으로 이용 아동 수가 안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만 3세는 완만한 증가 경향을, 만 5세는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임).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함께 해석해 보아야 하므로 [그림 III-1-3]에서 관찰되는 것만으로는 변화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림 III-1-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그림 III-1-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동일시기, 동일연령 추계인구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전체 아동 수를 동일 시기와 동일 연령 대비 추계인구수로 나누어 이용률을 산출한 결과(그림 III-1-4),<sup>10)</sup> [그림 III-1-3]에 비하여 좀

10) 추계인구와 보육, 교육통계인구의 집계 기준이 상이하어 관계 기관에서 보고된 연령별 보·교

더 명확한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현재(2012년)와 같은 정책적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용률이 증가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약 80~90%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 2세의 경우는 만 3~5세의 과거 추세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 1세의 경우는 만 2세의 변화를 약 20%p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0세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만 1세의 증가율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 2) 향후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수 예측(2003~2018년)

이용 아동수를 직접 예측하기보다 이용 아동비율로 변환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에 대하여 2018년까지 감쇄추세지수평활법으로 향후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 예측을 실시하였다. 다음 식(4)와 같이 원 계열을 변환하였다. 식(4)에서 연령은  $i = 0, 1, 2, 3, 4, 5$  으로, 시점은  $t = 2003, \dots, 2012$  으로 적용되었다.

$$Y_{i,t} = \frac{\text{연령 } i, \text{ 시점 } t \text{에서 시설보육 이용 아동수}}{\text{연령 } i, \text{ 시점 } t \text{에서 인구수}} \quad (4)$$

예측완료 후 예측결과에 인구추계상의 해당연령의 추계인구수를 곱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의 최종 예측치를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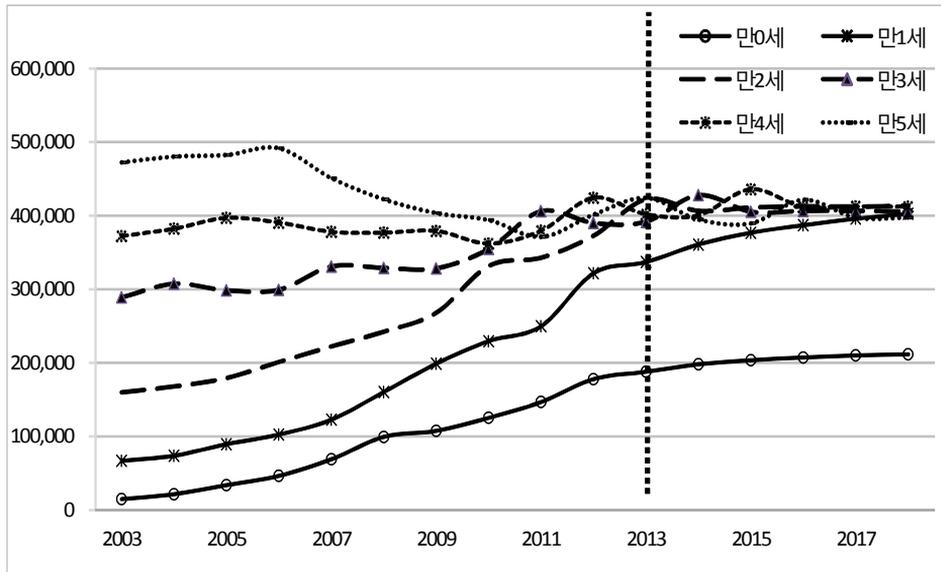
[그림 III-1-5]에서 세로 점선이 예측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3년을 나타내며 2018년까지 예측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측결과에 의하면 2018년에 만 1세~만 4세는 이용아동 수가 약 40만 명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0세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약 20만명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10년간의 증감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향후 5년간 만 0, 1, 2세 영아의 기관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 만 2세는 2013년 유아의 수준과

육시설 이용률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2012년 0세 이용률= 2012년 0세반(보육연령) 이용 아동수/2011~2012년 2년간 출생 아동수

거의 동일한 이용률을 보인다. 만 1세와 0세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 1세의 기관이용률이 향후 5년 이내에 유아와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0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는 대상은 만 0세와 1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예측결과는 전반적으로 2003년~2012년 실제 자료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1-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2003~2018)<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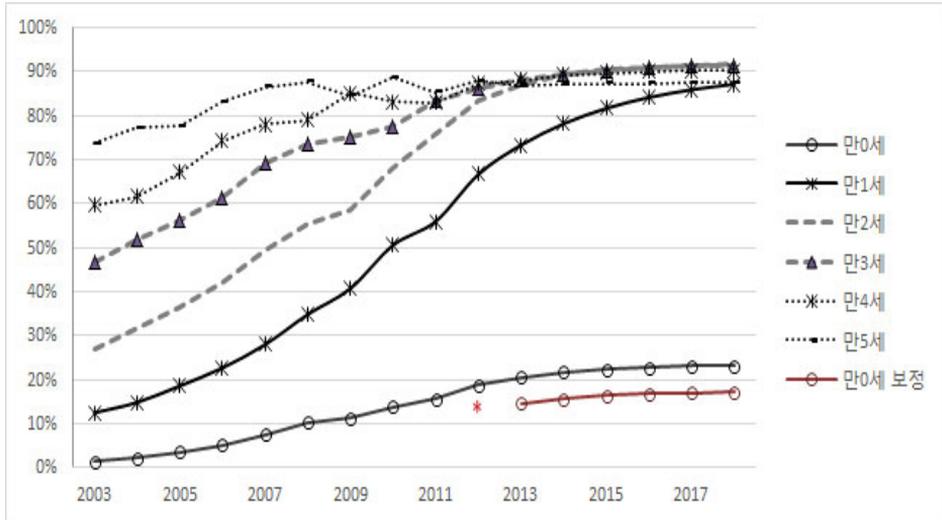
11) <표 III-1-1> 각 세별 예측모형의 적합통계량

Statistic of Fit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N(Number of Nonmissing Observations)	10	10	10	10	10	10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	10.212	7.426	6.397	3.340	3.581	3.009
RSQUARE(R-Square)	0.960	0.965	0.954	0.952	0.861	0.642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69.476	-62.355	-59.101	-65.468	-61.118	-64.195
SBC(Schwarz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68.569	-61.447	-58.194	-64.560	-60.210	-63.287

모형의 적합성 판단은 MAPE 적합통계량을 활용하였음. 0세의 경우 MAPE 값이 10%를 약간 넘었으나 문제없는 수준이며 다른 연령에서는 3%까지 내려가 적합도가 매우 높음. RSQUARE 적합통계량은 본 분석결과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일례로, 5세의 경우 RSQUARE는 0.64로 다소 낮지만 MAPE는 3.0%이며, 작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AIC와 SBC값도 음수로 나타나 모형이 잘 적합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3) 전국 합으로서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및 아동수 예측

다음의 [그림 III-1-6]은 예측결과를 각 연령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 예측값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역별 예측을 실시하여 지역별 기관별 합으로 전체 예측값을 산출한 결과이다.



주: \* 14.2%를 의미함(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0세 어린이집 이용률).

[그림 III-1-6]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값<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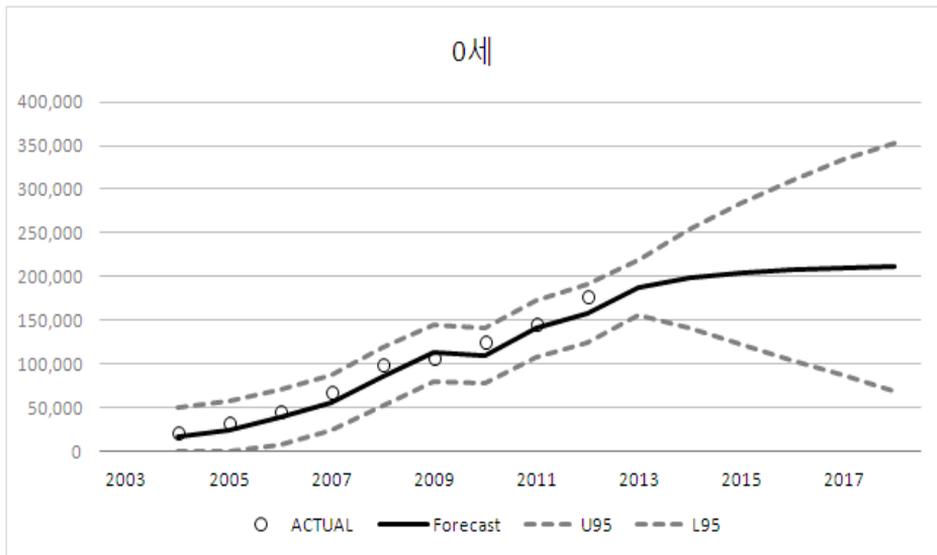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값의 특징을 연령별로 비교하였을 때 만 3~5세는 과거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 80~90%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고 만 1~2세의 경우 급격한 상승으로 5년 후 만 3~5세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0세의 증가속도는 만 1~2세보다는 낮으나 만 3~5세보다는 높아 5년 후 약 4%p의 상승이 예상된다.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인 0세 이용률(14.2%)을 기준으로 예측한 0세 이용률의 수요예측을 별도의 선으로 추가 제시하였다.

12) 전국 보육실태조사 2012(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에서는 2012년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이 0세 14.2% 1세 63.4%, 2세 85.2%로 조사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서는 2013년 0세 어린이집 이용률을 14.2%로 추정함.)

- 본 분석 결과는 2003~2012년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자료만을 반영하여 예측한 결과로 2013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 양육수당의 효과(정책의 발생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 함. 따라서 0세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이 5~6%정도 높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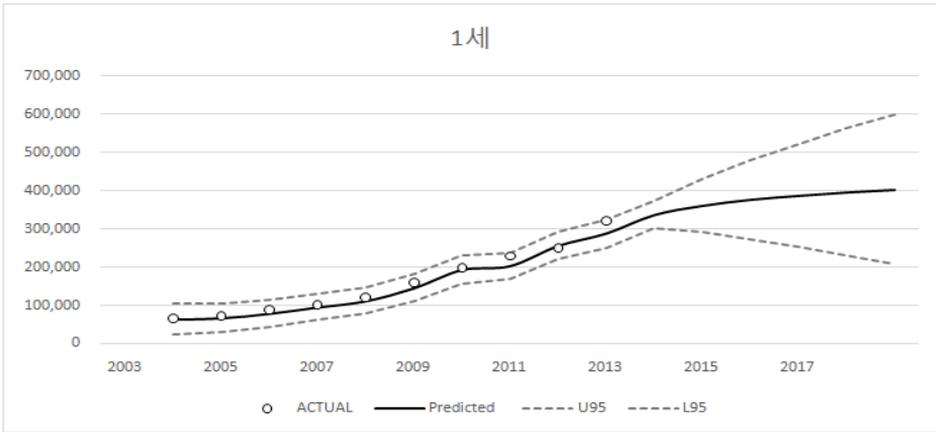
장래 추계 인구에 미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적용하여 이용 아동수를 추계한 결과, 0~만 2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년 후 0세 3만명, 만 1세 7만명, 만 2세는 4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5세 이용 아동수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하거나 5천~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의 측면에서 0, 1세는 매우 완만히 증가한다면, 3, 4, 5세는 기관이용 아동수의 눈에 띄는 증가 없이, 40만명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학직전 5세아는 향후 5년간 증감의 출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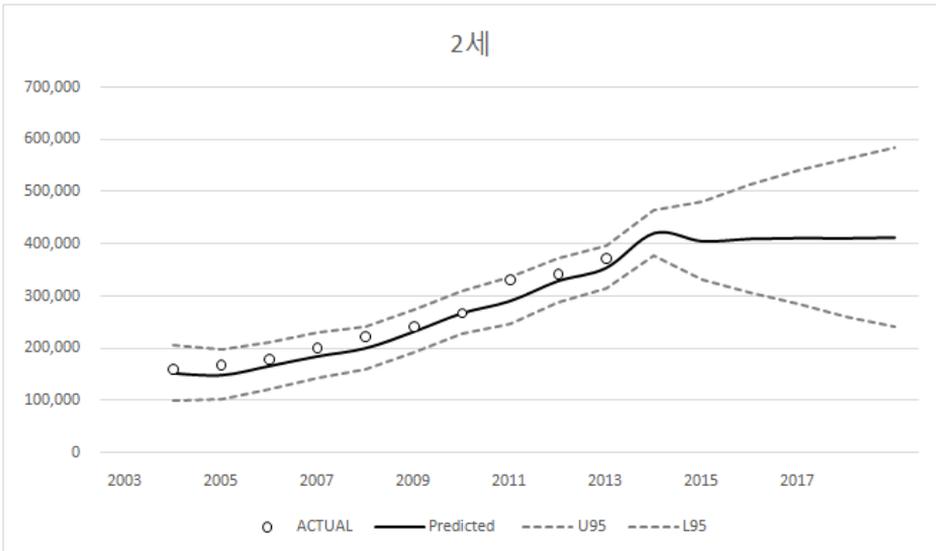


[그림 III-1-7]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0세)<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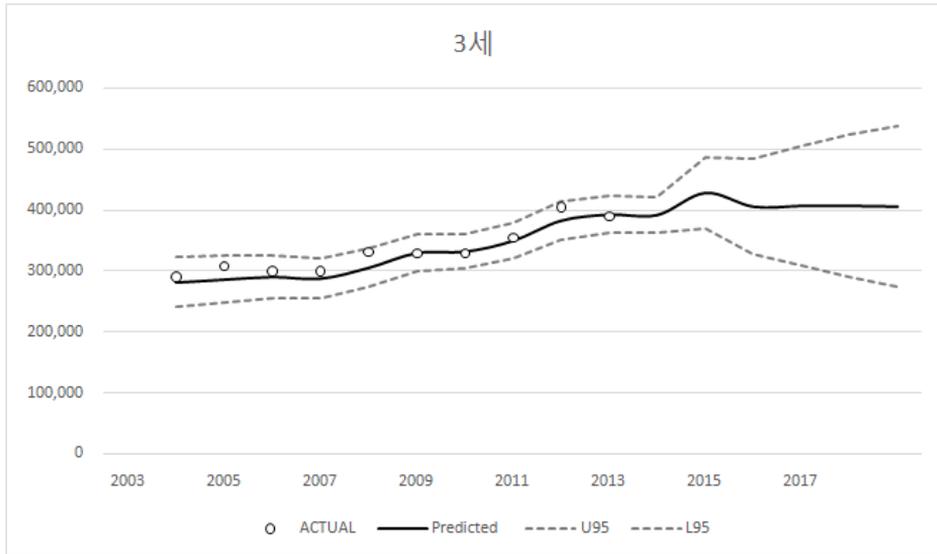
13) 본 그림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은 95% 신뢰구간 산출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16개 시도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x 추계인구 수의 총합으로 산출된 예측값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값(원표시), 예측값(실선), 95%신뢰구간(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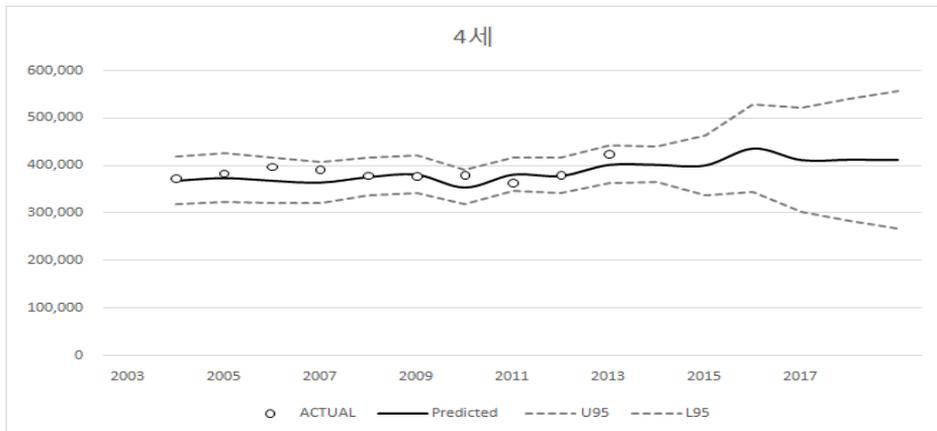
[그림 III-1-8]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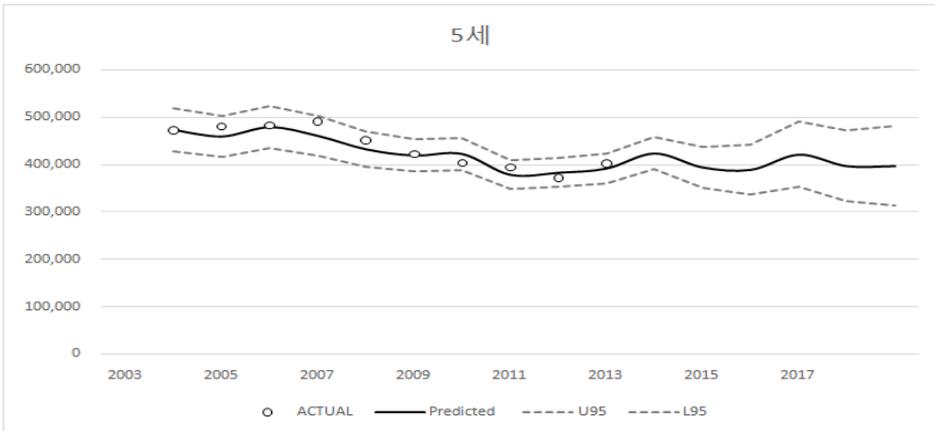
[그림 III-1-9]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2세)



[그림 III-1-10]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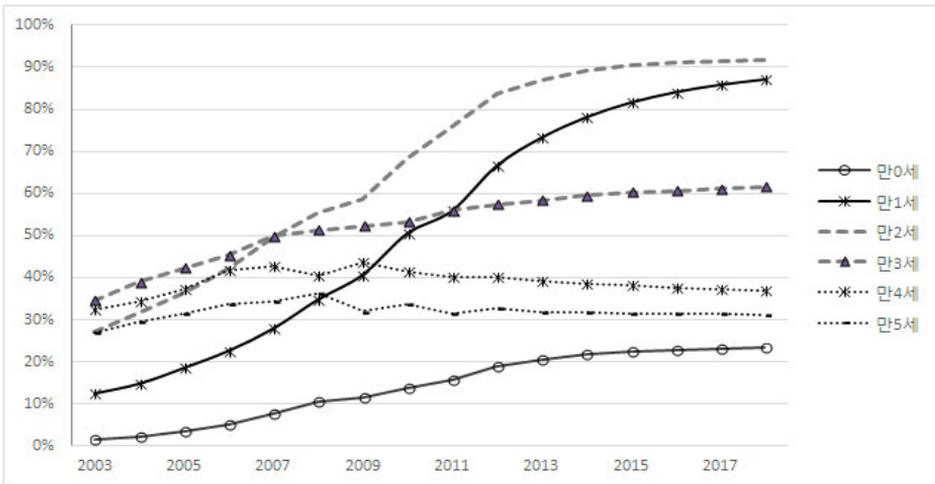
[그림 III-1-11]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4세)



[그림 III-1-12]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만 5세)

가)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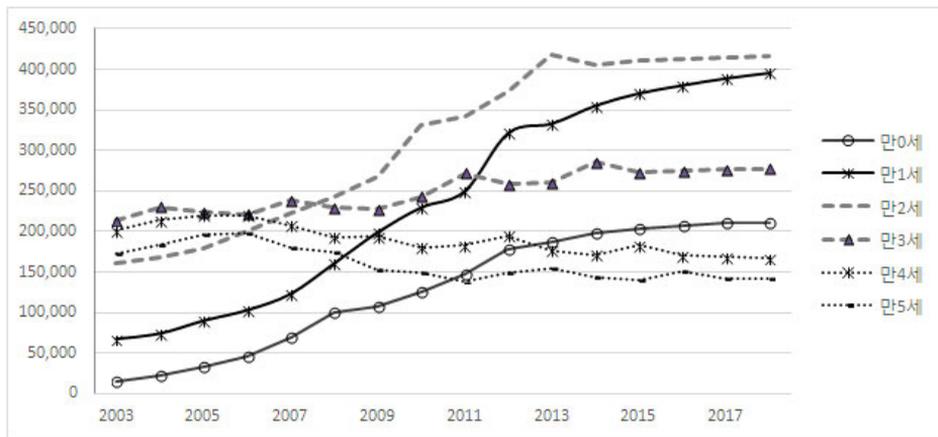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어린이집의 이용률 예측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만 4~5세는 과거 이용률과 유사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만 4세: 37~39%, 만 5세: 31~32%) 만 3세의 경우 2012년 57%에서 향후 5년간 5%p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1-13]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값

만 1~2세의 경우 급격한 상승으로 5년 안에 이용률이 80~90%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0세 이용률의 증가폭은 만 1~2세보다는 낮으나 만 3~5세보다는 높은 완만한 증가세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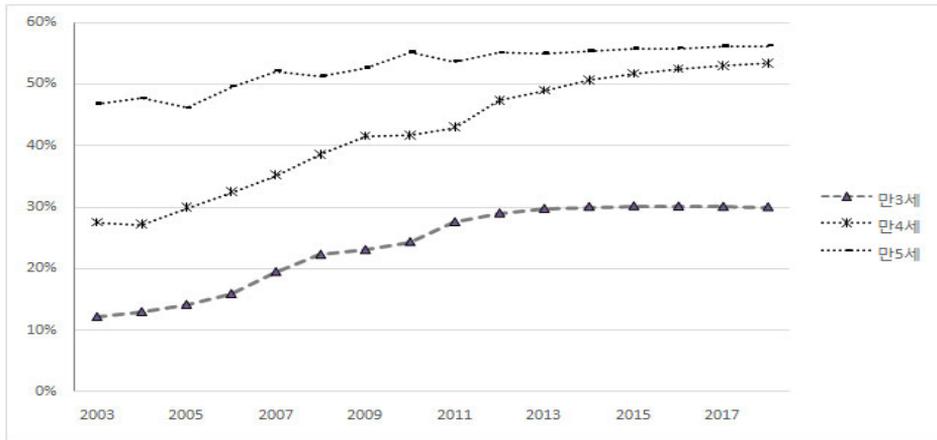
장래 추계 인구에 미래 어린이집 이용률을 적용하여 이용 아동수를 추계한 결과, 큰 폭 상승하여 5년 후 0세는 3만 여명, 만 1세는 7만여 명이 더 늘어나고, 만 2세는 4만여 명, 만 3세는 만8천여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 4, 5세 이용 아동 수는 현재 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만 4세: 2만 7천명, 만 5세 8천여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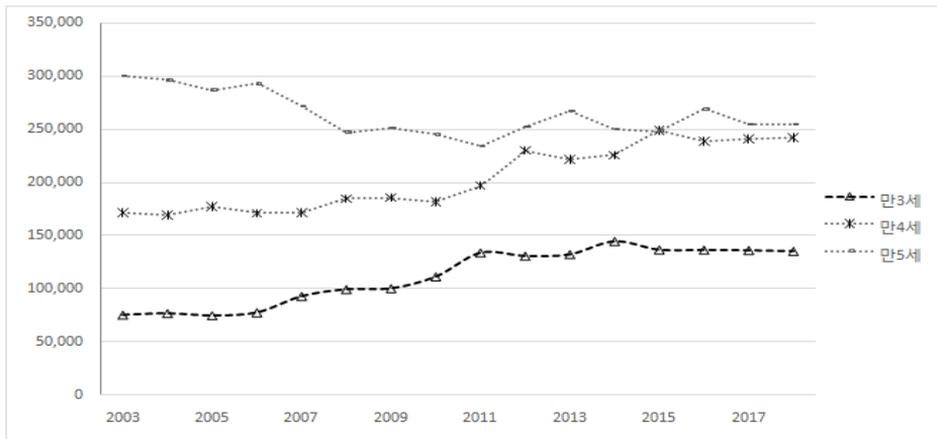
[그림 III-1-14] 연령별 전국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예측값

#### 나) 유치원 이용률 예측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이용률은 만 3세 1%p, 만 4세 6%p, 만 5세 1%p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5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만 3세 4천여 명, 만 4세 천여 명, 만 5세 2천7백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와 같은 예측은 과거 십여 년간의 유치원 이용률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도출된 결과로,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III-1-15] 연령별 전국 유치원 이용률 예측값



[그림 III-1-16] 연령별 전국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예측값

##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예측<sup>14)</sup>

### 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및 아동수 예측

14) 해당 결과의 그래프는 부록 2 참조

16개 시·도로 구분<sup>15)</sup>하여 지역별 보육·교육 이용률 및 이용 아동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2012년 현재 만 2, 3, 5세의 이용률이 80% 이상이며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 4세도 향후 3년 안에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 2세 집단은 2015년 90%에 진입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0세의 경우 2013년 30%에 근접하여 향후 4년 간 10%p 내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2~5세의 각 연령별 이용 아동 수는 6~7만 명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인천, 대구는 만 3~5세 집단의 현재 기준 80% 이용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급속한 성장 추세에 의해 향후 1~2년 사이에 만 2세 집단은 80%에, 만 1세 집단은 70%에 진입하여 높은 이용률이 예상되며, 0세의 경우 인천과 대구에서 향후 1~2년 안에 20%에 진입하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 1~5세의 각 연령별 이용 아동 수는 부산에서는 2만 5천명, 인천에서는 2만명, 대구는 1만 7천명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도 관찰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에 따른 높은 이용률에 진입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만 1세: 2014~2015년경 80%에 진입; 0세: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2013~2016년경에 20%대 진입).

광주, 대전, 경기의 경우 만 1~5세 집단의 현재 이용률 80%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0세는 2013~7년경 27%대에 진입하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 1~4세의 각 연령별 이용 아동 수는 광주, 대전에서 1만 3~4천명으로 경기에서는 11~12만 명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만 1~5세 집단의 현재 이용률 80%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0세의 경우 2015년 35% 이용률에 진입하며 추후 5년 간 6%p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1~5세의 각 연령별 이용 아동 수는 5천명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지역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예측<sup>16)</sup>

### 가)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지역별 기관이용 수요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만 5세는 상대

15) 세종시는 과거 자료 부재로 예측에서 배제되었음.

16) 해당 결과의 표는 부록 3, 4 참조

적으로 낮은 이용률(20%)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지역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률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강원(44%), 제주(42%)로 구분된다. 광주(40→30%), 충북(45→39%), 전북(46→39%), 전남(51→46%)으로 현재 대비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만 4세에서는 부산과 울산에서 2012년 현재 28~29%의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 충북 지역에서는 2012년 56%의 높은 이용률이 5년 후에도 50%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주는 높은 이용률 74%이 향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대구(34→27%), 광주(44→36%), 충남(46→41%), 전북(50→41%)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5년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대구(67%), 전남(69%), 경북(63%), 제주(95%)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1~2세의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국 규모의 예측결과와 유사하다.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서울(14→19%), 울산(14→17%)에서 다소 낮게 예상되나, 광주(25→30%), 대전(23→27%), 경기(22→27%), 전북(25→29%), 경북(21→26%), 경남(23→27%), 제주(30→36%)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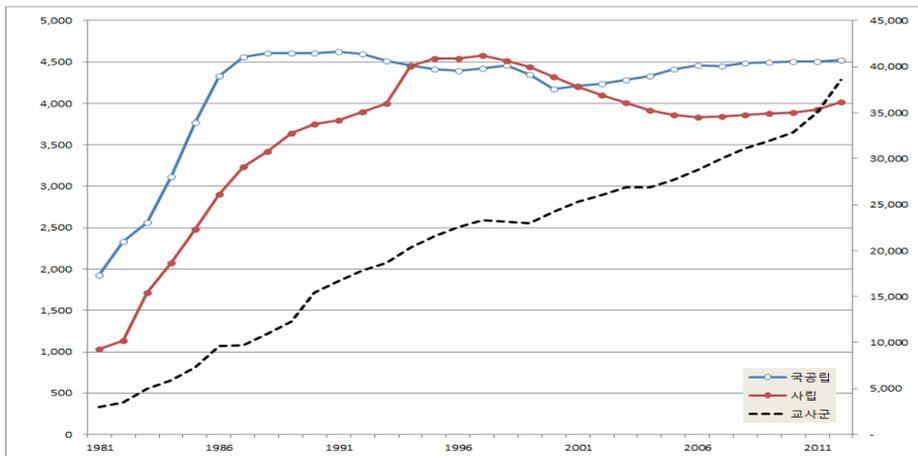
#### 나) 유치원 이용률 예측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이용률은 만 5세 55%에서 1%p, 만 4세 47%에서 6%p, 만 3세 2012년 현재 29%에서 1%p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5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국규모에서 예측되었으나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만 5세의 경우 서울(46→45%), 강원(49→51%), 충북(47→52%) 지역의 유치원 이용률이 매우 완만한 증가 안정세 속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으며, 부산(64→66%), 대구(66→68%) 지역에서는 이용률이 높았다. 충남(53→49%)지역에서는 유치원 이용률이 5년 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 4세에서는 부산(59→66%), 대구(58→73%), 인천(52→59%), 대전(54→61%), 울산(56→60%), 경북(55→56%) 지역에서 다소 높은 유치원 이용률이 예상되었으나, 강원(40→42%), 전남(41→28%)에서는 다른 결과가 예상되었다. 만 3세에서 부산(36→39%), 전북(39%) 지역의 유치원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며, 강원(28→20%), 충북(28→24%), 제주(9→7%)지역은 유치원 이용률이 특징적으로 낮거나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수요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용 아동수, 이용률) 수요는 연령별로 지역별로 기관유형에 따라 다른 증감의 예측을 보인다. 이는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와 인구유입, 기관 인프라, 기타 사교육의 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프라 구축과 수급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인력과 기관 인프라의 수급, 기관의 설치인가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 3. 기관 및 교(직)원수 예측

상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수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수와 기관의 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수와 기관의 유형별 분포를 예측한 결과이다.



주: 교사군은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으로 정의되었음(시간강사는 교육통계에서 전체 교원수에 계수되지 않으며, 보건(1991년부터 발생), 영양교사(2009년 1건 발생)는 1~9명 내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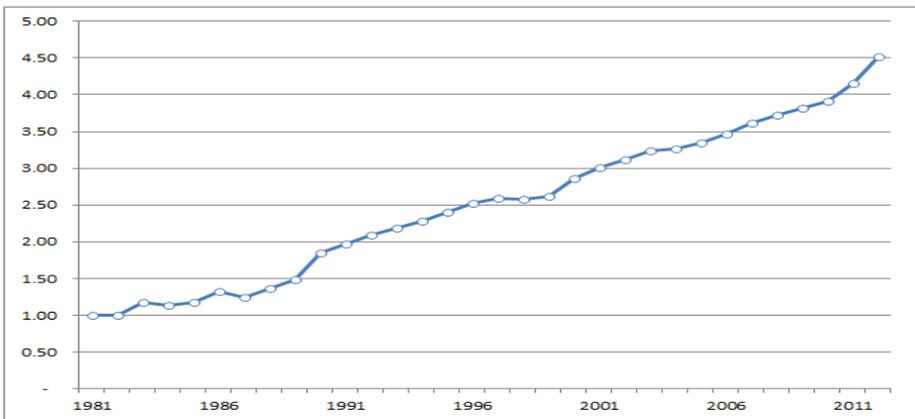
자료: 교육통계- 설립별 유치원수, 직위별 교원수

[그림 III-3-1] 국공립·사립 유치원 수와 교사 수

기관수와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수의 예측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하여 과거 시계열 자료를 사전분석 하였다. 1981년~2012년까지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된 유형별 유치원 수와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 보건교

사, 영양교사가 포함된 교사군에 대한 자료의 분포는 [그림 III-3-1]과 같다. [그림 III-3-1]에 의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988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왼쪽 축)는 멈춘 상황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 증가추세가 멈추었다. 현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500개 정도 보이고 있어 1990년대 중반처럼 이 차이가 매워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원 교사군(오른쪽 축)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증가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교사군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좀 더 확인해보기 위해 유치원 수 대비 교사군 수의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그림 III-3-2], 동일하게 지속적 증가추세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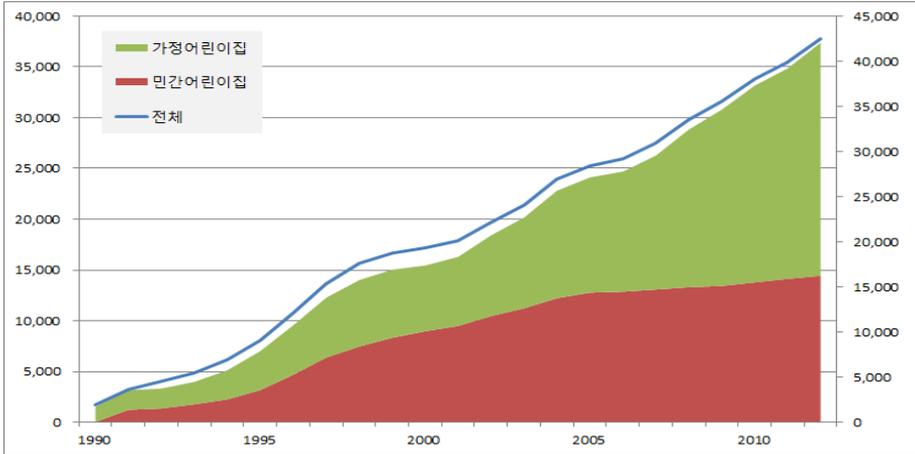
[그림 III-3-2]처럼 유치원당 교사군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기관당 4명을 넘어서 2012년 4.5명 선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선형적인 증가추세가 매우 뚜렷하므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유치원당 교사군 수는 약 5.5~5.6명으로 2012년에 비하여 약 1명 정도 늘어나고 6명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유치원의 증가세는 멈추었지만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2018년까지 약 47,000~48,000명(=8,500x5.5)정도로 교사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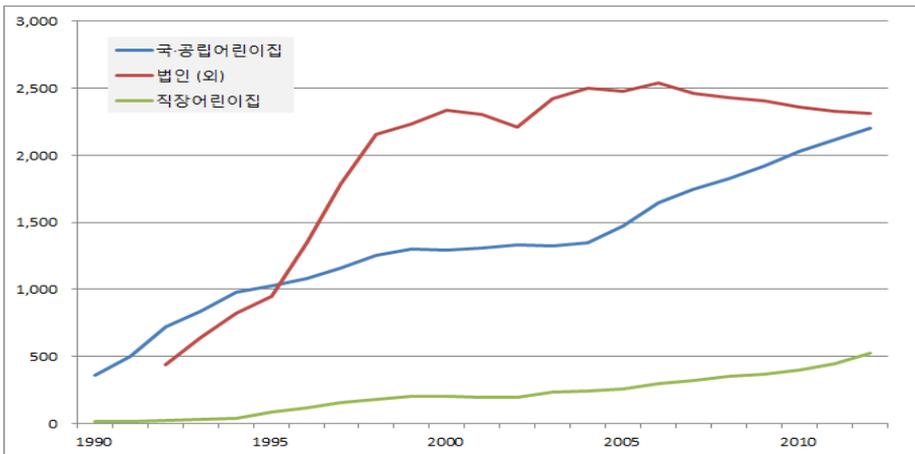
[그림 III-3-2] 유치원당 교사 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외),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전체 어린이집(오른쪽 축)과 비중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왼쪽 축), 민간어린이집(왼쪽 축)에 대한 과거 기관 수 변

화 추세를 [그림 III-3-3]과 같이 나타내었다. 전체 어린이집은 선으로 나타내었고,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면적이 누적되도록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은 대부분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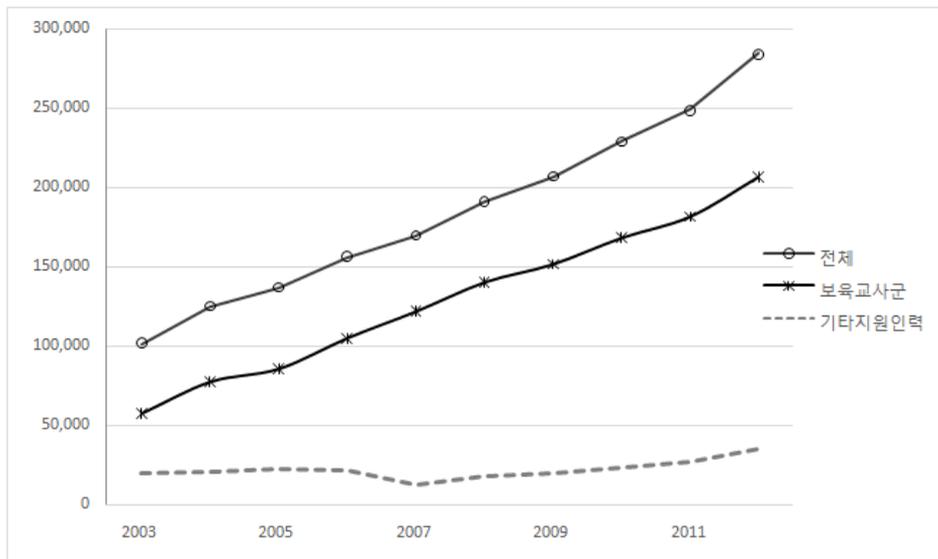
[그림 III-3-3] 전체, 민간, 가정 어린이집 수



주: 1990, 1991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소계(법인(외)+ 민간개인)로 추정되어 있던 자료를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각연도별 보육통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그림 III-3-4]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외), 직장어린이집 수

법인(외) 유형의 어린이집의 경우 2005년경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반전되어 오히려 기관수가 줄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기관수가 늘고 있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하여 숫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판단해 볼 때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을 중심으로 계속 그러나 과거에 비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군, 기타지원인력의 경우도 어린이집 기관수의 선형적 증가추세에 맞추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측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주: 1) 보육교사군은 보육교사 소계(보육, 대체,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시간제, 보조교사) + 특수교사로 정의하였음.

2) 기타지원인력은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2003~2007년의 사회복지사, 의사는 제외)으로 정의하였음.

자료: 각연도별 보육통계-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그림 III-3-5] 어린이집 교직원 수

## 4. 요약 및 시사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 및 이용아동수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예측결과를

토대로 볼 때, 만 1, 2세의 영아 이용률의 유의한 증가세가 예상되므로 영아보육에 대한 질관리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3~5세 누리과정으로 이루어진 국가 수준 커리큘럼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사 지원과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만 1, 2세 만큼은 아니나 0세 보육도 완만한 증가세가 예측되므로, 양육수당과 가정내양육의 확대 속에서도 0세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기관의 시설설비도 증가하는 영아보육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만 3, 4, 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이용률은 80~90% 대로 수렴하는 안정세를 보이거나, 이용 유아수로 볼 때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감소, 유치원의 경우 완만한 증가로 나타나므로 기관유형별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반영한 5년 단기예측에 국한되어 있으나, 줄어드는 영유아 인구수를 고려할 때 영유아 교사와 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를 고려한 수급과 질 관리, 시설설비 및 인가정책이 요구된다. 단중기적으로 늘어나는 교사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으로 교사의 팀티칭이 가능해지는 인적 기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의 상승으로 재정규모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사립/민간 우위의 구조 속에서 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기관 중 일정 수준의 질에 못 미치는 기관은 줄고 양질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평가와 관리감독, 지원, 진입단계 설치인가의 질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사립/민간(가정)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대응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실시하되,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현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해 적정한 로드맵이 요구된다. 또한 이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

늘어나는 영아 보육에도 0세아 및 기관 이용(또는 미이용)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확충과 아이돌보미와 같은 육아지원인력의 파견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자녀 양육 시, 양육수당의 수령 여부 및 기관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육아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관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영유아가 수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IV. 2040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

육아지원의 확대에 당장 당면한 과제 도출에 이어, 현재의 육아지원정책이 궁극적으로 안고 가야할 미래 어젠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40년도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미혼 성인 남녀, 영유아부모, 전문가의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층이 전망하는 바로서의 미래 한국상과 육아지원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2040년 한국사회와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전망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과 인과다층분석의 기법을 참조하여 구성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 & Morris, 1998, Inayatullah, 2004). 현장 전문가와 영유아부모,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미래사회 육아지원정책 요구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 설문조사의 수요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1. 육아관점의 미래사회 전망

#### 가. 심층면담 결과 분석

향후 부모가 되는 청년(미혼, 기혼), 그리고 현재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육아정책 관련 분야 및 미래연구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 미래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항목을 도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포커스그룹인터뷰 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면담내용과 응답자 특성의 상세내용은 <부록 1> 참조).

##### 1) 선택으로서의 결혼, 그러나 내재된 결혼 욕구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이 변화하여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자체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결과라기보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바라는 배우자 상을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결혼 성사가 어려워지는 점, 개인적 성취와 진로가 우선인 사회문화적 압력과 상황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결혼율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 2) 현 세대 자녀양육의 어려움 증가: 비용, 소외, 단절, 과열된 문화

면담자들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육아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부담, 경제적인 소득, 학업 등의 개인 성취 우선 등을 언급하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저출산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과거 대가족과 가족간 양육지원과 협력의 부재로, 핵가족구조내에 여성 1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현재의 양육환경은 과거에 비해 그 부담과 어려움이 상당히 큼을 지적하였다. 과거와 다른 현재의 양육관에 대해서도 언급, 양육방식의 세대차이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육아비용의 지출이 많고 육아품목의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는 내 아이 하나만은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바람이 상업화된 육아품목 시장과 만나 지나치게 고급화되고 과열된 육아문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육아비용과 문화를 기대했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외에,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엄마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데서 오는 사회적 교류의 결핍과 소외, 뒤풀이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육아지원정책은 경제적 지원 외에, 사회문화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와 공유의 문화적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낳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양육하는 기본적인 가족에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둘이며, 자녀 성별에의 욕구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 3) 부모 공동의 양육참여 요구 및 부모참여의 활성화

어머니 혼자 하는 여성 고유의 역할로서의 자녀양육이 아닌, 부와 모가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여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주는 미래지향적 부모의 역할을 전망하였다. 미혼의 면담자들은 이를 대체로 노동시장의 과몰입으로 인한, 아버지의 양육으로부터의 소외현상으로 본 반면, 현재 영유아부모는 양육의 부담을 나누려하지 않는 아버지의 외면으로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의 남녀공통

적용 및 의무화, 근로시간(출퇴근시간)의 조정, 부모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 및 이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의 체계화, 지구 환경보존의 글로벌 교육 및 부모체험실습까지 포함한 예비부모교육 내용의 확대 및 강화, 전반적으로 부모교육 참여의 의무화 및 직장에서의 휴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많았다. 일례로 1년에 1~2회 이상 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행사 및 면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의무휴가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었다.

#### 4)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개방적 의견, 그러나 낮은 수용도

다문화 가족과 입양, 위탁양육, 동성혼, 제 3의 성 등 변화하는 남녀의 역할과 부모됨,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대체로 개방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신과 관련된 미래 전망과 구체적 의향에 있어서는 실행의견이 저조하여, 중장기 미래에 다양한 가족구조에 의한 육아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앞으로 가족의 정의와 경계가 과거 혈연 위주에서 비혈연도 포함하는 보다 유연하고 낮은 문턱으로 설정되며, 가족의 역할은 지속되되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양한 가족구조와 역할에 대한 수요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연계하여 경제적 운용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기능과 부부 또는 동거의 기능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 확장될 것으로 내재된 요구가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의 경우 인구정책 관점의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적, 육아지원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이주민개방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미래연구자는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육아지원정책의 확대와 적극적인 다문화정책, 혈연주의와 정상화된 가족제도에서 탈피한 다양화된 가족의 지향 등을 미래의 과제로 지적하였다.

#### 5) 여성취업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양성적 지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단절되지 않는 일·가정양립과 여성 취업률의 제고는 중요한 미래정책과제로 요구되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의 근무

형태에 대한 근로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에 국한되지 않는 논의로, 여성 남성 구별 없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큼을 인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의 정책일지라도 실제 이를 적용, 운영하는 기업과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실행의 장려는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제도적 문화적 정비와 함께, 실제 육아지원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업체와 개인에게 사회공헌도를 인정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이 면담자의 요구내용중에 내재되어 있었다.

## 6)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요구도

육아지원정책이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부와 모를 함께 지원하는 가족 단위의 정책 틀을 기대하였다. 또한 자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양육해야 한다는 모성위주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기관서비스와 아이돌보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큰 육아지원정책은 비용지원의 경제적 지원이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 같은 실질적인 수요에의 대응이,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맘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이 지적되었다. 매번 바뀌는 아이돌보미가 아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원하며, 또한 긴급한 단시간의 일시보육에의 수요를 양질의 서비스로 대응하는 체계에 대한 요구도가 크다.

## 7)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의 하락, 학대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아동학대의 통계를 보면 줄어들지 않음을 근거로 하여, 미래사회 아동행복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였다. 사회와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족의 양육지원의 기능이 축소, 달라졌으며, 사회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먹고사는 경제적 삶의 지속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가족이 아니더라도 일반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러한 아동학대와 방임이 증가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사회적 인식은 물론 법·제도적으로도

마련되지 않다. '아동 행복의 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 위한 우리사회의 다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학대, 방임의 근본적인 모니터링 체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아동학대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긴급 보호와 증거채택의 과정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표 IV-1-1〉 포커스그룹인터뷰 면담 분석

구분	미혼·기혼 남성	영유아 자녀 어머니	대학생 남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인 능력, 학업 성취, 육아부담 등	육아 부담 지원과 공감, 직장의 배려	실제(경제적 안정, 학업성취 등)과 이상(이른 결혼과 출산)간 괴리 큼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경제적인 지원(+)	양육스트레스(-), 나 홀로 육아(-)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크지 않으며, 저출산 유인책이 될 만한 수준 아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며, 불만족스러움.	회의적이며, 저출산 유인책이 될 만한 수준 아님.
남성이 육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	동의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	동의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	동의하며, 사회구조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음 (아내/여성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함)	다소 부정적임	다양한 가족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vs. 아직은 과도기적 단계이며 2-30년 내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동성혼의 입양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동성혼의 입양 허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해	(육아부담을 극복해서라도) 본인의 직업수행이 계속되어야 함	육아부담으로 일과 육아 병행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를 배려하는 근무 환경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요인임)	
미래 육아정책 수요		기관보육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역할 지원	공동체적 교류와 협업을 통한 육아
		예비교육(환경오염과 부모교육)	부모교육

## 8) 정책적 시사점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때, 남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학업의 성취 등을 언급하는데 비해 영유아 어머니는 나홀로 육아를 담당하는 데 대한 주위의 지원과 공감, 직장의 배려 등 사회문화적 가치와 정서적 지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남성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으면 낳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극심한 양육스트레스와 '나홀로 육아'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과 퇴화로 후속 출산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출산은 남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나, 여성의 신체적 변화와 부담이 수행되기 때문에 일인의 주체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성이라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단지 개인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양육부담의 완화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고립과 문화적 단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내 양육의 책임자로 맡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양육이 공동체 지역사회와 보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총체적인 육아존중의 문화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양이 늘어나야 함을 의미하므로, 앞서 제시한 단기 수요예측의 추세전망과도 일치한다.

대학생 남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실제와 이상간의 괴리를 크게 느끼고 있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의 일련의 트렌드가 미래세대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즉 결혼과 출산을 원하나, 그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차선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결혼과 출산을 하고자 하는 내재된 욕구가 큼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혼인제도와 상관없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미혼·기혼 남성, 영유아 자녀 어머니, 대학생 남녀 집단 모두 회의적이었으며 현행 수준의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았다. 미래사회 육아지원정책은 현행 수준보다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현행 육아지원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 정책과는 다른 보다 발전된 정책 프레임의 제

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면담자 모두 아버지가 육아를 외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현상과 압력 때문에 육아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시 출근·정시퇴근 문화의 정착(근로시간의 합리적 단축), 의무적인 남성 육아 휴직제도 등에 대한 수요를 공통적으로 표출하였다.

입양,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등에 대한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양육중인 어머니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었고, 대학생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라는 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성혼가정이 영유아양육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담자들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어 미래사회에서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위탁가정보다 동성혼가정이 가장 늦게 가족의 범주 안에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여성의 취업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여성이 육아의 부담을 극복해서라도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영아기 자녀 어머니들은 육아 부담을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원 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설계에도 이것이 우리사회에 양육친화적인 도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사회문화적, 경제적 과제가 많음을 시사한다.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영유아 자녀 어머니의 경우 비모성 기관 보육을 수용하는 사회, 엄마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 지구오염이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예비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학생 역시 부모교육을 언급하였고 공동체적 교류와 협업을 통한 육아에 대한 미래상을 그렸는데, 이는 영유아 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육아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추출된 전반적인 미래 전망 관련요인들을 영역별로 구조화하여, 미래전망과 예측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한 3개 집단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설문내용은 부록 5 참조).

〈표 IV-1-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구분	사례수
전체	100.0(1,365)		
집단구분1		지역규모별	
미혼 성인	44.0( 600)	대도시	48.4( 581)
영유아	44.0( 600)	중·소도시	41.9( 503)
전문가	12.1( 165)	읍·면	9.7( 116)
집단구분 2		취업여부별	
미혼성인남	16.5( 225)	취업-시간제	5.7( 68)
미혼성인여	16.3( 223)	취업-전일제	43.5( 522)
미혼대학생남	5.5( 75)	휴직중	1.6( 19)
미혼대학생여	5.6( 77)	미취업	49.3( 591)
영유아 부	13.4( 183)	학력별	
영유아 모	30.5( 417)	고졸 이하	23.0( 276)
전문가(유아교육)	4.1( 56)	초대재/졸	23.0( 276)
전문가(보육)	4.0( 55)	4년대재/졸이상	54.0( 648)
전문가(제3영역)	4.0( 54)	가구소득별	
성별		200만원 미만	5.2( 62)
남자	38.8( 530)	200-300만원 미만	19.0( 228)
여자	61.2( 835)	300-400만원 미만	27.7( 332)
연령대별		400-500만원 미만	25.4( 305)
20대	26.1( 356)	500만원 이상	22.8( 273)
30대	58.3( 796)	모름/무응답	-
40대	10.9( 149)	삶 만족도	
50대	4.7( 64)	만족함	56.5( 675)
권역별1		보통	34.4( 411)
수도권	53.0( 636)	불만족함	9.1( 109)
영남권	24.4( 293)	가족규모별	
호남권	9.1( 109)	1명	4.1( 49)
충청권	10.8( 129)	2명	2.7( 32)
강원권	2.8( 33)	3명	41.2( 494)
권역별		4명	45.1( 541)
수도권	53.0( 636)	5명 이상	7.0( 84)
비수도권	47.0( 564)		

## 1) 2040 미래 한국사회 전망

설문조사를 통한 3개 집단 전체의 의견을 통해 2040년 중장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영역별 미래 전망 중, 긍정응답률 70% 이상의 미래전망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76.8%), 온라인상담 및 온라인 교육지원의 활용(74.5%), 다문화/외국인의 유입과 정착(71.4%), 인공지능과 로봇의 증가(70.6%), 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의 정착(70.3%)의 5가지였다. 이는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바램이자 육아지원정책의 수요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할 영역을 보여준다.

한편 3개 집단 공통문항이 아닌, 전문가집단에만 질문한 문항 중, 제3의 성/동성부모의 등장(80.6%), 계층간 사회경제적 격차(86.6%), 비정규교육과정(대안, 개방교육)의 증가(88.5%)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80% 이상 긍정응답하여(전문가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응답률을 고려하여도) 한국의 미래사회 전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면으로 보인다.

미래 한국사회 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응답률을 보인 항목을 통해 미래 사회에 사라지거나 소멸할 것을 살펴본 결과, 출산율(16.7%), 결혼율(22.0%),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35.2%)로 나타났다. 미래사회 출산율의 회복과 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가치 부여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한편 40% 대의 긍정응답률을 보인 항목으로는 남북통일(40.9%),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의식(43.0%), 사회구성원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45.5%)로, 대체로 높은 기대수준과 지향에 비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밖에 50~60%대의 높은 긍정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과학기술강국(68.8%), 가족구조의 변화 및 다양성(64.4%),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62.3%), 개인의 삶의 질(60.8%), 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59.3%), 우리나라 경제성장률(55.3%), 개인의 행복(52.0%), 시민의 정치참여(50.0%)로 나타나, 미래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으로서의 당면과제와 미래사회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구성원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와 ‘공동체의식’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못 미친 반면,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는 62%의 응답자가, ‘시민 정치참여 증가’에 대해서는 5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전반적인 복지수요에의 사회적 동의와 시민 참여의 증가 속에서도 이를 실현하는 과정과 결과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회의 바램을 나타내는 문항이

기도 하나, 현재 응답자들은 미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점은 인상적이다.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약 40%의 응답자가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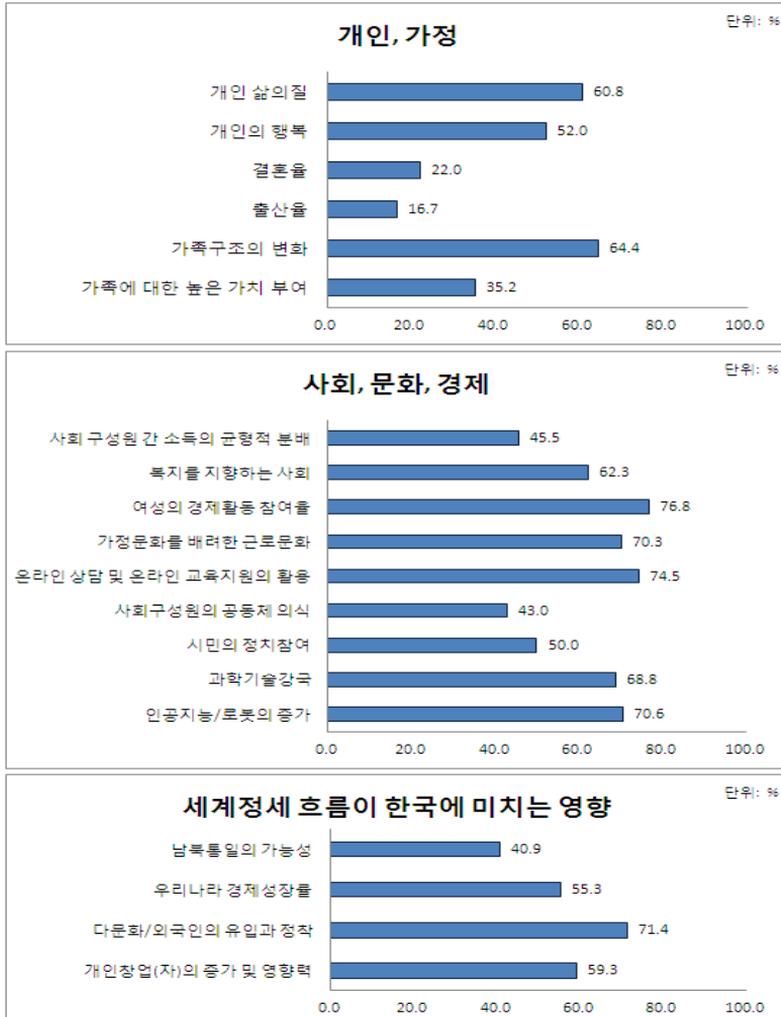
즉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내용에 기초하여 육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2040년 한국사회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40년의 한국은 결혼과 출산율이 감소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와 구조의 가족이 점차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강한 가족주의 가치관도 감소하거나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2040년의 한국사회는 가족구조와 형태, 기능이 다양해져 예를 들어 비혈연·온라인 관계 위주의 유사 가족공동체가 현재의 가족공동체 유대를 상당부분 대체하며,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등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하여)기존의 학교시스템과 교과과정은 존속하되 상당부분 기능을 잃거나 변화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존과 경제적 효용, 개인의 권리와 행복의 관점에서 기존의 교육 및 집단생산체제에 변화가 옴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적용으로 한국은 기술강국의 면모를 갖출 것이며 인공지능과 미래형 기기, 로봇의 활용도 사회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성숙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체감은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문화적 성숙이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에는 유의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의 공동체적 성숙은 경제발전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노동시장의 참여는 지속되어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 모성, 부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역할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산출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통일 및 지속적인 발전,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으로 한국사회로 유입하는 외국의 자본과 이주민은 증가하여, 2040년 거리의 모습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 북한의 유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외국에 정착하는 한국인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글로벌한국인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한국은 한국적 사회운영과 경제성장모델을 갖춘 독특하고 고유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내외국인 유입과 이동이 증가하여, 기존 내국인에 의한 초저출산을 벗어나 영유아와 유소년, 청년층의 비율이 노령층 대비 일정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노령인구 부양의 세부담과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으로부터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개인창업의 증가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과 주체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의 목소리와 문화적 영향력이 증가하여 기존 정당체제에 의한 정치 외에 전반적인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에 의한 국민의 정치참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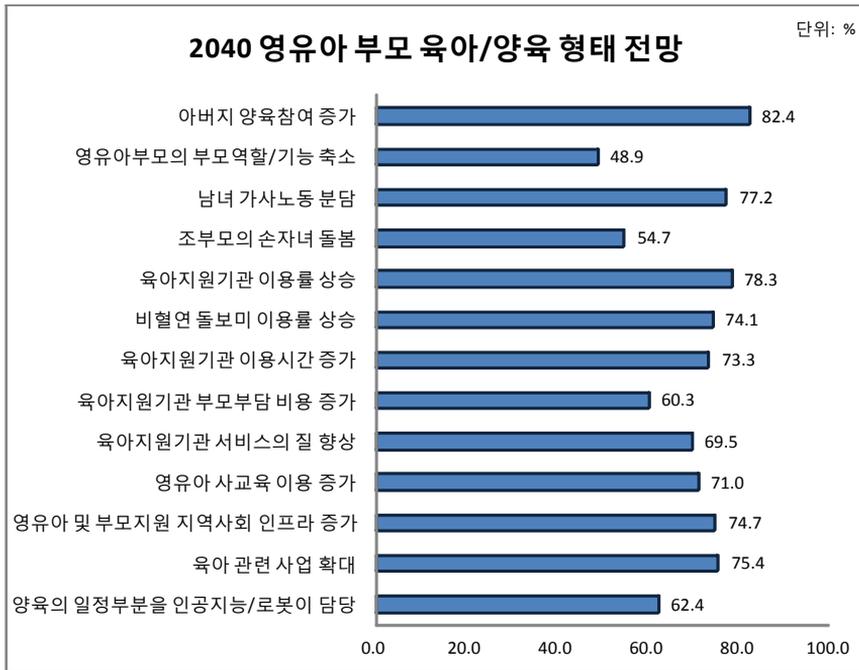
[그림 IV-1-1] 2040년 한국의 미래 전망(3개 영역)

## 2. 육아지원정책 중장기 수요 전망

### 가. 2040 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

#### 1) 2040 영유아부모의 자녀양육 형태 전망<sup>17)</sup>

설문조사를 통한 3개 집단의 의견조사 결과를 2040년을 대비한 중장기 육아 지원정책 수요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결과의 요약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1] 2040년 한국의 육아 전망

첫째, 2040년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형태’를 전망하게 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증가’, ‘남녀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전망이 가장 우세하여, 부모간 성역할의 구분이 완화되고 가족부양과 경제 활동의 역할이 남녀간에 공유되는 변화를 전망하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17) 자세한 내용과 표는 부록 6 참조

과 같은 (기관) 서비스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육아관련 산업의 발달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더불어 비혈연육아도우미 서비스의 이용과 사교육의 이용도 증가세로 전망되어, 영유아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의 형태가 공·사영역에서 공히 다양해지며, 그 이용량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육아비 증가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 육아지원의 확대와 가격규제정책의 효과를 기대 및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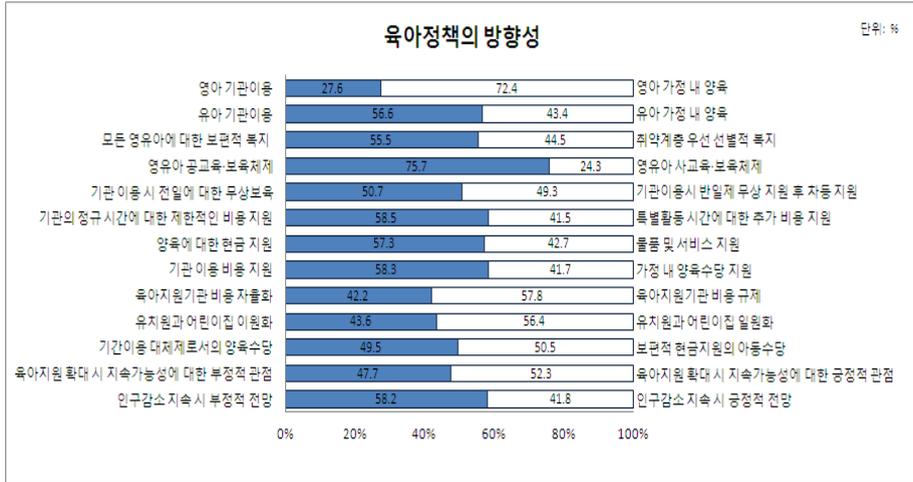
## 2) 육아지원정책<sup>18)</sup>의 쟁점에 대한 비교 전망

둘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육아정책의 이슈에 대해 찬반의 의견 중 한 가지를 택하도록 하여 미래 한국의 육아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진 수요는 '영유아기 공보육·교육 체제의 마련(75.7%)'과, '영아의 가정내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72.4%). 그 외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반의 양쪽 의견에 대한 지지비율이 유사하여, 어느 한 쪽에 방향성 있다고 논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의 기관이용, 모든 영유아대상의 보편적 복지, 기관의 *정규시간*에 한정된 지원, 양육수당의 *현금* 지원, 기관비용에 대한 *규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 *육아지원확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인구감소시 사회대응과 변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특징적인 것은 영유아기 사보육·교육 체제와 영아의 기관이용에 대해 지지하는 응답률이 각 24.3%, 27.6%로 1/4 내외로 나타난 점, 특별활동시간에 대한 비용지원, 기관비용의 자율화, 유보 이원화 유지에 대한 전망, 인구감소가 지속되어도 사회는 적응적, 안정적인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등이 약 40% 이상의 응답률로 적지 않은 점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만 질문한 영유아기 국가수준 공통과정의 확대 대 보육·교육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방향성을 조사한 결과, 공통과정 53.9% vs. 다양성 46.1%로 공통과정의 질 향상과 형평성 확보에 대한 수요 못지않게 미래 사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운용

18)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을 동일한 의미로 간주함. 정확한 용어정의는 없으나, '육아지원정책'은 정부의 영유아 및 영유아가족 대상 서비스와 현금 위주의 지원정책에 국한된 협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육아정책'과 동의어로 영유아와 아동 관련 가족정책, 아동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쓰임.

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기초가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현물·현금 지원에서 확장하여 현재보다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고 보다 넓은 범주의 정책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국공립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영아 가정내 양육의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림 IV-2-2] 육아지원정책 쟁점의 방향성

### 3)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분석 - 3개 내용영역

면담조사를 통해 추출한 미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항목을 3개 내용으로 구성하여 설문항목을 배치하였다. 면담조사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유목화 한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의 3개 내용 카테고리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하고 좋은 환경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저변의 문화적 심리적 기반에 대한 요구였으며, 둘째, 아동의 복지, 즉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환경에 대한 수요였다. 그 다음으로 셋째, 영유아 부모가 자녀양육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근로문화의 정착에 대한 요구도가 컸다. 각 내용영역별로 개별 항목에 대한 전망을 질문, 비교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많이 요구된 항목은 ‘남녀 육아휴직’의 의무화 및 보편화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자녀 양육과 돌

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양육비지원의 증가'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래에 현재보다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항목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폭력의 처벌 강화', 그리고 '나홀로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강화'였다. 상대적으로 해외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았다.

셋째,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는 대체로 높은 수요를 보인 가운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가장 많이 전망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현재 대비 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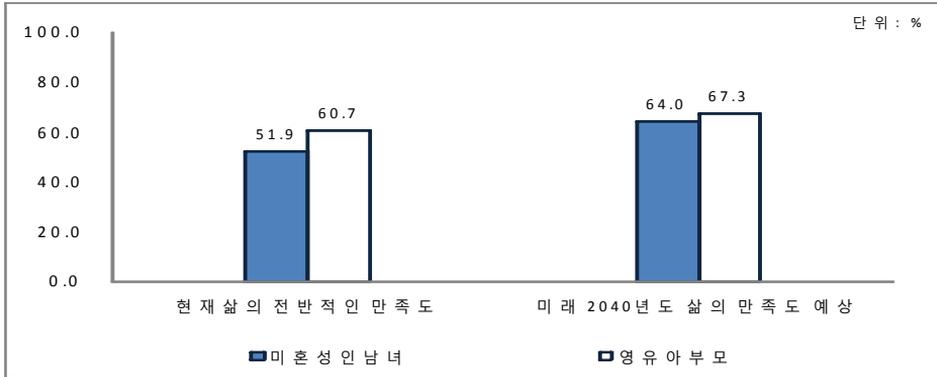
이상의 미래전망에 대해 하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별로 응답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고학력, 고소득, 취업자일수록, 그리고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전문가 집단의 미래 전망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미혼성인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이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성인남녀보다 육아 관련하여 긍정의향과 전망을 더 많이 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현재 시점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이 미래의 긍정적 변화와 전망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 나. 삶의 만족도 평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함께, 현재 및 미래 삶의 만족도를 평가, 전망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현재 삶의 만족도와 미래 삶의 전망에 대한 하위집단별(미혼성인남녀, 대학생, 영유아부모, 전문가 집단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 1) 삶의 만족도 전망 요약

첫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응답이 2040년 미래 전망에서 증가하였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의 경우, 좀 더 긍정적인 만족도 체감과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IV-2-3] 현재 및 미래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6.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만족도를 5점으로 척도화한 결과, 대학생 3.6점, 미혼성인 3.4점, 영유아 부모 3.6점으로 대학생집단과 영유아 부모보다 미혼 성인남녀의 현재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보다 (초)대졸 이상이, 남성보다 여성이, 전일제 취업자일수록, 그리고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8.8	34.3	50.8	5.4	0.4	100.0(1,200)	3.52	0.74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1.3	17.8	31.1	44.0	5.8	0.0	100.0( 225)	3.35	0.88
미혼성인여	0.4	13.9	36.8	44.4	4.0	0.4	100.0( 223)	3.38	0.79
대학생남	0.0	5.3	36.0	52.0	6.7	0.0	100.0( 75)	3.60	0.70
대학생여	0.0	3.9	35.1	55.8	5.2	0.0	100.0( 77)	3.62	0.65
영유아부	0.0	4.4	33.9	57.4	2.7	1.6	100.0( 183)	3.59	0.62
영유아모	0.0	4.6	34.3	54.0	7.0	0.2	100.0( 417)	3.63	0.68
X <sup>2</sup> (df)/F			na					6.88 <sup>**</sup>	
취업여부별									
취업-시간제	0.0	7.4	38.2	50.0	4.4	0.0	100.0( 68)	3.51	0.70
취업-전일제	0.2	6.5	32.2	54.2	6.1	0.8	100.0( 522)	3.60	0.71
휴직중	0.0	0.0	21.1	73.7	5.3	0.0	100.0( 19)	3.84	0.50
미취업	0.5	11.2	36.0	47.2	4.9	0.2	100.0( 591)	3.45	0.77
X <sup>2</sup> (df)/F			na					5.01 <sup>**</sup>	

(표 IV-2-1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학력별									
고졸 이하	0.0	13.0	42.4	40.6	4.0	0.0	100.0( 276)	3.36	0.76
초대제/졸	0.0	7.2	31.9	55.4	5.4	0.0	100.0( 276)	3.59	0.71
4년대제/졸이상	0.6	7.6	31.8	53.2	6.0	0.8	100.0( 648)	3.57	0.74
X <sup>2</sup> (df)/F			26.90(8)**					9.52***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6	11.3	45.2	30.6	11.3	0.0	100.0( 62)	3.39	0.89
200-300만원 미만	0.0	9.6	35.5	50.0	3.9	0.9	100.0( 228)	3.49	0.72
300-400만원 미만	0.3	8.4	34.0	51.8	5.1	0.3	100.0( 332)	3.53	0.73
400-500만원 미만	0.3	8.2	37.4	48.5	5.2	0.3	100.0( 305)	3.50	0.73
500만원 이상	0.4	8.4	27.5	57.5	5.9	0.4	100.0( 273)	3.60	0.74
X <sup>2</sup> (df)/F			na					1.50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한편 현재 삶의 만족도와 미래 2040년도 삶의 만족도를 예상한 결과를 비교하면, 현재 삶의 만족도 대비 전반적으로 미래 2040년의 삶의 만족도 전망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현재 삶의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자녀의 부모, 미혼성인 남녀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이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미래 삶의 만족도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으며, 가족규모에서는 미혼성인과 대학생 집단의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영유아가구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짐작되는 2명을 제외하고는 가족규모가 클수록 미래 삶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가족의 기능과 함께 미혼 청년세대 1인가구의 긍정적 기제도 볼 수 있다 하겠다.

〈표 IV-2-2〉 미래 2040년도 삶의 만족도 예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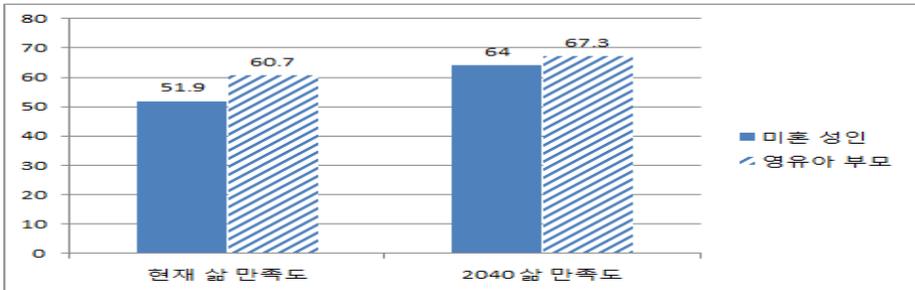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3.9	29.8	52.9	12.8	0.4	100.0(1,200)	3.74	0.73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0.4	5.8	32.4	50.2	11.1	0.0	100.0( 225)	3.66	0.77
미혼성인여	0.0	5.4	35.0	45.7	13.5	0.4	100.0( 223)	3.68	0.77
미혼대학생남	0.0	4.0	14.7	68.0	13.3	0.0	100.0( 75)	3.91	0.66

(표 IV-2-2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영유아부모 부	0.0	1.6	28.4	56.3	12.0	1.6	100.0( 183)	3.80	0.66
영유아부모 모	0.2	3.4	29.3	54.2	12.7	0.2	100.0( 417)	3.76	0.72
$X^2(df)/F$			na					2.10	
취업여부별									
취업-시간제	0.0	5.9	26.5	52.9	14.7	0.0	100.0( 68)	3.76	0.77
취업-전일제	0.2	3.3	26.6	55.0	14.2	0.8	100.0( 522)	3.80	0.72
휴직중	0.0	5.3	15.8	57.9	21.1	0.0	100.0( 19)	3.95	0.78
미취업	0.3	4.2	33.3	50.9	11.0	0.2	100.0( 591)	3.68	0.74
$X^2(df)/F$			na					3.06*	
학력별									
고졸 이하	0.0	6.9	41.7	40.2	11.2	0.0	100.0( 276)	3.56	0.78
초대재/졸	0.7	2.5	30.8	54.0	12.0	0.0	100.0( 276)	3.74	0.73
4년대재/졸이상	0.2	3.2	24.2	57.9	13.7	0.8	100.0( 648)	3.82	0.70
$X^2(df)/F$			44.12(8)***					12.91***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6.5	37.1	40.3	16.1	0.0	100.0( 62)	3.66	0.83
200-300만원 미만	0.0	3.5	34.6	51.3	9.6	0.9	100.0( 228)	3.68	0.69
300-400만원 미만	0.6	2.1	33.4	52.4	11.1	0.3	100.0( 332)	3.72	0.71
400-500만원 미만	0.3	5.9	28.2	54.4	10.8	0.3	100.0( 305)	3.70	0.75
500만원 이상	0.0	3.7	21.2	56.0	18.7	0.4	100.0( 273)	3.90	0.73
$X^2(df)/F$			na					4.22	
가족규모별									
1명	0.0	2.0	24.5	65.3	8.2	0.0	100.0( 49)	3.80	0.61
2명	0.0	6.3	46.9	34.4	9.4	3.1	100.0( 32)	3.49	0.76
3명	0.0	4.7	34.4	48.4	12.1	0.4	100.0( 494)	3.68	0.74
4명	0.4	3.5	25.5	57.5	12.9	0.2	100.0( 541)	3.79	0.72
5명 이상	1.2	2.4	26.2	50.0	19.0	1.2	100.0( 84)	3.84	0.80
$X^2(df)/F$			na					2.86*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주: 미혼성인남녀에 대학생 집단이 포함됨.

[그림 IV-2-4] 현재 삶 만족도와 2040 삶 만족도 비교

한편 자녀를 출산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결혼생활 및 자녀양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0%가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미혼 성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성별이나 연령, 모 취업여부,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역규모별로 볼 때 도시지역보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부모의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첫째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소득과 연동하여) 육아지원 수혜에 있어 양육수당 수령가구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그리고 사교육 학원/센터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표 IV-2-3〉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 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	36.2	50.2	9.8	0.3	0.7	100.0(600)	3.68	0.69
지역규모별									
대도시	3.9	33.5	54.9	7.4	0.0	0.4	100.0(257)	3.66	0.67
중소도시	2.3	39.1	47.5	9.7	0.3	1.0	100.0(299)	3.65	0.68
읍·면	0.0	31.8	40.9	25.0	2.3	0.0	100.0( 44)	3.92	0.76
X <sup>2</sup> (df)/F		18.28(6)**						3.16*	
학력별									
고졸 이하	4.4	51.1	38.0	5.8	0.7	0.0	100.0(137)	3.46	0.67
초대제/졸	1.6	32.8	56.6	9.0	0.0	0.0	100.0(189)	3.73	0.64
4년제대제/졸이상	2.9	31.0	51.8	12.4	0.4	1.5	100.0(274)	3.75	0.70
X <sup>2</sup> (df)/F		23.15(6)**						9.36***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9.0	38.1	28.6	9.5	4.8	0.0	100.0( 21)	3.32	0.90
200-300만원 미만	1.3	41.1	45.7	9.9	0.7	1.3	100.0(151)	3.66	0.67
300-400만원 미만	2.5	35.8	53.4	7.8	0.0	0.5	100.0(204)	3.67	0.65
400-500만원 미만	3.4	33.8	52.7	10.1	0.0	0.0	100.0(148)	3.70	0.70
500만원 이상	1.3	32.0	50.7	14.7	0.0	1.3	100.0( 75)	3.80	0.70
모름/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100.0( 1)	4.00	0.00
X <sup>2</sup> (df)/F		30.76(15)**						1.76	

\*  $p < .05$ , \*\*  $p < .01$ , \*\*\*  $p < .001$

영유아부모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5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위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영유아 어머니보다 아버지 집단에서, 도시보다 읍면지역일수록, 가족규모가 클수록, 자녀수가 많

을수록, 그리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구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시간제나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보다 휴직중이거나 미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자녀양육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양육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 전반과 결혼생활 만족도와 달리 자녀양육의 만족도에서는 모의 취업이 상반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현재 자녀양육 만족도 - 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6.7	36.3	47.3	9.0	0.7	100.0(600)	3.59	0.74
모_취업여부별1								
취업-시간제	14.6	39.6	41.7	4.2	0.0	100.0( 48)	3.35	0.79
취업-전일제	10.1	36.0	46.8	7.2	0.0	100.0(139)	3.51	0.77
휴직중	6.3	18.8	62.5	12.5	0.0	100.0( 16)	3.81	0.75
미취업	3.3	38.3	48.6	9.3	0.5	100.0(214)	3.64	0.70
X <sup>2</sup> (df)/F		14.80(9)					2.96*	
모_취업여부별2								
취업	9.9	35.8	45.4	8.9	0.0	100.0(293)	3.53	0.79
미취업	3.6	36.8	49.2	9.1	1.3	100.0(307)	3.65	0.69
X <sup>2</sup> (df)/t		9.44(3)*					-1.87	
가족규모별								
3명 이하	8.3	37.8	43.8	9.5	0.6	100.0(349)	3.55	0.78
4명	4.7	33.6	54.5	6.6	0.5	100.0(211)	3.63	0.68
5명 이상	2.5	37.5	40.0	17.5	2.5	100.0( 40)	3.74	0.78
X <sup>2</sup> (df)/F		12.59(6)					1.74	
자녀수 별								
1명	8.3	37.4	44.4	9.4	0.5	100.0(374)	3.55	0.77
2명	4.1	34.0	54.6	6.7	0.5	100.0(194)	3.64	0.67
3명 이상	3.1	37.5	37.5	18.8	3.1	100.0( 32)	3.74	0.80
X <sup>2</sup> (df)/F		12.59(6)					1.63	

\* p < .05

#### 다. 출산-입양-위탁양육 의향

대학생을 포함, 미혼성인 남녀의 향후 출산의향과 희망자녀수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미래 출산의향이 90%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성인 남녀의 출산의향이 80%대로 높았다. 출산을 경험한 영유아부모의 추가 출산의향은 부 32.2%, 모 27.6%로 부가 모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여성보다는 남성 집단에서 출산의

향이 더 높았으며, 4년제 대졸 학력 집단에서 향후(추가) 출산의향이 더 높았다.

〈표 IV-2-5〉 향후(추가) 출산 의향 - 미혼성인, 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57.3	42.7	100.0(1,200)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85.3	14.7	100.0( 225)
미혼성인여	82.5	17.5	100.0( 223)
미혼대학생남	92.0	8.0	100.0( 75)
미혼대학생여	89.6	10.4	100.0( 77)
영유아부모 부	32.2	67.8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27.6	72.4	100.0( 417)
$X^2(df)$	397.57(5)***		

주: 영유아부모 대상 출산의향은 현재 영유아자녀 외, 추가 출산 의향을 묻음.

\*\*\*  $p < .001$

설문에 참여한 영유아부모 600명 중 향후 추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74명으로 전체의 29%인데, 이들에게 희망하는 자녀수를 설문한 결과 90.8%가 현재보다 1명을 더 낳겠다고 응답해 추가출산으로 평균 1.1명의 자녀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추가출산 희망 자녀수 응답에 차이가 없었다.

〈표 IV-2-6〉 향후 추가 자녀 계획(추가 희망 자녀 수) - 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수)	평균
전체	90.8	8.0	1.1	100.0(174)	1.1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전체 512명의 응답자 중 43.9%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지원 체제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나와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부모가 대학생과 미혼성인 집단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20대보다는 3·40대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보다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추가)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자녀를 돌볼 사람과 지원체계

가 부족하여, 나와 배우자의 삶의 중요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비출산 이유에 차이가 있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육아지원인프라와 부부 우선의 삶의 양식으로 인한 비출산의도도 양육의 경제적 부담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큰 가운데, 계층에 따른 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 집단별로 여대생의 경우 나와 배우자의 삶이 중요해서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성인 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과 지원체제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V-2-7〉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나와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	자녀를 돌볼 사람/지원체제가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커서	자녀양육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커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계(수)
전체(1순위)	12.5	15.8	43.9	9.8	5.7	12.3	100.0(512)
전체(1, 2순위)	25.0	36.9	66.2	32.8	16.0	18.6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30.3	24.2	24.2	9.1	0.0	12.1	100.0( 33)
미혼성인여	15.4	5.1	33.3	25.6	7.7	12.8	100.0( 39)
미혼대학생남	16.7	50.0	0.0	16.7	0.0	16.7	100.0( 6)
미혼대학생여	50.0	0.0	12.5	0.0	12.5	25.0	100.0( 8)
영유아부모 부	10.5	15.3	50.0	8.1	8.9	7.3	100.0(124)
영유아부모 모	9.9	16.2	46.7	8.6	4.6	13.9	100.0(302)
X <sup>2</sup> (df)	na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3.0	4.3	56.5	8.7	0.0	17.4	100.0( 23)
200~300만원 미만	6.2	13.3	61.1	8.0	3.5	8.0	100.0(113)
300~400만원 미만	14.1	15.8	40.1	12.4	7.9	9.6	100.0(177)
400~500만원 미만	11.5	16.4	40.2	6.6	7.4	18.0	100.0(122)
500만원 이상	19.5	22.1	29.9	11.7	2.6	14.3	100.0( 77)
X <sup>2</sup> (df)	39.92(20)**						

주: 1)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2) 영유아부모의 응답은 추가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임.

\*\* p < .01

한편, 비출산 이유를 중복응답(1+2순위)으로 정리한 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6.2%)과 자녀돌봄지원 인프라의 부족(36.9%)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커서(32.8%)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심리적 부담과 책임의식도 비출산의도의 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고려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영유아자녀를 둔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 32.3%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어떤 요인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진다면(25.7%)'과 국가의 육아지원정책이 더 많아지면(18.2%)이라고 응답하여, 지원정책이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보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20대 이하의 가구 소득수준과 자녀를 낳고도 일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의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3·40대는 변화될 여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수에 따라 달라 현재 1명의 자녀를 둔 응답자는 가구의 소득을 출산 촉진 요인으로 보았으나, 3명 이상 자녀 부모의 75%는 더 이상 추가 출산 의향이 없음을 드러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과 국가의 육아지원정책이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과 기관의 인프라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2-8〉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요인 - 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국가의 정책 지원이 더 많아진다면	자녀를 돌보아줄 기관/사람이 있다면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더 많아진다면	자녀를 낳고도 일할 수 있다면	변화될 가능성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5.7	18.2	14.0	2.3	7.3	32.3	0.2	100.0(600)
연령대별								
20대 이하	37.5	19.6	19.6	1.8	14.3	7.1	0.0	100.0( 56)
30대	26.2	18.0	13.6	2.7	7.3	32.0	0.2	100.0(478)
40대 이상	12.1	18.2	12.1	0.0	1.5	56.1	0.0	100.0( 66)
X <sup>2</sup> (df)				40.80(12)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33.3	19.0	9.5	0.0	0.0	38.1	0.0	100.0( 21)
200-300만원 미만	25.8	21.9	15.2	1.3	9.9	25.2	0.7	100.0(151)
300-400만원 미만	32.8	18.1	11.8	2.0	4.4	30.9	0.0	100.0(204)
400-500만원 미만	19.6	16.9	14.2	3.4	9.5	36.5	0.0	100.0(148)
500만원 이상	16.0	12.0	18.7	4.0	8.0	41.3	0.0	100.0( 75)
모름/무응답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
X <sup>2</sup> (df)				36.65(30)				

<sup>\*\*\*</sup> p < .001

자녀를 입양할 의향에 대해서는 8.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성인남녀-영유아부모의 순으로 입양의향이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

도권 거주자보다 입양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양의향을 5점 척도한 결과, 20대는 2.10, 30대는 1.80, 40대는 1.62로 나타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입양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입양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아동 입양 의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있다	충분히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4	31.1	14.6	8.4	0.5	100.0(1,200)	1.88	0.98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40.0	38.7	15.6	5.3	0.4	100.0( 225)	1.88	0.89
미혼성인여	36.3	30.0	17.9	15.7	0.0	100.0( 223)	2.13	1.08
미혼대학생남	32.0	29.3	25.3	12.0	1.3	100.0( 75)	2.21	1.07
미혼대학생여	15.6	40.3	18.2	23.4	2.6	100.0( 77)	2.57	1.09
영유아부모 부	55.2	24.6	16.9	3.3	0.0	100.0( 183)	1.68	0.87
영유아부모 모	56.8	29.0	8.6	5.0	0.5	100.0( 417)	1.63	0.88
$X^2(df)/F$			127.63(20) <sup>***</sup>				20.48 <sup>**</sup>	
권역별								
수도권	31.6	39.6	19.3	9.3	0.2	100.0( 636)	2.07	0.94
비수도권	61.0	21.5	9.2	7.4	0.9	100.0( 564)	1.66	0.98
$X^2(df)/t$			113.95(4) <sup>***</sup>				7.36 <sup>***</sup>	
연령대별								
20대	35.7	33.4	17.7	12.1	1.1	100.0( 356)	2.10	1.05
30대	48.3	31.4	12.9	7.3	0.1	100.0( 778)	1.80	0.94
40대	63.6	15.2	18.2	1.5	1.5	100.0( 66)	1.62	0.94
$X^2(df)/F$			41.09(8) <sup>***</sup>				13.98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61.3	14.5	9.7	12.9	1.6	100.0( 62)	1.79	1.16
200~300만원 미만	52.6	27.2	14.0	5.3	0.9	100.0( 228)	1.75	0.95
300~400만원 미만	54.2	26.5	12.7	6.0	0.6	100.0( 332)	1.72	0.94
400~500만원 미만	39.7	36.4	13.1	10.5	0.3	100.0( 305)	1.95	0.99
500만원 이상	31.5	37.7	20.1	10.6	0.0	100.0( 273)	2.10	0.97
$X^2(df)/F$			62.58(16) <sup>***</sup>				7.27 <sup>***</sup>	

\*\*  $p < .01$ , \*\*\*  $p < .001$

위탁부모(foster parents)가 되어 비혈연자녀를 양육하는 의향에서도 입양 의향과 유사한 응답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8.3%만이 위탁양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부모보다 대학생과 미혼성인집단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거주자가 위탁양육에 대한 의향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20대 젊은층에서, 중소득자가 위탁양육에 긍정적이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위탁양육 의향이 컸다.

〈표 IV-2-10〉 아동 위탁양육 의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있다	충분히 있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1	31.3	16.3	7.8	0.5	100.0(1,200)	1.89	0.98	
집단구분									
미혼성인남	39.1	37.8	17.3	5.8	0.0	100.0( 225)	1.90	0.89	
미혼성인여	37.2	30.9	19.7	11.7	0.4	100.0( 223)	2.07	1.04	
미혼대학생남	26.7	45.3	21.3	5.3	1.3	100.0( 75)	2.09	0.90	
미혼대학생여	23.4	35.1	20.8	18.2	2.6	100.0( 77)	2.42	1.12	
영유아부모 부	56.8	21.9	16.4	4.9	0.0	100.0( 183)	1.69	0.92	
영유아부모 모	51.8	29.0	12.0	6.7	0.5	100.0( 417)	1.75	0.94	
X <sup>2</sup> (df)/F	80.33(20) <sup>***</sup>							10.24 <sup>***</sup>	
취업여부별									
취업-시간제	50.0	30.9	13.2	5.9	0.0	100.0( 68)	1.75	0.90	
취업-전일제	48.3	28.4	16.9	6.3	0.2	100.0( 522)	1.82	0.94	
휴직중	42.1	36.8	15.8	5.3	0.0	100.0( 19)	1.84	0.90	
미취업	39.8	33.8	16.1	9.5	0.8	100.0( 591)	1.98	1.01	
X <sup>2</sup> (df)/F	na							3.05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56.5	17.7	8.1	17.7	0.0	100.0( 62)	1.87	1.17	
200~300만원 미만	53.1	25.9	14.0	7.0	0.0	100.0( 228)	1.75	0.95	
300~400만원 미만	53.9	25.6	14.5	5.4	0.6	100.0( 332)	1.73	0.94	
400~500만원 미만	35.7	40.3	15.4	8.2	0.3	100.0( 305)	1.97	0.93	
500만원 이상	31.1	35.9	23.1	8.8	1.1	100.0( 273)	2.13	0.99	
X <sup>2</sup> (df)/F	na							8.14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01$ 

## 라. 영유아부모의 현재 및 미래 양육 수요

자녀 연령별 이상적인 양육형태에 대해서는 &lt;표 IV-2-11&gt;과 같다.

〈표 IV-2-11〉 자녀 연령별 이상적 양육 형태

단위: %(명)

구분	가정내	혈연가정	비혈연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센터	반일제 학원	잘 모르겠음	계(수)
0세	92.1	5.6	1.4	0.9	0.0	0.0	0.0	0.0	100.0(1,200)
만 1~2세	64.4	19.3	5.3	10.9	0.1	0.0	0.0	0.0	100.0(1,200)
만 3~4세	13.2	9.9	6.3	61.3	9.3	0.0	0.1	0.0	100.0(1,200)
만 5세	3.4	2.1	0.8	22.3	71.1	0.1	0.2	0.1	100.0(1,200)

0세의 경우 92.1%가 가정내 양육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만 1~2세 역시 가정내 양육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64.4%로 감소했다. 만 3~4세의 경우 어린이집이 61.3%, 만 5세의 경우 유치원이 71.1%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V-2-11 참조).

영유아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다니는 기관을 설문한 결과, 현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비율이 57.7%로 가장 높았고, 다니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24.9%이다. 1년 후 기관이용 예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54.9%로 현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으나, 유치원이 현재 13.2%에 비해 29%로 높아졌고, 다니는 기관 없음의 비율이 8.9%로 낮아졌다. 현재 어린 연령의 영유아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않다가 1년 후에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부 영유아의 경우 1년 후 유치원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해석된다. 3년 후에는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아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2〉 영유아 자녀가 현재/미래 다니는 기관 - 자녀  
전체(첫째+둘째+셋째)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문화센터	다니는 기관 없음	초등학교 입학함	기타	계(수)
현재	57.7	13.2	2.6	3.4	24.9	0.0	0.1	100.0(728)
1년 후	54.9	29.0	1.8	1.8	8.9	5.2	0.1	100.0(728)
3년 후	27.6	35.6	7.3	3.4	0.5	35.0	0.0	100.0(728)

비용 지원에 대한 육아정책의 변경 시, 기관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현재의 수준에서 국가 무상지원을 1일 5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변경시 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68.9%로 응답되었고, 현재보다 기관 이용시간을 줄인다는 의견은 24.7%,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6.1%로 응답되었다. 또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때, 현행대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77.5%이고,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7.8%이다.

〈표 IV-2-13〉 국가 무상지원 1일 5시간 제한으로 변경 시 기관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현재보다 기관 이용시간을 줄임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함	어린이집/유치 원을 이용하지 않겠음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24.7	68.9	6.1	0.2	100.0(457)
모_취업여부별2					
취업	18.6	77.5	3.9	0.0	100.0(258)
미취업	32.7	57.8	9.0	0.5	100.0(199)
X <sup>2</sup> (df)		21.52(3) <sup>***</sup>			

<sup>\*\*\*</sup> p < .001

현행의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가정 우선의 선별 지원으로 전환시 기관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52.1%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9.3%는 현재보다 기관이용 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모 취업여부별로 볼 때,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58.9%이고,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43.2%이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4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집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4〉 취약가정 선별 지원으로 전환 시 기관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지원을 받으며 현행대로 이용함	현재보다 기관이용 시간을 줄임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대로 이용함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겠음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14.4	29.3	52.1	3.9	0.2	100.0(457)
모_취업여부별2						
취업	14.7	24.0	58.9	2.3	0.0	100.0(258)
미취업	14.1	36.2	43.2	6.0	0.5	100.0(199)
X <sup>2</sup> (df)		16.22(4)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23.1	23.1	38.5	15.4	0.0	100.0( 13)
200~300만원 미만	16.2	30.5	50.5	2.9	0.0	100.0(105)
300~400만원 미만	20.9	36.5	39.9	2.0	0.7	100.0(148)
400~500만원 미만	7.9	29.1	58.3	4.7	0.0	100.0(127)
500만원 이상	7.8	12.5	73.4	6.3	0.0	100.0( 64)
X <sup>2</sup> (df)		40.42(16) <sup>**</sup>				

<sup>\*\*</sup> p < .01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기관 미이용시 연령에 따라 10만원~20만원을 지원받는 양육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시 기관을 이용할 의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 중 15.5%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겠다고 응답하여, 양육수당의 지급액 수준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의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모의 경우 현재 기관 이용에서 양육수당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10.5%이고, 미취업모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22.1%이다.

〈표 IV-2-15〉 양육수당 지급액 상향 조정 시 기관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현행대로 기관을 이용함	기관이용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양육	좋은 학원으로 보내겠다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84.0	15.5	0.2	0.2	100.0(457)
모_취업여부별2					
취업	89.5	10.5	0.0	0.0	100.0(258)
미취업	76.9	22.1	0.5	0.5	100.0(199)
X <sup>2</sup> (df)		14.54(3)**			

\*\* p < .01

상기한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과반의 응답자(56.4%)가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3.3%만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집단 중에서는 전문가가 3.85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부모(3.43점)의 평균점수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영향력 인식이 높았다. 가구소득이나 가족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표 IV-2-16〉 상기한 육아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거의 없을것	별로 없을것	보통임	어느정도 있을것	상당히 있을것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4	11.9	30.2	47.5	8.9	100.0(1,365)	3.51	0.8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8	12.3	31.2	48.7	7.0	100.0( 600)	3.49	0.83
영유아부모	1.7	12.5	34.3	43.8	7.7	100.0( 600)	3.43	0.87

(표 IV-2-16 계속)

구분	거의 없을것	별로 없을것	보통임	어느정도 있을것	상당히 있을것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문가	2.4	8.5	11.5	57.0	20.6	100.0( 165)	3.85	0.93
$X^2(df)/F$			61.21(8) <sup>***</sup>				15.45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0.7	12.7	37.5	45.1	4.0	100.0( 581)	3.39	0.78
중소도시	1.8	11.5	30.2	45.5	10.9	100.0( 503)	3.52	0.90
읍·면	1.7	14.7	19.8	55.2	8.6	100.0( 116)	3.54	0.91
$X^2(df)/F$			35.02(8) <sup>***</sup>				4.00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 마. 2040 미래 육아 전망

이상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40년 미래 한국사회의 육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양육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유아 수가 줄어들에 따라,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동시에 영유아 보호와 건강한 성장, 발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확대되어 육아안전망의 구축과 모니터링이 자리 잡을 것이며, 아동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의 보편적 보호체계가 ICT체계를 통해 마련, 제도화 될 것이다.

미래세대의 영유아자녀 양육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영유아 인구수로 인해 육아지원체계의 확립이 더욱 공고해져 현물(서비스)과 현금, 세제지원의 양육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로써 기본양육에 해당하는 일정수준의 양육부담이 국가지원에 의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의 설계가 마련되어,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해당가족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분을 상쇄하는 추가 지원을 받는 등, 보편지원의 토대위의 취약계층 선별지원체계가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성별 구분이 없는 양육역할의 공유와 참여로, 제도적으로도 남녀 구분 없는 양육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녀 육아휴직 의무화 및 부모휴가의 공동사용제가 제도화 될 것이다.

실습체험교육 위주로 보다 발전된 (예비)부모교육과 부모참여의 확대로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녀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도 증가하여, 부모가 가정에 머물며 양육하던 한 가지 방식에

서 벗어나, 다양한 종일제·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중적·비정형적 양육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을 받고,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도 영유아 부모가 이용하고자 하는 양질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서비스 내용(프로그램)과 형태, 질, 양(이용시간)에 대한 다양성이 현재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것일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기관서비스 이용의 수요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부모공동체 육아, 온라인 홈 케어 링, 그리고 시간제와 아이돌보미, 또 다른 형태의 가정내 양육과 같은 지역사회 인프라와 인적자네트워크, 온라인, 로봇을 활용한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 예상된다. 영유아의 측면에서는 부모 외에 다양한 서비스 인력과 다중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상의 온라인과 실제 오프라인, 생명과 사물을 오가는 인간관계 및 다양한 애착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에 대한 인성교육의 대비가 필요하다.

자녀양육 서비스 영역의 확대로 가정과 사회의 양육역할이 보다 공유, 증대되며, 기존의 조부모에 의한 양육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다. 가족이 지원하던 양육의 사회적지지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가족주의의 가치관과 역할 수행이 줄어들거나 가족의 변화가 가족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대안적 형태의 가족과 부부, 결혼 및 동거의 제도 또는 비제도가 삶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애착관계에 대한 추구는 내재되어 있어,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결혼과 가족관계의 경계를 넘어 출산을 장려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윤리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세포가 재생성되는 기술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가상세계의 인물이 온라인의 세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인간의 생명유지에 대한 개념과 논의가 변화되고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즉 2040년 이후의 먼 미래에서는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는 기술적 이슈로 논의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과 윤리적 충돌이 20~30년 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

근로문화의 측면에서도, 양육역할의 참여에 소극적이던 기업의 정책도 물건을 소비하고 생산할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구)가 소멸하는 국가적 상황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의 후세대 양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근로문화이자 경제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사회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척도가 GDP식 산출과 경제성장률, 투자 대비 이익회수율과 같은 기존의 경제지표의 한계를 인식, 비경제적·비계량적 사회문화의 창출과 공유, 배려를 통한 문화적 자산의 산출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로써 정해진 내용의 전달 위주로 이루어진 현행 교육보육의 전달방식에서 다양한 형태의 과정적 학습과 체험 위주의 경험으로 보다 확장된 영유아기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며, 부모는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과 구매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애초기 서비스를 이용, 수혜한 미래세대의 영유아는 인지적 능력이 현재보다 성장하여, 아동 1인당 생산성의 능력이 배가되는 고도의 인적 자원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미래 영유아는 ICT 기기와 통신, 로봇을 활용하여 현재의 1인당 생산성이 산출하지 못하는 작업량과 생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공립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사적 민간영역에서의 시장의 성장과 확대도 함께 증가하여 공사 영역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육아지원체계 및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로써 부모의 선택권과 균형잡힌 육아 철학, 정부의 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래의 육아와 삶은 다원화됨과 동시에 그 사회적 격차는 더욱 커져, 어느 수준에서는 격차가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와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V.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제언

상기한 연구결과(단기수요예측, 중장기전망)와 방법론(심층면담, 설문조사, 계량분석, 브레인스토밍)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2040 미래에 대비하는 한국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와 주요 동인, 그리고 이에 근거한 단·중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

2040 미래 한국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 어젠다는 ‘행복’ 추구하고 ‘공유’, ‘다양성(비정형화)’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청년세대의 내재된 결혼 및 가족과 자녀출산에의 욕구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 자체보다는 본인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가치추구와 행복에의 욕구가 기저에 있었다. 이는 다같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보편적 지원과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의 확대 속에서도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육아지원의 제공과 정책 설계에의 요구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개별가정, 개별부모의 책임과 역할 수행에 머무는 자녀양육과 출산이 아닌, 공동체가 참여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소임으로서의 육아가 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의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수용, 존중되어야 할 삶의 형태로 인식되었다.

통계적으로 산출된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의 키워드를 통해 제시된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어젠다를 지지하는 관련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을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성인 대상, 특히 여성(母)에 집중된 정책이 아닌, 남녀 양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균형잡힌 지원체계로서의 육아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육아지원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교사/원장/돌보미와 같은 종사자와 공급자만이 아니라, 부모도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지원체계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원체계를 제공

하는 등, 사회 전 구성원의 공동체적 참여가 가능한 육아환경이 요구된다.

거시지표(예: 출산율, 여성취업률)의 양적수치를 끌어올리려는 정책보다는, 이미 태어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그들의 아동권을 보장하는 일상적 환경을 만드는 질적·사회문화적 접근이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임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함께 살며 자녀를 키우고 싶은 욕구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다른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자녀를 키우게 되는 부모, 이들의 권리와 행복한 근로가 보장된 미래사회라면, 저출산은 경제적 의미의 위협일 뿐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의 훼손은 아닐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과학적, 정치적 그리고 자연환경의 요구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는 기존의 결혼제도와 부부, 가족의 범주와 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운용이 가능해야 하며, 수요자 대중과 전문가는 이를 바라보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치원·어린이집 체제, 교육·보육과정,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시간, 서비스 제공자(교사, 돌보미 등)의 제 측면에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와 기능, 내용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육아지원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의 보강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서비스 형태와 내용의 다양성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와 상호작용일 것이다.

## 2.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동인 및 예상 시나리오별 쟁점

본 연구결과, 2040 미래 한국의 육아지원정책을 수요를 가늠하는 주요 동력(driving force)은 ‘출산율’과 ‘복지수준’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인구의 감소 및 (영유아를 포함하여) 유소년과 청년층 비중의 감소라는 인구 분포상의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 국면에 있는 ‘출산율’이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수준,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이다. 또한 육아지원정책은 사회전반의 복지수준과 행복에의 추구,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에의 욕구와 함께 간다. 즉 복지수준은 개인의 행복에의 욕구와 다양성에의 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출산율(X축)과 복지수준(Y축)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 가능한 우

리나라의 육아관련 미래상(시나리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출산율이 현재수준(합계출산율 1.23명)으로 유지되고 사회전반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미래(안)으로, 현재시점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시나리오라 하겠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전반의 복지수준 요구로 육아지원의 내용과 수준도 점진적으로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나, 이러한 육아지원정책의 효과는 출산율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반영되는 상황이다. 향상되는 복지수준의 사회적 부담을 줄어드는 영유아/유소년 인구가 감당하는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는 인적역량과 사회적,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T와 기술력을 활용한 개개인의 융합적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보다 선진화된 교육·보육 시스템과 개방형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상당부분 온라인 네트워킹과 직접 생산의 과학기술과 접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컴퓨터와 온라인활동, 로봇의 활용과 같은 과학기술을 접하고 다양한 언어와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경험적 교육을 필요로 한다.

둘째, 출산율이 현재수준보다 증가(합계출산율 약1.50~1.80명)하고 사회전반의 복지수준이 현재보다 향상되는 미래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다문화/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고(특히 중국과 아시아국), 남북통일이 실현되어 동아시아 교류가 활발해지는 환경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율이 30% 이상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영유아 대상 지원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며, 결혼이주자 정책 일변도에서 발전된 보다 세밀한 다문화 정책으로 외국인 출입국 관리과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되겠다.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환경으로, 한민족네트워크와 같은 글로벌 인적자원의 활용과 교류가 필요하고, 한국 고유의 보다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육아지원정책의 지속적 확대로 내국인의 출산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혼인관계 및 부부의 법적 규정이 비혼 동거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산과 양육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이것이 존중되는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입양과 위탁양육모와 같은 비혈연가족관계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복지수준 향상의 경제적 운용을 위해서는 남·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회환경이므로, 부·모의 육아참여와 유연한 근로문화와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한 사회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셋째, 출산율이 현재보다 떨어지며(합계출산율 약1.20명 이하) 사회 복지수준은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미래안으로, 가장 지양해야할 시나리오이다. 육아지원의 설계가 양적 지원의 확대와 현재의 전달체계 인프라 유지에 머무는 경우로,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저출산 타개의 정책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기관 서비스의 질과 교직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갈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 교육이 개선되고, 질 관리체계와 부모지원, 국가수준 공통과정의 질적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육아지원정책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현재 질 관리체계의 적극적 운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기본 정책요소를 충실히 추진, 이와 같은 미래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바라는 미래사회 도래를 위한 단·중기 육아지원정책 과제

#### 가. 단기에측에 근거한 정책제언

앞서 논의된 미래연구동향과 수요예측의 필요성에서 볼 때, 육아정책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현안대응에서 확장하여, 미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바라는 사회상으로 선도하는 보다 강한 동력의 육아지원정책을 필요로 한다. 사회인구학적 추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예: 저출산, 유소년인구의 감소, 다문화, 1인가구의 증가 등), 당면한 현안 대응으로서의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따른다. 양육지원과 유아교육 및 보육을 포괄한 육아정책은 단·중·장기 전망과 미래선도의 정책설계를 가지고 수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매 3~5년 주기로 마련되는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은 미래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 대응에 머무는 것이므로, 첫째, 30년 이상의 중장기 전망을 고려한 발전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향후 3~5년의 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에 대한 사회인식의 향상, 사회전반의 근로문화의 발전과 같은 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중기적으로 영유아 서비스의 양과 질, 다양성에 대한 수요, 단기적으로는 기관인프라와 교사/지원인력의 단기 수급 예측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 향후 육아지원정책은 규제와 관리감독, 평가에 의한 질관리체계

에서 벗어나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호 신뢰와 참여에 기반한 미래 정책 어젠다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수요예측 결과, 향후 5년 영유아 기관과 교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줄어드는 영유아 수와 늘어나는 기관인프라와 교사의 배출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엇갈리는 시점이 예상된다. 질적으로는 늘 어가는 영유아(기관)서비스 인프라와 인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곳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 국한되는 것에 대한 재고이다.

양과 질, 다양성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기 정책과 서비스의 수급 불일치는 더 클 수 있다. 예상되는 기관과 교사의 양적 증가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질적 수요에 근거한 것인지 내용적으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 관리와 향상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문화인프라(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등), 공동육아, 안전한 녹색환경의 제공, 가정내양육을 지원하는 돌보미인력 등, 기관 인프라와 전달체계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유아가 집단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안전하고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녹색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단기수요예측을 통해 볼 때, 지역간에 서비스의 이용과 미래 수요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부모 대상의 정례화된 수요조사보다 정교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며, 각 지역별 특색을 갖춘 정책어젠다와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 수요예측 결과로부터, 영아와 유아의 기관서비스 이용률이 일정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0세, 만 1세의 (기관)서비스 이용률이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설계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서비스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만 0~2세와 만 3~5세의 영유아 발달에 의한 구분보다는 정책적 수요에 의해서는 0세, 만 1세, 만 2~5세의 연령구분에 의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일가정양립의 저출산 정책이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전반이 육아와 가족 친화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의 육아지원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기업 및 기관, 현장에 대해 그러한 사회공헌도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단기전략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평가에 사회공헌 점수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보상 기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육아지원의 실행이 개별적으로는 기피해야할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회문화적 인식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나. 중장기 수요전망에 근거한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대로 미래 육아지원정책은 세 가지의 정책영역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영유아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아동의 복지와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 영유아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지원되는 근로문화이다. 이러한 정책내용의 틀을 통해 살펴본 미래전망과 과제를 통해 살펴본 단·중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육아정책의 쟁점과 이상적인 양육형태를 묻는 수요조사에서는 영아의 경우 가정(내) 양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부모는 처한 상황과 지원 등에 의한 발생적 수요, 그리고 양육의 편이를 위해 영아를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실 수요와 지향하는 수요 간의 괴리를 볼 때, 단기적으로 '0세'와 '만 1세' 영아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시계열분석에 의한 수요예측의 방향성으로 볼 때, 영아도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바램과 실제 사이에서 곤란을 겪는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내)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과 양육수당의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부모의 가정양육과 돌보미에 의한 가정내 양육이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관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아 대상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인프라의 확충과 가정내양육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 제도의 발전, 부모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문화체험의 서비스 및 일시보육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아와 영아기 부모 대상 지원에 초점을 둔 설계가 요구된다. 이는 영아 기관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 영아부모의 근로시간 유연제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업무영역의 확대 및 체계화, 일시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례화, 아이돌보미의 안정적 운영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전반적으로 첫째, 영아보육의 강화와 전문성의 보강이 시급해보이며, 기관인

프라에 대한 수급과 질 관리체계, 요구되는 수요 대비 시설설비 기준과 설치인 가정책의 마련이 대응체계로서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견되므로, 앞으로 지속될 저성장,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응하는 육아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대응정책의 마련은 출산력을 회복하여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의 노력이라면, 앞서 논의한대로, 적응정책의 마련은 줄어드는 유소년 인구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살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전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태어난 모든 아동이 유기와 방치, 폭력, 학대, 사고로부터 보호되는 육아안전망이 확립된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미래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성인 대상의 부양정책보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담보하는 정책의 마련이 보다 근원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다. 즉 둘째, 육아지원정책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프레임을 벗어나, 보다 상위의 인적자원개발과 아동권 보장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셋째,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건강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영유아 관련 기관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기록 체계이나, 보다 자유로운 기술과 아동발달에의 논의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 아동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 0~5세 무상보육교육의 육아지원 토대는 지속되어야 하되, 향후 육아지원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아닌, 제공되는 교육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유아기 인적투자가 사회경제적 이익의 회수는 물론 사회적 격차를 좁히고, 생애전반에 걸친 건강한 성장 발달을 견지하는데 유의한 누적적 효과가 있음이 다양한 종단연구결과를 통해 축적되어있다. 영유아 1인당 생산성과 행복의 체감이 향상되도록 하는 영유아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과 같이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양질의 보육교육과정 마련은 지속되어야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수준의 공통과정 지침에서 발전하여 개별 기관의 철학에 따라 교사가 개발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기 다양한 보육교육과정의 운용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넷째, 특별활동, 체험학습에 대한 부모 수요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은 정규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전환

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와 체험, 아이디어, 시장을 필요로 하므로,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양질의 다양한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교육시장에서 제공하여 비용부담이 크고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서비스영역을 영유아기 과정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사 고유의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중장기 교육보육과정 정책과 함께 가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양성과정에서부터 이후 재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도록 하는 교사정책과 질 관리가 필요하다. 육아정책이 미래 선도와 대응의 최우선전략으로서, 중장기 방향에 따라 단계적 전략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보다 장기적으로 육아에의 과학기술 편입과 ICT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영유아의 인지능력과 생산성은 과거세대의 그것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유아가 사회성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인간관계의 애착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과 정서적 학대의 문화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정서성 발달이 보장된 인성 프로그램의 생애초기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성적,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부모, 종사자 교직원 대상의 별도의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전문인력의 마련이 요구된다.

영유아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육아정책이 부모의 노동권 보장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발전하여, 아동권의 반영을 구체화 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는 영유아의 생활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충분한 놀이와 휴식, 영유아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운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섯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과 중에 부모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는 이러한 부모의 육아참여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출퇴근시간의 유연성과 기관 참여 및 방문 시간의 보장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양육과 보육교육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교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되, 부모의 참여와 역할수행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양육자로서 양질의 서비스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권과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영유아기 보육교육 정책을 수정하여, 영유아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조정하는 부모권과 아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와 산업계 전반의 평가지표가 사회공공성에의 기여, 근로문화의 선진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지표를 포함해야 하겠다.

일곱째, 성인의 돌봄속에 머무는 영유아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집단의 규칙과 성인의 지시에서 벗어난 영유아 자신의 자유로운 체험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좁은 공간에 머물지 않고 보다 넓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로이 탐색하고 머물수 있도록 영유아/아동을 위한 녹색환경(예: 영유아 숲, 어린이 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노령세대를 위해 청년 및 중장년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여덟째, 영유아의 미래시점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현재 도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에 부과되는 재정부담을 지표화하여, 정책 입안시 예산안정성과 예비타당도 검토 시 미래세대의 의견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책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간 갈등을 예측, 조정할 수 있게끔 한다. 육아정책의 목적은 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의 성장을 돕는 것이므로, 육아지원 법안의 도입 시, 아동권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현재의 영유아부모는 다양한 정보와 과학적으로 발전된 기기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육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오프라인 상의 인프라와 정보제공 외에, 온라인상의 육아지원 정보 및 상담체계와 안전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연구에 의하면, 미래는 변화하는 대로가 아닌, 지향하고 목표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창조물이다. 현재의 대중이 바라고 지향하는 대로의 미래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고려한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와 다양화 노력이 가장 시급한 현안 대응이자 미래 선도적인 정책 주도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인숙 외(2013).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 및 가정생활의 변화와 함의.(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한국 가족변화의 특징과 전망 협동연구). 대한가정학회.
- 관계부처 합동(2013). 보도자료 - 고용률 70% 로드맵(2013.6.4).
- 교육통계서비스(2003-2012). 교육통계연보
- 권기현(2008). 미래예측학. 법문사.
- 김동환·서용석·송영조(2010). 미래예측결과를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용역보고서.
- 김승권·서문희·한영자·김혜연·조애저·김유경(2001).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영·박진아·김문정(2013). 국공립유치원 교원 중장기 수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교육부.
- 김현곤·이혜정·송영조·서용석·최윤식·김동현·이연우·김두환·정우석·유진혁·정지범(2009). 성공적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연구방법론(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2015 사회위험 변화와 전망).
- 김현철(2000a).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예측(I): 교원수 예측, 교육행정연구, 18(2), 91~113.
- 김현철(2000b). 중장기 유아교육 수요예측(II)- 원아수 예측. 유아교육연구(20), 35~58.
- 김현철(2002). 시계열분석에 의한 초등교원의 수요 예측: 설명변수의 탐색과 분석방법간 예측결과의 비교. 한국교육, 29(2), 113~130.
- 김현철(2009). 보육과 유아교육 수요규모 예측과 시사점. 교육문제연구, 35, 117~139.
- 박성배·김정우·전상인·김창욱·최은정·이치호·허용석(2012). 효과적 수요예측방법

- 과 사례. SERI 이슈페이퍼. 삼성경제연구소.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2011).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교보문고.
- 박유성·김기환(2002). SAS/ETS를 이용한 시계열자료분석 I. 자유아카데미.
- 박유성·김기환·김성용(2010). 우리나라 공식인구의 신뢰성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 조사연구학회지, 11(2):71~95.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
-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
- 보건복지부(2013). 보도자료 -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현황(2013.2.25).
- 보건복지부(2013b). 보도자료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많아진다(2013.4.4.).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2012). 3, 4세 누리과정(안) 공청회 및 보도자료(6. 12.)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3~2012).
- 삼성경제연구소(SERI)(2013). [www.seri.org/forum/businessforecasting](http://www.seri.org/forum/businessforecasting)(산업예측 연구회), [www.seri.org](http://www.seri.org) 발간물리스트.
- 서울특별시(2013).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변화 분석현황. e-서울통계 69호.
- 송영조(2013). 해외 미래기구 트렌드와 국가미래전략센터의 구축방안, IT & Future Strategy, 6호, 한국정보화진흥원(NIA)-빅데이터전략연구소.
- 유엔미래포럼(2012). 유엔미래보고서 2025. 교보문고.
- 유재국·장경석·장영주·이창호·정도영·조주현·박영원·유제범(2012). 입법 정책 수요예측모형과 응용.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15호.
- 이미화·김현철·신나리·장명림(2008). 유치원교사의 수요 전망. 유아교육연구, 28(1), 53~67.
- 이삼식·최효진·윤홍식·오상훈(2012).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저출산세부과제-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세준·이운준·홍정임(2008). 통합적 미래연구 방법론의 탐색 및 적용.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이정원·유해미·김문정(2013년 12월 발간예정). 가족변화에 대응한 출산·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코노미스트(2013). 이코노미스트 2013 세계경제대전망. 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신문 한경 BP.
- 장명림·최은영·송신영(2013). 유아교육 장기재정전망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김유경(1997).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정택희·심숙영·김현철(1998). 주요 교육통계 미래 예측(I).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수 추정(1999~2008). 한국교육개발원.
- 정택희·이만희(1999). 주요 교육통계 미래 예측(II)(1999). 고등교육 학생수(2000~2009).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2013).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 우려(2013.3.5 기사).
- 지식경제부(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
- 최윤경·이운진·유해미·권미경(2013). 가족변화 관련 육아정책의 향후 과제.(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 12-03-08(16)-한국 가족변화의 특징과 전망 협동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미래연구백서.
- Australia 2020 Summit(2008). Options for the future of indigenous Australia. Final Report.
- BP Global(2013). BP Energy Outlook 2030. [www.bp.com/content/dam/bp/pdf/statistical-review/BP\\_World\\_Energy\\_Outlook\\_booklet\\_2013.pdf](http://www.bp.com/content/dam/bp/pdf/statistical-review/BP_World_Energy_Outlook_booklet_2013.pdf).
- Billings, R. B., & Jones, C. V.(2008). Forecasting urban water demand. 서울: 흥릉과학출판사.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non(Series Ed) & R. M. Lerner(Vol.Ed.),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y(5th ed.). New York Wiley.
- Inayatullah, S.(2004). The Causal Layered Analysis(CLA) Reader. Taipei, Taiwan: Tamkang University Press.
- Marien, M.(1996). "Future Studies" in Kurian, George Thomas, and Molitor, Graham T.T.(Ed.) Encyclopedia of the Future, Simon and Schuster Macmillan.
- Martin, B., & Irvine, J. (1989). Research Foresight: Creating the Future. St. Martin's Press.
- NCES(2011).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20.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201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OECD(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A synthesis report.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 Statistics Research Branch,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Department for employment and learning(2002).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childcare in NI. Labour Market Bulletin.
-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2009). Energy Demand Models for Policy Formulation. [www-wds.worldbank.org/servlet/WDSContentServer/WDSP/IB/2009/03/17/000158349\\_20090317093816/Rendered/PDF/WPS4866.pdf](http://www-wds.worldbank.org/servlet/WDSContentServer/WDSP/IB/2009/03/17/000158349_20090317093816/Rendered/PDF/WPS4866.pdf)
- UN Millennium Project(2012). [millennium-project.org](http://millennium-project.org),  
[www.acunu.org/millennium/index.html](http://www.acunu.org/millennium/index.html)에서 검색.

## Abstract

### **Future studies of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in Korea**

Choi, Yoon Kyung    Min, Jungwon    Kim, Keewhan    Lee, Sewon

This study explored the future prospect of childrearing trend and practices in 2040 of Korea, and also analyzed of the short-term demands of ECEC supplies by preschool and child care center infrastructure.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was onlin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future study literature review, time-series analysis, and brainstorming discussions of this study researchers. Based on the diverse study results, emerging key issues and agenda were derived for future childrearing scenarios

As a result, the main demands for long-term future childrearing supports were healthy environments for childrearing, proliferation of child-welfare policies, female labor oriented policies. Thus the demands were listed as follows: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nline education and supports, multicultural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se of non-human facilities and robots, and the respect for family life against market labor-dominant culture. Thus the male participation of household keeping and childrearing was required as key necessity of future child birth and rearing.

## 부 록

---

1. 면담참여자 특성 및 면담내용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그래프)
3.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수요 예측(표)
4. 지역별 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표)
5. 미래육아지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영유아부모용)
6. 조사표 분석 결과
  - 6-1. 2040 한국의 미래 전망
  - 6-2. 2040 영유아부모의 자녀양육 형태 전망
  - 6-3. 육아지원정책 쟁점에 대한 비교 전망
  - 6-4. 2040 육아지원정책 전망(3개 내용영역별)



## 부록 1. 면담참여자 특성 및 면담내용

### 가. 면담참여자 특성

〈부록 표 1-1〉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결혼	자녀연령	취업여부
일반인						
미혼·기혼 남성	참여자 1(이OO)	남	35	기혼	7개월	○
	참여자 2(김OO)	남	35	미혼	-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참여자 3(홍OO)	여	32	기혼	16개월	X
	참여자 4(김OO)	여	36	기혼	6세, 5세, 17개월	휴직중
	참여자 5(신OO)	여	36	기혼	6세, 24개월	X
	참여자 6(최OO)	여	35	기혼	30개월	X
	참여자 7(유OO)	여	31	기혼	6개월 쌍둥이	휴직중
대학생	참여자 8(김OO)	여	25	미혼	-	-
	참여자 9(이OO)	여	25	미혼	-	-
	참여자 10(정OO)	남	25	미혼	-	-
	참여자 11(정OO)	여	24	미혼	-	-
	참여자 12(하OO)	여	24	미혼	-	-
	참여자 13(노OO)	여	24	미혼	-	-
전문가						
미래연구자	참여자 14(박OO)	여	57	기혼		
아동복지기관 실무자	참여자 15(전OO)	여	43	미혼		
	참여자 16(김OO)	여	29	미혼		

## 나.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에 대한 결과 분석은 녹취록을 기반으로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주제별로 묶는 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도출된 미래 육아 관련 수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미혼·기혼 남성

#### 가) 선택으로서의 결혼, 그러나 내재된 결혼에의 욕구

'서울시민 가족관 및 가족구조 주요 변화 현황' 보고서에서 결혼에 대해 2012년 현재 만 13세 이상 시민 중 34.1%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결혼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68.0%에서 62.2%로 감소했으며 남성(68.5%)이 여성(56.3%)보다 많았다(서울특별시, 2013). 본 인터뷰에 응한 남성 면담자들은 이러한 통계와 경향을 같이 하여, 결혼이 필수라는 의견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안정된 직업을 구하고 사회경제적 능력이 되면 하고 싶은 것으로 바램을 나타내었다.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전에도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죠...(참여자 1)

결혼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혼자 있어도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참여자 2)

#### 나) 개인적 성취와 사회경제적 생활 유지의 어려움으로 결혼을 하락 예상, 출산율 하락도 지속 예상

면담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소득, 학업 등의 성취 등을 언급하며 미래사회로 갈수록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아기들은 누군가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24시간 거의 같이 붙어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누가 전담할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죠. 출산이라는 게 쉽게 선택,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닌거 같아요.(참여자 2)

결혼.. 수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제 친구는 연애를 하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연애를 그만둡니다, 지금 그 친구는 경제력 때문에 아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대해요.(참여자 2)

자기가 일단 어느 정도까지 (사회경제적) 성취를 해야 거기서부터 자기의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아이를 낳는다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자녀를 자기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참여자 2)

#### 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둘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이상적인’ 자녀수는 둘로 생각하고 있었다.

있으면 둘이 있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하나는 너무...(참여자 2)

저도 가능하면 둘? 최대 두 명인 것 같은데요.(참여자 1)

#### 라)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계획 중인 자녀수보다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조부모 혹은 보육 도우미에게 자녀를 맡길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언급하였다.

셋 이상을 낳을 수 있으려면 일단은 양육에 대한 지원? 경제적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가 아니면(조부모에게 지원되는 육아비용을 의미함) ...저번에 보니까 주민센터였나? 출산 직후에 출산도우미 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양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클 거 같아요(참여자 1)

#### 마) 성별에 대한 선호는 없음

『세계문화사전』에는 ‘남아선호사상’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조선일보』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2005. 1. 3)에서는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에 찬성이 44.2%(반대 32.2%)로 나타났듯이, 남아선호사상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존재했었던 경향이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연령이 어려짐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이 20대 33.9%, 30대 32.4%, 40대 42.7%, 50세 이상 63.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었듯이, 본 면담의 참여자들도 성별에 대한 선호는 없음을 나타내어, 미래사회로 갈수록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짐-최소한 남아에 대한-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대한 선호는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딸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참여자 1)

저는 자녀 성별은 큰 상관이 없어요.(참여자 2)

#### 바)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음

현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남성 면담자 중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는 면담자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것과 함께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의 이해도가 떨어짐을 보여준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참여자 1)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재 육아지원정책만으로는 출산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지원이 충분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출산 전에 나오는 거하고 태어났을 때 구청에서 나오는 이런 것 정도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출산하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받는 돈으로는 상쇄가 되지 않으니까 출산 시 당연히 이런 거는 고려를 크게 안 했겠죠.(참여자 2)

#### 사) 남성이 육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의무적인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원함

남성 면담자들은 직장과 사회의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들이 육아에 대해 점차적으로 참여도가 줄게 되어 미래에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긴 근로시간에 집중된 노동문화가 가져오는 신체적 건강의 부담과 가족생활의 저해에 대해 우려와 고민이 적지않았다. 미래 안정된, 안락한 삶에의 불안감이 저출산 현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요새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경쟁적인 구조로

가서 늦게까지 일하게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저녁 있는 삶’ 이런 게 공약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아기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이런 노동문화가 지속되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소외되는...지금은 아직 아기가 어려 모르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제 비중이 줄어들면 아이하고도 관계가 서먹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1)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과연 제가 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만약에 그 시간에 회사에 있게 되면 자신의 체력을 고갈해 가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체력이 중장년 대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또 다가오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 될 것이고 만약에 죽게 되면 집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걱정이 계속 가중될 것 같아요.(참여자 2)

면담 참여자들은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실제로 여성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 후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주저하며 차라리 ‘의무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희망하였다.

출산하게 되면 옛날에 스웨덴인가 보니까 거기서는 출산하고서 이제 휴가를 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남자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그런 제도도 고려를 해봐야하는데(참여자 2)

아) 현재의 육아풍토는 ‘과열’되어 있음. 육아비용이 많이 듦.

남성 면담자들은 현재의 육아풍토가 ‘과열’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고, 주로 그러한 분위기는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아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요즘 현 상황자체가 너무 과열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원래 전업주부이면 보통 집에서 아기 보고 있다가 나중에 좀 더 크면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전에 아기를 어린 이집에 맡기거나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되는 면이 많죠.(참여자 2)

그건 어머니의 본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 엄마들끼리는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빈부차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집에서 가령 월 하면 내 경제력은 좀 떨어져도 우리 아이는 내가 이걸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 경제력에 비해서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이 엄마가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들에 비해서, 그 남들

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일 것 같긴 한데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쓰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1)

#### 자)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생각

입양, 동성혼, 동성혼자의 입양, 위탁,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입양에 대해서는 남성 면담자 둘 다 호의적이었으나, 아내(여성)의 경우 반대 의견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입양에 대해 아내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비교적 막 싫어하지는 않는 데 배우자는 적극적인 반대죠. 아마 자기 몸에 아이를 품고 낳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1)

입양에 대해 저는 상관이 없는데...저의 가치관 이야기지 실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날 문제는 다를까 같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많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저는 입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참여자 2)

동성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동성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양된 아이들의 정체성을 이유로 면담자 모두 회의적이었다.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뭐 동성혼을 하는 건 관찮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의 입양을 허용해주는지 마는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참여자 2)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정(동성혼 가정)이 똑같은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양성이 결합된 가정이란 똑같은지, 그래서 오히려 입양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 어떨지 그게 조금 문제일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해서 사는 건데 그런걸 뭐 규제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입양문제가 제일 크죠, 상속도 상관없어요....그래서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참여자 1)

#### 차) 아내(여성)의 취업에 대한 생각

면담자들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빈둥지 증후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여성(아내)이 미래에도 본인의 직업을 향유하기를, 육아 후에도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야하는데, 글썽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었더라면 그 참에 쉬는 것도 괜찮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가 아기 때문에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면 많이 공허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저는 계속 자기개발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참여자 1)

아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봐도 상관없어요. 계속 자녀들한테 애정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봐 줘야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려면 전업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주부로 있는 남편은 전업주부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요새 삶 자체가 그러한 형태를 용납을 못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결국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일을 뛸 수 있으면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참여자 2)

## 2)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가) 양육이 너무 힘들어 후회가 될 때도 있음.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당히 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기혼 남성 면담자보다 양육이 힘들고 고달픔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면담자 모두 양육 때문에 숨이 막히고 화가 나고, 결혼과 출산을 한 사실이 후회가 될 정도로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어 이는 미래 후속 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였다.

엄마 얼굴만 보이면 칭얼대는 그 소리가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 애지만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좁은 공간에서 애랑 단둘이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애는 계속 저한테 칭얼대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것 저것 해줘 봐도 계속 칭얼대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가슴이 탁탁 막히고 숨이 막혀서 정말...저도 살아야 하니까. 제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애한테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요. 또 화내면서 후회를 하죠.(참여자 3)

차라리 어쩔 때는 정말 결혼을 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애기를 낳음으로써. 나는 결혼 정말 괜히 했다,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절대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을 꺼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사실은 해요.(참여자 7)

나) 과거의 모성관과 현재의 모성관은 다름. 부모 양성이 함께 공유하는 육아를 기대함.

면담자들은 ‘아기는 엄마가 돌보아야 하고, 어머니에게는 본능적으로 모성이 있다’는 과거의 모성관을 모두 부정하였다. 과거에는 모성이 당연히 되었을지

모르나, 현재의 모성관에 있어서 모성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남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해 터부시하며 (산후우울증 함께) 혼자 죄책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아기는 엄마가 봐야한다는 그런 사회적 관념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저희 신랑은 애 엄마인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강해요. 신경 전혀 안 써요.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참여자 7)

근데 전 애기 낳고 한 달 왜 힘들었냐면 죄책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애기를 낳고 나왔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애기가 예뻐 줄도 모르겠고, 일단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참여자 7)

“야 네가 엄마냐?”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랑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원데?” 그랬더니 “야,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저희 신랑도 기본적으로 엄마에게는 모성이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참여자 7)

저도 모성이 본능이 아니고 길러지는 거 같다는 거를 느껴요,...키우면서 모성이 생긴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밖으로 얘기해도 되나.(참여자 4)

남편은 돈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양성의 역할이 구분된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母)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남녀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형태를 희망하고 있다.

#### 다) 후속 출산 계획 없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하는 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 한 명을 낳고는 더 이상 출산할 엄두를 못 내겠다는 의견으로 후속 출산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후속출산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들었다. 친정과 시댁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홀로 양육을 맡아야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후속출산계획 없음에 유의한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막상 키우다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정이랑 시댁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 인데...(4살이 되니) 너무 재밌고 아이가 말도 너무 잘해요.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이렇게 지내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 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 양가 부모님들이 또 둘째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만 날고 싶다고 굳이 하나를 더 날아도, 도와주실 생각들도 없으세요. 둘째를 낳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참여자 6)

라) 현재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양육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아이돌보미제도 개선 의견

아이돌보미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현재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 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정책수혜율과 정책인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만족도와 효용감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요구된다.

아이돌보미는 제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직 어리고, 낮가림도 조금씩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아이한테도 성향이 있는 거고 놀아줘도 성향에 맞게 놀아줘야 되는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계속 낯선 사람이 와서 봐주는 거니까 아이한테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참여자 7)

그런 거(아이돌보미)는 솔직히 대기자수도 너무 많고요. 정작 우리들이 필요할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 이럴 때 하고 싶은데 하루 이틀 전이나 일주일전에 해도 안돼요. 아시죠? 솔직히 저희한테 정작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이 아무리 있어봤자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되는데..(참여자 3)

왜 이렇게 아이들 보내기가 힘이 들어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참여자 5)

또한 현재 육아지원기관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만 두 돌이 됐는데 영어수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된다고 하지마시라고 했더니 아니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이번에 새로 3월이 되면서 체육수업도 넣고, 영어수업 넣고, 미술 세 가지 수업을 강제적으로 넣으시더라고요. 돈을 하나에 거의 3만원? 그래서 9만원을 더 내야해요(참여자 6)

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미취업 상태인 여성 면담자는 앞으로 직업을 갖고는 싶으나 자녀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선뜻 취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취업 상태(현재 육아휴직중)인 면담자는 경제생활을 해도 본인소득의 대부분이 육아도움에 대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큼을 드러냈다.

앞으로 계획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걸림돌이 아이들을 맘편히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어요.(참여자 5)

솔직히 저 복귀하면 월급 거의 80프로는 그냥 육아비용으로 나가요. 이모님 월급 드려야 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 좀 드려야 되니까.(참여자 7)

#### 바) 육아를 배려하는 근무 환경이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배려하는 직장내 환경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하여, 미래사회에 직장내 육아 환경 개선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발전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7)

제가 출산 하루 전날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장에서 근무시간 관련하여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어요...모유수유도 했거든요. 그럴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유축도 할 수 있었고 뭐 냉동실에 넣고 이런 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 사) 모성보호제도 실행의 병폐

그러나 융통성이 없는 모성보호는 오히려 출산과 육아를 저해하기도 한다. O기업의 경우 임신기간과 출산 후 1년동안 '모성보호 기간'으로 지정되어 보호대상자가 8시간 근무를 넘길 경우 상사가 벌점을 받게 되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어, 오히려 그러한 보호대상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제도만 만드는 것이 아닌, 일가정 양립의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룹장님도 좀 꺼려하는 거예요. 제가 복직을 하는 게, 야근을 못 시키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사회에서도 잉여인간이 되는 건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참여자 7)

#### 아) 과거보다 현재 육아가 더 힘들어졌음

여성(母) 응답자들은 과거보다 현재 육아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대가족 구조 내에 살면서 육아 품앗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

한 도움을 가족 내에서조차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

저희 엄마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서 좀 멀리 이사를 갔거든요. 애가 말기지 말라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침 맞고 오셨다고 그 얘길 하시는 거예요. 양쪽 집안들이 똑같아서 남편한테 뭐라고 불평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날이 까마득하다 했는데 막상 키우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6)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가끔 힘드실 때, 외갓집에 저와 오빠를 보냈거든요. 거기 외삼촌도 있고 이모도 세 명이나 있고 외할머니 오시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사실 너네는 어렸을 때야 외갓집에서 몇 달씩 봐주고 돌아가면서 봐서 안 힘들었는데 너네세대는 그게 없으니까 더 힘들겠다고.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세요..(참여자 7)

#### 자) 과거와 현재의 양육관이 다름

막상 부모님의 양육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키워왔던 양육관과 현재 본인들의 양육관은 많이 달라졌고, 부모님세대와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만이 있음을 드러냈다.

저도 엄마 아빠 도움 안 받을 수 있다면 말기고 싶지 않아요. 옛날 육아스타일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아빠는 안고만 계시는거예요, 다칠까 봐. 돌보미 이모가 보고 계셨는데 아기체육관 막 달랑달랑하니깐 얼굴 다친다고. 놀이 제재를 하시는거예요. 그런게 좀 안맞는 거 있어요.(참여자 7)

#### 차) 남성이 육아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육아가 어머니 몫으로 되는 것에 불편한 심정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직장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이 육아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참여 수업 때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유치원 참여수업 때 꼭 아빠를 데리고 오게끔. 참여수업간다고 하면 휴가를 내줘라 요구하고 싶어요. 아빠 부모교육을 꼭 넣어갖고. 아빠 역할 너무 중요하거든요.(참여자 6)

남편들이 일찍 안들어오는 게. 저희 남편은 애들을 잘 봐줄려고는 하는데, 집에 안와요. 집에 오는 시간이 12시인데...저녁은 아빠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참여자 4)

### 카)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생각

다문화가정, 입양, 동성혼, 동성혼자에 대한 입양 허용 등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을 때, 여성(어머니) 면담자의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입양은 싫고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참여자 6)

제 애도 힘든데. 애를 안 낳았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참여자 3)

(동성혼에 대하여) 가능은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한테 그 집 아이랑 놀게 하고 싶지않아요.(참여자 7)

다문화가 아니라 가정형편, 즉 일부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문제인 것 같아요.(참여자 7)

### 타) 미래 육아정책 수요

미래 육아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대한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양질의 일시 보육 인프라와 육아휴직의 확대, (예비)부모교육의 체계화 및 내용의 확대, 의무화에 대한 수요도 나타났다.

일단은 보육시설에 맡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사회는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러잖아요. 세 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역할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들어요. 6개월 키워본 결과 제가 24시간 본다고 잘 보는 게 아니더라구요.(참여자 7)

어린이집 외에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좋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참여자 6)

또한 자녀가 영유아기동안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직업처럼 인정해서 사회가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어린이집을 늘리고 도움이 되게 확대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엄마도 하나의 전문성 있는 직업처럼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한 3년, 5년. 아이가 영아기 때,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정기간을 사회적으로 인정, 보장해주면 어떨까요.(참여자 4)

그리고, 예비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지구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되어 건강한 미래에서 자녀들이 살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실제로 어머니가 되기 전에 양육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 제도도 제안하였다.

(예비부모교육에) 지구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몇 년 사이 지구환경이 병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은데. 이런게 미래 출산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참여자 6)

양육시스템의 체험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예: 어린이집 인턴프로그램 활성화). 그래야 나중에 애기 낳았을 때 어려움도 알고, 애들 교육도 알 수 있고.(참여자 7)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 있어서 그걸 이수한 경우에 산부인과의 특정 서비스를 받는 등, 부모교육 의무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 안 된 부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참여자 3)

### 3) 대학생

#### 가) 개인 진로와 결혼관, 출산이 관련되어 있음

면담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학부과정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는데, 진로가 취업이든 대학원 진학이든 간에 자신의 진로와 결혼을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위해 현재 거주 지역(도시/국가)에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같이 공부하며 생애주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배우자를 희망하는 등, 결혼과 직업, 출산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계획하고 있었다.

제 진로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참여자 9)

저와 생애주기에 흐름들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참여자 10)

#### 나) 미래 이상적으로 바라는 수요와 현실에서의 실제와의 괴리 큼.

대학생 면담자들은 미래 이상적으로 바라는 수요와 현실에서의 실제 타협안과의 괴리감을 매우 크게 실감하고 있었다. 결혼과 출산은 건강하고 예쁠 때 가급적 빨리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안정이나 후속 학업 성취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바라는 대로 실제 실현하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었다. 미래 수요라

함은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사회적으로 가야할 방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일련의 트렌드가 현실적응의 삶을 살아낸 결과이지, 미래세대가 바라고 추구하는 근원적 수요는 아님을 드러냈다. 높아진 삶의 질과 기대수준, 그것을 성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고민이 저출산과 결혼의 지연이라는 사회적 내재되어 있다.

애기는 빨리 낳고 싶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모순이 있어요..(참여자 8)

사실 마음속으로는 결혼을 서른 전에, 좀 더 건강하고 젊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참여자 13)

보통은 결혼을 삼십대 전에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게 중요하니까. 직업도 없는 데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다 갖춰지면 하려다보니, 결혼하기까지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거 같아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비슷할 꺼 같아요(참여자 10)

#### 다) 향후 결혼 및 출산 계획

20대 중반 면담자들은 향후 결혼과 출산 이유에 대해, 미래에 외롭게 지내고 싶지 않은 심리정서적 동기를 들었고, 출산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모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남편이 없으면 나중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제도적으로 묶어주는 그런 거잖아요.(참여자 11)

애기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12)

결혼할 생각은 있으나 출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도 있었다. 출산 후 신체적 변화가 두려워서, 양육부담의 두려움,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운택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산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사실 애기 낳으면 여자 몸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저희 엄마도 출산후에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 신체적 변화와 부담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참여자 8)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자녀는 2명을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상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없이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갖 고생과 돈 걱정을 하면서 애를 키워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왜 다들 애를 안 낳으려고 하지? 했는데..점점 제 일이 되니까 고민이 되네요.(참여자 13)

#### 라) 내가 받은 양육과 내가 할 양육은 달라지기를 바람

부모의 양육 방법이 어떠했던 간에, 면담자들은 본인들이 자라온 양육 환경과 내가 자녀를 양육할 방법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벌이여서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녀를 본인이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면서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의 자녀들이 할머니·할아버지만 따를까봐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였다. 반대로 화목한 가정과 전업주부인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은 면담자의 경우에는 '나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기저귀를 떼자마자 보육시설 같은데 보내졌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뭘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싫었습니다.(참여자 13)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셔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의 자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래요.(참여자 8)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 엄마는 이래야 한다 아내네는 이래야 한다는 상이 되게 높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제가 가진 에너지가 백프로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제 안에 벌써부터 불편한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이가 없어도 된다 우리 둘이 잘 살자라고 얘길 하면 둘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9)

#### 마) 육아와 가사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가 독려되어야 함

참여자 9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육아와 가사의 영역에서는 아버지(남성)가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즐거운 삶의 경험의 기회를 남성에게서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11 역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소원함은 아버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미래사회에서는 정시출근 및 정시퇴근의 정착 등과 같은 문화와 구조의 개선을 통해 아버지의 역

할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손으로 만들어내고,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실제 살아가는 것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노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좋은 노동과 육아와 같은, 자기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참여자 9)

EBS에서 「파더쇼크」를 봤는데, 아빠역할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40대 남성들의 얘기였었는데, 한 아빠는 정시출근 정시퇴근하고, 두 명 아빠는 시간이 없으니 애초에 아이들처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참여자 11)

아버지도 의무적으로 육아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고, 돕는 수준의 소극적 참여가 아닌 자기주도적인 책임의식하의 공유와 참여가 요구되는 문화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엄하고 가사일에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면담자의 경우, 본인이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과 가사를 적극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의무적으로 육아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8)

부모 둘 다 똑같이 양육능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사도 육아도(참여자 10)

#### 바) 현재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회의적임

현재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는데, 현행의 정책이 여성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행 수준의 비용지원정책만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한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녀 모두) 모든 사람들이 정시 출퇴근만 해도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1)

일 가정 양립정책이 너무 여자만 떠올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고루 정책이 실행되어야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참여자 12)

#### 사)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한 생각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서는 양립된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가족제도가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근대적인 가족모형에 대한

균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는 반면, 주위에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2~30년 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저는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식의 근대적인 가족 모형이 이미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균열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참여자 9)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라는 게 이게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형성된 개념이고, 스스로도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회적으로 구성된 측면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해서..어떤 방향이 좋다고. 지금 결혼제도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인데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개인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장려해야 되는 그런 생각. 다양하게. 지금의 어떤 제도 속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전제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1)

기존의 가족 부모와 자식이라는 틀이 완전히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우리 쓰는 부모에도 너희 부모님은. 단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저는. 아주 2~30년 안에는 가족에 대해 큰 변화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참여자 13)

제가 불임이지 않는 이상 입양은 안할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과연 내가 피가 섞이지 않는 애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참여자 8)

또한, 동성부모 또는 인공수정 부모에게 자녀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성부부에게서 선택되는 애기들이 뭐랄까 안됐다고 해야 되나. 그 아이들도 선택권이 있어야 할 텐데. 물론 우리가 부모를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참여자 8)

생물학적으로는 부와 모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두 분 다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달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이한테는 힘든 문제잖아요.... 먼 미래에 너네 가족은 어떤 형태니 하고 된다면 나는 아빠가 두 명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일 꺼 같아요...(참여자 12)

#### 아)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로는, 남녀 간 역할구분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됨으로서의 부모(체험실습)교육이 아동청소년기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기모형의 인형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결혼관 및 출산관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지 학교 이런 거는 민간...국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아버지가 아니면 힘든 일이잖아요. 홍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2)

부모교육.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그거 들으면서 생각한 게 모든 청소년 혹은 청년 나이의 심대 후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들려줘야 하는 얘기 아닌가.(참여자 9)

키우는 거. 남자 여자 한 학생씩 키우는 거 해보았어요. 인형 모형인데 애기 무게 그대로고, 똥을 싼게 기계적으로 표시가 되고, 자다가 먹어야 되고. 기록이 남던가 해서. 그런 거 해보면 고생도 해보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해 부모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함을 배울꺼 같아요. 성교육과도 연결되서 무책임하게 애를 낳아서..임양시키면 되지는 생각을 키우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과 출산, 결혼, 가족,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인식도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13)

또한 미래에는 가족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공동생활이 가능해 지는 사회상을 그리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서구식 개인주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안에는 과거와는 다른 현대적인 새로운 의미의 공동체적 교류와 협업에 대한 수요가 잠재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으로 미래의 결혼과 가족을 그리고 있어, 현재의 제도 또는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그려진다.

우리 가족의 울타리, 낭만적인 사랑으로 포장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열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 하듯이 좀 울타리가 낮아져서 그냥 다 같이 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참여자 9)

#### 4) 미래연구자

##### 가) 저출산에 대한 우려

미래연구자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미래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논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데이빗 콜먼.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다, 왜냐하면 최저출산율이니까...(중략) 출산율 1.1 추계를 했을 때에 2140년이 되면 이렇게 되고 2305년 되면 남자 2만7천, 여자 3만 이렇게 해서 5만7천명만 남아요...(참여자 14)

미래사회.. 아이들은 없고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양산업 1위 아동복지, 아동복지사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측 1호.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 낳거든요, 지금 이대로면.(참여자 14)

한국의 인구가 0이 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며,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며, 누가 우리나라에 물건 팔려고 지점을 내겠습니까?(참여자 14)

#### 나) 인구정책과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성과를 기다려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타국의 사례를 들어 육아지원정책 일변도 보다는 이민정책과 같은 인구정책의 유연성을 필요로 함을 피력했다. 그러나 육아지원정책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래예측에서는 인구를 shift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은 50년 걸린다는 걸 바탕으로 깔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정책을 바꿔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잖아요?(참여자 14)

프랑스가 1.78일 때 했어요. 그러가지고 지금 50년 하고나니까 1.97, 1.98이 됐어요. (육아지원정책이 기여한 부분보다는) 이민정책으로요.(참여자 14)

#### 다) 다양화된 가족구조에 대한 시각

참여자14는 다문화정책의 활성화를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었는데, 한국을 전세계 국가 중 다문화와 이민에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보고, 적극적인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유치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문화 밖에 없어요. 나중에 한국에 5만 명만 남지 않게 하려면 다문화가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호주 정부를 보니까, 다 알아요, 다른 인종과 문화가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하지만 나라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예요...(중략)...마지막에 뒤늦게 이민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국에 아무도 안와요.(참여자 14)

또한 지금의 혈연의식과 가족제도만을 고집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위탁부모, 미혼부부, 동성부부 등의 다양화된 가족구조로의 변화가 미래 추세이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5) 아동복지기관 실무자

### 가) 아동의 행복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긴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면 아동학대도 줄어들고, 아동도 행복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주하게 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이게(아동학대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매년 6천 건에서 8천 건 정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던 걸로 기억해요.(참여자 16)

### 나) 사회변화와 아동학대

참여자는 사회변화들과 아동학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초반에는 아동학대가 알콜, 우울,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었다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부분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초반에는 아동학대하면 엄마 알콜이야? 엄마 우울이야? 아빠 알콜이야? 엄마 정신질환있어? 초반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점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 층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개인 요인은 어차피 사회서비스나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만 이 층이 넓어진다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15)

또한 이전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도 아동학대 유발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즉, 전통사회의 대가족 사회에서는 아동의 양육이 분산되었던 반면 현대로 오면서 양육부담은 집중되고, 또한 맞벌이를 해야만 아동의 양육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부모들이 받게되는 양육과 직무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가되고 있다

는 것이다.

(조)부모와 이모, 고모, 삼촌 해서 과거에는 양육의 역할이 분산되고 양육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든지 좀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엄마랑 아이 딱 핵가족화 안에서 게다가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교육비를 벌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되어서... 정부가 맡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정부의 체계는 취약한 상태에서 가정이 힘들고 병들고 있다고 봐요.(참여자 15)

#### 다) 아동복지의 나아갈 길

1962년 아동복지법의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15와 16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한적인 기능 등을 예시로 들어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사후처치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인가요? 질문에) 아니에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은 현장조사까지의 기능으로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치료나 상담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아요.(참여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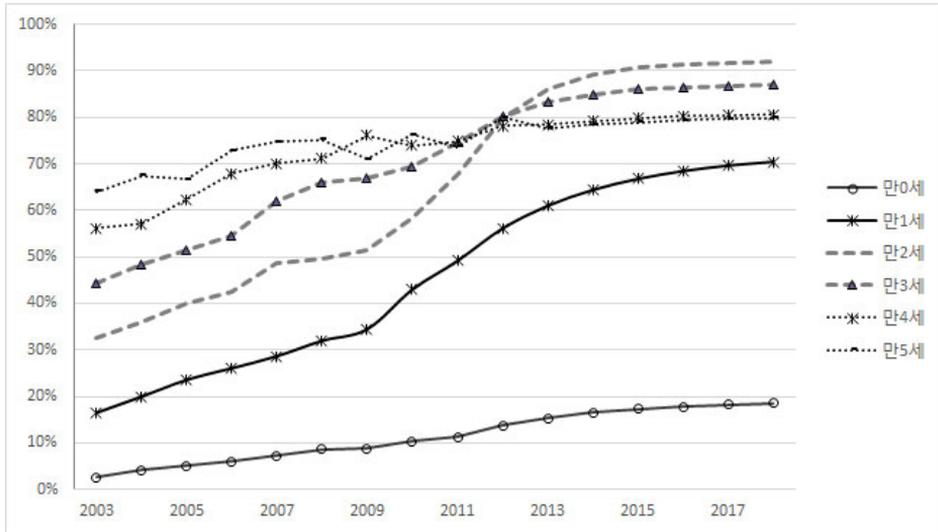
(아동학대 발생 시) 일반 경찰서 같은 데는 충분하게 하지 못하거나 유인 질문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이걸 증거로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다시 진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안 좋은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처음 진술 했을 때는 힘들게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다른데 가서는 다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면 그 때는 이야기 해놓고 왜 기억이 안 나냐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 진술의 증거 채택도 잘 안되고 있어요(참여자 16)

또한 아동복지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이미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이슈나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미래사회에는 과거 가족내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와 같은 응급 요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이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중요한 수요로 나타났다. 즉 육아관련 서비스 내용 면에서도 영유아기 보육교육과 돌봄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내용과 사건 등의 발생 수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 보호하는 체계의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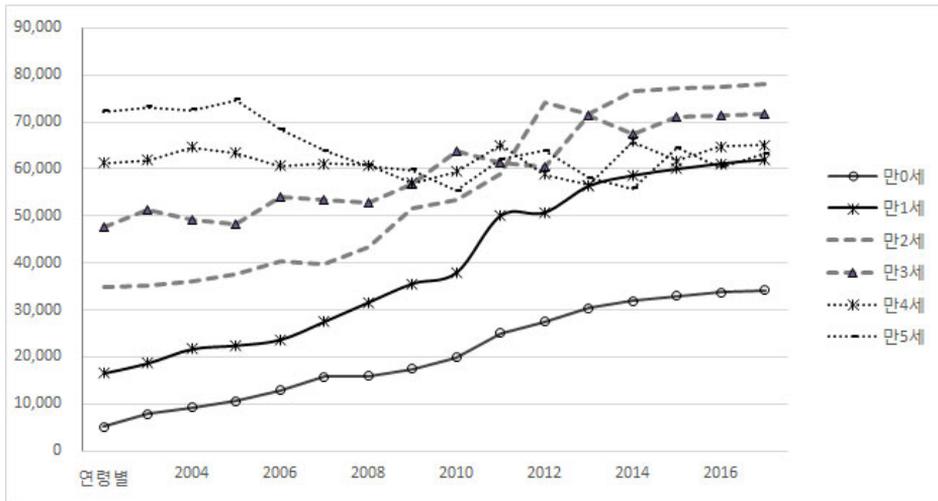
이미 유형화된 전달체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높다보니깐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회 이슈나 문제에 대응할 서비스 비용과 대응체계는 좀 없다는 느낌이에요.(참여자 15)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논하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취약계층이나 특별계층한테 주었던 서비스가 일반계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개인이나 민간에 아직 위탁되어 있는 상황들이죠...(중략)...심리사회적 기능이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해소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안 되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되고 제도화 되어야 되고.(참여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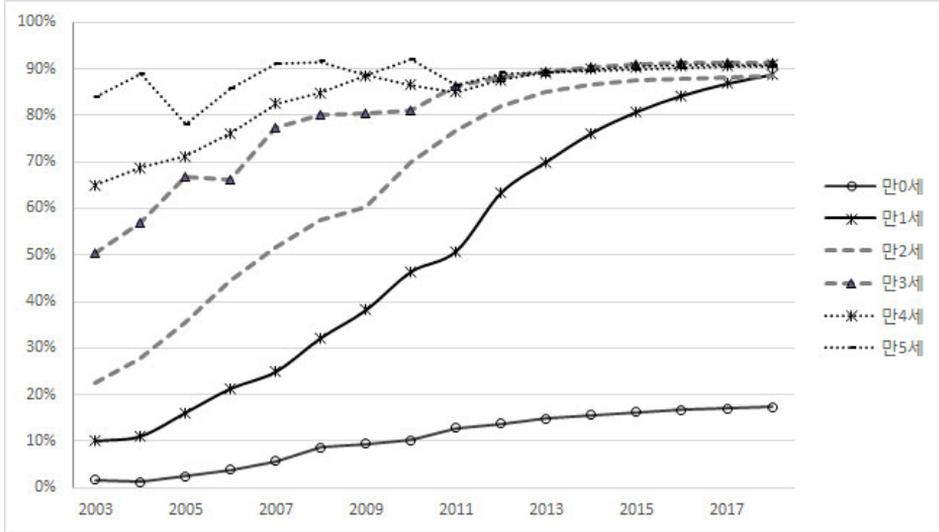
부록 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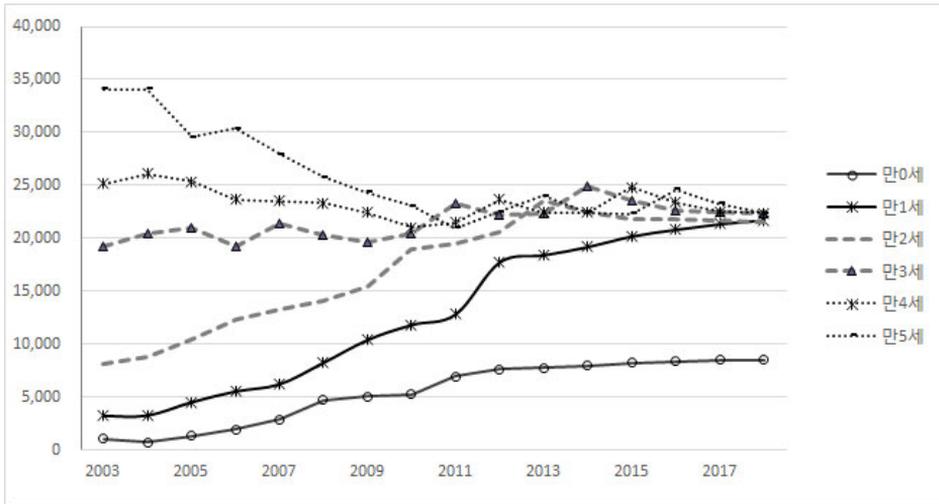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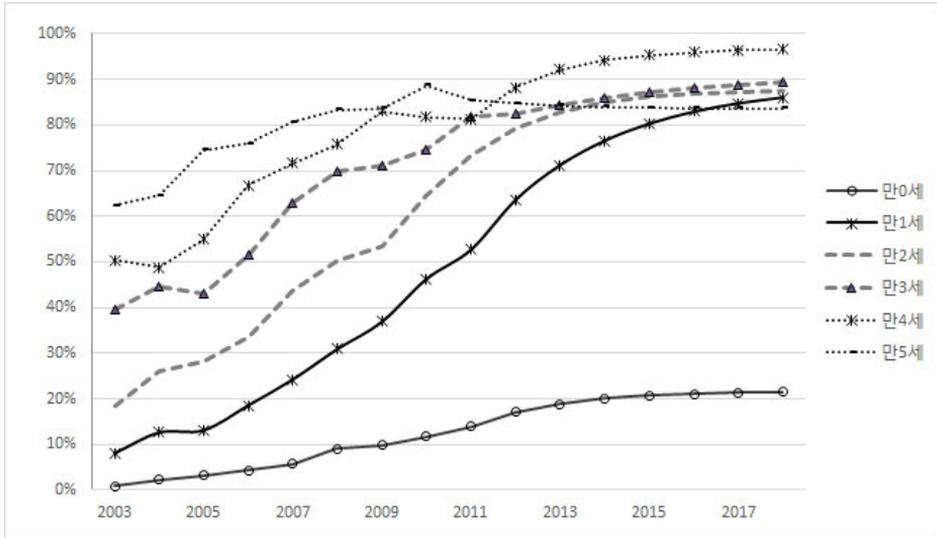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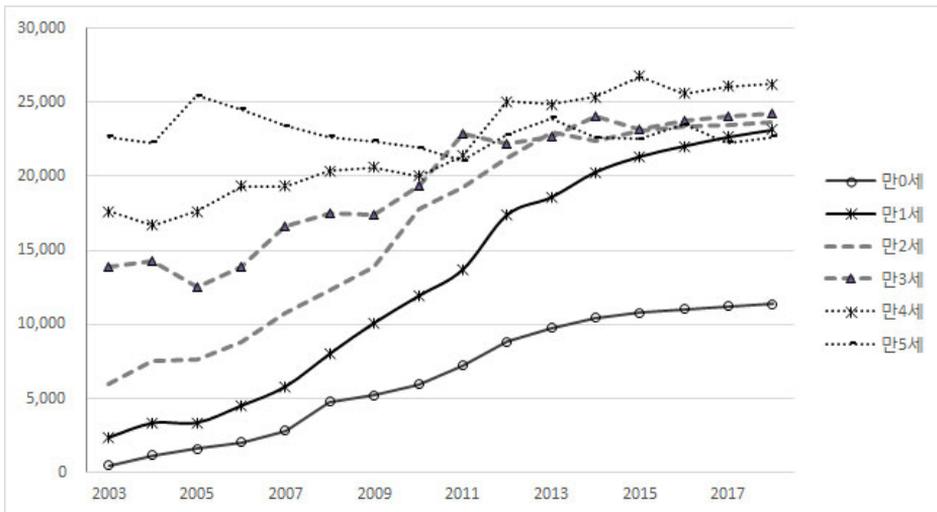
[부록 그림 2-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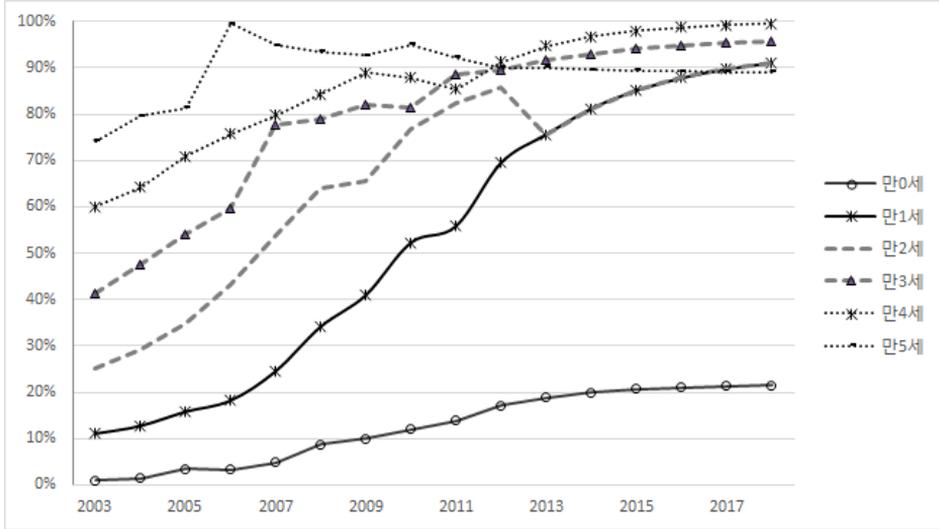
[부록 그림 2-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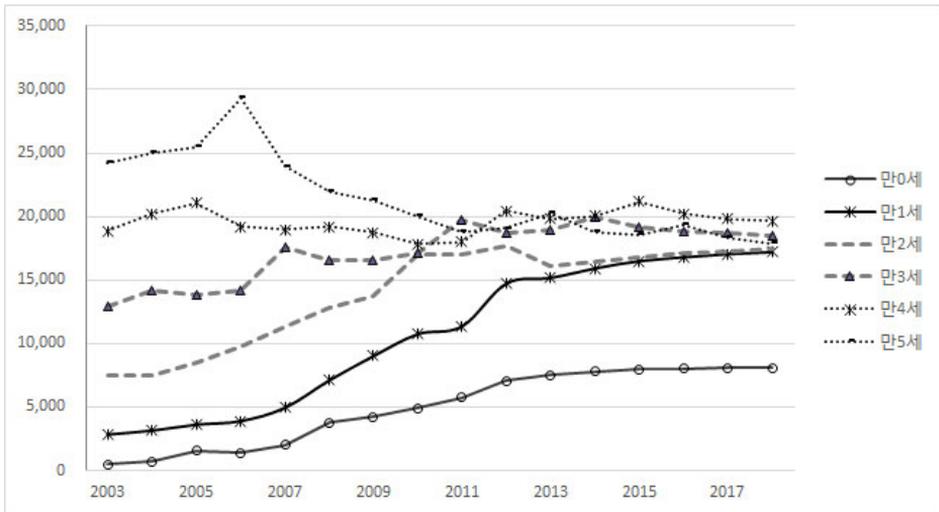
[부록 그림 2-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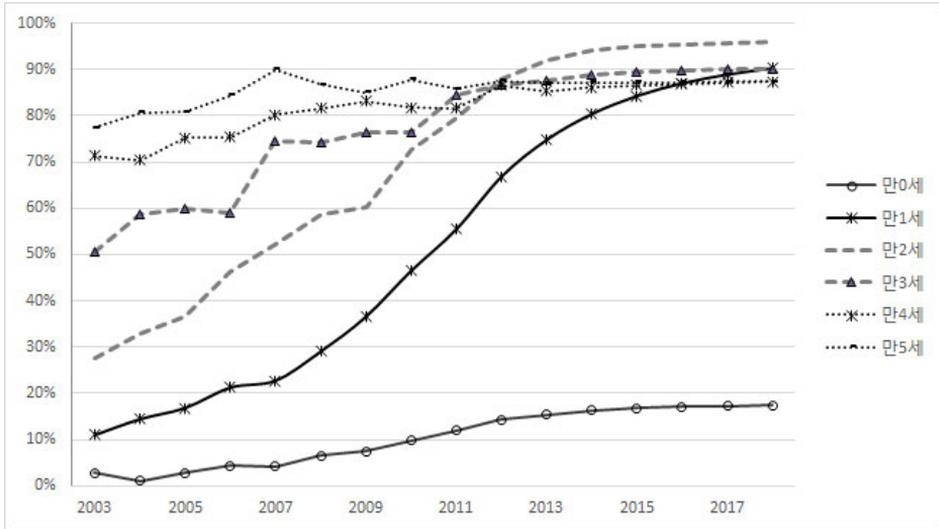
[부록 그림 2-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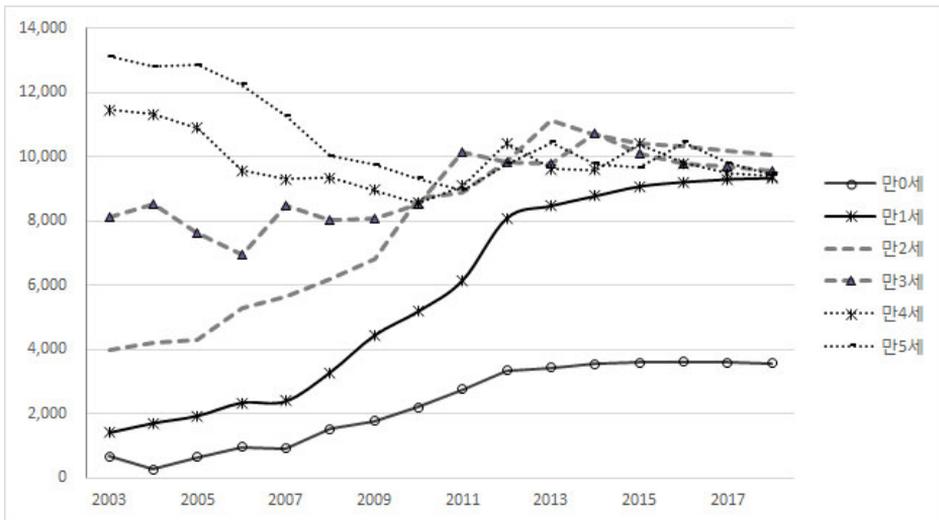
[부록 그림 2-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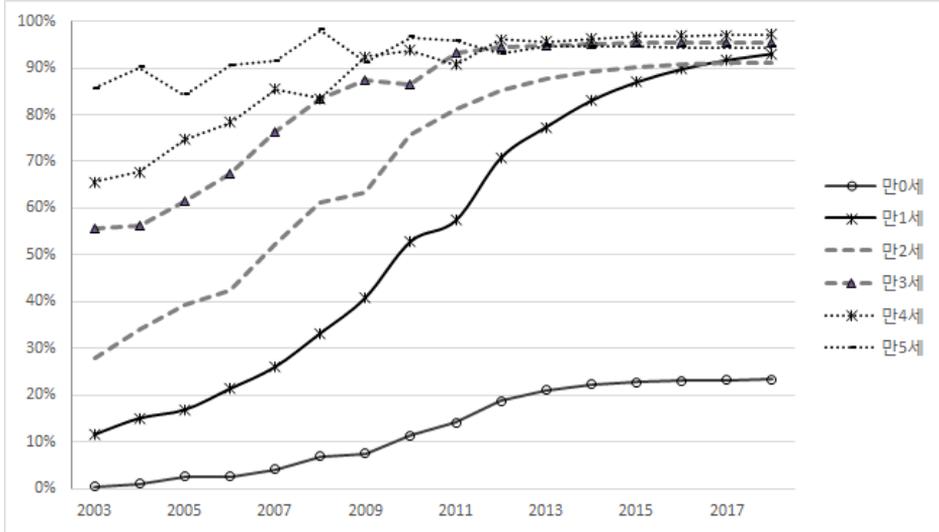
[부록 그림 2-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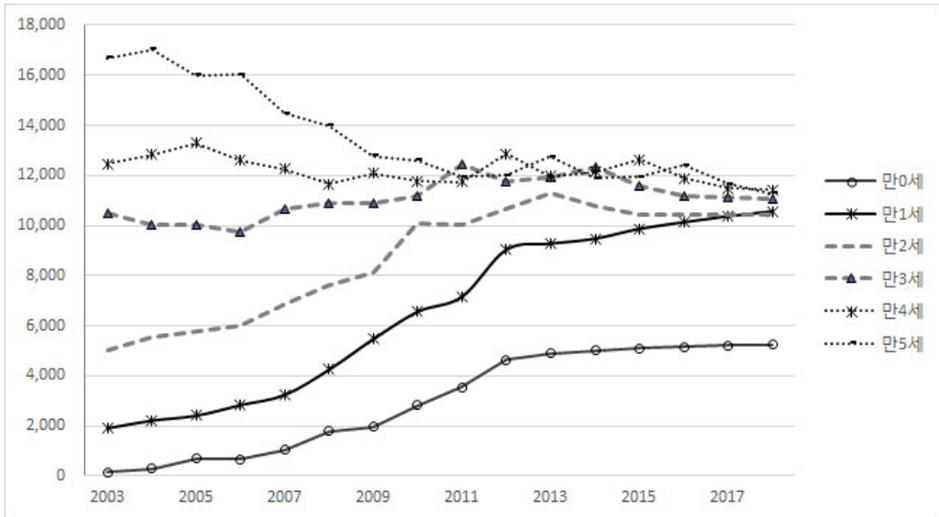
[부록 그림 2-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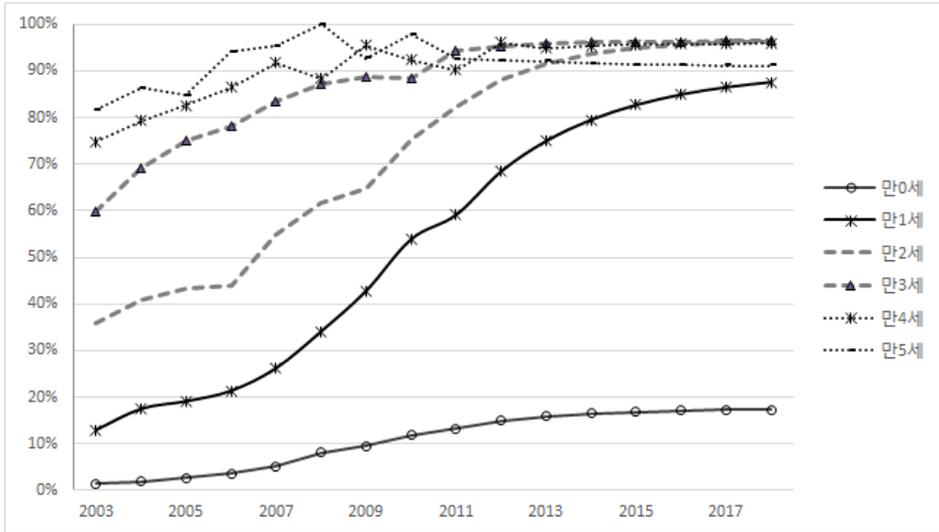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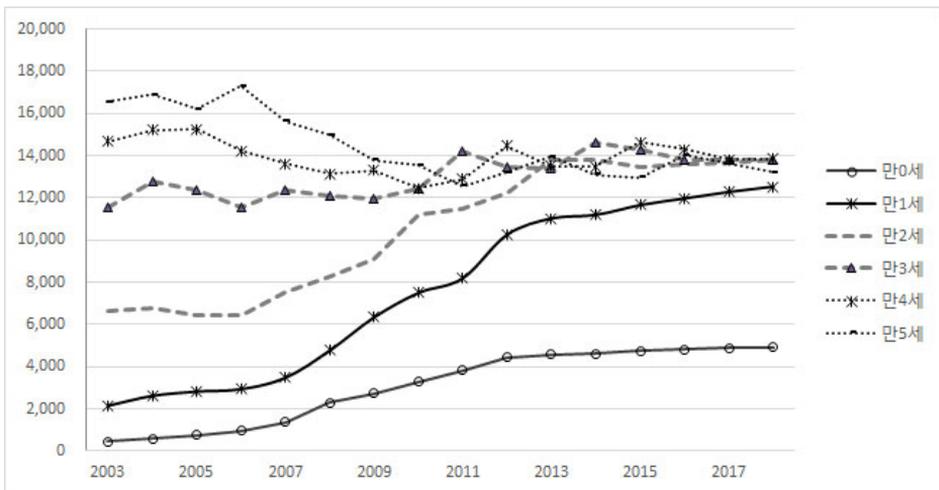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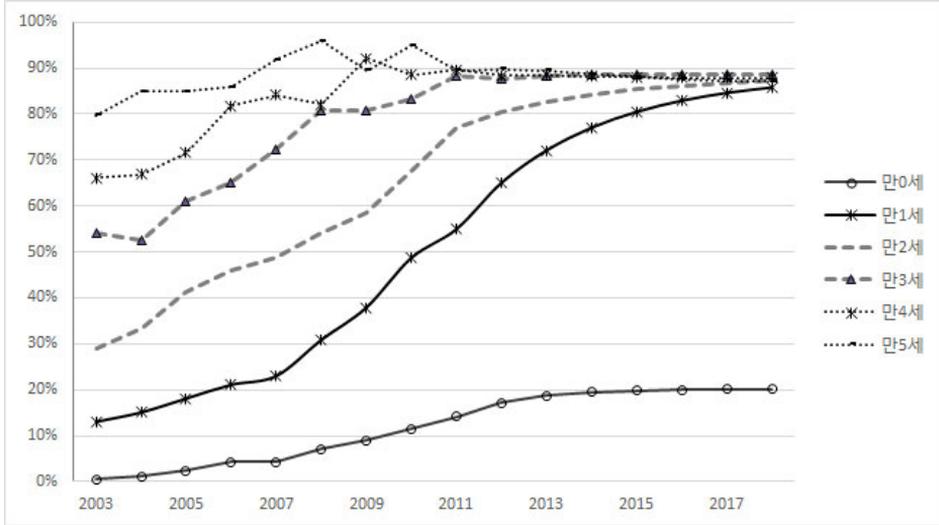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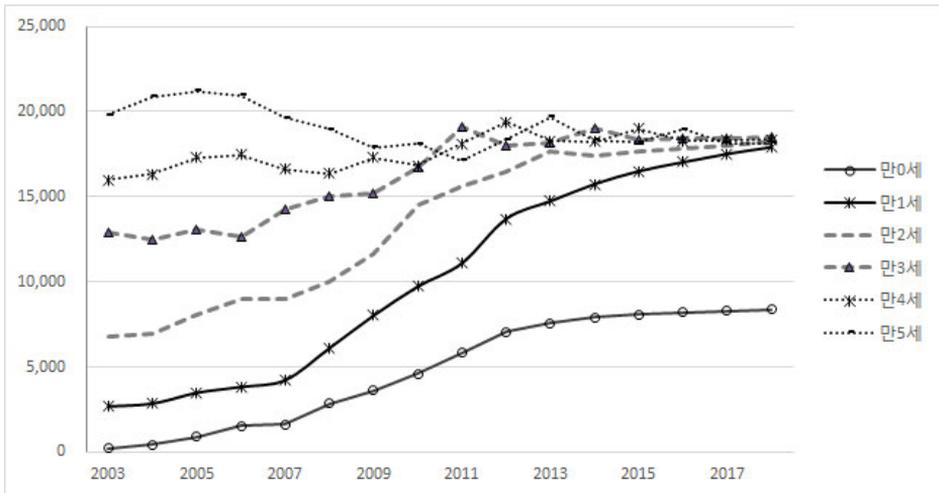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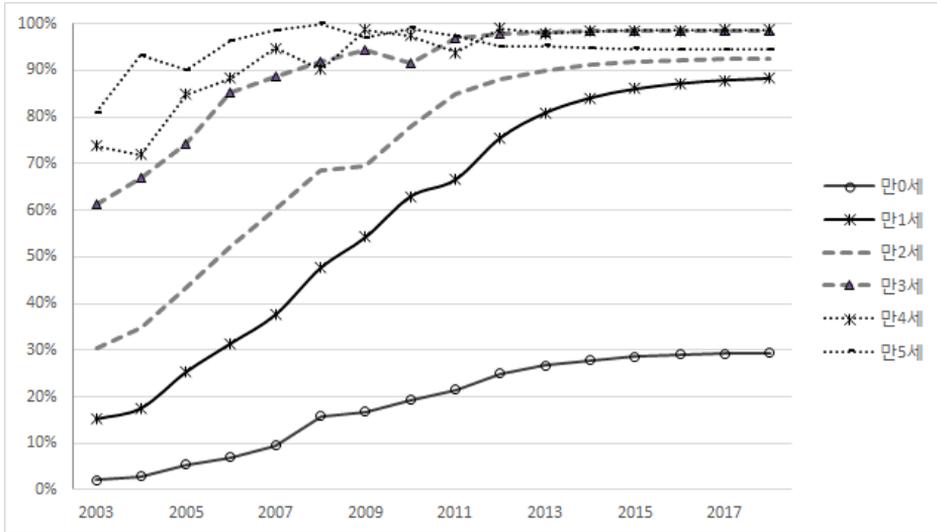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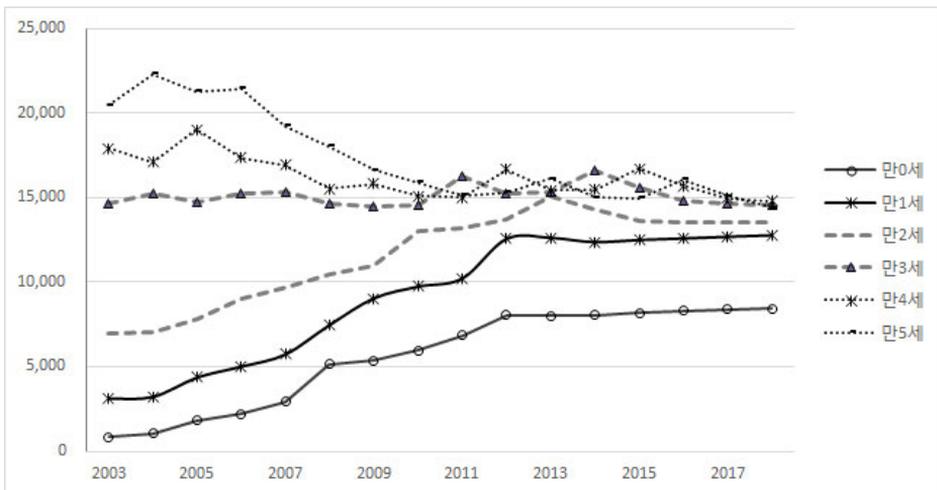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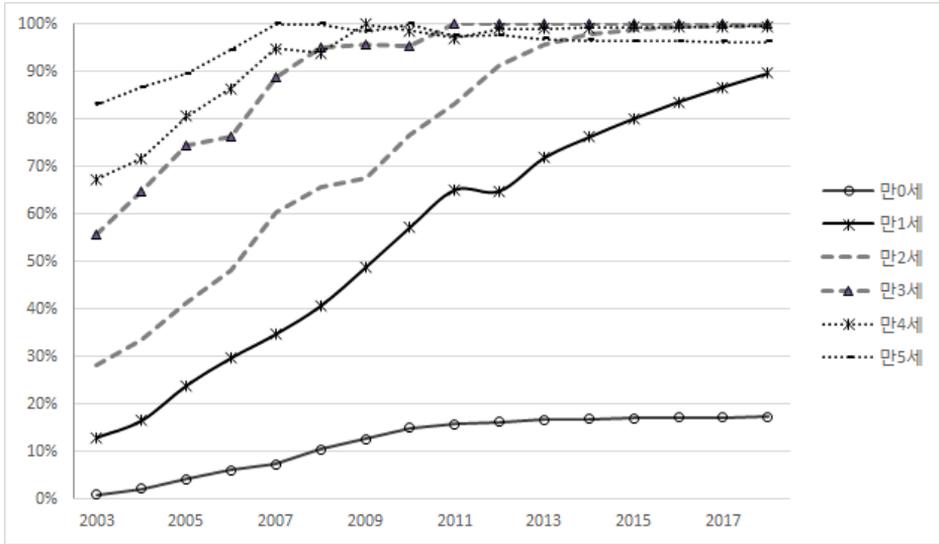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수 예측(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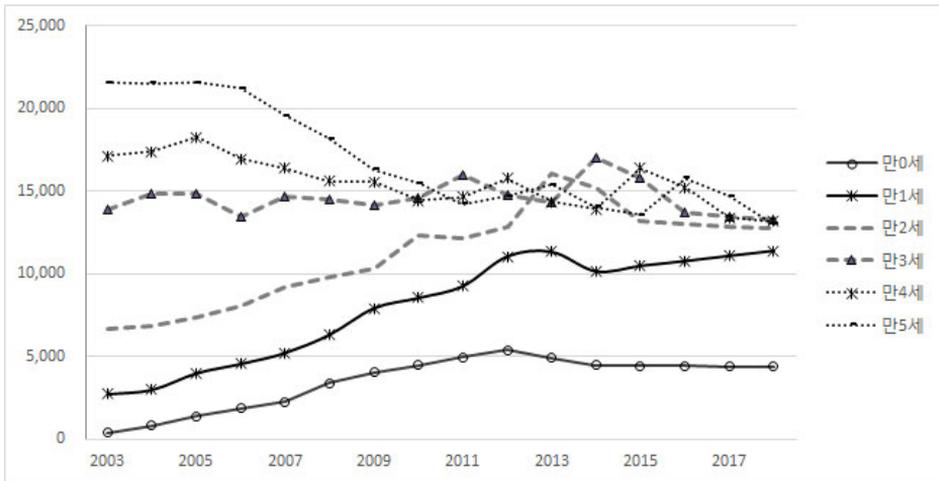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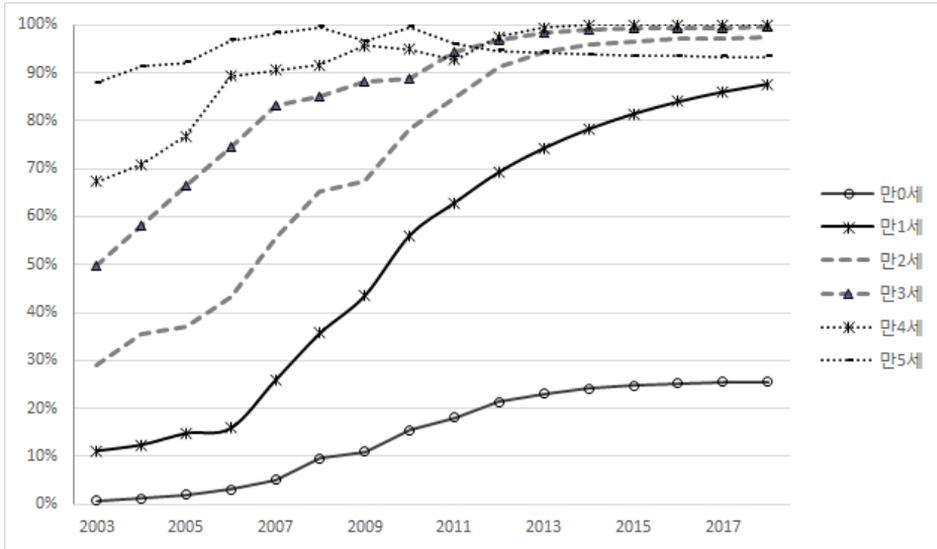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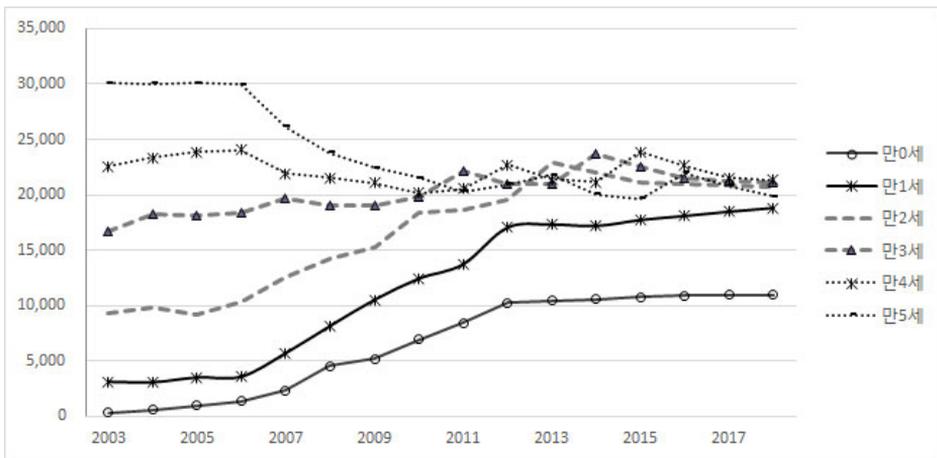
[부록 그림 2-1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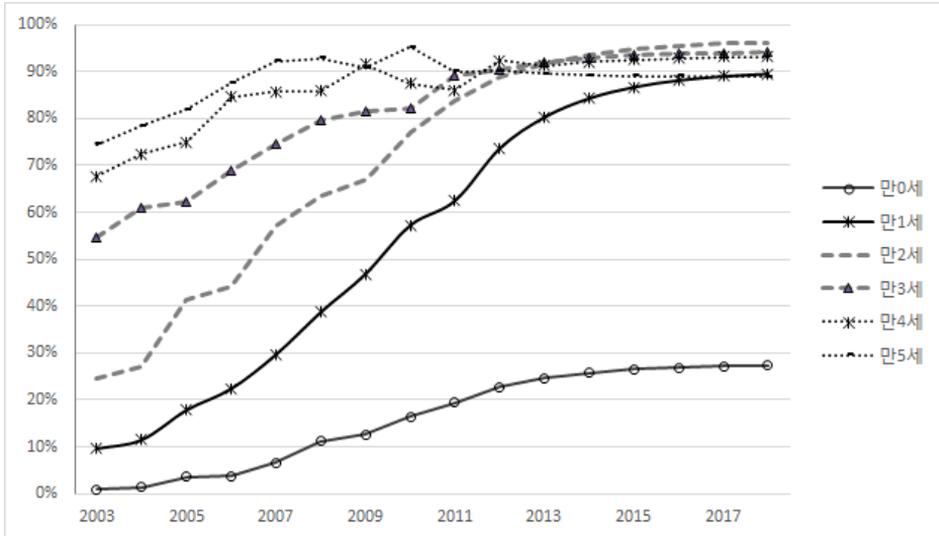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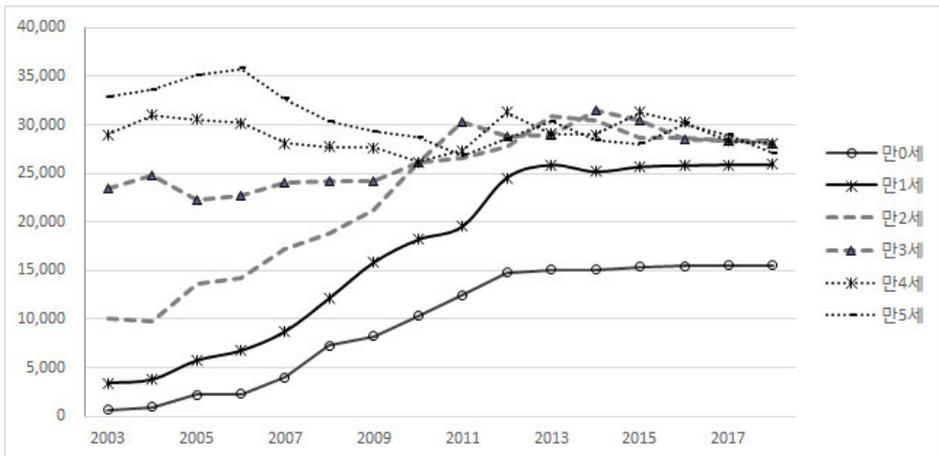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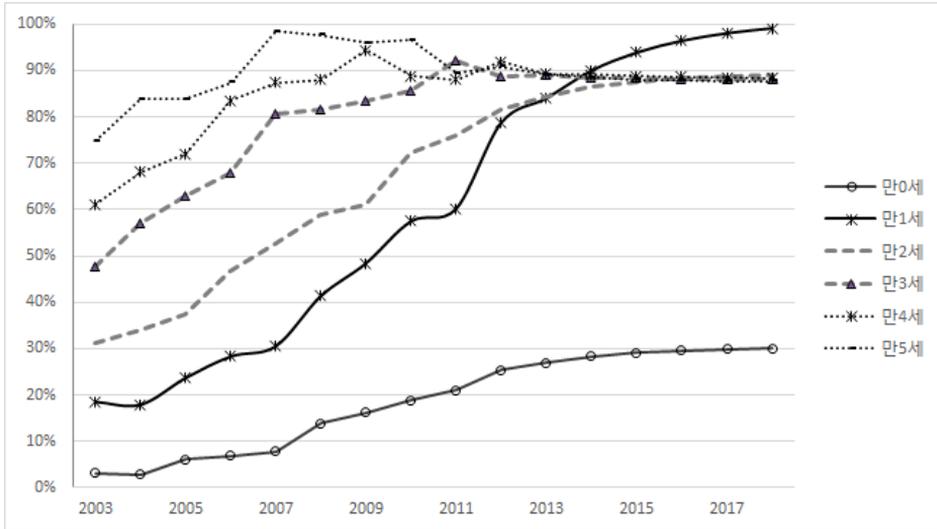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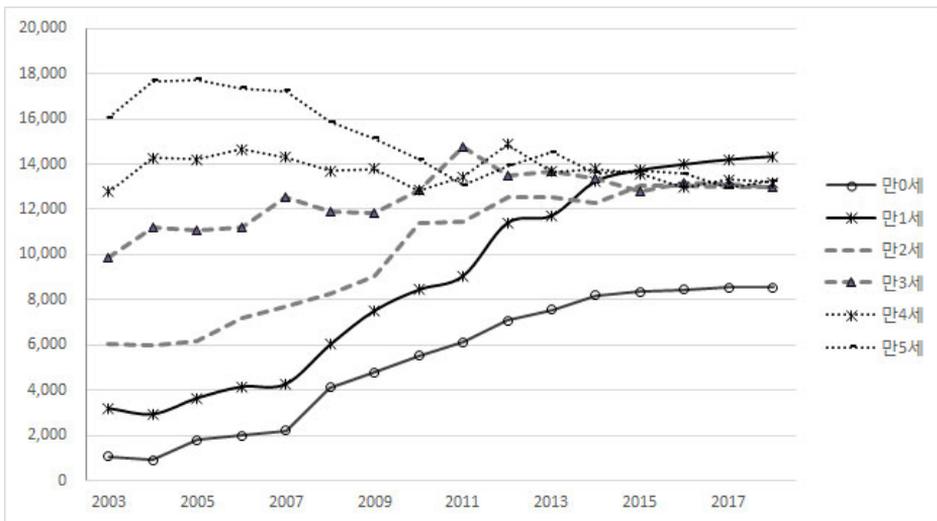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3]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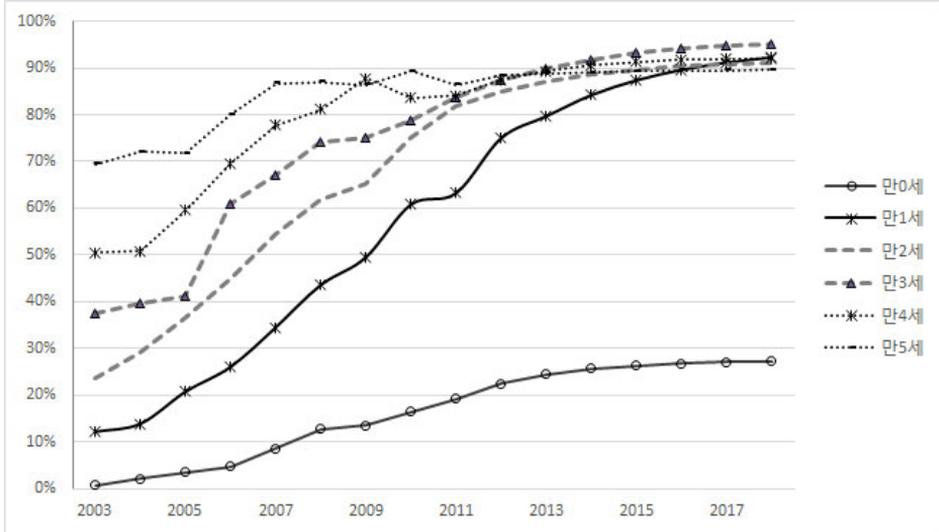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4]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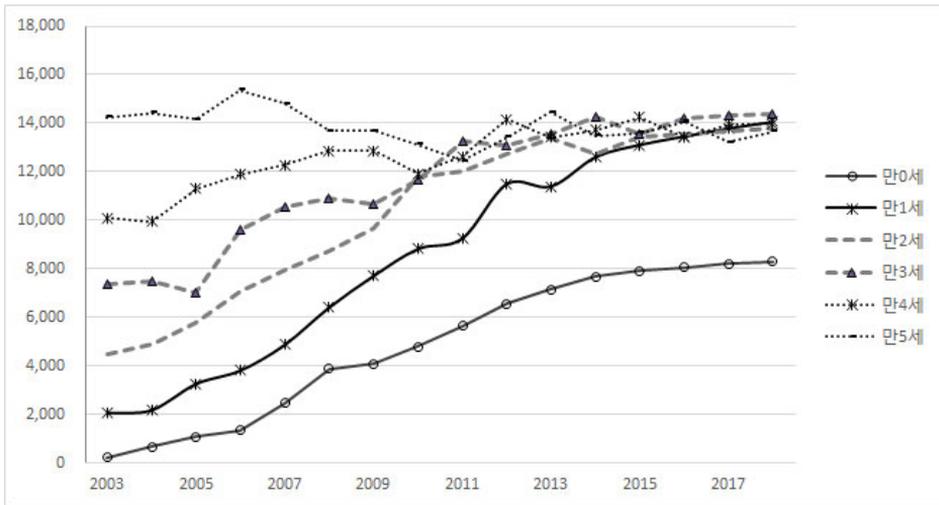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5]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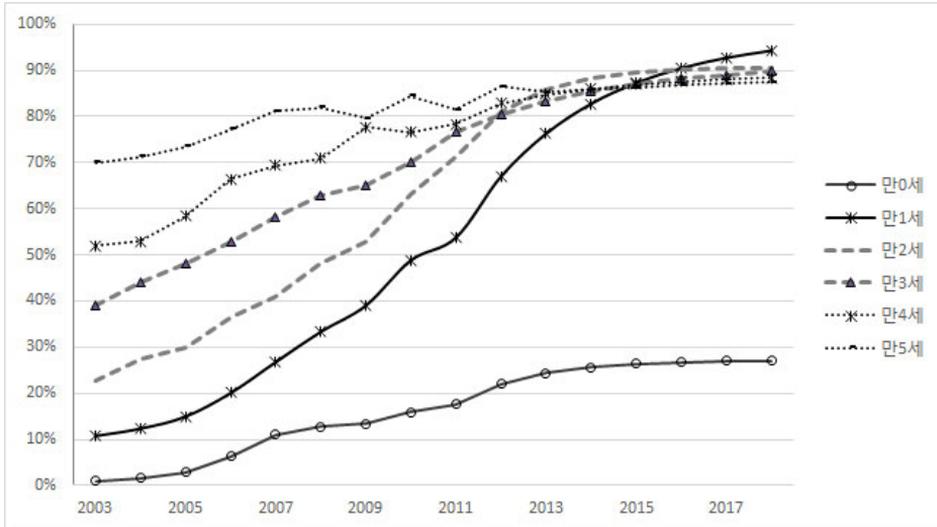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6]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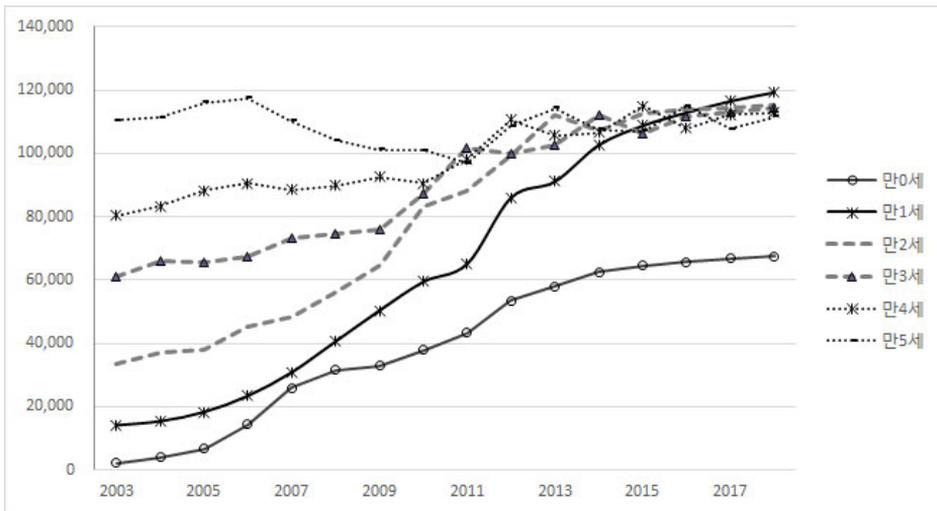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7]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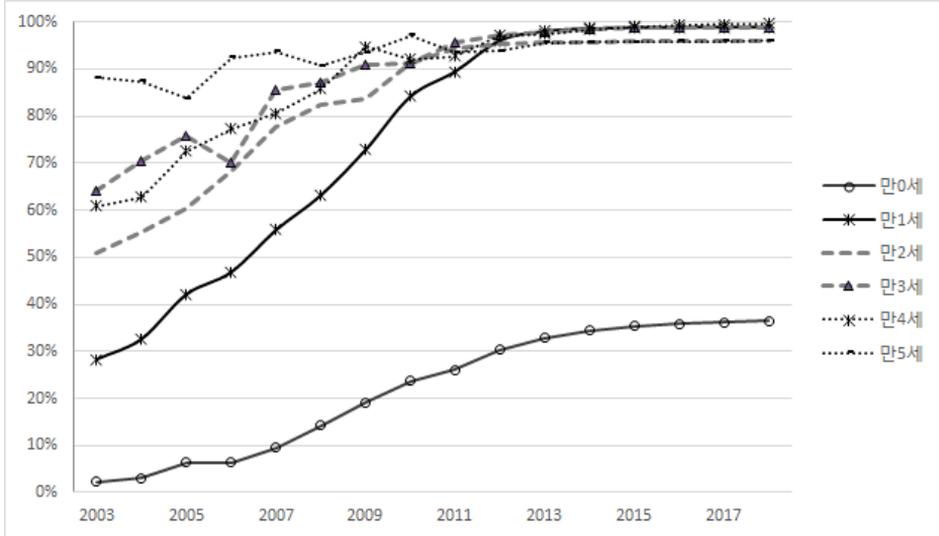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8]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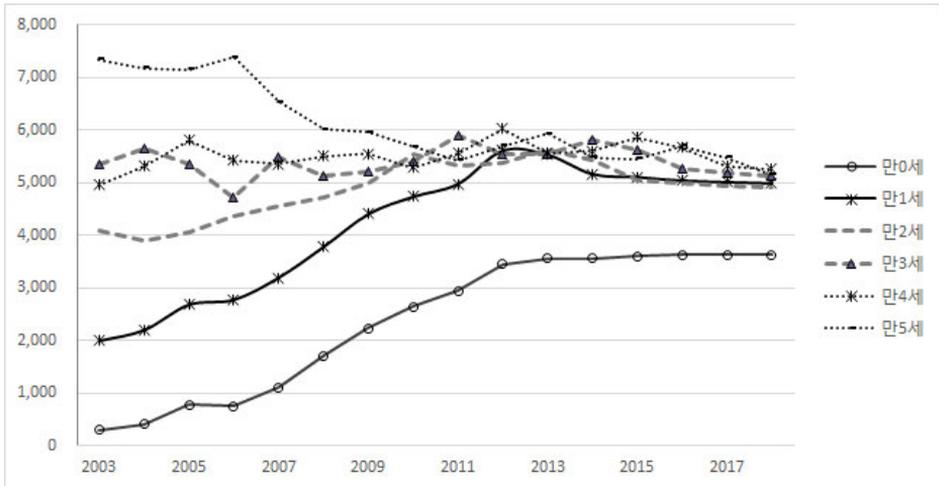
[부록 그림 2-29]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경기)



[부록 그림 2-30]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경기)



[부록 그림 2-31]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예측(제주)



[부록 그림 2-32]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수 예측(제주)

부록 3.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예측(표)

〈부록 표 3-1〉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률 예측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0세	2.53	4.07	5.03	6.00	7.30	8.60	8.81	10.28	11.27	13.82	15.29	16.46	17.27	17.84	18.24	18.52
	만 1세	16.50	19.98	23.59	26.08	28.68	31.99	34.47	42.99	49.16	56.13	61.00	64.42	66.80	68.48	69.65	70.47
	만 2세	32.43	36.08	39.84	42.45	48.60	49.73	51.35	58.37	67.86	80.04	86.12	89.16	90.68	91.44	91.82	92.01
	만 3세	31.85	35.55	37.86	39.62	43.84	45.43	46.71	47.93	50.31	54.49	57.41	59.46	60.89	61.89	62.59	63.09
	만 4세	28.23	30.36	33.24	37.03	38.02	36.65	40.34	38.73	38.68	38.83	38.45	38.09	37.76	37.47	37.20	36.96
부산	만 5세	23.76	26.15	28.24	30.67	32.77	33.86	30.05	32.92	31.52	34.09	33.62	34.03	34.36	34.63	34.84	35.01
	0세	1.73	1.30	2.43	3.82	5.68	8.72	9.41	10.24	12.89	13.81	14.91	15.70	16.28	16.73	17.06	17.30
	만 1세	10.04	11.05	16.12	21.29	24.91	32.15	38.17	46.37	50.82	63.38	70.02	76.15	80.74	84.19	86.77	88.71
	만 2세	22.46	27.69	35.51	44.48	51.56	57.41	60.33	69.90	76.79	82.06	84.96	86.55	87.43	87.91	88.17	88.32
	만 3세	35.60	40.36	48.72	45.78	52.43	52.21	51.75	50.65	50.41	52.48	52.05	52.39	52.59	52.71	52.78	52.83
대구	만 4세	31.40	35.43	34.52	36.14	39.77	37.53	37.33	33.96	30.36	28.61	27.24	26.36	25.84	25.53	25.34	25.22
	만 5세	31.71	34.59	25.96	30.03	30.30	32.84	27.86	28.37	25.59	25.05	26.72	26.16	25.76	25.48	25.29	25.15
	0세	0.94	1.50	3.53	3.24	4.88	8.78	9.97	12.00	13.90	17.20	18.84	19.97	20.65	21.06	21.30	21.45
	만 1세	11.09	12.75	15.81	18.22	24.54	34.17	40.98	52.29	55.86	69.55	75.65	81.22	85.11	87.83	89.74	91.08
	만 2세	25.13	29.26	34.78	43.10	53.78	64.11	65.43	76.80	82.32	85.67	88.04	89.52	90.48	91.1	91.50	91.77
만 3세	33.89	38.54	45.83	49.65	64.74	64.05	66.50	63.96	67.71	66.89	67.20	67.35	67.47	67.56	67.64	67.70	

단위: %

(부록 표 3-1 계속)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도																
대구																
만 4세	33.81	38.11	43.30	44.59	46.22	44.03	44.88	42.27	36.62	33.71	31.25	29.56	28.38	27.55	26.97	26.56
만 5세	17.13	23.24	24.78	38.57	30.05	32.18	26.88	27.64	24.90	24.00	22.90	22.19	21.69	21.35	21.10	20.93
인천																
0세	0.90	2.26	3.28	4.30	5.80	9.08	9.86	11.70	13.90	17.03	18.90	20.03	20.71	21.11	21.35	21.50
만 1세	8.08	12.63	13.14	18.60	24.27	30.93	36.91	46.29	52.72	63.63	71.25	76.59	80.33	82.95	84.78	86.06
만 2세	18.39	25.90	28.31	33.72	43.76	50.19	53.55	64.41	73.45	79.27	82.76	84.86	86.12	86.87	87.32	87.59
만 3세	29.07	33.18	31.42	36.55	43.06	46.42	46.51	47.93	52.57	53.10	54.19	55.06	55.76	56.32	56.76	57.12
만 4세	26.40	24.20	28.94	36.48	36.08	34.90	38.67	37.15	35.31	36.39	36.56	36.72	36.86	36.98	37.10	37.20
만 5세	20.64	22.32	32.36	28.23	28.94	30.85	28.16	29.34	27.60	27.52	26.80	26.25	25.81	25.46	25.17	24.95
광주																
0세	3.18	2.85	6.01	6.92	7.76	13.89	16.12	18.89	21.01	25.31	26.88	28.24	29.05	29.54	29.83	30.01
만 1세	18.51	17.89	23.65	28.29	30.54	41.34	48.43	57.47	60.24	78.78	84.05	90.02	93.91	96.43	98.07	99.14
만 2세	31.22	34.09	37.51	46.68	52.60	58.86	61.13	72.20	75.93	81.69	84.52	86.43	87.57	88.26	88.67	88.92
만 3세	36.16	42.74	46.81	50.20	58.87	57.17	57.80	58.44	60.47	57.00	57.49	56.72	56.11	55.61	55.22	54.91
만 4세	38.19	44.38	45.70	53.20	53.01	50.50	53.74	49.18	46.62	44.23	42.16	40.21	38.64	37.39	36.39	35.59
만 5세	39.45	46.63	47.53	47.83	53.18	52.38	47.68	47.37	40.51	40.06	36.87	34.80	33.15	31.83	30.77	29.92
대전																
0세	0.70	2.12	3.50	4.66	8.51	12.73	13.49	16.49	19.15	22.46	24.44	25.63	26.35	26.78	27.03	27.19
만 1세	12.17	13.89	20.74	26.05	34.51	43.58	49.50	60.80	63.23	75.00	79.69	84.23	87.41	89.64	91.20	92.29
만 2세	23.75	29.14	36.49	44.73	54.50	61.72	65.33	75.23	82.01	85.03	87.15	88.63	89.67	90.39	90.90	91.26
만 3세	22.37	26.07	24.99	41.58	45.87	46.97	50.95	52.94	54.68	54.08	55.39	55.66	55.88	56.05	56.19	56.30
만 4세	18.42	20.22	24.84	29.20	33.54	32.17	35.56	33.94	34.57	33.16	32.85	32.24	31.75	31.36	31.05	30.80
만 5세	14.77	17.22	17.56	21.20	23.50	26.35	24.54	25.87	25.19	26.73	26.78	27.10	27.37	27.60	27.80	27.96

(부록 표 3-1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울산	0세	2.73	1.11	2.84	4.42	4.20	6.53	7.52	9.76	11.91	14.29	15.46	16.31	16.83	17.13	17.32	17.43
	만 1세	10.98	14.43	16.85	21.26	22.76	29.06	36.57	46.47	55.46	66.85	74.81	80.39	84.29	87.03	88.94	90.28
	만 2세	27.45	32.79	36.58	46.16	52.06	58.71	60.29	72.79	79.63	87.85	91.95	94.00	95.03	95.54	95.80	95.93
	만 3세	37.50	43.74	43.75	42.21	51.45	49.28	51.71	52.14	56.78	57.07	58.14	59.34	60.30	61.07	61.68	62.18
	만 4세	32.39	33.22	32.73	31.94	32.63	29.85	30.51	30.49	28.07	30.07	28.80	28.54	28.33	28.16	28.03	27.92
만 5세	17.98	18.95	21.58	21.88	22.78	21.60	18.09	19.42	19.47	20.53	20.50	20.52	20.54	20.56	20.58	20.59	
경기	0세	0.90	1.68	2.90	6.30	11.08	12.68	13.32	15.92	17.66	21.97	24.33	25.64	26.35	26.75	26.96	27.08
	만 1세	10.76	12.34	14.97	20.08	26.79	33.36	39.05	48.83	53.78	67.04	76.30	82.78	87.32	90.50	92.73	94.29
	만 2세	22.74	27.53	29.91	36.41	41.06	48.18	52.76	63.17	71.25	81.01	85.88	88.32	89.54	90.15	90.45	90.60
	만 3세	28.98	33.05	36.44	39.63	40.96	43.01	44.50	47.33	50.21	52.20	53.79	55.07	56.09	56.90	57.56	58.08
	만 4세	27.31	28.21	30.85	36.42	36.24	34.72	38.21	36.68	36.82	37.07	36.69	36.32	35.98	35.68	35.41	35.17
만 5세	25.89	26.14	28.02	28.22	29.34	30.49	27.50	29.35	27.83	30.37	29.45	29.54	29.62	29.68	29.73	29.77	
강원	0세	0.43	1.02	2.50	2.54	4.09	6.84	7.55	11.34	14.12	18.77	21.09	22.25	22.83	23.12	23.27	23.34
	만 1세	11.57	15.08	16.88	21.38	26.06	33.26	40.89	52.91	57.39	70.80	77.38	83.03	86.98	89.75	91.69	93.04
	만 2세	28.05	33.96	39.40	42.44	52.42	61.13	63.28	75.67	81.18	85.25	87.73	89.22	90.12	90.66	90.98	91.17
	만 3세	42.84	42.58	47.70	51.48	57.47	62.00	63.88	63.83	68.50	66.58	68.19	69.75	71.27	72.74	74.16	75.54
	만 4세	42.11	44.24	48.53	51.09	55.06	51.89	57.38	58.34	55.24	56.19	56.29	55.83	55.47	55.18	54.94	54.76
만 5세	37.32	42.41	39.04	42.80	42.92	49.41	42.68	45.12	45.17	43.82	45.39	45.00	44.65	44.34	44.05	43.80	
충북	0세	1.43	1.93	2.58	3.61	5.11	8.03	9.51	11.87	13.27	14.92	15.91	16.50	16.86	17.07	17.20	17.28
	만 1세	12.99	17.51	19.14	21.39	26.25	34.12	42.83	53.90	59.14	68.46	74.97	79.53	82.72	84.96	86.52	87.61
만 2세	35.90	40.85	43.20	43.80	54.88	61.67	64.67	75.38	82.35	88.13	91.53	93.61	94.85	95.60	96.05	96.32	

(부록 표 3-1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충북	만 3세	46.04	54.18	58.78	59.41	62.03	63.86	63.82	64.75	69.03	67.46	69.27	70.03	70.69	71.27	71.79	72.24
	만 4세	47.32	51.92	53.24	55.76	58.69	54.42	58.93	56.26	53.61	55.48	53.55	52.67	51.87	51.16	50.52	49.95
	만 5세	36.77	40.84	42.82	49.59	48.48	54.67	47.06	49.18	46.37	45.19	43.68	42.38	41.35	40.52	39.85	39.32
	0세	0.55	1.13	2.46	4.30	4.27	7.11	8.96	11.54	14.21	17.21	18.71	19.46	19.83	20.02	20.11	20.16
	만 1세	13.07	15.10	18.14	21.11	23.03	30.89	37.94	48.75	54.99	65.08	72.13	77.07	80.52	82.94	84.64	85.82
충남	만 2세	28.96	33.33	41.25	45.93	48.82	54.04	58.54	67.73	77.12	80.41	82.72	84.34	85.47	86.26	86.82	87.21
	만 3세	42.24	40.83	46.99	48.98	54.15	58.33	58.18	58.73	61.15	60.67	61.23	61.46	61.64	61.78	61.90	61.99
	만 4세	40.44	41.29	43.61	51.63	51.58	46.69	52.20	49.86	48.07	45.54	45.47	43.98	42.79	41.84	41.07	40.46
	만 5세	32.65	39.18	41.42	39.10	41.49	45.25	37.93	40.42	38.11	37.23	37.62	37.91	38.12	38.27	38.38	38.46
	0세	2.14	2.92	5.38	7.06	9.51	15.89	16.78	19.35	21.45	25.02	26.63	27.83	28.55	28.99	29.24	29.40
전북	만 1세	15.20	17.55	25.28	31.45	37.65	47.62	54.23	62.95	66.57	75.53	80.89	84.11	86.04	87.20	87.90	88.31
	만 2세	30.26	34.83	43.43	52.20	60.47	68.67	69.42	78.12	84.79	88.00	89.93	91.09	91.78	92.20	92.45	92.60
	만 3세	42.45	48.86	52.28	61.02	62.32	63.29	62.11	57.89	59.36	59.04	59.12	59.37	59.58	59.76	59.90	60.01
	만 4세	44.39	43.36	53.74	56.06	59.56	53.94	59.08	55.14	50.21	50.16	47.66	45.75	44.23	43.01	42.03	41.25
	만 5세	41.96	49.25	51.71	56.62	56.21	59.46	51.34	50.85	47.44	45.61	43.59	42.16	41.01	40.09	39.35	38.77
전남	0세	0.94	2.27	4.27	6.12	7.28	10.51	12.62	15.05	15.72	16.30	16.68	16.92	17.08	17.18	17.25	17.29
	만 1세	12.97	16.53	23.89	29.70	34.72	40.62	48.69	57.18	65.07	64.84	71.82	76.17	80.07	83.59	86.75	89.60
	만 2세	28.28	33.63	41.25	48.33	60.41	65.69	67.44	76.70	83.07	91.45	95.63	97.72	98.77	99.29	99.55	99.69
	만 3세	40.03	48.18	55.43	55.09	63.80	66.85	65.90	64.83	68.17	68.45	69.09	69.60	70.00	70.33	70.59	70.80
	만 4세	41.14	45.15	51.00	55.11	61.24	58.10	63.27	59.77	57.68	57.90	56.05	54.87	53.86	53.01	52.28	51.66
만 5세	38.37	41.67	45.74	49.79	53.69	58.92	51.78	54.20	50.74	50.85	49.21	48.31	47.60	47.03	46.57	46.21	

(부록 표 3-1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북	0세	0.69	1.24	2.05	3.01	5.16	9.56	10.99	15.53	18.14	21.34	23.03	24.15	24.82	25.22	25.46	25.60
	만 1세	11.19	12.44	14.83	15.92	25.92	35.74	43.57	56.10	62.90	69.34	74.30	78.27	81.45	83.99	86.03	87.65
	만 2세	29.09	35.56	37.01	43.24	55.63	65.20	67.56	78.16	84.80	91.11	94.26	95.84	96.62	97.02	97.22	97.31
	만 3세	37.52	44.65	50.03	56.60	61.79	60.92	60.96	61.08	63.75	63.15	62.89	62.67	62.50	62.36	62.25	62.17
	만 4세	35.43	38.34	39.98	48.84	49.05	45.90	46.61	44.20	40.29	38.77	37.72	36.94	36.37	35.94	35.62	35.39
만 5세	26.62	29.50	33.35	35.24	35.24	37.40	32.09	33.60	30.39	29.61	28.29	27.30	26.51	25.88	25.38	24.98	
경남	0세	0.90	1.40	3.51	3.78	6.57	11.17	12.66	16.41	19.38	22.72	24.57	25.76	26.48	26.90	27.16	27.31
	만 1세	9.60	11.49	17.82	22.39	29.68	38.70	46.88	57.22	62.48	73.63	80.30	84.31	86.71	88.16	89.02	89.54
	만 2세	24.63	27.17	41.29	44.27	57.07	63.46	66.96	77.00	83.76	88.70	91.72	93.68	94.85	95.56	95.98	96.23
	만 3세	39.91	44.86	44.43	49.55	50.50	53.51	53.65	53.81	57.82	59.23	59.90	61.17	62.19	63.00	63.65	64.17
	만 4세	35.47	40.22	39.40	46.01	42.90	38.71	39.74	36.97	36.00	37.92	38.12	37.92	37.73	37.53	37.34	37.15
만 5세	20.56	23.48	27.59	29.86	31.20	33.32	28.18	29.54	27.35	29.19	28.55	28.88	29.16	29.37	29.55	29.69	
제주	0세	2.23	3.12	6.30	6.35	9.45	14.25	19.14	23.67	25.99	30.28	32.85	34.39	35.31	35.87	36.20	36.40
	만 1세	28.33	32.65	42.12	46.84	55.77	63.17	72.82	84.15	89.49	96.08	98.05	98.64	98.82	98.87	98.89	98.89
	만 2세	50.96	55.33	60.41	68.17	77.55	82.49	83.74	91.34	94.48	95.21	95.58	95.76	95.85	95.90	95.92	95.93
	만 3세	60.97	66.88	70.68	65.39	79.32	80.55	84.39	84.44	87.72	88.75	89.75	90.42	90.89	91.22	91.46	91.62
	만 4세	50.47	53.69	59.39	62.46	65.90	67.31	76.04	73.13	72.70	74.40	75.99	75.86	75.74	75.63	75.53	75.43
만 5세	29.95	32.89	34.40	40.47	41.61	43.62	38.74	41.86	39.31	41.99	41.22	41.34	41.44	41.52	41.60	41.66	

〈부록 표 3-2〉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예측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0세	5,092	7,791	9,283	10,536	12,818	15,830	15,997	17,459	19,950	25,114	27,517	30,437	31,937	32,986	33,762	34,189
	만 1세	16,494	18,626	21,650	22,410	23,627	27,486	31,588	35,611	37,982	50,090	50,747	56,409	58,628	60,028	61,187	61,996
	만 2세	34,834	35,258	36,204	37,765	40,254	39,873	43,284	51,604	53,569	58,972	74,141	71,605	76,493	77,334	77,588	77,964
	만 3세	34,352	37,574	36,153	35,121	38,227	36,786	36,869	39,329	43,095	41,595	41,559	49,967	47,760	50,888	51,603	51,983
	만 4세	30,792	32,930	34,480	34,589	32,886	31,448	32,276	29,858	30,698	32,388	28,832	27,168	31,099	28,817	29,939	29,829
만 5세	26,767	28,354	30,730	31,483	29,992	28,755	25,650	25,795	23,697	26,440	27,638	25,204	24,270	28,117	26,426	27,745	
부산	0세	1,083	757	1,337	1,980	2,923	4,701	5,046	5,282	6,981	7,618	7,797	8,001	8,217	8,374	8,493	8,540
	만 1세	3,217	3,262	4,513	5,540	6,215	8,250	10,400	11,821	12,820	17,728	18,395	19,178	20,170	20,810	21,332	21,700
	만 2세	8,133	8,800	10,404	12,341	13,298	14,105	15,395	18,941	19,470	20,635	23,530	22,528	21,830	21,778	21,618	21,542
	만 3세	13,582	14,494	15,317	13,242	14,455	13,278	12,657	12,832	13,661	13,238	13,024	14,425	13,616	13,098	13,014	12,896
	만 4세	12,151	13,463	12,286	11,245	11,362	10,334	9,456	8,240	7,692	7,732	6,856	6,579	7,090	6,590	6,281	6,204
만 5세	12,862	13,266	9,817	10,626	9,312	9,242	7,657	7,120	6,211	6,343	7,200	6,564	6,408	6,964	6,505	6,215	
대구	0세	475	716	1,583	1,363	2,016	3,766	4,225	4,911	5,778	7,080	7,488	7,801	7,966	8,040	8,078	8,069
	만 1세	2,840	3,151	3,614	3,891	4,941	7,099	9,017	10,736	11,358	14,722	15,171	15,915	16,488	16,792	17,037	17,199
	만 2세	7,472	7,538	8,490	9,776	11,350	12,856	13,692	17,011	17,009	17,648	18,768	18,078	17,843	17,767	17,616	17,550
	만 3세	10,595	11,526	11,741	11,864	14,653	13,439	13,433	13,422	15,079	13,948	13,876	14,445	13,705	13,394	13,266	13,110
	만 4세	10,621	11,995	12,848	11,288	10,970	10,011	9,456	8,583	7,724	7,547	6,541	6,125	6,125	5,630	5,378	5,240
만 5세	5,597	7,301	7,755	11,372	7,593	7,569	6,173	5,826	5,064	5,079	5,145	4,659	4,507	4,631	4,334	4,193	
인천	0세	513	1,187	1,633	2,067	2,849	4,798	5,231	5,976	7,209	8,866	9,774	10,444	10,818	11,064	11,260	11,376
	만 1세	2,392	3,367	3,392	4,536	5,831	8,049	10,122	11,991	13,716	17,396	18,595	20,287	21,331	22,035	22,650	23,129

단위: 명

(부록 표 3-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천	만 2세	5,953	7,568	7,633	8,817	10,757	12,368	13,871	17,803	19,308	21,265	22,954	22,423	23,113	23,365	23,492	23,691
	만 3세	10,141	10,591	9,182	9,841	11,389	11,655	11,402	12,477	14,681	14,303	14,587	15,387	14,824	15,215	15,365	15,464
	만 4세	9,241	8,282	9,286	10,581	9,722	9,374	9,618	9,101	9,292	10,317	9,863	9,888	10,338	9,856	10,050	10,098
	만 5세	7,488	7,687	11,065	9,113	8,399	8,379	7,518	7,249	6,810	7,408	7,611	7,081	6,942	7,151	6,712	6,764
	0세	1,078	908	1,818	1,994	2,215	4,141	4,808	5,536	6,127	7,084	7,566	8,185	8,365	8,466	8,538	8,556
광주	만 1세	3,208	2,958	3,665	4,163	4,287	6,026	7,526	8,452	9,065	11,401	11,729	13,250	13,741	13,998	14,209	14,348
	만 2세	6,081	5,970	6,169	7,225	7,705	8,290	9,067	11,409	11,456	12,516	12,522	12,311	13,019	13,040	12,996	13,007
	만 3세	7,468	8,401	8,221	8,255	9,163	8,338	8,229	8,783	9,706	8,668	8,864	8,553	8,116	8,326	8,215	8,103
	만 4세	7,978	9,307	9,022	9,340	8,684	7,870	7,854	7,114	7,115	7,155	6,452	6,226	5,902	5,468	5,475	5,320
	만 5세	8,461	9,834	10,074	9,498	9,303	8,506	7,518	6,963	5,929	6,136	6,009	5,356	5,153	4,915	4,543	4,523
대전	0세	227	669	1,066	1,345	2,467	3,884	4,078	4,789	5,640	6,564	7,138	7,679	7,909	8,073	8,210	8,295
	만 1세	2,054	2,180	3,259	3,811	4,873	6,405	7,705	8,818	9,255	11,490	11,398	12,601	13,108	13,453	13,783	14,055
	만 2세	4,489	4,917	5,751	7,048	7,981	8,733	9,668	11,766	12,007	12,755	13,402	12,741	13,433	13,571	13,656	13,802
	만 3세	4,401	4,914	4,260	6,577	7,247	6,890	7,211	7,843	8,675	8,083	8,358	8,638	8,117	8,455	8,493	8,513
	만 4세	3,681	3,963	4,716	4,983	5,297	5,089	5,212	4,829	5,182	5,361	4,934	4,882	4,959	4,588	4,704	4,675
울산	만 5세	3,030	3,448	3,463	4,063	4,007	4,144	3,888	3,802	3,634	4,053	4,358	4,098	4,167	4,345	4,102	4,262
	0세	671	259	640	956	916	1,524	1,760	2,192	2,750	3,329	3,441	3,538	3,594	3,603	3,598	3,571
	만 1세	1,402	1,702	1,927	2,336	2,385	3,282	4,431	5,186	6,152	8,083	8,463	8,770	9,068	9,204	9,291	9,326
	만 2세	3,992	4,190	4,311	5,273	5,655	6,167	6,807	8,692	8,900	9,857	11,132	10,654	10,388	10,303	10,160	10,054
	만 3세	6,024	6,378	5,568	4,968	5,862	5,331	5,449	5,811	6,814	6,459	6,503	7,164	6,819	6,662	6,641	6,585

(부록 표 3-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울산	만 4세	5,198	5,329	4,737	4,051	3,780	3,416	3,287	3,188	3,127	3,618	3,243	3,175	3,404	3,171	3,045	2,995
	만 5세	3,047	3,008	3,425	3,170	2,854	2,494	2,069	2,058	2,031	2,289	2,455	2,300	2,275	2,459	2,308	2,228
	0세	2,250	4,085	6,838	14,466	26,040	31,565	32,968	37,993	43,349	53,433	58,040	62,498	64,464	65,777	66,803	67,406
경기	만 1세	14,180	15,462	18,368	23,474	30,934	40,669	50,448	59,488	65,207	86,026	91,156	102,658	108,733	112,911	116,491	119,282
	만 2세	33,560	36,943	37,961	45,482	48,575	55,923	64,701	83,111	88,033	99,497	111,895	107,207	112,659	113,840	114,384	115,304
	만 3세	45,076	49,567	49,620	50,569	51,610	51,000	51,982	58,831	66,765	64,852	66,373	72,333	68,677	72,120	73,198	73,939
	만 4세	42,187	44,354	46,740	49,680	46,249	43,941	45,444	43,326	46,189	49,509	45,792	44,951	47,525	43,956	45,106	44,936
	만 5세	40,896	40,805	44,306	42,952	39,852	38,733	34,923	35,105	33,112	38,164	39,443	36,937	36,688	39,310	36,741	38,004
강원	0세	135	298	694	658	1,037	1,793	1,948	2,819	3,554	4,627	4,889	5,000	5,101	5,158	5,209	5,236
	만 1세	1,901	2,212	2,407	2,830	3,237	4,249	5,469	6,563	7,165	9,042	9,284	9,479	9,873	10,135	10,377	10,574
	만 2세	5,011	5,559	5,772	6,011	6,882	7,598	8,152	10,074	10,048	10,663	11,288	10,785	10,418	10,425	10,411	10,454
	만 3세	8,076	7,586	7,775	7,456	8,046	8,114	7,982	8,241	9,148	8,281	8,552	9,035	8,674	8,505	8,628	8,747
	만 4세	7,999	8,366	8,626	8,218	7,903	7,248	7,515	7,307	7,144	7,527	7,046	7,034	7,243	6,770	6,499	6,447
충북	만 5세	7,282	8,014	7,408	7,583	6,798	7,045	5,980	5,886	5,625	5,650	6,109	5,657	5,642	5,822	5,435	5,227
	0세	451	573	739	976	1,383	2,299	2,728	3,294	3,838	4,441	4,565	4,625	4,730	4,807	4,882	4,929
	만 1세	2,148	2,616	2,821	2,936	3,475	4,766	6,339	7,497	8,194	10,254	11,027	11,197	11,197	11,979	12,285	12,537
	만 2세	6,628	6,788	6,418	6,425	7,558	8,271	9,077	11,211	11,507	12,226	13,807	13,822	13,460	13,582	13,643	13,777
	만 3세	8,858	9,999	9,705	8,779	9,183	8,883	8,606	9,121	10,394	9,530	9,705	10,656	10,502	10,208	10,293	10,353
충남	만 4세	9,278	9,952	9,817	9,170	8,699	8,090	8,212	7,576	7,652	8,356	7,623	7,435	7,945	7,633	7,288	7,212
	만 5세	7,446	7,996	8,176	9,122	7,944	8,117	7,003	6,810	6,297	6,467	6,618	6,064	5,867	6,233	5,960	5,698

(부록 표 3-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충남	0세	216	422	907	1,559	1,612	2,881	3,644	4,597	5,822	7,081	7,595	7,909	8,083	8,204	8,313	8,379
	만 1세	2,693	2,861	3,488	3,837	4,233	6,105	8,024	9,732	11,101	13,703	14,740	15,744	16,506	17,028	17,519	17,913
	만 2세	6,752	6,998	8,029	8,983	8,990	10,021	11,620	14,523	15,641	16,490	17,648	17,411	17,653	17,870	18,007	18,227
	만 3세	10,127	9,669	10,018	9,566	10,708	10,846	10,905	11,789	13,224	12,473	12,605	13,197	12,775	12,819	12,880	12,909
	만 4세	9,792	10,079	10,522	11,029	10,187	9,310	9,810	9,481	9,700	9,993	9,386	9,082	9,235	8,699	8,554	8,448
만 5세	8,095	9,637	10,329	9,537	8,859	8,954	7,584	7,584	7,695	7,303	7,614	8,271	7,835	7,876	8,277	7,983	8,018
전북	0세	835	1,047	1,803	2,205	2,935	5,141	5,374	5,941	6,830	8,027	8,019	8,063	8,190	8,288	8,369	8,412
	만 1세	3,095	3,211	4,357	4,999	5,729	7,467	9,039	9,733	10,219	12,561	12,616	12,363	12,496	12,578	12,681	12,767
	만 2세	6,969	7,010	7,834	8,997	9,668	10,454	10,976	13,023	13,163	13,682	15,066	14,315	13,652	13,561	13,508	13,533
	만 3세	10,153	11,097	10,397	10,872	10,749	10,094	9,525	9,174	9,947	9,224	9,242	9,998	9,412	8,970	8,895	8,854
	만 4세	10,759	10,303	12,057	11,006	10,629	9,277	9,457	8,524	8,030	8,442	7,500	7,199	7,496	6,839	6,369	6,187
만 5세	10,611	11,787	12,231	12,608	10,954	10,512	8,811	8,162	8,162	7,368	7,346	7,369	6,662	6,475	6,817	6,279	5,910
전남	0세	370	806	1,380	1,881	2,256	3,395	4,020	4,471	4,953	5,399	4,908	4,480	4,443	4,412	4,397	4,374
	만 1세	2,713	2,979	3,982	4,554	5,218	6,322	7,927	8,545	9,259	11,061	11,335	10,154	10,491	10,779	11,096	11,399
	만 2세	6,673	6,806	7,373	8,022	9,202	9,819	10,355	12,296	12,184	12,830	16,055	15,211	13,184	13,042	12,881	12,804
	만 3세	9,971	11,045	11,081	9,700	10,561	10,197	9,760	9,896	10,873	9,956	9,689	11,561	10,798	9,424	9,317	9,212
	만 4세	10,456	10,966	11,559	10,837	10,595	9,662	9,619	8,751	8,729	9,224	8,140	7,702	8,880	8,126	7,035	6,853
만 5세	9,956	10,333	11,016	11,184	10,396	10,146	8,580	8,183	8,183	7,400	7,671	7,830	7,018	6,695	7,717	7,111	6,247
경북	0세	371	613	968	1,364	2,346	4,569	5,220	6,933	8,434	10,280	10,478	10,597	10,785	10,886	10,968	10,991
	만 1세	3,145	3,108	3,544	3,620	5,737	8,187	10,543	12,451	13,752	17,053	17,320	17,203	17,737	18,107	18,494	18,825
	만 2세	9,334	9,823	9,182	10,309	12,578	14,280	15,225	18,455	18,623	19,586	22,917	22,085	21,058	20,958	20,797	20,759

(부록 표 3-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북	만 3세	12,548	14,045	13,666	13,943	14,658	13,615	13,175	13,610	14,933	13,704	13,396	15,043	14,218	13,454	13,314	13,171	
	만 4세	11,862	12,622	12,435	13,184	11,891	10,782	10,262	9,411	8,928	9,033	8,125	7,814	8,644	8,094	7,626	7,512	
	만 5세	9,121	9,689	10,900	10,901	9,365	8,950	7,461	7,262	6,437	6,546	6,542	5,840	5,570	6,096	5,664	5,309	
	0세	611	909	2,182	2,254	3,980	7,242	8,241	10,298	10,298	12,505	14,805	15,069	15,116	15,386	15,488	15,549	15,523
	만 1세	3,417	3,790	5,733	6,761	8,741	12,175	15,846	18,188	18,188	19,566	24,570	25,864	25,179	25,690	25,816	25,902	25,923
경남	만 2세	10,015	9,712	13,697	14,277	17,251	18,832	21,160	26,159	26,639	27,847	30,905	30,416	28,642	28,629	28,425	28,321	
	만 3세	17,085	18,265	15,924	16,380	16,325	16,225	15,949	17,101	19,625	18,874	18,867	20,693	20,245	19,125	19,171	19,109	
	만 4세	15,200	17,223	16,065	16,383	14,066	12,499	12,006	11,049	11,438	12,858	12,145	11,940	12,768	12,208	11,352	11,207	
	만 5세	9,069	10,056	11,822	12,182	11,031	10,881	9,096	8,910	8,152	9,232	9,679	9,195	9,175	9,936	9,601	9,034	
	0세	307	407	775	747	1,114	1,717	2,236	2,646	2,948	3,458	3,561	3,559	3,605	3,626	3,639	3,639	
제주	만 1세	1,997	2,201	2,684	2,776	3,198	3,782	4,408	4,737	4,980	5,615	5,534	5,168	5,109	5,043	5,014	4,992	
	만 2세	4,081	3,906	4,074	4,362	4,557	4,734	4,984	5,557	5,322	5,387	5,617	5,429	5,061	4,999	4,935	4,906	
	만 3세	5,100	5,365	5,000	4,396	5,083	4,733	4,832	5,004	5,414	5,066	5,101	5,347	5,179	4,856	4,809	4,757	
	만 4세	4,108	4,545	4,758	4,390	4,385	4,317	4,450	4,204	4,359	4,621	4,344	4,316	4,491	4,317	4,038	3,985	
	만 5세	2,497	2,702	2,938	3,237	2,903	2,896	2,469	2,452	2,279	2,556	2,565	2,368	2,362	2,470	2,380	2,237	

부록 4. 지역별 유치원 이용 예측(표)

〈부록 표 4-1〉 지역별 유치원 이용률 예측

시도	연령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만 3세	12.41	12.93	13.49	14.98	17.99	20.54	20.31	21.33	24.24	25.72	25.91	25.57	25.08	24.60	24.19	23.84	
	만 4세	27.90	26.73	29.12	30.84	32.06	34.59	35.73	35.27	36.20	39.24	39.96	41.20	42.11	42.78	43.29	43.69	
	만 5세	40.30	41.32	38.44	42.16	41.94	41.33	41.01	43.32	42.20	45.90	44.00	44.38	44.60	44.72	44.78	44.79	
부산	만 3세	14.76	16.44	18.12	20.54	24.98	27.77	28.53	30.27	35.77	35.67	37.41	37.97	38.27	38.42	38.50	38.53	
	만 4세	33.54	33.23	36.69	39.97	42.66	47.26	51.24	52.58	54.60	59.06	61.90	63.59	64.56	65.12	65.44	65.64	
	만 5세	52.25	54.26	52.13	55.71	60.65	58.68	60.63	63.60	60.74	63.96	62.41	63.29	63.99	64.57	65.05	65.48	
대구	만 3세	7.47	8.88	8.39	9.87	13.08	14.85	15.58	17.56	20.80	22.73	24.41	25.71	26.60	27.23	27.64	27.93	
	만 4세	26.25	26.07	27.68	31.20	33.56	40.27	44.04	45.64	48.83	57.54	63.46	67.23	69.66	71.24	72.27	72.95	
	만 5세	57.02	56.47	56.59	60.98	64.86	61.30	65.77	67.33	67.40	66.13	67.23	67.44	67.70	67.91	68.10	68.24	
인천	만 3세	10.65	11.52	11.53	14.91	19.73	23.49	24.48	26.60	29.37	29.47	30.25	30.88	31.38	31.77	32.10	32.35	
	만 4세	24.01	24.55	26.03	30.27	35.64	40.84	44.28	44.57	45.98	51.89	55.53	57.48	58.50	59.02	59.25	59.34	
	만 5세	41.78	42.32	42.07	47.76	51.67	52.54	55.56	59.37	57.71	57.16	57.46	57.66	57.92	58.18	58.43	58.63	
광주	만 3세	11.64	14.34	16.19	17.83	21.63	24.42	25.54	27.07	31.57	31.61	31.41	31.77	32.16	32.54	32.86	33.14	
	만 4세	22.99	23.70	26.28	30.26	34.39	37.49	40.58	39.62	41.42	47.72	47.18	48.87	50.22	51.26	52.08	52.72	
	만 5세	35.38	37.24	36.23	39.56	45.26	45.27	48.21	49.24	48.86	50.82	52.26	53.69	54.95	56.03	56.95	57.72	

(부록 표 4-1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전	만 3세	15.17	13.70	16.28	19.18	21.06	27.20	24.28	25.97	28.99	33.41	34.55	36.17	37.28	38.03	38.54	38.88
	만 4세	32.10	30.58	34.72	40.42	44.23	49.05	52.18	49.76	49.60	54.38	56.53	58.34	59.55	60.37	60.94	61.34
	만 5세	54.63	54.79	54.18	58.95	63.28	60.66	61.88	63.54	61.15	61.70	62.02	61.97	61.91	61.83	61.75	61.68
울산	만 3세	13.14	14.80	16.26	16.69	23.05	25.05	24.76	24.24	27.75	29.61	29.40	29.40	29.10	28.69	28.28	27.89
	만 4세	39.02	37.26	42.59	43.40	47.55	51.78	52.73	51.32	53.52	56.53	56.49	57.52	58.27	58.81	59.21	59.50
	만 5세	59.45	61.73	59.27	62.55	67.28	65.08	67.03	68.39	66.38	66.96	66.60	66.68	66.72	66.74	66.74	66.74
경기	만 3세	10.14	10.94	11.60	13.18	17.14	19.99	20.66	22.79	26.36	28.16	29.42	30.27	30.85	31.24	31.48	31.64
	만 4세	24.73	24.75	27.50	30.01	33.11	36.30	39.54	39.99	41.49	45.75	48.02	49.72	50.99	51.93	52.66	53.22
	만 5세	44.07	45.15	45.41	48.96	51.75	51.47	52.15	55.08	53.58	56.07	55.78	56.35	56.79	57.15	57.43	57.66
강원	만 3세	12.74	13.76	13.71	15.79	18.79	21.33	23.40	22.81	24.78	27.78	26.72	25.43	24.05	22.65	21.26	19.90
	만 4세	23.44	23.59	26.21	27.27	30.39	31.62	34.97	35.54	35.52	39.89	39.35	40.46	41.21	41.74	42.12	42.38
	만 5세	48.28	47.68	45.24	47.74	48.52	48.67	48.55	51.51	50.69	49.18	49.31	49.58	49.86	50.14	50.42	50.66
충북	만 3세	13.85	14.92	16.30	18.84	21.47	23.27	24.95	23.53	25.22	27.76	26.51	26.05	25.55	25.06	24.59	24.17
	만 4세	27.50	27.43	29.41	30.76	33.05	33.92	36.51	36.17	36.66	40.61	41.31	42.72	43.78	44.62	45.33	45.93
	만 5세	44.86	45.48	41.98	44.48	46.91	46.11	45.60	48.59	46.22	47.09	48.32	49.20	50.01	50.74	51.35	51.86
충남	만 3세	11.73	11.80	14.15	15.97	18.07	22.48	22.72	24.55	27.01	26.88	27.08	27.04	26.96	26.88	26.79	26.72
	만 4세	25.62	25.64	28.03	30.09	32.53	35.39	39.88	38.72	41.58	42.83	43.13	44.29	45.28	46.11	46.81	47.38
	만 5세	47.17	45.73	43.55	46.80	50.37	50.62	51.57	54.60	51.37	52.57	51.88	50.72	49.91	49.33	48.92	48.64
전북	만 3세	18.43	18.20	21.84	24.26	26.51	28.50	32.17	33.77	37.62	38.71	39.03	38.97	38.86	38.73	38.62	38.52
	만 4세	29.49	28.62	31.03	32.26	35.18	36.34	39.70	42.31	43.69	48.90	50.33	52.60	54.30	55.61	56.63	57.44
	만 5세	39.00	43.93	38.28	39.74	42.32	42.58	45.61	48.11	49.89	49.43	51.68	52.67	53.60	54.40	55.09	55.64

(부록 표 4-1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남	만 3세	15.81	16.60	19.01	21.35	25.05	28.09	29.65	30.61	31.81	33.37	33.10	32.66	32.28	31.95	31.69	31.48
	만 4세	26.22	26.57	29.68	31.25	33.66	35.79	39.02	38.78	39.30	41.21	42.92	44.35	45.49	46.40	47.16	47.79
	만 5세	44.72	45.08	43.77	44.73	47.30	46.60	46.71	48.31	46.68	46.72	47.67	48.25	48.81	49.30	49.72	50.06
경북	만 3세	12.34	13.43	16.34	17.82	21.37	24.29	27.25	27.61	30.60	33.80	35.35	36.22	36.71	37.01	37.20	37.33
	만 4세	31.96	32.61	36.77	40.41	41.48	45.80	49.11	50.66	52.41	58.68	61.62	63.16	64.03	64.58	64.95	65.20
	만 5세	61.22	61.86	58.77	61.58	63.03	62.19	64.43	65.98	65.53	65.04	65.95	66.48	67.04	67.55	68.00	68.37
경남	만 3세	14.83	15.97	17.69	19.21	24.03	26.27	27.93	28.28	31.42	31.08	32.10	31.73	31.25	30.76	30.30	29.90
	만 4세	32.19	32.20	35.55	38.71	42.81	47.16	51.93	50.53	50.08	54.49	53.09	54.18	54.90	55.42	55.80	56.10
	만 5세	54.00	54.98	54.36	57.82	61.07	59.51	62.60	65.69	62.60	61.01	60.99	60.36	59.93	59.64	59.43	59.27
제주	만 3세	3.11	3.65	5.05	4.79	6.23	6.67	6.50	6.83	7.99	8.60	8.03	7.94	7.76	7.57	7.41	7.28
	만 4세	10.48	9.08	13.21	14.78	14.68	18.55	18.76	18.99	20.03	22.69	21.48	22.57	23.27	23.73	24.04	24.27
	만 5세	58.27	54.50	49.37	51.93	52.01	47.00	54.79	55.30	54.22	51.78	54.27	54.31	54.32	54.33	54.31	54.30

〈부록 표 4-2〉 지역별 유치원 이용 아동수 예측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만 3세	13,390	13,666	12,885	13,274	15,682	16,633	16,027	17,501	20,762	19,637	18,756	21,487	19,672	20,227	19,944	19,643
	만 4세	30,429	28,986	30,215	28,802	27,735	29,683	28,592	27,196	28,725	32,736	29,964	29,387	34,681	32,901	34,840	35,260
	만 5세	45,415	44,812	41,841	43,267	38,377	35,091	35,008	33,950	31,720	35,601	36,171	32,870	31,503	36,310	33,966	35,496
부산	만 3세	5,630	5,903	5,696	5,942	6,886	7,062	6,978	7,670	9,694	8,997	9,361	10,454	9,908	9,547	9,493	9,405
	만 4세	12,980	12,626	13,058	12,439	12,186	13,012	12,977	12,758	13,833	15,962	15,579	15,870	17,714	16,809	16,221	16,146
	만 5세	21,193	20,807	19,709	19,714	18,639	16,516	16,662	15,964	14,740	16,197	16,817	15,881	15,918	17,648	16,732	16,181
대구	만 3세	2,334	2,655	2,148	2,359	2,961	3,115	3,148	3,685	4,632	4,740	5,040	5,514	5,403	5,399	5,421	5,409
	만 4세	8,245	8,206	8,215	7,898	7,965	9,156	9,279	9,267	10,300	12,883	13,282	13,929	15,033	14,559	14,411	14,392
	만 5세	18,633	17,743	17,711	17,981	16,387	14,416	15,105	14,193	13,708	13,997	15,104	14,159	14,066	14,730	13,986	13,671
인천	만 3세	3,714	3,676	3,368	4,015	5,218	5,897	6,002	6,923	8,202	7,938	8,143	8,630	8,342	8,583	8,690	8,758
	만 4세	8,404	8,403	8,351	8,780	9,604	10,970	11,012	10,918	12,099	14,712	14,981	15,478	16,407	15,729	16,050	16,107
	만 5세	15,156	14,577	14,383	15,414	14,996	14,269	14,835	14,668	14,237	15,386	16,319	15,553	15,579	16,342	15,580	15,895
광주	만 3세	2,403	2,819	2,844	2,932	3,367	3,561	3,637	4,069	5,067	4,808	4,843	4,791	4,652	4,872	4,888	4,890
	만 4세	4,803	4,970	5,188	5,312	5,633	5,843	5,931	5,732	6,322	7,720	7,220	7,567	7,671	7,497	7,836	7,881
	만 5세	7,588	7,854	7,678	7,857	7,919	7,352	7,602	7,237	7,151	7,784	8,517	8,264	8,541	8,651	8,408	8,726
대전	만 3세	2,985	2,583	2,775	3,034	3,327	3,990	3,436	3,847	4,599	4,994	5,213	5,614	5,415	5,736	5,825	5,879
	만 4세	6,416	5,994	6,591	6,898	6,986	7,759	7,648	7,080	7,435	8,792	8,491	8,834	9,301	8,832	9,232	9,310
	만 5세	11,208	10,974	10,687	11,296	10,789	9,538	9,805	9,338	8,822	9,355	10,093	9,370	9,425	9,734	9,112	9,402

단위: 명

(부록 표 4-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울산	만 3세	2,111	2,158	2,069	1,964	2,626	2,710	2,609	2,702	3,330	3,351	3,288	3,549	3,291	3,130	3,045	2,954
	만 4세	6,262	5,977	6,163	5,504	5,509	5,925	5,681	5,365	5,962	6,801	6,360	6,400	7,001	6,621	6,433	6,383
	만 5세	10,072	9,801	9,408	9,062	8,427	7,515	7,665	7,248	6,925	7,467	7,977	7,473	7,389	7,983	7,484	7,223
경기	만 3세	15,769	16,412	15,793	16,813	21,597	23,708	24,133	28,328	35,053	34,990	36,302	39,759	37,773	39,596	40,032	40,280
	만 4세	38,199	38,922	41,654	40,938	42,251	45,941	47,024	47,241	52,047	61,097	59,932	61,536	67,352	63,975	67,080	67,999
	만 5세	69,619	70,494	71,817	74,529	70,286	65,381	66,235	65,883	63,745	70,444	74,707	70,459	70,342	75,693	70,973	73,608
강원	만 3세	2,402	2,451	2,234	2,286	2,630	2,792	2,924	2,945	3,309	3,455	3,351	3,294	2,927	2,648	2,473	2,304
	만 4세	4,453	4,460	4,659	4,387	4,362	4,417	4,580	4,452	4,594	5,344	4,926	5,098	5,381	5,121	4,983	4,990
	만 5세	9,421	9,010	8,585	8,459	7,685	6,939	6,803	6,720	6,312	6,341	6,637	6,233	6,300	6,583	6,221	6,046
충북	만 3세	2,665	2,753	2,691	2,784	3,178	3,237	3,365	3,314	3,797	3,922	3,714	3,964	3,796	3,589	3,526	3,464
	만 4세	5,391	5,257	5,424	5,059	4,899	5,042	5,088	4,871	5,233	6,116	5,880	6,031	6,706	6,657	6,539	6,631
	만 5세	9,084	8,905	8,016	8,182	7,686	6,847	6,786	6,728	6,276	6,739	7,321	7,040	7,095	7,805	7,680	7,515
충남	만 3세	2,813	2,794	3,017	3,119	3,572	4,180	4,258	4,929	5,841	5,527	5,575	5,806	5,587	5,578	5,574	5,564
	만 4세	6,205	6,260	6,764	6,428	6,424	7,057	7,495	7,363	8,390	9,398	8,903	9,146	9,773	9,586	9,749	9,892
	만 5세	11,696	11,248	10,860	11,416	10,755	10,017	10,311	10,393	9,845	10,751	11,406	10,482	10,311	10,669	10,176	10,140
전북	만 3세	4,503	4,134	4,343	4,323	4,573	4,545	4,934	5,351	6,304	6,048	6,101	6,563	6,139	5,813	5,735	5,683
	만 4세	7,147	6,801	6,961	6,334	6,279	6,250	6,355	6,541	6,987	8,231	7,920	8,277	9,203	8,843	8,581	8,615
	만 5세	9,863	10,513	9,054	8,849	8,248	7,527	7,828	7,722	7,749	7,961	8,737	8,323	8,463	9,251	8,791	8,482
전남	만 3세	3,938	3,806	3,800	3,759	4,146	4,285	4,391	4,673	5,073	4,853	4,642	5,425	4,979	4,281	4,183	4,096
	만 4세	6,663	6,453	6,726	6,144	5,823	5,951	5,932	5,678	5,948	6,565	6,233	6,225	7,500	7,113	6,346	6,339
	만 5세	11,604	11,179	10,540	10,048	9,160	8,025	7,740	7,294	6,808	7,049	7,585	7,009	6,865	8,090	7,592	6,767

(부록 표 4-2 계속)

시도	연령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북	만 3세	4,127	4,226	4,464	4,389	5,070	5,429	5,889	6,153	7,168	7,335	7,530	8,694	8,351	7,985	7,956	7,909
	만 4세	10,700	10,737	11,439	10,910	10,057	10,759	10,813	10,786	11,616	13,671	13,274	13,360	15,217	14,543	13,904	13,840
	만 5세	20,974	20,320	19,208	19,050	16,749	14,883	14,979	14,262	13,882	14,378	15,252	14,221	14,086	15,910	15,174	14,532
경남	만 3세	6,346	6,504	6,341	6,351	7,769	7,964	8,301	8,988	10,665	9,903	10,111	10,734	10,173	9,338	9,126	8,904
	만 4세	13,794	13,788	14,494	13,783	14,035	15,227	15,688	15,102	15,913	18,477	16,914	17,060	18,578	18,028	16,965	16,924
	만 5세	23,816	23,552	23,289	23,590	21,590	19,434	20,209	19,816	18,659	19,294	20,677	19,218	18,858	20,177	19,309	18,034
제주	만 3세	260	293	357	322	399	392	372	405	493	491	456	470	442	403	390	378
	만 4세	853	769	1,058	1,039	977	1,190	1,098	1,092	1,201	1,409	1,228	1,284	1,380	1,355	1,285	1,282
	만 5세	4,857	4,478	4,216	4,154	3,629	3,120	3,492	3,239	3,143	3,152	3,377	3,111	3,096	3,233	3,107	2,916

부록 5. 미래육아지원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영유아부모용)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의견조사(영유아 부모)<sup>19)</sup>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20~30년 뒤 2040년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통해 앞으로 요구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육아지원설계가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육아정책의 비전과 목적, 구체적 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장**

-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1. 대도시 2. 중소 도시 3. 읍·면 지역
- ☐ 지역 규모 : 1. 남자 2. 여자
- ☐ 성 별 :

**I. 응답자 특성**

\* 먼저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SQ1) 연령 : 만  세

SQ2) 영유아 연령  
 1. 만 0세       4. 만 3세   
 2. 만 1세  → **SQ3)으로 갈 것**      5. 만 4세  → **SQ4)로 갈 것**  
 3. 만 2세       6. 만 5세

SQ3) 어린이집 이용 여부  
 1. 이용                      2. 미이용

SQ4)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구분	이용 여부	
가. 어린이집	① 이용	② 미이용
나. 유치원	① 이용	② 미이용

SQ5) 취업 여부  
 1. 취업 중(① 시간제 ② 전일제)                      2. 휴직 중                      3. 미취업

SQ6) 최종 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2~3년제 초대 재/졸                      4. 4년제 대 재/졸                      5. 대학원 이상 재/졸

19) 조사는 한국개발조사연구소에서 위탁 수행함.

**II. 삶의 주관적 만족도**

문1) 현재 귀하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당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1	2	3	4	5
②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1	2	3	4	5
③ 현재 자녀양육 만족도	1	2	3	4	5
④ 미래 2040년도 삶의 만족도 예상	1	2	3	4	5

**III. 출산 의향**

문2) 귀하께서는 현재 자녀를 몇 명 두고 계십니까? 해당 칸에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영유아 자녀 수 : 0명은 나오지 않아야합니다.

구분	총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남	명	명
여	명	명
계	명	명

문3)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의 자녀를 더 두실 계획입니까?

1. 있다(추가 희망 자녀 수 :  명)

2. 없다 —▶ **문3-2)로 갈 것**

|

▼

**응답 후 문3-3)으로 갈 것**

문3-1) 그럼, 자녀를 더 낳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 다자녀 혜택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서
2. 형제 자매간의 우애를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
3. 아들, 딸 고루 낳고 싶어서
4. 다자녀의(대)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5. 자녀가 많을수록 서로에게(부모에게) 힘이 되서
6. 배우자, 부모님이 원해서
7. 기타(적을 것 : \_\_\_\_\_ )

문3-2) 그럼,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나와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해서
2. 자녀를 돌볼 사람/지원 체계가 부족해서
3.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4.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커서
5. 자녀양육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커서
6. 필요성을 못 느껴서
7. 기타(적을 것 : \_\_\_\_\_ )

**전체 응답**

문3-3) 어떠한 요인이 변화한다면, 원래 계획보다 자녀를 더 두시겠습니까?

1.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2. 국가의 정책지원이 더 많아진다면
3. 자녀를 돌보아줄 기관/사람이 있다면
4.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더 많아진다면
5. 자녀를 낳고도 일할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배려한다면/일자리가 주어진다면
6. 변화될 가능성 없음
7. 기타(적을 것 : \_\_\_\_\_ )

**전체 응답**

문4) 귀하께서는 미래에 아동을 입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있다
5. 충분히 있다

**전체 응답**

문5) 귀하께서는 미래에 아동을 위탁양육(수양부모 역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있다
5. 충분히 있다

## IV. 미래 전망

문6) 다음은 미래 20~30년 뒤 2040년의 우리나라 사회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망해보는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또는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예상하시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맞고 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귀하가 예상하시는 미래상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	매우 감소 (하락)	다소 감소 (하락)	현재 수준 (유지)	다소 증가 (향상)	매우 증가 (향상)
<b>가. 개인, 가정</b>					
① 개인의 삶의 질	1	2	3	4	5
② 개인의 행복	1	2	3	4	5
③ 결혼율	1	2	3	4	5
④ 출산율	1	2	3	4	5
⑤ 가족구조의 변화(1인 가구, 동거 가구,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1	2	3	4	5
⑥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1	2	3	4	5
<b>나. 사회, 문화, 경제</b>					
① 사회 구성원 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	1	2	3	4	5
②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연금, 의료보험 보장 등)	1	2	3	4	5
③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1	2	3	4	5
④ 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근로시간의 유연화, 양육휴가 활용 등)	1	2	3	4	5
⑤ 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의 활용	1	2	3	4	5
⑥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1	2	3	4	5
⑦ 시민의 정치참여	1	2	3	4	5
⑧ 과학기술강국(원천기술 보유)	1	2	3	4	5
⑨ 인공지능/로봇의 증가(노동의 감소)	1	2	3	4	5
<b>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b>					
① 남북통일	1	2	3	4	5
②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	2	3	4	5
③ 다문화 / 외국인인의 유입과 정착	1	2	3	4	5
④ 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	1	2	3	4	5

문7) 다음은 미래 20~30년 뒤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의 육아와 관련하여 전망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또는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예상하시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맞고 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귀하가 예상하시는 미래상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육아지원기관 : 영유아가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학원, 영어유치원/놀이학교 제외).

2040년 영유아 부모 육아/양육 형태 전망	매우 감소 (하락)	다소 감소 (하락)	현재 수준 (유지)	다소 증가 (향상)	매우 증가 (향상)
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② 영유아부모의 부모역할과 기능이 줄어들 것이다	1	2	3	4	5
③ 남녀 가사노동 부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1	2	3	4	5
④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여전히 중요한 양육지원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5
⑤ 영유아 가정 내 양육보다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⑥ 영유아에 대한 비혈연 돌봄(베이비시터)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⑦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1	2	3	4	5
⑧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이용 부모 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⑨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1	2	3	4	5
⑩ 영유아 사교육 이용이 많아질 것이다 (예 : 교재교구, 문화센터, 체험학습, 영어학원 등)	1	2	3	4	5
⑪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많아질 것이다 (예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1	2	3	4	5
⑫ 육아 관련 산업(예 : 영유아 대상 문화, 상품 등)이 확대될 것이다	1	2	3	4	5
⑬ 인공지능/로봇이 양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1	2	3	4	5

문8)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의 양쪽의 입장 중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육아정책의 방향성				
영아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	2	영아는 <b>가정</b> 내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2	유아는 <b>가정</b> 내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b>모든 영유아</b> 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1	←→	2	<b>취약계층</b> (예: 저소득계층, 조손가족 등)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
영유아 <b>공교육보육</b> 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1	←→	2	영유아 <b>사교육보육</b> 은 수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기관 이용 시 <b>전일</b> 에 대한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	2	기관 이용 시 <b>반일제 과정(1일 5시간)에 대해서만</b> 무상 지원하고, 이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의 <b>정규 보육, 교육 시간에 대한 제한적인</b> 비용 지원이 바람직하다	1	←→	2	정규과정 외 <b>오후 특별(특성화) 활동 시간</b> 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필요하다
영유아 양육에 대한 <b>현금</b> 지원이 바람직하다	1	←→	2	영유아 양육에 대한 <b>물품 및 서비스</b> (예 : 우유, 기저귀, 돌봄서비스제공) 지원이 바람직하다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며) 이용서비스에 대한 비용( <b>보육료, 교육비</b> ) <b>지원</b> 이 바람직하다	1	←→	2	(육아지원기관을 다니지 않으며)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비용( <b>양육수당</b> ) <b>지원</b> 이 바람직하다
육아지원기관의 비용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b>자율화</b> 되어야한다	1	←→	2	육아지원기관의 비용은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격이 <b>규제</b> 되어야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대로 <b>이원화</b> 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1	←→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b>하나의 체제</b> 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처럼, 육아지원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b>기관이용 대체제</b> ) <b>양육수당</b> 형태가 바람직하다	1	←→	2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b>보편적 현금지원</b> ) <b>이동수당</b> 형태가 바람직하다
육아지원의 확대로 예산확보의 재정안정성이 떨어져, 육아지원정책의 <b>지속가능성이 떨어질</b> 것이다	1	←→	2	육아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b>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가 지속될</b> 것이다
미래에 <b>인구감소가 지속되면</b> , 사회경제적으로 <b>큰 혼란</b> 을 겪게 될 것이다	1	←→	2	<b>인구가 감소되더라도</b>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의 도입으로 <b>혼란을 겪지 않을</b> 것이다

문9) 다음은 미래 20~30년 뒤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 대상 정부의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전망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또는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예상하시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맞고 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귀하가 예상하시는 미래상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신 후, 응답해 주십시오.

2040년 우리나라 영유아 육아지원정책 전망	매우 감소 (하락)	다소 감소 (하락)	현재 수준 (유지)	다소 증가 (향상)	매우 증가 (향상)
<b>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b>					
① 남녀 육아휴직이 의무화/보편화 될 것이다	1	2	3	4	5
② 영유아자녀 가구 대상 양육비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③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④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10~20만원)	1	2	3	4	5
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이 더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⑥ 민간/사립 기관 인프라가 여전히 육아지원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다	1	2	3	4	5
⑦ 육아와 영유아 돌봄 역할/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	1	2	3	4	5
⑧ 지역사회 부모공동체에 의한 공동육아(조합)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⑨ IT 기술의 발전이 아동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	2	3	4	5
<b>나. 아동의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b>					
① 취약가구(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② 다문화/외국인 가족 영유아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③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수당이 지원될 것이다	1	2	3	4	5
④ 다재녀가구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⑤ 국내 입양 문화가 개선되어 국내 입양이 활발해 질 것이다	1	2	3	4	5
⑥ 해외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⑦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⑧ 나홀로 아동(돌봄공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⑨ 시설(예 : 고아원) 아동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1	2	3	4	5
⑩ 위탁양육부모(수양부모)가 활성화될 것이다	1	2	3	4	5
<b>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b>					
① 맞벌이 가구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②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③ 여성의 영유아자녀 가정양육 이후 노동시장복귀가 가능하여 재취업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1	2	3	4	5
④ 육아 및 가족 친화적인(일·가정양립의)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1	2	3	4	5
⑤ 영유아 돌봄 및 보육·교육 서비스 분야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1	2	3	4	5

문10) 귀하께서는 문9)에서 제시한 "육아지원정책 및 내용"이 실제로 출산율을 유지하고 높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2.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5.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문10-1) '문9) 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제시된 보기 항목(㉠ ~ ㉡)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문10-2) '문9) 나. 아동의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위에서 제시된 보기 항목(㉠ ~ ㉢)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문10-3) '문9) 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제시된 보기 항목(㉠ ~ ㉣)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V. 기관 대 현금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

문11) 현재 귀하의 취학 전 영유아 자녀는 다음 중 어느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혹은 기관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영유아 자녀 중 나이 많은 순으로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다니는 기관 : "1. 어린이집",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은 중복응답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순위	현재 연령	현재 다니는 기관(중복응답 가능)	
가. 첫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4. 문화센터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 ① 수령 ② 비수령)
		3. 반일제 이상 학원	6. 기타(적을 것 : _____ )
나. 둘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4. 문화센터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 ① 수령 ② 비수령)
		3. 반일제 이상 학원	6. 기타(적을 것 : _____ )
다. 셋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4. 문화센터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 ① 수령 ② 비수령)
		3. 반일제 이상 학원	6.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1-1) 귀하의 자녀별로 약 1년 후에 다닐 기관에 대한 계획을 예상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약 1년 후 다닐 기관 : "1. 어린이집",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 "6. 초등학교 입학함"은 중복응답 할 수 없습니다.

약 1년 후	향후 연령	약 1년 후 다닐 기관(중복응답 가능)	
가. 첫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나. 둘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다. 셋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1-2) 귀하의 자녀별로 약 3년 후에 다닐 기관에 대한 계획을 예상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약 3년 후 다닐 기관 : "1. 어린이집", "2. 유치원", "5. 다니는 기관 없음", "6. 초등학교 입학함"은 중복응답 할 수 없습니다.

약 3년 후	향후 연령	약 3년 후 다닐 기관(중복응답 가능)	
가. 첫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나. 둘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다. 셋째 영유아 자녀	만 ___세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문화센터	5. 다니는 기관 없음(양육수당 수령 예정) 6. 초등학교 입학함 7. 기타(적을 것 : _____ )

※ 반일제 학원 : 학원 중에서도 주로 미취학 아동이 평일 동안은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입니다.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주로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 생기는 영어유치원(학원), 놀이학교 등도 이러한 학원의 일종입니다.

※ 올해부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경우 귀하의 계획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12) - 문14)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자만 응답**

문12) 국가 공통 무상지원 시간이 1일 5시간으로 되고 이후시간에 대해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귀하께서는 기관 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현재보다 기관이용시간을 줄임
2. 비용을 부담하고 현재대로 이용함
3.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겠음
4.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3) 모든 영유아 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등 소득이나 가구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진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지원을 받으며 현재대로 이용함
2. 현재보다 기관이용시간을 줄임
3. 비용을 부담하고 현재대로 이용함
4.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겠음
5.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양육수당 지급액이 현행 10만원(만 2세 이상), 15만원(만 1세), 20만원(0세)에서 각 5만원씩 오른다면, 귀하께서는 기관 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현재대로 기관을 이용함
2. 기관 이용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양육하겠음
3. 기타(적을 것 : \_\_\_\_\_ )

**VI. 기타 의견**

문15) 자녀 연령에 따른 이상적인 양육 형태에 대해 다음 제시된 보기 중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보기를 하나씩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양육 형태 보기]**

- ①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부모가 취업 중일 때) 가정에서 조부모 및 친인척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부모가 취업 중일 때) 가정에서 베이비시터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기타(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만 0세 (생후~12개월 미만)	만 1~2세 (12~36개월 미만)	만 3~4세 (36~60개월 미만)	만 5세 (60개월~72개월)
<b>이상적인 양육 형태</b>				

문16) 마지막으로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해 주십시오.

---

## 자료분류용 질문

DQ1) 가족 규모

총 가족원 수 :  명

DQ2) 직업

- |                 |                       |
|-----------------|-----------------------|
| 1. 관리자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3. 사무 종사자       | 9. 단순노무 종사자           |
| 4. 서비스 종사자      | 10. 군인                |
| 5. 판매 종사자       | 11. 무직 또는 주부          |
| 6.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 12. 기타(적을 것 : _____ ) |

DQ3) 월 가구소득

- |                 |                  |                  |
|-----------------|------------------|------------------|
| 1. 없음(0원)       | 6. 200~250만원 미만  | 11. 600~700만원 미만 |
| 2. 50만원 미만      | 7. 250~300만원 미만  | 12. 700만원 이상     |
| 3. 50-100만원 미만  | 8. 300~400만원 미만  |                  |
| 4. 100-150만원 미만 | 9. 400~500만원 미만  |                  |
| 5. 150~200만원 미만 | 10. 500~600만원 미만 |                  |

DQ4) 월 근로소득(본인)

- |                 |                  |                  |
|-----------------|------------------|------------------|
| 1. 없음(0원)       | 6. 200~250만원 미만  | 11. 600~700만원 미만 |
| 2. 50만원 미만      | 7. 250~300만원 미만  | 12. 700만원 이상     |
| 3. 50-100만원 미만  | 8. 300~400만원 미만  |                  |
| 4. 100-150만원 미만 | 9. 400~500만원 미만  |                  |
| 5. 150~200만원 미만 | 10. 500~600만원 미만 |                  |

DQ5) 월 근로소득(배우자)

- |                 |                  |                  |
|-----------------|------------------|------------------|
| 1. 없음(0원)       | 6. 200~250만원 미만  | 11. 600~700만원 미만 |
| 2. 50만원 미만      | 7. 250~300만원 미만  | 12. 700만원 이상     |
| 3. 50-100만원 미만  | 8. 300~400만원 미만  |                  |
| 4. 100-150만원 미만 | 9. 400~500만원 미만  |                  |
| 5. 150~200만원 미만 | 10. 500~600만원 미만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6. 조사표 분석결과

### 6-1. 2040 한국의 미래 전망

현재 한국사회에 수요가 미충족된 부분을 파악하고, 미래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미래 전망을 위해, 2040년 우리나라 사회상에 대해 개인, 가정과 같은 미시적 영역과 사회, 문화, 경제와 같은 거시적 영역, 또한 세계정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망하도록 하였다.

#### 1) 개인, 가정

브론펜브레너의 인간발달 생태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삶을 둘러싼 다차원의 요인 중, 나 자신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 개인의 행복, 결혼율, 출산율의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미래 한국사회 전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0.8%는 2040년 개인의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미혼 성인과 영유아부모는 각각 3.66점, 3.62점으로 전망도가 비슷하였으나 전문가는 3.13점으로 두 집단보다 낮았다. 연령이 젊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미래 한국사회 삶의 질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

〈부록 표 6-1-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의 삶의 질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9.1	29.3	52.8	8.0	100.0(1,365)	3.58	0.8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5	6.0	30.0	53.8	9.7	100.0( 600)	3.66	0.75	
영유아부모	0.2	6.7	31.0	55.0	7.2	100.0( 600)	3.62	0.72	
전문가	4.2	29.1	20.6	41.2	4.8	100.0( 165)	3.13	1.03	
$X^2(df)/F$			125.24(8)***					31.36***	
연령대별									
20대	0.8	6.5	27.5	55.9	9.3	100.0( 356)	3.66	0.77	
30대	0.1	6.7	31.0	54.1	8.0	100.0( 796)	3.63	0.73	
40대	4.0	19.5	30.9	39.6	6.0	100.0( 149)	3.24	0.97	
50대 이상	1.6	29.7	14.1	50.0	4.7	100.0( 64)	3.27	1.00	
$X^2(df)/F$			94.28(12)***					15.24***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12.9	32.3	46.8	8.1	100.0( 62)	3.50	0.82	
200-300만원 미만	0.0	11.0	30.7	50.0	8.3	100.0( 228)	3.56	0.80	

(부록 표 6-1-1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300-400만원 미만	0.6	4.5	34.0	52.4	8.4	100.0( 332)	3.64	0.73
400-500만원 미만	0.3	4.9	29.2	58.4	7.2	100.0( 305)	3.67	0.70
500만원 이상	0.4	4.8	27.1	57.9	9.9	100.0( 273)	3.72	0.72
$X^2(df)/F$			na					2.27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01$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개인의 삶의 질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응답자의 52%가 미래 개인의 행복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영유아부모의 미래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성인남녀집단에서 긍정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현재보다 행복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2040년 미래 한국인의 행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였다.

〈부록 표 6-1-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의 행복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11.8	35.0	39.0	13.0	100.0(1,365)	3.51	0.9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7	10.3	34.3	41.3	13.3	100.0( 600)	3.56	0.87
영유아부모	0.5	7.5	35.5	41.3	15.2	100.0( 600)	3.63	0.85
전문가	5.5	32.7	35.8	22.4	3.6	100.0( 165)	2.86	0.95
$X^2(df)/F$			128.01(8)***				52.85***	
권역별								
수도권	0.3	3.8	38.5	40.3	17.1	100.0( 636)	3.70	0.80
비수도권	0.9	14.7	30.9	42.6	11.0	100.0( 564)	3.48	0.90
$X^2(df)/t$			55.16(4)***				4.47	
지역규모별								
대도시	0.3	8.3	37.2	45.1	9.1	100.0( 581)	3.54	0.79
중소도시	0.8	9.1	34.6	36.4	19.1	100.0( 503)	3.64	0.92
읍·면	0.9	11.2	25.0	44.0	19.0	100.0( 116)	3.69	0.94
$X^2(df)/F$			32.19(8)***				2.36	

\*\*\*  $p < .001$

전체적으로 미래 삶의 전망(삶의 질, 행복)이 5점 평균 3.5~3.6점으로 긍정적 응답의 경향이 있었다면, 2040년 우리나라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전망은 현재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과반 이상(51.5%, 56.8%)으로 나타났다. '결혼율' 전망의 경우, 5점 평균 점수가 미혼 성인(2.66점), 영유아 부모(2.86점), 전문가(2.10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현재 보다 감소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영유아 부모가 결혼을 감소에 대해 소극적인 전망을 하였다면 전문가집단은 감소 전망에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도시지역일수록,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지역에서, 젊은 연령일수록, 취업자집단과 같이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많은 집단에서 미래 결혼율 전망이 긍정적이었다.

〈부록 표 6-1-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결혼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9.2	42.3	26.4	15.2	6.8	100.0(1,365)	2.68	1.0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9.3	41.3	30.0	12.3	7.0	100.0( 600)	2.66	1.04
영유아부모	7.3	37.7	25.7	20.8	8.5	100.0( 600)	2.86	1.10
전문가	15.8	63.0	16.4	4.8	0.0	100.0( 165)	2.10	0.71
$X^2(df)/F$			80.47(8) <sup>***</sup>				34.56 <sup>***</sup>	
권역별								
수도권	4.9	31.4	32.1	19.2	12.4	100.0( 636)	3.03	1.10
비수도권	12.2	48.6	23.0	13.7	2.5	100.0( 564)	2.46	0.96
$X^2(df)/t$			94.01(4) <sup>***</sup>				9.59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01$

2040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전망으로 응답자의 56.8%가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결혼율보다 감소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집단별로 전문가, 비수도권 거주자가 출산율 감소를 좀 더 전망하고 있다. 영유아 아버지와 유아 교육·보육 전공이 아닌 전문가집단의 미래출산율 전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부록 표 6-1-4〉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출산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0	41.8	26.4	11.9	4.8	100.0(1,365)	2.50	1.04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14.2	45.8	28.0	7.1	4.9	100.0( 225)	2.43	0.98
미혼성인여	15.2	44.8	23.8	10.8	5.4	100.0( 223)	2.46	1.05

(부록 표 6-1-4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혼대학생남	16.0	42.7	25.3	14.7	1.3	100.0( 75)	2.43	0.98
미혼대학생여	15.6	45.5	22.1	11.7	5.2	100.0( 77)	2.45	1.06
영유아부모 부	13.1	41.5	21.9	13.7	9.8	100.0( 183)	2.66	1.17
영유아부모 모	15.6	37.9	27.1	14.6	4.8	100.0( 417)	2.55	1.07
전문가(유아교육)	23.2	35.7	33.9	7.1	0.0	100.0( 56)	2.25	0.90
전문가(보육)	16.4	43.6	36.4	3.6	0.0	100.0( 55)	2.27	0.78
전문가(제3영역)	7.4	40.7	31.5	20.4	0.0	100.0( 54)	2.65	0.89
$X^2(df)/F$			50.80(32)*				1.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5.0	45.0	25.3	10.0	4.7	100.0( 600)	2.44	1.01
영유아부모	14.8	39.0	25.5	14.3	6.3	100.0( 600)	2.58	1.10
전문가	15.8	40.0	33.9	10.3	0.0	100.0( 165)	2.39	0.87
$X^2(df)/F$			22.72(8)**				3.79*	
권역별								
수도권	9.9	37.7	30.0	13.4	9.0	100.0( 636)	2.74	1.09
비수도권	20.6	46.8	20.2	10.8	1.6	100.0( 564)	2.26	0.96
$X^2(df)/t$			71.07(4)***				7.98***	

\*  $p < .05$ , \*\*  $p < .01$ , \*\*\*  $p < .001$ 

1인 가구, 동거 가구,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구조와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4%가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정도가 5점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2040년 우리나라 가족(구조)에 변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부록 표 6-1-5〉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가족구조의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	11.6	21.4	44.8	19.6	0.1	100.0(1,365)	3.68	1.0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2.0	11.7	24.0	45.2	17.2	0.0	100.0( 600)	3.64	0.96
영유아부모	3.0	12.7	23.3	43.7	17.0	0.3	100.0( 600)	3.59	1.01
전문가	2.4	7.3	4.8	47.3	38.2	0.0	100.0( 165)	4.12	0.97
$X^2(df)/F$			61.77(8)***					19.04***	
연령대별									
20대	3.4	14.3	24.4	41.9	16.0	0.0	100.0( 356)	3.53	1.03
30대	2.1	10.4	23.1	45.6	18.5	0.3	100.0( 796)	3.68	0.96
40대	2.0	10.7	10.7	49.0	27.5	0.0	100.0( 149)	3.89	0.99
50대 이상	3.1	12.5	7.8	40.6	35.9	0.0	100.0( 64)	3.94	1.11
$X^2(df)/F$			39.09(12)***					6.50***	

(부록 표 6-1-5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학력별									
고졸 이하	3.3	14.1	25.0	43.8	13.4	0.4	100.0( 276)	3.50	1.00
초대제/졸	2.2	14.9	26.1	37.3	19.6	0.0	100.0( 276)	3.57	1.03
4년대제/졸이상	2.3	10.2	22.1	47.7	17.6	0.2	100.0( 648)	3.68	0.96
X <sup>2</sup> (df)/F			15.02(8)					3.55*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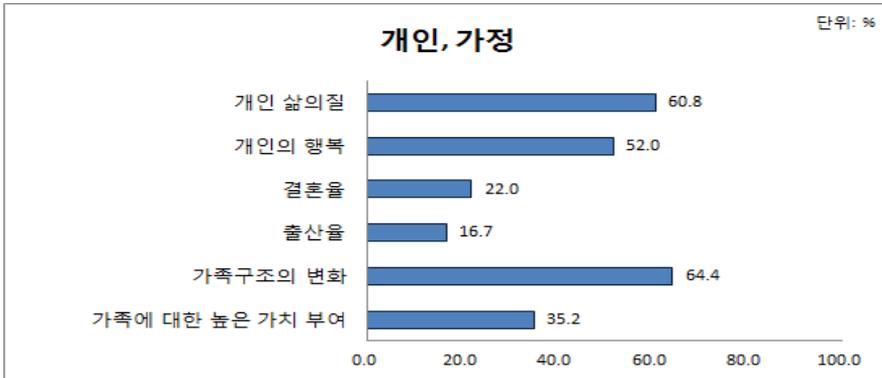
2040년에 ‘가족에 대한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수준의 가족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40%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은 5점 평균 2.61점(현재수준 유지 25.5%)로 미혼 성인과 영유아 부모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미래 가족에 대한 가치 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하위집단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그리고 젊은 연령일수록 미래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가족을 우선하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6-1-6〉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	21.9	39.9	30.8	4.4	0.2	100.0(1,365)	3.12	0.89
집단구분1									
미혼 성인	2.0	19.2	42.3	32.8	3.5	0.2	100.0( 600)	3.17	0.84
영유아부모	2.5	17.5	41.3	32.3	6.0	0.3	100.0( 600)	3.22	0.89
전문가	6.7	47.9	25.5	18.2	1.8	0.0	100.0( 165)	2.61	0.92
X <sup>2</sup> (df)/F			95.17(8)***					33.14***	
연령대별									
20대	2.0	18.5	41.9	33.1	4.2	0.3	100.0( 356)	3.19	0.85
30대	2.5	19.0	41.8	31.7	4.8	0.3	100.0( 796)	3.17	0.88
40대	4.7	32.9	31.5	26.2	4.7	0.0	100.0( 149)	2.93	0.98
50대 이상	6.3	51.6	23.4	18.8	0.0	0.0	100.0( 64)	2.55	0.87
X <sup>2</sup> (df)/F			60.60(12)***					12.90***	

\*\*\* p < .001

이상의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망 중 개인과 가정에 대한 각 항목의 증가 비율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그림 7-1-1).



[부록 그림 7-1-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 가정

## 2) 사회, 문화, 경제

사회구성원 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5%로, 집단간 차이를 보여 미혼 성인과 영유아 부모는 5점 평균 3.3점 내외로 긍정적 경향이 우세한 반면 전문가집단은 균형적 분배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2.7점)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대)도시지역일수록, 젊은 연령일수록 미래 우리사회의 소득분배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부록 표 6-1-7〉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 구성원 간 소득의 균형적 분배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	21.4	28.8	39.3	6.2	100.0(1,365)	3.22	0.99
집단구분1								
미혼 성인	3.2	18.5	30.8	40.0	7.5	100.0( 600)	3.30	0.96
영유아부모	3.8	17.7	30.7	42.5	5.3	100.0( 600)	3.28	0.94
전문가	9.7	45.5	14.5	25.5	4.8	100.0( 165)	2.70	1.10
$\chi^2(df)/F$			90.07(8)***				26.56***	
지역규모별								
대도시	3.4	14.1	30.6	45.1	6.7	100.0( 581)	3.38	0.93
중소도시	3.0	21.7	30.4	38.6	6.4	100.0( 503)	3.24	0.96
읍·면	6.0	22.4	32.8	33.6	5.2	100.0( 116)	3.09	1.00
$\chi^2(df)/F$			17.49(8)*				5.60*	

(부록 표 6-1-7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별								
20대	2.8	18.8	29.8	40.7	7.9	100.0( 356)	3.32	0.96
30대	4.0	18.6	30.3	41.0	6.2	100.0( 796)	3.27	0.97
40대	6.7	33.6	24.2	30.9	4.7	100.0( 149)	2.93	1.05
50대 이상	9.4	42.2	15.6	31.3	1.6	100.0( 64)	2.73	1.06
$X^2(df)/F$			49.69(12) <sup>***</sup>				11.37 <sup>***</sup>	

\*  $p < .05$ , \*\*  $p < .01$ , \*\*\*  $p < .001$

2040년 미래 우리사회의 '복지 지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62.3%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미래 복지지향사회로의 긍정적 전망이 더 많았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우리사회의 복지 지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층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이며,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층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로 현재 미충족된 복지외 분배에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6-1-8〉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9.6	26.5	50.3	12.0	0.1	100.0(1,365)	3.62	0.8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5	9.3	30.0	48.5	10.7	0.0	100.0( 600)	3.58	0.86
영유아부모	1.3	10.0	26.3	47.2	15.0	0.2	100.0( 600)	3.65	0.90
전문가	1.8	9.1	14.5	68.5	6.1	0.0	100.0( 165)	3.68	0.80
$X^2(df)/F$			34.68(8) <sup>***</sup>					1.45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8	17.7	33.9	30.6	12.9	0.0	100.0( 62)	3.29	1.06
200-300만원 미만	1.8	8.3	28.5	43.9	17.5	0.0	100.0( 228)	3.67	0.92
300-400만원 미만	1.8	11.1	28.0	48.8	9.9	0.3	100.0( 332)	3.54	0.88
400-500만원 미만	0.0	10.2	30.2	48.5	11.1	0.0	100.0( 305)	3.61	0.82
500만원 이상	1.5	6.6	24.5	53.1	14.3	0.0	100.0( 273)	3.72	0.84
$X^2(df)/F$			34.00(16) <sup>**</sup>					3.97 <sup>**</sup>	
삶 만족도별									
만족함	1.2	7.3	22.8	53.9	14.8	0.0	100.0( 675)	3.74	0.84
보통	1.2	13.4	33.6	42.6	9.0	0.2	100.0( 411)	3.45	0.88
불만족함	3.7	11.0	41.3	30.3	13.8	0.0	100.0( 109)	3.39	0.98
$X^2(df)/F$			53.16(8) <sup>***</sup>					17.95 <sup>***</sup>	

\*\*  $p < .01$ , \*\*\*  $p < .001$

204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해서는 76.8%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 연령대 50대 이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으며,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전망이 더 많았다.

〈부록 표 6-1-9〉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2.5	20.4	52.2	24.6	100.0(1,365)	3.99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3.2	23.3	45.2	28.0	100.0( 600)	3.97	0.82
영유아부모	0.2	2.3	21.5	53.5	22.5	100.0( 600)	3.96	0.74
전문가	0.0	0.6	6.1	73.3	20.0	100.0( 165)	4.13	0.52
$X^2(df)/F$			na				3.39*	
연령대별								
20대	0.6	3.4	22.8	45.5	27.8	100.0(356)	3.97	0.83
30대	0.1	2.5	21.6	51.6	24.1	100.0(796)	3.97	0.75
40대	0.0	1.3	16.1	64.4	18.1	100.0(149)	3.99	0.63
50대 이상	0.0	0.0	3.1	68.8	28.1	100.0(64)	4.25	0.50
$X^2(df)/F$			na				2.81*	
삶 만족도별								
만족함	0.0	2.4	19.3	50.5	27.9	100.0( 675)	4.04	0.75
보통	0.5	3.2	24.6	50.4	21.4	100.0( 411)	3.89	0.79
불만족함	0.9	3.7	33.9	39.4	22.0	100.0( 109)	3.78	0.86
$X^2(df)/F$			na				8.05***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근로시간의 유연화, 양육휴가 활용 등 '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70.3%)로 나타났다. 미혼 성인이나 영유아 부모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가족 가치 전망에서 가장 소극적이었던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장 적극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근로문화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부록 표 6-1-10).

〈부록 표 6-1-10〉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망-가정문화를 배려한 근로문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5	5.3	23.8	57.1	13.2	100.0(1,365)	3.77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7	5.8	24.3	57.2	12.0	100.0( 600)	3.74	0.77
영유아부모	0.5	5.7	27.7	51.0	15.2	100.0( 600)	3.75	0.80
전문가	0.0	2.4	7.9	79.4	10.3	100.0( 165)	3.98	0.53
X <sup>2</sup> (df)/F			47.27(8) <sup>***</sup>				6.85 <sup>**</sup>	
연령대별								
20대	0.8	6.5	23.9	56.5	12.4	100.0( 356)	3.73	0.79
30대	0.5	4.9	26.5	54.4	13.7	100.0( 796)	3.76	0.77
40대	0.0	7.4	16.8	65.8	10.1	100.0( 149)	3.79	0.72
50대 이상	0.0	0.0	6.3	75.0	18.8	100.0( 64)	4.13	0.49
X <sup>2</sup> (df)/F			na				5.09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3.2	6.5	22.6	59.7	8.1	100.0( 62)	3.63	0.85
200-300만원 미만	1.3	5.7	21.5	57.0	14.5	100.0( 228)	3.78	0.81
300-400만원 미만	0.6	5.7	28.6	51.2	13.9	100.0( 332)	3.72	0.79
400-500만원 미만	0.0	6.9	30.5	51.1	11.5	100.0( 305)	3.67	0.77
500만원 이상	0.0	4.4	22.3	57.1	16.1	100.0( 273)	3.85	0.73
X <sup>2</sup> (df)/F			na				2.41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1$ , \*\*\*  $p < .001$ 

미래에는 '온라인상담 및 온라인교육 지원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74.5%로, 미혼 성인이나 영유아 부모 집단보다 전문가의 긍정적인 전망 정도가 높았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집단에서 높았다. 온라인사용이 많은 젊은 세대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록 표 6-1-11〉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의 활용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3.4	22.0	53.6	20.9	100.0(1,365)	3.92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4.2	23.2	51.3	21.2	100.0( 600)	3.89	0.78
영유아부모	0.2	3.3	23.5	53.5	19.5	100.0( 600)	3.89	0.75
전문가	0.0	0.6	12.1	62.4	24.8	100.0( 165)	4.12	0.62
X <sup>2</sup> (df)/F			18.25(8) <sup>*</sup>				6.50 <sup>**</sup>	

(부록 표 6-1-11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0.4	3.8	24.0	53.0	18.9	100.0( 530)	3.86	0.77
여자	0.0	3.1	20.7	54.0	22.2	100.0( 835)	3.95	0.74
$X^2(df)/t$			6.86(4)					-2.15
연령대별								
20대	0.3	2.8	29.5	50.8	16.6	100.0( 356)	3.81	0.75
30대	0.1	4.1	20.0	53.5	22.2	100.0( 796)	3.94	0.77
40대	0.0	1.3	20.1	59.7	18.8	100.0( 149)	3.96	0.67
50대 이상	0.0	1.6	9.4	56.3	32.8	100.0( 64)	4.20	0.67
$X^2(df)/F$			na					6.01***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2040년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3%, 현재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5점 평균 2.45점으로 미혼성인(3.31점), 영유아부모(3.42점)보다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수도권 거주자가, 고소득일수록, 2·30대 연령층에서 미래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응답을 하였다.

〈부록 표 6-1-1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1	20.1	33.8	34.5	8.5	100.0(1,365)	3.25	0.9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3.0	18.3	33.7	35.0	10.0	100.0( 600)	3.31	0.98
영유아부모	1.7	13.3	35.7	40.0	9.3	100.0( 600)	3.42	0.89
전문가	8.5	50.9	27.9	12.7	0.0	100.0( 165)	2.45	0.82
$X^2(df)/F$			158.64(8)***					73.25***
권역별								
수도권	0.5	12.4	33.0	43.4	10.7	100.0( 636)	3.51	0.86
비수도권	4.4	19.7	36.5	30.9	8.5	100.0( 564)	3.19	0.99
$X^2(df)/t$			45.12(4)***					5.99
연령대별								
20대	2.8	18.5	34.3	34.6	9.8	100.0( 356)	3.30	0.97
30대	2.0	15.5	34.8	38.1	9.7	100.0( 796)	3.38	0.93
40대	6.0	37.6	30.9	22.8	2.7	100.0( 149)	2.79	0.96
50대 이상	10.9	45.3	26.6	17.2	0.0	100.0( 64)	2.50	0.91
$X^2(df)/F$			101.50(12)***					30.97***

\*\*\*  $p < .001$

미래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0%이며, 현재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5점 평균에 의하면 미혼성인(3.44점)과 영유아부모(3.49점)가 전문가(3.16점) 집단보다, 2·30대가 4·50대보다, 가구소득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 미래 시민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6-1-1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시민의 정치참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13.6	35.2	41.4	8.6	100.0(1,365)	3.42	0.8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0	13.0	36.2	41.0	8.8	100.0( 600)	3.44	0.86
영유아부모	1.2	11.5	35.0	42.3	10.0	100.0( 600)	3.49	0.87
전문가	2.4	23.6	32.1	39.4	2.4	100.0( 165)	3.16	0.90
$X^2(df)/F$			25.13(8)**				9.31***	
권역별								
수도권	0.6	8.0	36.2	43.4	11.8	100.0( 636)	3.58	0.82
비수도권	1.6	17.0	34.9	39.7	6.7	100.0( 564)	3.33	0.89
$X^2(df)/t$			31.57(4)***				4.99	
연령대별								
20대	1.1	13.2	35.7	39.6	10.4	100.0( 356)	3.45	0.89
30대	1.0	12.2	35.6	42.2	9.0	100.0( 796)	3.46	0.86
40대	1.3	18.8	33.6	42.3	4.0	100.0( 149)	3.29	0.86
50대 이상	4.7	21.9	31.3	39.1	3.1	100.0( 64)	3.14	0.96
$X^2(df)/F$			22.24(12)*				4.04***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27.4	22.6	43.5	6.5	100.0( 62)	3.29	0.95
200-300만원 미만	2.2	11.8	43.4	35.1	7.5	100.0( 228)	3.34	0.86
300-400만원 미만	0.9	11.1	37.0	40.4	10.5	100.0( 332)	3.48	0.86
400-500만원 미만	0.7	12.5	35.1	42.0	9.8	100.0( 305)	3.48	0.86
500만원 이상	1.1	10.3	30.8	48.0	9.9	100.0( 273)	3.55	0.85
$X^2(df)/F$			32.92(16)**				2.65*	

\*  $p < .05$ , \*\*  $p < .01$ , \*\*\*  $p < .001$

원천기술 보유 등 우리나라가 '과학기술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응답자는 68.8%로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문가집단보다 미혼성인과 영유아부모에게서 긍정응답이 더 많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젊은 연령대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강국의 긍정 전망이 많았다(부록 표 6-1-14).

〈부록 표 6-1-14〉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과학기술강국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3.8	27.0	57.7	11.1	100.0(1,365)	3.76	0.71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3	27.5	56.7	12.3	100.0( 600)	3.78	0.71
영유아부모	0.5	4.0	26.5	57.3	11.7	100.0( 600)	3.76	0.73
전문가	0.0	4.8	27.3	63.0	4.8	100.0( 165)	3.68	0.64
$X^2(df)/F$			10.40(8)				1.24	
연령대별								
20대	0.3	5.1	25.8	58.7	10.1	100.0( 356)	3.73	0.72
30대	0.3	2.8	26.8	57.9	12.3	100.0( 796)	3.79	0.69
40대	0.7	4.7	32.2	53.0	9.4	100.0( 149)	3.66	0.74
50대 이상	0.0	7.8	25.0	60.9	6.3	100.0( 64)	3.66	0.72
$X^2(df)/F$			na				0.22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3.2	24.2	59.7	12.9	100.0( 62)	3.82	0.69
200-300만원 미만	0.4	4.8	29.8	51.3	13.6	100.0( 228)	3.73	0.77
300-400만원 미만	0.6	3.3	31.9	52.7	11.4	100.0( 332)	3.71	0.73
400-500만원 미만	0.3	4.6	23.6	62.0	9.5	100.0( 305)	3.76	0.70
500만원 이상	0.0	2.2	23.1	60.8	13.9	100.0( 273)	3.86	0.66
$X^2(df)/F$			na				2.01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응답자의 70.6%는 미래 우리사회에 ‘인공지능/로봇’이 증가하여 노동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전망을 하였다. 하위집단별로 미혼성인과 영유아부모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인공지능/로봇 사용 증가에 대한 전망이 많았으며, 비수도권과 읍면지역 거주자의 증가 전망 비율이 높음이 특징적이다.

〈부록 표 6-1-15〉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인공지능/로봇의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2.5	26.6	56.8	13.8	100.0(1,365)	3.82	0.7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5	2.2	27.5	55.2	14.7	100.0( 600)	3.81	0.72
영유아부모	0.0	2.7	28.3	57.3	11.7	100.0( 600)	3.78	0.68
전문가	0.0	3.0	17.0	61.2	18.8	100.0( 165)	3.96	0.69
$X^2(df)/F$			na				4.19*	
권역별								
수도권	0.0	2.0	33.0	55.0	9.9	100.0( 636)	3.73	0.66
비수도권	0.5	2.8	22.2	57.6	16.8	100.0( 564)	3.87	0.73
$X^2(df)/t$		28.07(4)***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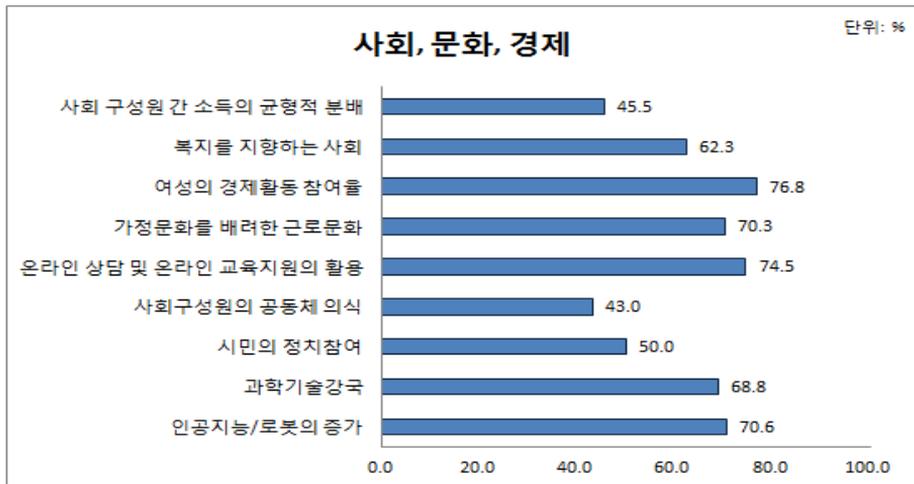
(부록 표 6-1-15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2.2	29.6	59.0	9.1	100.0( 581)	3.75	0.64
중소도시	0.6	2.0	27.6	53.5	16.3	100.0( 503)	3.83	0.74
읍·면	0.0	5.2	20.7	54.3	19.8	100.0( 116)	3.89	0.78
$X^2(df)/F$			na				2.81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이상의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망 중 사회, 문화, 경제의 각 항목에 대한 증가 전망 비율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그림 7-1-2]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사회, 문화, 경제

### 3) 세계정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 중 거시적으로 세계정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 수준 유지 42.6%, 남북통일의 가능성 증가 40.9%로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미혼 성인이나 영유아 부모보다 전문가집단에서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으며, 고연령층일수록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록 표 6-1-16).

〈부록 표 6-1-16〉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남북통일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	14.4	42.6	34.5	6.4	100.0(1,365)	3.29	0.8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2.5	14.2	42.5	34.2	6.7	100.0( 600)	3.28	0.88
영유아부모	2.0	16.8	45.2	30.2	5.8	100.0( 600)	3.21	0.86
전문가	1.2	6.1	33.9	51.5	7.3	100.0( 165)	3.58	0.77
X <sup>2</sup> (df)/F			33.10(8) <sup>***</sup>				11.78 <sup>***</sup>	

<sup>\*\*\*</sup> p < .001

미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과반(55.3%)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5점 평균으로 비교하면,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4·50대보다는 2·30대가, 전문가집단보다는 미혼성인, 영유아부모 집단에서 미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6-1-17〉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	9.4	34.4	45.6	9.7	100.0(1,365)	3.54	0.83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4	8.9	38.7	43.1	8.9	100.0( 225)	3.51	0.80
미혼성인여	0.4	9.4	29.6	48.0	12.6	100.0( 223)	3.63	0.84
미혼대학생남	0.0	12.0	36.0	45.3	6.7	100.0( 75)	3.47	0.79
미혼대학생여	0.0	5.2	35.1	53.2	6.5	100.0( 77)	3.61	0.69
영유아부모 부	0.5	7.1	35.5	47.0	9.8	100.0( 183)	3.58	0.79
영유아부모 모	0.7	7.7	30.0	48.7	12.9	100.0( 417)	3.65	0.83
전문가(유아교육)	3.6	7.1	46.4	39.3	3.6	100.0( 56)	3.32	0.81
전문가(보육)	1.8	18.2	45.5	32.7	1.8	100.0( 55)	3.15	0.80
전문가(제3영역)	7.4	27.8	38.9	25.9	0.0	100.0( 54)	2.83	0.91
X <sup>2</sup> (df)/F			98.35(32) <sup>***</sup>				8.88 <sup>***</sup>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9.0	34.5	46.5	9.7	100.0( 600)	3.56	0.80
영유아부모	0.7	7.5	31.7	48.2	12.0	100.0( 600)	3.63	0.81
전문가	4.2	17.6	43.6	32.7	1.8	100.0( 165)	3.10	0.86
X <sup>2</sup> (df)/F			62.01(8) <sup>***</sup>				27.93 <sup>***</sup>	

<sup>\*\*\*</sup> p < .001

‘다문화/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에 대해서는 전체 71.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전망이 상당히 높아(4.21점/5점) 향후 다문화 사회로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전망하였다.

〈부록 표 6-1-18〉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다문화/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4	3.8	24.5	56.3	15.1	100.0(1,365)	3.82	0.74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5	4.5	27.2	54.5	13.3	100.0( 600)	3.76	0.76
영유아부모	0.3	4.0	27.0	55.2	13.5	100.0( 600)	3.78	0.74
전문가	0.0	0.6	5.5	66.7	27.3	100.0( 165)	4.21	0.56
X <sup>2</sup> (df)/F			56.00(8) <sup>***</sup>				26.68 <sup>***</sup>	

<sup>\*\*\*</sup>  $p < .001$

현재 창조경제의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비율은 59.3%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보다 여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수도권 거주자가, 연령대 중에서는 50대 이상 최고령층에서 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6-1-19〉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개인창업(자)의 증가 및 영향력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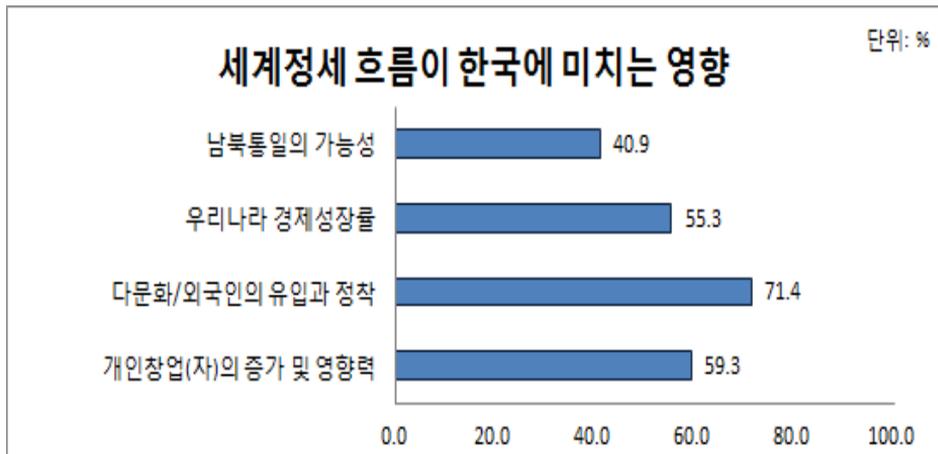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9	6.7	33.2	52.0	7.3	100.0(1,365)	3.58	0.76
성별								
남자	1.3	8.1	35.1	49.1	6.4	100.0( 530)	3.51	0.79
여자	0.6	5.7	32.0	53.9	7.8	100.0( 835)	3.63	0.74
X <sup>2</sup> (df)/t			7.89(4)				-2.17	
권역별								
수도권	0.2	4.7	34.7	53.6	6.8	100.0( 636)	3.62	0.69
비수도권	2.0	8.2	34.2	46.6	9.0	100.0( 564)	3.53	0.84
X <sup>2</sup> (df)/t			20.10(4) <sup>***</sup>				2.13	

(부록 표 6-1-19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별								
20대	1.4	7.9	37.6	44.7	8.4	100.0( 356)	3.51	0.81
30대	0.9	5.7	33.2	52.6	7.7	100.0( 796)	3.61	0.75
40대	0.0	10.1	31.5	55.7	2.7	100.0( 149)	3.51	0.71
50대 이상	0.0	4.7	12.5	76.6	6.3	100.0( 64)	3.84	0.60
X <sup>2</sup> (df)/F			na				4.39**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1$ , \*\*\*  $p < .001$ 

이상으로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 중 세계정세 흐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의 각 항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그림 7-1-3]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 전망-세계정세 흐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부록 6-2. 2040 영유아부모의 자녀 양육형태 전망

본 절에서는 2040년 영유아 자녀의 육아/양육 형태를 전망하는 설문을 통해, 미래 우리사회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 부모 역할의 기능, 남녀 가사노동 분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육아지원기관 및 비혈연 돌보미 이용, 육아 부담 등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망되는지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2.4%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미혼성인이나 영유아부모보다는 전문가의 증가 기대 수준이 높았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도시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과 성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점도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부록 표 6-2-1〉 2040 양육전망 1) - 아버지 양육참여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1.5	15.9	63.0	19.4	100.0(1,365)	4.00	0.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1.5	17.5	62.0	18.7	100.0( 600)	3.97	0.67
영유아부모	0.0	2.0	17.8	60.5	19.7	100.0( 600)	3.98	0.67
전문가	0.0	0.0	3.0	75.8	21.2	100.0( 165)	4.18	0.46
X <sup>2</sup> (df)/F			na				7.33**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1$

자녀양육에서 ‘영유아부모의 부모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현상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절반 가량인 4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취업자가, 고학력자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구에서 미래 영유아자녀 양육에서 부모 역할기능의 축소를 전망하는 정도가 높았다(부록 표 6-2-2).

〈부록 표 6-2-2〉 2040 양육전망 2) -영유아부모의 부모 역할/기능 축소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	13.1	36.7	37.8	11.1	100.0(1,365)	3.44	0.90
취업여부별								
취업-시간제	1.5	8.8	50.0	29.4	10.3	100.0( 68)	3.38	0.85
취업-전일제	1.0	10.2	38.5	35.6	14.8	100.0( 522)	3.53	0.90
휴직중	0.0	15.8	21.1	52.6	10.5	100.0( 19)	3.58	0.90
미취업	1.7	16.1	37.2	35.7	9.3	100.0( 591)	3.35	0.92
X <sup>2</sup> (df)/F			23.43(12)*				4.00**	
학력별								
고졸 이하	1.1	10.9	45.7	31.2	11.2	100.0( 276)	3.41	0.87
초대재/졸	2.9	19.6	31.9	34.8	10.9	100.0( 276)	3.31	1.00
4년대재/졸이상	0.8	11.3	37.8	37.8	12.3	100.0( 648)	3.50	0.88
X <sup>2</sup> (df)/F			28.09(8)***				4.23*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6	16.1	32.3	40.3	9.7	100.0( 62)	3.40	0.93
200~300만원 미만	1.8	21.5	34.2	33.3	9.2	100.0( 228)	3.27	0.96
300~400만원 미만	1.2	10.8	39.8	38.0	10.2	100.0( 332)	3.45	0.86
400~500만원 미만	2.0	13.1	39.3	34.8	10.8	100.0( 305)	3.39	0.92
500만원 이상	0.4	8.1	39.9	34.4	17.2	100.0( 273)	3.60	0.88
X <sup>2</sup> (df)/F			35.25(16)**				4.48**	

\*  $p < .05$ , \*\*  $p < .01$ , \*\*\*  $p < .001$ 

남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87.2%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문항에서처럼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가사노동 분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록 표 6-2-3〉 2040 양육전망 3) -남녀 가사노동 분담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3	20.3	56.8	20.4	100.0(1,365)	3.95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0	22.5	53.0	21.3	100.0( 600)	3.92	0.75
영유아부모	0.2	2.2	20.8	55.7	21.2	100.0( 600)	3.96	0.72

(부록 표 6-2-3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문가	0.0	0.6	10.3	75.2	13.9	100.0( 165)	4.02	0.52
$X^2(df)/F$			na				1.32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3.6	24.6	54.2	17.4	100.0( 581)	3.85	0.75
중소도시	0.2	1.4	20.7	54.5	23.3	100.0( 503)	3.99	0.72
읍·면	0.0	2.6	11.2	54.3	31.9	100.0( 116)	4.16	0.72
$X^2(df)/F$			na				10.65***	
연령대별								
20대	0.3	2.8	20.8	53.1	23.0	100.0( 356)	3.96	0.76
30대	0.1	2.6	22.0	54.9	20.4	100.0( 796)	3.93	0.73
40대	0.0	0.7	16.1	71.1	12.1	100.0( 149)	3.95	0.55
50대 이상	0.0	0.0	6.3	68.8	25.0	100.0( 64)	4.19	0.53
$X^2(df)/F$			na				2.65*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인 54.7%가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집단 구분으로 볼 때, 전문가 집단에서보다는 미혼 성인과 영유아부모 집단에서 증가 전망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비수도권 거주자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에서 증가 전망이 높았다. 또한 조부모의 시기를 곧 앞두고 있는 4·50대보다 자녀 양육을 책임질 부모의 시기를 곧 앞두고 있는 2·30대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흥미로우며, 취업여부별로 살펴볼 때 취업 중에 있는 응답자의 증가 전망 비율이 휴직이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전망 비율보다 높았다. 향후 조부모 지원에의 기대심리가 작용된 결과로 보인다.

〈부록 표 6-2-4〉 2040 양육전망 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4.0	30.3	41.4	13.3	100.0(1,365)	3.52	0.93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0	12.2	31.3	43.5	12.0	100.0( 600)	3.53	0.89
영유아부모	0.7	13.0	27.3	43.3	15.7	100.0( 600)	3.60	0.92
전문가	3.0	24.2	37.0	26.7	9.1	100.0( 165)	3.15	0.99
$X^2(df)/F$			40.63(8)***				16.27**	

(부록 표 6-2-4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권역별								
수도권	0.2	11.6	28.1	46.4	13.7	100.0( 636)	3.62	0.87
비수도권	1.6	13.7	30.7	40.1	14.0	100.0( 564)	3.51	0.95
$X^2(df)/t$			11.81(4)*				2.01	
취업여부별								
취업-시간제	0.0	13.2	22.1	41.2	23.5	100.0( 68)	3.75	0.97
취업-전일제	0.4	12.1	29.1	41.8	16.7	100.0( 522)	3.62	0.91
휴직중	0.0	15.8	31.6	52.6	0.0	100.0( 19)	3.37	0.76
미취업	1.4	12.9	30.3	44.8	10.7	100.0( 591)	3.51	0.90
$X^2(df)/F$			na				2.78*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영유아들의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률'이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78.3%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가 5점 평균 4.09점으로 미혼성인(3.98점)이나 영유아부모(3.93점)보다 영유아기 기관이용에 대한 높은 전망을 보였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증가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6-2-5〉 22040 양육전망 5) -육아지원기관 이용률 상승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6	18.9	56.8	21.5	100.0(1,365)	3.97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2.3	18.0	57.8	21.5	100.0( 600)	3.98	0.72
영유아부모	0.0	2.8	21.8	54.8	20.5	100.0( 600)	3.93	0.73
전문가	0.0	2.4	11.5	60.6	25.5	100.0( 165)	4.09	0.68
$X^2(df)/F$			na				3.30*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3.3	22.9	55.9	17.7	100.0( 581)	3.88	0.73
중소도시	0.2	1.8	17.3	57.1	23.7	100.0( 503)	4.02	0.71
읍·면	0.0	2.6	16.4	55.2	25.9	100.0( 116)	4.04	0.73
$X^2(df)/F$			na				6.34**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5$ , \*\*  $p < .01$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닌 '비혈연 돌보미 이용'에 대해서는 74.1%가 현재보다 2040년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집단의 증가 전망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는데,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비혈연 돌보미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구소득별 응답에서는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중산층 보다 비혈연 돌보미 이용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부록 표 6-2-6〉 2040 양육전망 6) -비혈연 돌보미 이용률 상승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3.2	22.6	54.4	19.7	100.0(1,365)	3.90	0.74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0	22.8	53.5	20.5	100.0( 600)	3.91	0.75
영유아부모	0.0	3.7	25.0	52.5	18.8	100.0( 600)	3.87	0.75
전문가	0.0	2.4	12.7	64.8	20.0	100.0( 165)	4.02	0.65
X <sup>2</sup> (df)/F			14.96(8)				3.04*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4.0	26.2	54.6	15.3	100.0( 581)	3.81	0.73
중소도시	0.2	3.0	22.7	52.1	22.1	100.0( 503)	3.93	0.76
읍·면	0.0	1.7	18.1	49.1	31.0	100.0( 116)	4.09	0.75
X <sup>2</sup> (df)/F			na				8.16***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1.6	4.8	24.2	40.3	29.0	100.0( 62)	3.90	0.94
200~300만원 미만	0.0	3.5	20.2	53.9	22.4	100.0( 228)	3.95	0.75
300~400만원 미만	0.0	4.8	27.7	51.5	16.0	100.0( 332)	3.79	0.77
400~500만원 미만	0.0	3.3	26.2	52.1	18.4	100.0( 305)	3.86	0.75
500만원 이상	0.0	1.1	19.8	57.9	21.2	100.0( 273)	3.99	0.68
X <sup>2</sup> (df)/F			na				3.43**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현재보다 영유아들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73.3%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지역규모별에서는 소규모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이용시간 증가 전망률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가 5점 평균 4점 이상의 응답을 하여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보다 육아지원 이용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도가 높다(부록 표 6-2-7).

〈부록 표 6-2-7〉 2040 양육전망 7)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	22.9	52.7	20.6	100.0(1,365)	3.90	0.76	
권역별								
수도권	5.0	24.4	52.2	18.4	100.0( 636)	3.84	0.78	
비수도권	1.8	22.0	53.2	23.0	100.0( 564)	3.98	0.72	
X <sup>2</sup> (df)/t							13.00(3)**	-3.12
지역규모별								
대도시	4.0	28.2	49.7	18.1	100.0( 581)	3.82	0.77	
중소도시	2.8	19.7	55.7	21.9	100.0( 503)	3.97	0.73	
읍·면	4.3	13.8	54.3	27.6	100.0( 116)	4.05	0.77	
X <sup>2</sup> (df)/F							21.52(6)**	7.68***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lt; .01, \*\*\* p &lt; .001

앞선 문항 중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던 것처럼, '육아지원기관 부모 부담 비용'에 대한 질문에 60.3%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최근 몇 년간 육아지원기관에서의 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정책과는 다소 상반된 미래 전망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미혼성인(3.72점)과 영유아부모 집단(3.71점)에 비해 전문가집단(3.01점)은 상대적으로 부모 부담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낮았고, 비수도권 거주자가 육아지원기관 부모 부담 비용에 대해 더 증가하는 쪽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거나 현재 양육하고 있는 2·30대가 4·50대보다 부모 부담에 대해 더 증가할 것으로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6-2-8〉 2040 양육전망 8) -육아지원기관 부모 부담 비용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6	10.5	28.6	45.9	14.4	100.0(1,365)	3.63	0.88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7.5	26.8	51.5	14.0	100.0( 600)	3.72	0.80
영유아부모	0.5	7.8	29.3	44.7	17.7	100.0( 600)	3.71	0.86
전문가	2.4	31.5	32.7	29.7	3.6	100.0( 165)	3.01	0.93
X <sup>2</sup> (df)/F							122.96(8)***	50.86***

(부록 표 6-2-8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권역별								
수도권	0.3	7.7	30.7	48.0	13.4	100.0( 636)	3.66	0.82
비수도권	0.4	7.6	25.2	48.2	18.6	100.0( 564)	3.77	0.85
$X^2(df)/t$			8.43(4)				-2.24	
연령대별								
20대	0.3	5.9	26.4	52.5	14.9	100.0( 356)	3.76	0.79
30대	0.3	8.8	29.4	45.6	16.0	100.0( 796)	3.68	0.85
40대	2.0	22.8	31.5	34.2	9.4	100.0( 149)	3.26	0.98
50대 이상	3.1	29.7	25.0	39.1	3.1	100.0( 64)	3.09	0.97
$X^2(df)/F$			87.09(12) <sup>***</sup>				21.16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1$ , <sup>\*\*\*</sup>  $p < .001$

2040년에 '육아지원기관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 향상될 것인가에 대해 59.5%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미혼성인(3.73점)이나 영유아부모(3.82점)보다 전문가(3.96)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전망이 더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육아지원기관 서비스가 미래에 더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록 표 6-2-9〉 2040 양육전망 9) -육아지원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3.5	26.7	55.1	14.4	100.0(1,365)	3.80	0.73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5	4.2	31.2	50.0	14.2	100.0( 600)	3.73	0.77
영유아부모	0.0	3.5	26.3	54.5	15.7	100.0( 600)	3.82	0.73
전문가	0.0	1.2	12.1	75.8	10.9	100.0( 165)	3.96	0.53
$X^2(df)/F$			42.39(8) <sup>***</sup>				7.15 <sup>**</sup>	
연령대별								
20대	0.6	4.2	30.6	49.7	14.9	100.0( 356)	3.74	0.78
30대	0.1	3.6	28.1	54.0	14.1	100.0( 796)	3.78	0.73
40대	0.0	2.0	15.4	68.5	14.1	100.0( 149)	3.95	0.61
50대 이상	0.0	1.6	14.1	67.2	17.2	100.0( 64)	4.00	0.62
$X^2(df)/F$			na				4.54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1$ , <sup>\*\*\*</sup>  $p < .001$

교재교구, 문화센터, 체험학습, 영어학원 등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의 전망에 대해서는 71%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집단별로 보면 영유아부모(3.95점)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혼성인(3.89점), 전문가(3.6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의 증가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에서는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증가를 예견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부록 표 6-2-10〉 2040 양육전망 10) -영유아 사교육 이용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4.0	24.9	49.2	21.8	100.0(1,365)	3.88	0.79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7	24.8	49.5	21.8	100.0( 600)	3.89	0.79
영유아부모	0.2	3.0	23.7	48.3	24.8	100.0( 600)	3.95	0.79
전문가	0.0	8.5	29.7	51.5	10.3	100.0( 165)	3.64	0.78
X <sup>2</sup> (df)/F			25.08(8)**				10.14***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4.1	31.3	47.5	16.9	100.0( 581)	3.77	0.78
중소도시	0.0	2.2	17.9	51.5	28.4	100.0( 503)	4.06	0.74
읍·면	0.9	4.3	16.4	44.8	33.6	100.0( 116)	4.06	0.87
X <sup>2</sup> (df)/F			na				21.64***	
연령대별								
20대	0.3	3.4	23.9	52.2	20.2	100.0( 356)	3.89	0.77
30대	0.1	3.6	24.4	47.9	24.0	100.0( 796)	3.92	0.80
40대	0.0	3.4	28.9	48.3	19.5	100.0( 149)	3.84	0.77
50대 이상	0.0	12.5	28.1	51.6	7.8	100.0( 64)	3.55	0.82
X <sup>2</sup> (df)/F			na				4.62**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과 같이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많아질 것이라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74.7%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미혼성인(3.83점)이나 영유아부모(3.90점)에 비해 전문가(4.02점)가 지역사회 인프라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영유아 부모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미래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이 많았다(부록 표 6-2-11).

〈부록 표 6-2-11〉 2040 양육전망 11) -영유아부모 및 부모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8	22.5	58.2	16.5	100.0(1,365)	3.88	0.7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4.2	24.8	54.5	16.3	100.0( 600)	3.83	0.75
영유아부모	0.0	2.0	23.3	57.3	17.3	100.0( 600)	3.90	0.69
전문가	0.0	0.6	10.9	74.5	13.9	100.0( 165)	4.02	0.52
X <sup>2</sup> (df)/F			na				5.18**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3.3	26.7	58.9	11.0	100.0( 581)	3.77	0.69
중소도시	0.0	1.8	22.3	53.5	22.5	100.0( 503)	3.97	0.72
읍·면	0.0	7.8	19.0	51.7	21.6	100.0( 116)	3.87	0.84
X <sup>2</sup> (df)/F			na				9.81***	
연령대별								
20대	0.3	5.3	23.9	56.5	14.0	100.0( 356)	3.79	0.76
30대	0.0	1.6	24.2	56.4	17.7	100.0( 796)	3.90	0.69
40대	0.0	4.0	16.8	63.1	16.1	100.0( 149)	3.91	0.70
50대 이상	0.0	0.0	6.3	78.1	15.6	100.0( 64)	4.09	0.46
X <sup>2</sup> (df)/F			na				4.47**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1$ , \*\*\*  $p < .001$ 

영유아 대상 문화, 상품 등 '육아 관련 산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75.4%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미혼성인(3.87점)이나 영유아부모(3.92점)보다 전문가(4.10점)의 전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읍면지역일수록) 육아 관련 산업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인식이 높았다.

〈부록 표 6-2-12〉 2040 양육전망 12) -육아 관련 산업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1.8	22.7	57.2	18.2	100.0(1,365)	3.92	0.69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2.2	25.3	55.2	17.2	100.0( 600)	3.87	0.71
영유아부모	0.0	1.7	23.0	57.5	17.8	100.0( 600)	3.92	0.68
전문가	0.0	0.6	12.1	63.6	23.6	100.0( 165)	4.10	0.61
X <sup>2</sup> (df)/F			na				7.40**	

(부록 표 6-2-12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2.2	29.1	56.3	12.4	100.0( 581)	3.79	0.68
중소도시	0.0	1.6	20.5	57.1	20.9	100.0( 503)	3.97	0.69
읍·면	0.9	1.7	15.5	53.4	28.4	100.0( 116)	4.07	0.77
$X^2(df)/F$			na				13.67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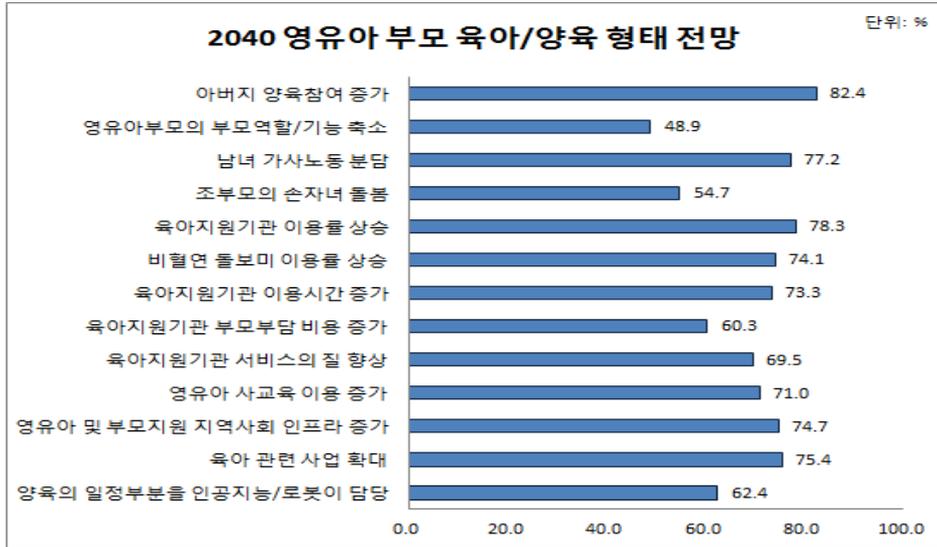
응답자의 62.4%는 2040년에 양육의 일정부분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미혼성인(3.66점)이나 영유아부모(3.67점)보다는 전문가의 전망 점수(3.47점)가 낮았고, 수도권 거주자(3.71점)가 비수도권 거주자(3.61점)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인공지능/로봇의 양육 담당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6-2-13〉 2040 양육전망 13) -양육의 일정부분을 인공지능/로봇이 담당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	4.8	31.6	53.6	8.8	100.0(1,365)	3.64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5	5.2	28.8	55.3	9.2	100.0( 600)	3.66	0.78
영유아부모	0.5	4.8	31.5	53.5	9.7	100.0( 600)	3.67	0.74
전문가	2.4	3.6	42.4	47.3	4.2	100.0( 165)	3.47	0.75
$X^2(df)/F$			19.33(8) <sup>*</sup>				4.64 <sup>*</sup>	
권역별								
수도권	0.2	2.4	32.2	56.6	8.6	100.0(636)	3.71	0.66
비수도권	2.0	8.0	27.8	52.0	10.3	100.0(564)	3.61	0.85
$X^2(df)/t$			32.45(4) <sup>***</sup>				2.43 <sup>*</sup>	

\*  $p < .05$ , \*\*\*  $p < .001$ 

제시된 각 항목별로 2040년에 현재 수준보다 영유아 양육 형태가 증가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그림 7-2-1).



[부록 그림 7-2-1] 2040년 육아/양육 형태 전망

### 부록 6-3. 육아지원정책 쟁점에 대한 비교 전망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기관이용과 가정내 양육,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공교육과 사교육, 육아지원기관의 전일 지원과 반일 지원, 현금 지원과 물품/서비스의 지원 등에 대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입장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영아의 기관이용과 가정내 양육'에 대해서는 72.4%가 영아는 가정내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미혼성인(73.8%)이나 영유아부모(67.8%)보다 전문가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73.3%)가 비수도권 거주자(68.1%)보다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2·30대보다 4·50대에서 영아의 가정 내 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6-3-1〉 육아정책의 방향성 1) - 영아 기관이용 vs. 가정내 양육

단위: %(명)

구분	영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영아의 가정 내 양육	계(수)
전체	27.6	72.4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26.2	73.8	100.0( 600)
영유아부모	32.2	67.8	100.0( 600)
전문가	16.4	83.6	100.0( 165)
X <sup>2</sup> (df)	17.30(2) <sup>***</sup>		
권역별			
수도권	26.7	73.3	100.0( 636)
비수도권	31.9	68.1	100.0( 564)
X <sup>2</sup> (df)	3.89(1)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36.7	63.3	100.0( 581)
중소도시	21.3	78.7	100.0( 503)
읍·면	25.9	74.1	100.0( 116)
X <sup>2</sup> (df)	31.58(2) <sup>***</sup>		
연령대별			
20대	27.2	72.8	100.0( 356)
30대	30.0	70.0	100.0( 796)
40대	21.5	78.5	100.0( 149)
50대 이상	14.1	85.9	100.0( 64)
X <sup>2</sup> (df)	11.03(3) <sup>*</sup>		

\*  $p < .05$ , \*\*\*  $p < .001$

한편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가정 내 양육’에 대해서는 영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두 항목간 유사한 비율이기는 하나 유아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과반(56.6%)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미혼성인은 육아지원기관의 이용과 가정 내 양육의 선호 비율이 비슷하고, 영유아부모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56.3%로 다소 높았으나, 전문가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87.3%로 대다수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을 더 선호하였으며, 2·30대보다 4·50대에서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의 방향성에 보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6-3-2〉 육아정책의 방향성 2) - 유아 기관이용 vs. 가정내 양육

단위: %(명)

구분	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아의 가정 내 양육	계(수)
전체	56.6	43.4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48.5	51.5	100.0( 600)
영유아부모	56.3	43.7	100.0( 600)
전문가	87.3	12.7	100.0( 165)
$X^2(df)$	79.25(2) <sup>***</sup>		
권역별			
수도권	45.8	54.2	100.0( 636)
비수도권	59.9	40.1	100.0( 564)
$X^2(df)$	24.08(1) <sup>***</sup>		
연령대별			
20대	48.3	51.7	100.0( 356)
30대	54.6	45.4	100.0( 796)
40대	73.8	26.2	100.0( 149)
50대 이상	87.5	12.5	100.0( 64)
$X^2(df)$	54.07(3) <sup>***</sup>		

<sup>\*\*\*</sup>  $p < .001$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저소득계층,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중에서는 응답자의 55.5%가 보편적 복지가 지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공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지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보면 다른 연령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의견이 서로 비슷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70.3%로 더 많았다.

〈부록 표 6-3-3〉 육아정책의 방향성 3) - 보편지원 vs. 취약계층 선별지원

단위: %(명)

구분	보편 지원	선별 지원	계(수)
전체	55.5	44.5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44.4	55.6	100.0( 225)
미혼성인여	59.2	40.8	100.0( 223)
미혼대학생남	53.3	46.7	100.0( 75)
미혼대학생여	57.1	42.9	100.0( 77)
영유아부모 부	62.3	37.7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61.6	38.4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30.4	69.6	100.0( 56)
전문가(보육)	36.4	63.6	100.0( 55)
전문가(제3영역)	61.1	38.9	100.0( 54)
X <sup>2</sup> (df)	45.53(8) <sup>***</sup>		
연령대별			
20대	55.9	44.1	100.0( 356)
30대	58.0	42.0	100.0( 796)
40대	51.7	48.3	100.0( 149)
50대 이상	29.7	70.3	100.0( 64)
X <sup>2</sup> (df)	20.25(3) <sup>***</sup>		

\*\*\*  $p < .001$ 

영유아 '공교육·보육체계 구축'과 '사교육·보육'의 수요를 인정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공교육·보육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83.6%가 공적인 체계의 중요성에 동의하였고, '비수도권 거주자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교육과 공보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부록 표 6-3-4〉 육아정책의 방향성 4) - 공교육·보육 구축 vs. 사교육·보육 수요 인정

단위: %(명)

구분	공교육·보육 구축	사교육·보육 수요 인정	계(수)
전체	75.7	24.3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73.5	26.5	100.0( 600)
영유아부모	75.7	24.3	100.0( 600)
전문가	83.6	16.4	100.0( 165)
X <sup>2</sup> (df)	7.22(2) <sup>*</sup>		

(부록 표 6-3-4 계속)

구분	공교육·보육 구축	사교육·보육 수요 인정	계(수)
지역규모별			
대도시	71.1	28.9	100.0( 581)
중소도시	76.9	23.1	100.0( 503)
읍·면	81.9	18.1	100.0( 116)
X <sup>2</sup> (df)	8.50(2)*		
연령대별			
20대	69.9	30.1	100.0( 356)
30대	76.8	23.2	100.0( 796)
40대	80.5	19.5	100.0( 149)
50대 이상	82.8	17.2	100.0( 64)
X <sup>2</sup> (df)	10.55(3)*		

\* p &lt; .05

육아지원기관 이용시 '전일'에 대해 무상지원하는 것과 '반일제 과정'(1일 5시간)만 무상 지원하고, 이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각각 약 50%씩으로 비슷한 응답결과를 보였는데, 유아교육 전문가와 보육 전문가는 80%가 넘는 수가 반일제 과정 이후 차등지원안에 대해 동의하였다. 또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76.6%가 차등지원안을 선호하였다.

〈부록 표 6-3-5〉 육아정책의 방향성 5) - 기관이용 전일제 무상지원 vs. 반일제 차등지원

단위: %(명)

구분	전일제 무상 지원	반일제 무상지원 후 차등지원	계(수)
전체	50.7	49.3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51.6	48.4	100.0( 225)
미혼성인여	51.1	48.9	100.0( 223)
미혼대학생남	41.3	58.7	100.0( 75)
미혼대학생여	48.1	51.9	100.0( 77)
영유아부모 부	55.2	44.8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58.0	42.0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17.9	82.1	100.0( 56)
전문가(보육)	18.2	81.8	100.0( 55)
전문가(제3영역)	57.4	42.6	100.0( 54)
X <sup>2</sup> (df)	61.79(8)***		
연령대별			
20대	50.0	50.0	100.0( 356)

(부록 표 6-3-5 계속)

구분	전일제 무상 지원	반일제 무상지원 후 차등지원	계(수)
30대	53.9	46.1	100.0( 796)
40대	47.0	53.0	100.0( 149)
50대 이상	23.4	76.6	100.0( 64)
$X^2(df)$	23.18(3) <sup>***</sup>		
<sup>***</sup> $p < .001$			

육아지원기관 이용시 '정규' 보육, 교육시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비용 지원이 바람직하지, '정규과정 외' 오후 특별(특성화) 활동 시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미혼 성인과 영유아 부모는 양 안에 대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아교육 전문가의 87.5%와 보육 전문가의 90.9%는 정규 과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읍·면'으로 갈수록 특별활동까지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과정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부록 표 6-3-6〉 육아정책의 방향성 6) - 기관이용 정규과정만 지원 vs. 특별활동시간까지 추가 지원

단위: %(명)

구분	정규과정만 지원	특별활동까지 추가 지원	계(수)
전체	58.5	41.5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54.7	45.3	100.0( 225)
미혼성인여	52.0	48.0	100.0( 223)
미혼대학생남	64.0	36.0	100.0( 75)
미혼대학생여	46.8	53.2	100.0( 77)
영유아부모 부	59.6	40.4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54.4	45.6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87.5	12.5	100.0( 56)
전문가(보육)	90.9	9.1	100.0( 55)
전문가(제3영역)	75.9	24.1	100.0( 54)
$X^2(df)$	63.42(8)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61.4	38.6	100.0( 581)
중소도시	51.5	48.5	100.0( 503)
읍·면	37.1	62.9	100.0( 116)
$X^2(df)$	27.31(2) <sup>***</sup>		
<sup>***</sup> $p < .001$			

영유아 양육지원의 형태에 대한 설문예, '현금 지원'이 '물품 및 서비스(분유, 기저귀, 돌봄 서비스) 지원'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7.3%로 다소 우세했지만 전문가 집단은 63%가 물품 및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규모 지역으로 갈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30대는 현금 지원에 대한 선호가 더 많은 반면, 4·50대는 물품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선호가 다소 많다.

〈부록 표 6-3-7〉 육아정책의 방향성 7) - 현금 지원 vs. 물품/서비스 지원

단위: %(명)

구분	현금 지원	물품/서비스 지원	계(수)
전체	57.3	42.7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55.0	45.0	100.0( 600)
영유아부모	65.2	34.8	100.0( 600)
전문가	37.0	63.0	100.0( 165)
X <sup>2</sup> (df)	44.34(2)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65.2	34.8	100.0( 581)
중소도시	55.5	44.5	100.0( 503)
읍·면	54.3	45.7	100.0( 116)
X <sup>2</sup> (df)	12.50(2) <sup>**</sup>		

<sup>\*\*</sup>  $p < .01$ , <sup>\*\*\*</sup>  $p < .001$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며 이용서비스에 대한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육아지원기관을 다니지 않으며 가정내 양육에 대한 비용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선호가 양육수당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58.3%). 집단이나 연령대, 취업여부, 소득 등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록 표 6-3-8〉 육아정책의 방향성 8) - 기관 이용 비용 지원 vs.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계(수)
전체	58.3	41.7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56.9	43.1	100.0( 225)
미혼성인여	57.8	42.2	100.0( 223)

(부록 표 6-3-8 계속)

구분	기관 이용 비용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계(수)
미혼대학생남	57.3	42.7	100.0( 75)
미혼대학생여	61.0	39.0	100.0( 77)
영유아부모 부	53.6	46.4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61.4	38.6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53.6	46.4	100.0( 56)
전문가(보육)	49.1	50.9	100.0( 55)
전문가(제3영역)	70.4	29.6	100.0( 54)
$X^2(df)$	9.48(8)		

육아지원기관의 비용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율화'되어야 하는지, 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가격이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8%가 규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앞선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것에 대한 해결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 70%가 비용 규제에 동의하였고,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가 규제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록 표 6-3-9〉 육아정책의 방향성 9) - 기관 비용 자율화 vs. 규제

단위: %(명)

구분	기관 비용 자율화	기관 비용 규제	계(수)
전체	42.2	57.8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41.5	58.5	100.0( 600)
영유아부모	46.0	54.0	100.0( 600)
전문가	30.9	69.1	100.0( 165)
$X^2(df)$	12.30(2)**		
지역규모별			
대도시	51.3	48.7	100.0( 581)
중소도시	35.6	64.4	100.0( 503)
읍·면	41.4	58.6	100.0( 116)
$X^2(df)$	27.31(2)***		

\*\*  $p < .01$ , \*\*\*  $p < .00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미혼성인과 영유아부모는 두 안

에 대해 비슷한 비율로 응답을 보였지만, 유아교육 전문가의 91.1%, 보육 전문가의 67.3%, 제 3영역의 전문가가 83.3%가 일원화로 통합하는 안에 동의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소규모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연령대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4·50대 고령층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6-3-10〉 육아정책의 방향성 10)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 vs. 일원화  
단위: %(명)

구분	현행대로 이원화 유지	일원화로 통합	계(수)
전체	43.6	56.4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49.3	50.7	100.0( 225)
미혼성인여	42.6	57.4	100.0( 223)
미혼대학생남	45.3	54.7	100.0( 75)
미혼대학생여	46.8	53.2	100.0( 77)
영유아부모 부	44.3	55.7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49.4	50.6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8.9	91.1	100.0( 56)
전문가(보육)	32.7	67.3	100.0( 55)
전문가(제3영역)	16.7	83.3	100.0( 54)
X <sup>2</sup> (df)	55.19(8)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49.1	50.9	100.0( 581)
중소도시	47.7	52.3	100.0( 503)
읍·면	32.8	67.2	100.0( 116)
X <sup>2</sup> (df)	10.53(2) <sup>**</sup>		
연령대별			
20대	46.3	53.7	100.0( 356)
30대	47.1	52.9	100.0( 796)
40대	30.2	69.8	100.0( 149)
50대 이상	15.6	84.4	100.0( 64)
X <sup>2</sup> (df)	36.33(3) <sup>***</sup>		

<sup>\*\*</sup>  $p < .01$ , <sup>\*\*\*</sup>  $p < .001$

현행처럼 육아지원기관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이용 대체제의 성격으로서의 ‘양육수당’ 형태와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영유아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현금지원의 ‘아동수당’ 형태 중 선호하는 정책을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는 양 안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의 보편

적 현금지원인 아동수당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록 표 6-3-11〉 육아정책의 방향성 11) -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아동수당	계(수)
전체	49.5	50.5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48.0	52.0	100.0( 225)
미혼성인여	48.0	52.0	100.0( 223)
미혼대학생남	60.0	40.0	100.0( 75)
미혼대학생여	45.5	54.5	100.0( 77)
영유아부모 부	50.8	49.2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49.6	50.4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57.1	42.9	100.0( 56)
전문가(보육)	49.1	50.9	100.0( 55)
전문가(제3영역)	40.7	59.3	100.0( 54)
$X^2(df)$		7.32(8)	
지역규모별			
대도시	55.4	44.6	100.0( 581)
중소도시	43.9	56.1	100.0( 503)
읍·면	44.8	55.2	100.0( 116)
$X^2(df)$		15.39(2) <sup>***</sup>	

<sup>\*\*\*</sup>  $p < .001$

‘육아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문예, 육아지원 확대로 예산확보와 재정안정성이 떨어져 육아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육아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균형을 유지하고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모두 비슷한 비율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큰 차이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나, 전문가 집단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59.4%로 미혼성인과 영유아부모에 비해 다소 높았다.

〈부록 표 6-3-12〉 육아정책의 방향성 12) - 육아지원 확대 시 지속가능성

단위: %(명)

구분	육아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 지속됨	계(수)
전체	47.7	52.3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48.2	51.8	100.0( 600)

(부록 표 6-3-12 계속)

구분	육아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	육아지원정책의 선진화 지속됨	계(수)
영유아부모	49.2	50.8	100.0( 600)
전문가	40.6	59.4	100.0( 165)
$X^2(df)$	3.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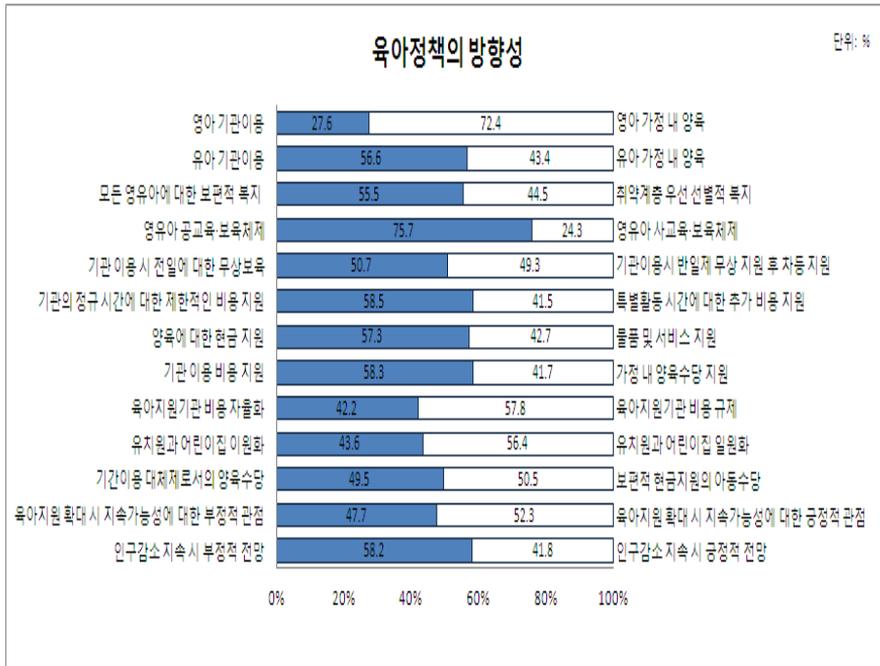
‘인구감소에 따르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58.2%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62.1%, 중소도시는 57.5%, 읍·면지역은 45.7%가 인구감소 지속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큰 규모의 대도시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부록 표 6-3-13〉 육아정책의 방향성 13) -인구감소 지속 시 미래 전망

			단위: %(명)
구분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혼란 예상	인구감소에 사회적 적응 예상	계(수)
전체	58.2	41.8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62.2	37.8	100.0( 225)
미혼성인여	55.6	44.4	100.0( 223)
미혼대학생남	60.0	40.0	100.0( 75)
미혼대학생여	53.2	46.8	100.0( 77)
영유아부모 부	63.9	36.1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56.6	43.4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53.6	46.4	100.0( 56)
전문가(보육)	58.2	41.8	100.0( 55)
전문가(제3영역)	53.7	46.3	100.0( 54)
$X^2(df)$	6.85(8)		
지역규모별			
대도시	62.1	37.9	100.0( 581)
중소도시	57.5	42.5	100.0( 503)
읍·면	45.7	54.3	100.0( 116)
$X^2(df)$	11.23(2)**		

\*\*  $p < .01$

이상 향후 육아정책의 설계와 수행에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미래 육아지원의 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록 그림 7-3-1>과 같이 영아의 가정내양육 수요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크게 취우치지 않는 대등한 수요를 보인다.



[부록 그림 7-3-1] 육아정책의 방향성

**부록 6-4. 2040 육아지원정책 전망 (3개 내용영역별)**

미래 20~30년 뒤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 대상 정부의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수요가 예상되는지 3개 내용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2040년도에 각 정책 발생의 감소 혹은 증가 여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교육비/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감소 혹은 증가할지에 대한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76.7%는 현재보다 더 증가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5점 평균 4.53점으로 응답하여 전문가가 바라보기에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증가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4.02점)이 남성(3.88점)보다, 수도권(3.82)에서보다 비수도권(3.96)에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연령대에서는 40대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평균 점수가 4.2점 이상을 상회하였다.

〈부록 표 6-4-1〉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1) - 육아휴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1.1	22.1	55.8	20.9	0.1	100.0(1,365)	3.96	0.69
집단구분1									
미혼 성인 영유아부모	0.2	1.5	25.2	57.0	16.2	0.0	100.0( 600)	3.88	0.69
전문가	0.0	1.0	23.5	60.2	15.2	0.2	100.0( 600)	3.90	0.65
전문가	0.0	0.0	6.1	35.2	58.8	0.0	100.0( 165)	4.53	0.61
X <sup>2</sup> (df)/F			na					68.51 <sup>***</sup>	
성별									
남자	0.2	1.5	25.5	55.7	17.2	0.0	100.0( 530)	3.88	0.70
여자	0.0	0.8	20.0	55.8	23.2	0.1	100.0( 835)	4.02	0.68
X <sup>2</sup> (df)/t			13.00(4) <sup>*</sup>					-3.51	

(부록 표 6-4-1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권역별									
수도권	0.0	1.3	29.6	55.2	13.8	0.2	100.0( 636)	3.82	0.67
비수도권	0.2	1.2	18.4	62.4	17.7	0.0	100.0( 564)	3.96	0.65
$X^2(df)/t$									-3.79
연령대별									
20대	0.3	1.4	25.0	57.6	15.7	0.0	100.0( 356)	3.87	0.69
30대	0.0	1.3	23.7	58.5	16.3	0.1	100.0( 796)	3.90	0.66
40대	0.0	0.0	15.4	43.0	41.6	0.0	100.0( 149)	4.26	0.71
50대 이상	0.0	0.0	1.6	40.6	57.8	0.0	100.0( 64)	4.56	0.53
$X^2(df)/F$									31.44***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영유아가구 대상 양육비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72.3%가 미래에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미혼 성인(3.85점)이나 영유아 부모(3.90점)보다 전문가 집단(4.04점)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수도권(3.78점)보다 비수도권(3.99점)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래 영유아가구에게 지원되는 양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록 표 6-4-2〉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2) - 양육비 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5	25.1	52.3	20.0	100.0(1,365)	3.90	0.74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0	2.0	26.8	55.3	15.8	100.0( 600)	3.85	0.70	
영유아부모	0.2	3.3	25.7	47.8	23.0	100.0( 600)	3.90	0.79	
전문가	0.6	1.2	16.4	57.6	24.2	100.0( 165)	4.04	0.71	
$X^2(df)/F$									4.12*
권역별									
수도권	0.0	3.5	32.5	47.0	17.0	100.0( 636)	3.78	0.76	
비수도권	0.2	1.8	19.1	56.7	22.2	100.0( 564)	3.99	0.71	
$X^2(df)/t$									34.37(4)***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시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이 미래에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73.4%로서, 이 문항 역시 전문가 집단(4.11점)이 미혼 성인(3.85점), 영유아 부모(3.89)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은 4·50대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아 고령층일수록 미래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6-4-3〉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3) - 보육료/교육비 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0	24.5	54.7	18.7	100.0(1,365)	3.90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0	1.3	26.5	58.2	14.0	100.0( 600)	3.85	0.66
영유아부모	0.0	2.5	25.8	51.8	19.8	100.0( 600)	3.89	0.74
전문가	1.2	2.4	12.1	52.7	31.5	100.0( 165)	4.11	0.80
X <sup>2</sup> (df)/F			na				8.73 <sup>***</sup>	
연령대별								
20대	0.0	2.2	24.4	57.6	15.7	100.0( 356)	3.87	0.69
30대	0.0	1.9	27.1	54.1	16.8	100.0( 796)	3.86	0.70
40대	0.0	2.0	16.8	54.4	26.8	100.0( 149)	4.06	0.72
50대 이상	3.1	1.6	9.4	46.9	39.1	100.0( 64)	4.17	0.90
X <sup>2</sup> (df)/F			na				6.73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01$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에 대한 전망으로, 약 30%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65.9%는 양육수당 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록 표 6-4-4〉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4) - 양육수당 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3.9	29.6	49.5	16.4	100.0(1,365)	3.77	0.79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0	3.6	31.6	50.2	14.7	100.0( 225)	3.76	0.74
미혼성인여	0.0	3.1	33.2	47.1	16.6	100.0( 223)	3.77	0.76

(부록 표 6-4-4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미혼대학생남	0.0	5.3	34.7	42.7	17.3	100.0( 75)	3.72	0.81
미혼대학생여	0.0	3.9	29.9	53.2	13.0	100.0( 77)	3.75	0.73
영유아부모 부	0.0	3.3	29.0	50.3	17.5	100.0( 183)	3.82	0.75
영유아부모 모	0.5	2.6	30.2	51.8	14.9	100.0( 417)	3.78	0.74
전문가(유아교육)	3.6	10.7	10.7	44.6	30.4	100.0( 56)	3.88	1.08
전문가(보육)	1.8	7.3	23.6	45.5	21.8	100.0( 55)	3.78	0.94
전문가(제3영역)	7.4	7.4	22.2	48.1	14.8	100.0( 54)	3.56	1.08
X <sup>2</sup> (df)/F	na						0.77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교육 체제’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해서는 72.5%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집단의 평균 점수가 4.47점인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전문가, 제 3영역의 전문가들 모두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의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연령대에서는 4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증가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록 표 6-4-5〉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5) -국공립 기관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2	5.7	21.6	46.7	25.8	100.0(1,365)	3.92	0.8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0	10.2	24.4	43.1	22.2	100.0( 225)	3.77	0.91
미혼성인여	0.9	5.8	24.2	47.1	22.0	100.0( 223)	3.83	0.87
미혼대학생남	0.0	12.0	22.7	49.3	16.0	100.0( 75)	3.69	0.88
미혼대학생여	0.0	7.8	26.0	46.8	19.5	100.0( 77)	3.78	0.85
영유아부모 부	0.0	6.0	19.1	49.7	25.1	100.0( 183)	3.94	0.83
영유아부모 모	0.0	3.6	24.5	51.3	20.6	100.0( 417)	3.89	0.76
전문가(유아교육)	0.0	0.0	5.4	37.5	57.1	100.0( 56)	4.52	0.60
전문가(보육)	1.8	0.0	10.9	32.7	54.5	100.0( 55)	4.38	0.83
전문가(제3영역)	0.0	1.9	5.6	33.3	59.3	100.0( 54)	4.50	0.69
X <sup>2</sup> (df)/F	na						11.53***	
연령대별								
20대	0.0	8.4	25.8	45.8	19.9	100.0( 356)	3.77	0.86
30대	0.3	5.8	21.9	49.2	22.9	100.0( 796)	3.89	0.83

(부록 표 6-4-5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40대	0.0	1.3	16.8	37.6	44.3	100.0( 149)	4.25	0.78
50대 이상	1.6	0.0	6.3	40.6	51.6	100.0( 64)	4.41	0.75
$X^2(df)/F$	na						19.26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01$ 

국공립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사립 기관 인프라'가 여전히 육아지원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61.6%가 민간/사립 기관의 중요성이 미래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유아교육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민간/사립 기관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6-4-6〉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6) - 민간/사립  
기관의 중요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7	4.5	33.2	45.8	15.8	100.0(1,365)	3.72	0.81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4	4.0	40.0	38.7	16.9	100.0( 225)	3.68	0.82
미혼성인여	0.4	5.4	32.7	46.6	14.8	100.0( 223)	3.70	0.80
미혼대학생남	0.0	6.7	36.0	45.3	12.0	100.0( 75)	3.63	0.78
미혼대학생여	2.6	6.5	36.4	41.6	13.0	100.0( 77)	3.56	0.90
영유아부모 부	0.5	2.2	37.2	45.4	14.8	100.0( 183)	3.72	0.76
영유아부모 모	0.2	4.1	33.1	49.2	13.4	100.0( 417)	3.71	0.75
전문가(유아교육)	0.0	3.6	14.3	42.9	39.3	100.0( 56)	4.18	0.81
전문가(보육)	1.8	9.1	18.2	41.8	29.1	100.0( 55)	3.87	1.00
전문가(제3영역)	3.7	5.6	20.4	61.1	9.3	100.0( 54)	3.67	0.87
$X^2(df)/F$	na						3.19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0.3	5.3	36.1	45.4	12.7	100.0( 581)	3.65	0.78
중소도시	0.4	2.8	33.0	47.9	15.9	100.0( 503)	3.76	0.76
읍·면	1.7	6.0	41.4	34.5	16.4	100.0( 116)	3.58	0.90
$X^2(df)/F$	16.82(8) <sup>*</sup>						4.07 <sup>*</sup>	

(부록 표 6-4-6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별									
20대	0.8	5.3	34.0	46.1	13.8	100.0( 356)	3.67	0.81	
30대	0.3	3.9	35.4	45.1	15.3	100.0( 796)	3.71	0.78	
40대	2.7	4.0	30.9	43.0	19.5	100.0( 149)	3.72	0.91	
50대 이상	0.0	9.4	6.3	59.4	25.0	100.0( 64)	4.00	0.84	
$X^2(df)/F$								40.66(12) <sup>***</sup>	3.13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4.8	6.5	43.5	37.1	8.1	100.0( 62)	3.37	0.91	
200-300만원 미만	0.0	3.5	38.6	46.1	11.8	100.0( 228)	3.66	0.73	
300-400만원 미만	0.6	4.8	33.7	47.6	13.3	100.0( 332)	3.68	0.79	
400-500만원 미만	0.3	4.6	33.8	44.9	16.4	100.0( 305)	3.72	0.80	
500만원 이상	0.0	3.7	34.4	44.7	17.2	100.0( 273)	3.75	0.78	
$X^2(df)/F$								na	3.26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육아와 영유아 돌봄 역할/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것이다’의 명제에 대해서는 73.6%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미혼성인(3.76점)보다는 영유아부모(3.93점)가, 이보다는 전문가(4.39점)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여자(3.95점)가 남자(3.84점)보다 더 돌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지역과, 30대 이하의 낮은 연령대에서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것이라는 인식은 다소 낮다.

〈부록 표 6-4-7〉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7) -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단위: %(명)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0	24.2	54.3	19.3	0.1	100.0(1,365)	3.91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0	3.0	29.5	56.0	11.3	0.2	100.0( 600)	3.76	0.69
영유아부모	0.0	1.5	23.0	57.0	18.5	0.0	100.0( 600)	3.93	0.69
전문가	1.2	0.0	9.1	38.2	51.5	0.0	100.0( 165)	4.39	0.75
$X^2(df)/F$								161.96(8) <sup>***</sup>	53.53 <sup>**</sup>

(부록 표 6-4-7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0.2	2.3	26.2	56.0	15.3	0.0	100.0( 530)	3.84	0.71
여자	0.1	1.8	22.9	53.2	21.9	0.1	100.0( 835)	3.95	0.73
X <sup>2</sup> (df)/t			9.83(4)*					-2.78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3.4	27.5	57.1	11.9	0.0	100.0( 581)	3.77	0.69
중소도시	0.0	0.8	24.7	55.7	18.7	0.2	100.0( 503)	3.92	0.68
읍·면	0.0	2.6	26.7	56.9	13.8	0.0	100.0( 116)	3.82	0.69
X <sup>2</sup> (df)/F			17.93(6)**					6.46**	
연령대별									
20대	0.0	3.9	28.9	54.2	12.9	0.0	100.0( 356)	3.76	0.72
30대	0.1	1.5	25.5	57.2	15.6	0.1	100.0( 796)	3.87	0.68
40대	0.7	0.7	12.8	43.6	42.3	0.0	100.0( 149)	4.26	0.76
50대 이상	0.0	0.0	7.8	43.8	48.4	0.0	100.0( 64)	4.41	0.64
X <sup>2</sup> (df)/F			na					29.70***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지역사회 부모공동체에 의한 '공동육아(조합) 참여'에 대해서는 68.8%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전문가집단이 미혼성인이나 영유아부모에 비해서 높았지만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제 3영역의 전문가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다. 지역규모별로 볼 때 대도시(3.65점)보다 중소도시(3.86)나 읍·면지역(3.74점) 응답자들에게서,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미래에 지역사회 공동육아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부록 표 6-4-8>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8) - 지역사회 공동육아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4.2	26.9	55.1	13.7	100.0(1,365)	3.78	0.73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0	7.1	29.3	50.7	12.9	100.0( 225)	3.69	0.78
미혼성인여	0.4	3.6	27.8	58.7	9.4	100.0( 223)	3.73	0.70
미혼대학생남	0.0	5.3	26.7	61.3	6.7	100.0( 75)	3.69	0.68
미혼대학생여	0.0	5.2	28.6	58.4	7.8	100.0( 77)	3.69	0.69
영유아부모 부	0.0	3.8	24.6	56.8	14.8	100.0( 183)	3.83	0.72

(부록 표 6-48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영유아부모 모	0.0	3.4	26.9	58.8	11.0	100.0( 417)	3.77	0.68
전문가(유아교육)	0.0	1.8	28.6	39.3	30.4	100.0( 56)	3.98	0.82
전문가(보육)	1.8	1.8	30.9	36.4	29.1	100.0( 55)	3.89	0.92
전문가(제3영역)	0.0	3.7	13.0	46.3	37.0	100.0( 54)	4.17	0.80
$X^2(df)/F$			na				3.50**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4.8	32.5	54.6	7.9	100.0( 581)	3.65	0.70
중소도시	0.0	3.4	21.9	60.0	14.7	100.0( 503)	3.86	0.69
읍·면	0.0	6.9	24.1	56.9	12.1	100.0( 116)	3.74	0.76
$X^2(df)/F$		28.48(8)***					11.81***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IT 기술의 발전’이 아동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68.1%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미혼성인의 평균 점수는 3.78점, 영유아부모는 3.82점으로 전문가(3.28점)보다 높아 전문가들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IT 기술의 발전과 양육환경과의 가능성 및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3.73점)에 비해 중소도시(3.86점), 읍·면지역(3.88점)에서, 30대 이하의 낮은 연령대에서 IT 기술이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록 표 6-4-9〉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9) - IT기술의 양육환경 기여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9	3.4	27.7	57.3	10.8	100.0(1,365)	3.74	0.73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2.0	28.3	59.0	10.5	100.0( 600)	3.78	0.66
영유아부모	0.2	2.2	24.0	62.5	11.2	100.0( 600)	3.82	0.65
전문가	6.1	12.7	38.8	32.1	10.3	100.0( 165)	3.28	1.02
$X^2(df)/F$			138.04(8)***				39.97***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2.1	30.1	59.6	8.1	100.0( 581)	3.73	0.64
중소도시	0.0	2.0	23.1	62.0	12.9	100.0( 503)	3.86	0.65
읍·면	0.9	2.6	19.8	61.2	15.5	100.0( 116)	3.88	0.72
$X^2(df)/F$			na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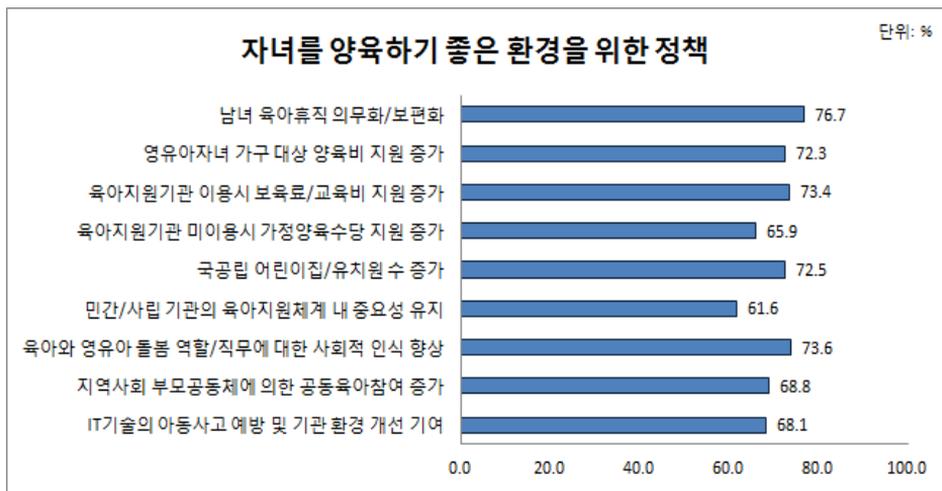
(부록 표 6-49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별								
20대	0.3	3.4	26.4	59.0	11.0	100.0( 356)	3.77	0.69
30대	0.6	1.3	26.1	61.3	10.7	100.0( 796)	3.80	0.66
40대	2.7	8.1	37.6	38.3	13.4	100.0( 149)	3.52	0.92
50대 이상	3.1	18.8	31.3	42.2	4.7	100.0( 64)	3.27	0.93
$X^2(df)/F$								16.35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각 항목의 증가 전망 비율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그림 7-4-1] 자녀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전망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9가지 중 가장 필요한 것을 고르게 한 결과, '남녀 공히 육아휴직이 의무화/보편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 23.4%였으며, '영유아 부모의 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이 19.3%,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14.1%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에 따라서 1, 2순위는 다소 달랐는데, 미혼 성인과 전문가는 남녀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영유아 부모는 양육비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육아휴직 개선을, 수도권에서는 양육

비 지원을 선호한다.

〈부록 표 6-4-10〉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단위: %(명)

구분	남녀 육아 휴직 의무	영유아 부모 자녀 가구 양육비 지원	보육료 /교육비 지원	양육 수당 지원	국공 립어 린이집 /유치원 증설	민간/ 사립 기관의 중요성 유지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공동 육아 참여 증가	IT기 술의 아동 사고 예방	계(수)
전체	23.4	19.3	14.1	10.3	15.0	4.4	8.1	3.1	2.3	100.0(1,36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23.0	18.3	13.3	10.2	13.8	6.3	8.7	3.8	2.5	100.0( 600)
영유아부모	19.0	23.8	16.8	13.3	12.8	3.3	6.2	2.0	2.7	100.0( 600)
전문가	40.6	6.1	7.3	0.0	27.3	1.2	12.7	4.2	0.6	100.0( 165)
X <sup>2</sup> (df)					122.17(16)	***				

\*\*\* p < .001

## 2)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취약가구 지원, 다문화/외국인 가족 양육지원, 손자녀 양육지원 수당 지원, 입양문화 개선 등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에 대한 미래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다수인 86.8%로서, 전문가 집단의 평균 점수가 4.48점으로 집단 내 대부분의 응답자는 취약가구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대도시(3.78점)보다는 중소도시(3.95점)나 읍·면지역(3.89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래 취약가구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부록 표 6-4-11〉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1) - 취약가구 지원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2.4	20.7	56.8	20.0	100.0(1,365)	3.94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2	23.5	58.3	14.8	100.0( 600)	3.85	0.71
영유아부모	0.0	2.3	22.8	58.7	16.2	100.0( 165)	3.89	0.69
전문가	0.6	0.0	2.4	44.2	52.7	100.0( 530)	4.48	0.61
X <sup>2</sup> (df)/F			na				59.32	***

(부록 표 6-4-11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4.0	25.3	58.3	12.2	100.0( 581)	3.78	0.71
중소도시	0.0	1.6	20.9	58.1	19.5	100.0( 503)	3.95	0.68
읍·면	0.0	1.7	22.4	61.2	14.7	100.0( 116)	3.89	0.66
X <sup>2</sup> (df)/F			na				8.11 <sup>***</sup>	
연령대별								
20대	0.3	3.7	25.0	56.7	14.3	100.0( 356)	3.81	0.73
30대	0.0	2.1	22.4	58.8	16.7	100.0( 796)	3.90	0.68
40대	0.7	2.0	8.7	55.0	33.6	100.0( 149)	4.19	0.73
50대 이상	0.0	0.0	3.1	35.9	60.9	100.0( 64)	4.58	0.56
X <sup>2</sup> (df)/F			na				29.17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01$

미래 '다문화/외국인 가족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집단 중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다. 성별로는 여자가 3.91점으로 남자 3.80점보다 다소 높으며, 권역별로는 비수도권이 3.90점으로 수도권 3.79점보다 다소 높으며, 높은 연령으로 갈수록 다문화와 외국인 가족의 영유아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비율이 높다.

〈부록 표 6-4-12〉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2) - 다문화/외국인 가족 양육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3	2.3	26.5	51.8	19.0	100.0(1,365)	3.87	0.75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3.0	29.3	51.2	16.3	100.0( 600)	3.81	0.74
영유아부모	0.2	2.2	26.8	51.5	19.3	100.0( 600)	3.88	0.74
전문가	1.2	0.6	15.2	55.2	27.9	100.0( 165)	4.08	0.75
X <sup>2</sup> (df)/F			na				8.82 <sup>***</sup>	
성별								
남자	0.4	2.3	30.2	51.3	15.8	100.0( 530)	3.80	0.74
여자	0.2	2.4	24.2	52.1	21.1	100.0( 835)	3.91	0.75
X <sup>2</sup> (df)/t			9.32(4)				-2.75	
권역별								
수도권	0.0	3.1	32.7	46.4	17.8	100.0( 636)	3.79	0.77

(부록 표 64-12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비수도권	0.4	2.0	22.9	56.9	17.9	100.0( 564)	3.90	0.71	
$X^2(df)/t$								20.66(4) <sup>***</sup>	-2.63
연령대별									
20대	0.3	3.7	29.8	50.6	15.7	100.0( 356)	3.78	0.76	
30대	0.3	1.9	27.8	51.0	19.1	100.0( 796)	3.87	0.74	
40대	0.7	2.0	20.1	57.7	19.5	100.0( 149)	3.93	0.73	
50대 이상	0.0	1.6	7.8	54.7	35.9	100.0( 64)	4.25	0.67	
$X^2(df)/F$								na	7.77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1$ , \*\*\*  $p < .00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는 지원될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는데, 하위 집단 중 유아교육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4.05점으로 가장 높다. 또한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의 평균 점수가 3.94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3.78점, 대도시가 3.66점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점수가 4.11점으로 가장 높아 곧 조부모가 되거나 현재에 조부모인 본인들의 기대심리가 미래의 전망으로 투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부록 표 6-4-13〉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3) - 손자녀 양육지원 수당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7	4.8	29.0	49.7	15.8	100.0(1,365)	3.75	0.80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0	5.8	34.2	48.9	11.1	100.0( 225)	3.65	0.75	
미혼성인여	0.0	3.1	27.4	55.2	14.3	100.0( 223)	3.81	0.71	
미혼대학생남	1.3	6.7	26.7	54.7	10.7	100.0( 75)	3.67	0.81	
미혼대학생여	0.0	7.8	29.9	42.9	19.5	100.0( 77)	3.74	0.86	
영유아부모 부	0.0	2.7	28.4	54.1	14.8	100.0( 183)	3.81	0.71	
영유아부모 모	0.5	4.1	32.4	48.7	14.4	100.0( 417)	3.72	0.77	
전문가(유아교육)	1.8	5.4	10.7	50.0	32.1	100.0( 56)	4.05	0.90	
전문가(보육)	1.8	12.7	16.4	38.2	30.9	100.0( 55)	3.84	1.07	
전문가(제3영역)	7.4	5.6	24.1	37.0	25.9	100.0( 54)	3.69	1.15	
$X^2(df)/F$								na	1.98*

(부록 표 6-4-13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4.1	34.8	51.8	9.1	100.0( 581)	3.66	0.71
중소도시	0.4	4.4	28.8	49.3	17.1	100.0( 503)	3.78	0.79
읍·면	0.0	6.0	18.1	51.7	24.1	100.0( 116)	3.94	0.82
X <sup>2</sup> (df)/F			33.70(8) <sup>***</sup>				8.50 <sup>***</sup>	
연령대별								
20대	0.3	6.5	31.2	47.2	14.9	100.0( 356)	3.70	0.81
30대	0.4	3.8	30.2	52.1	13.6	100.0( 796)	3.75	0.75
40대	2.7	6.0	25.5	45.6	20.1	100.0( 149)	3.74	0.94
50대 이상	1.6	6.3	10.9	42.2	39.1	100.0( 64)	4.11	0.94
X <sup>2</sup> (df)/F			54.07(12) <sup>***</sup>				4.82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1$ , \*\*\*  $p < .001$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중 하나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에' 대해서는 약 70%가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집단 중에서는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3.96점으로 가장 높고, 영유아 부모 3.84점, 미혼 성인 3.77점 순이다. 또한 지역규모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3.93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3.91점, 대도시가 3.69점으로 가장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높은 연령일수록 다자녀가구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록 표 6-4-14〉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4) - 다자녀가구 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4	5.3	24.6	51.3	18.5	100.0(1,365)	3.82	0.80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5.0	29.2	48.2	17.3	100.0( 600)	3.77	0.80
영유아부모	0.2	5.7	23.0	52.8	18.3	100.0( 600)	3.84	0.79
전문가	1.2	4.8	13.9	57.0	23.0	100.0( 165)	3.96	0.82
X <sup>2</sup> (df)/F			22.28(8) <sup>**</sup>				3.63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7.2	31.3	46.1	15.1	100.0( 581)	3.69	0.82
중소도시	0.2	3.4	22.7	53.1	20.7	100.0( 503)	3.91	0.76
읍·면	0.9	4.3	14.7	61.2	19.0	100.0( 116)	3.93	0.77
X <sup>2</sup> (df)/F			34.07(8) <sup>***</sup>				11.93 <sup>***</sup>	

(부록 표 6-4-14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별								
20대	0.6	6.5	27.0	47.2	18.8	100.0( 356)	3.77	0.85
30대	0.1	4.8	26.4	51.3	17.5	100.0( 796)	3.81	0.78
40대	1.3	6.7	16.1	57.7	18.1	100.0( 149)	3.85	0.84
50대 이상	0.0	1.6	9.4	59.4	29.7	100.0( 64)	4.17	0.66
X <sup>2</sup> (df)/F			na				4.64**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국내 입양 문화와 국내 입양’에 대해서는 36.9%가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며, 52%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앞선 문항 중 향후 아동 입양 의향 유무에 대한 설문에 8.9%만이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미혼 성인(3.44점)이나 영유아 부모(3.45점)에 비해 전문가(4.14점)들이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응답자 평균은 3.55점으로 비수도권 응답자 평균인 3.32점보다 다소 높았고, 높은 연령일수록 국내 입양 문화가 개선되고 국내 입양 아동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록 표 6-4-15〉 이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5) - 국내 입양 문화 개선 및 국내 입양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8	10.3	36.9	39.5	12.5	100.0(1,365)	3.53	0.8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1.3	11.3	39.2	38.3	9.8	100.0( 600)	3.44	0.87
영유아부모	0.5	11.7	41.0	36.5	10.3	100.0( 600)	3.45	0.85
전문가	0.0	1.2	13.9	54.5	30.3	100.0( 165)	4.14	0.69
X <sup>2</sup> (df)/F			104.66(8)***				50.09***	
권역별								
수도권	0.2	8.8	38.8	40.1	12.1	100.0( 636)	3.55	0.82
비수도권	1.8	14.5	41.5	34.4	7.8	100.0( 564)	3.32	0.88
X <sup>2</sup> (df)/t			25.67(4)***				4.74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01$

‘해외 아동의 국내 입양’에 대해서는 43.5%가 미래에도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4.5%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내 아동에 대한 입양보다 더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에서는 보육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또한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 수도권 평균이 3.36점으로 비수도권 평균의 2.99점보다 높아 두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6-4-16〉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6) - 해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7	18.2	43.5	26.4	8.1	0.1	100.0(1,365)	3.17	0.94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2.2	19.6	40.0	26.2	12.0	0.0	100.0( 225)	3.26	0.98
미혼성인여	4.5	16.6	40.4	28.7	9.4	0.4	100.0( 223)	3.22	0.98
미혼대학생남	5.3	21.3	46.7	25.3	1.3	0.0	100.0( 75)	2.96	0.86
미혼대학생여	2.6	10.4	53.2	27.3	6.5	0.0	100.0( 77)	3.25	0.83
영유아부모 부	2.7	18.6	41.5	27.3	9.8	0.0	100.0( 183)	3.23	0.96
영유아부모 모	4.1	17.7	45.3	26.1	6.7	0.0	100.0( 417)	3.14	0.92
전문가(유아교육)	3.6	8.9	50.0	32.1	5.4	0.0	100.0( 56)	3.27	0.84
전문가(보육)	7.3	34.5	34.5	20.0	3.6	0.0	100.0( 55)	2.78	0.98
전문가(제3영역)	1.9	20.4	48.1	18.5	11.1	0.0	100.0( 54)	3.17	0.95
X <sup>2</sup> (df)/F			41.98(32)					2.29*	
권역별									
수도권	0.8	14.8	43.4	30.0	11.0	0.0	100.0( 636)	3.36	0.89
비수도권	6.7	21.1	43.4	23.2	5.3	0.2	100.0( 564)	2.99	0.96
X <sup>2</sup> (df)/t			9.44(8)					6.80	

\*  $p < .05$ , \*\*\*  $p < .001$

‘아동학대/폭력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75.1%가 현재 수준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4.71점으로 전문가들은 미래에 아동학대나 폭력에 대한 근절이 현재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은 3.87점, 비수도권은 4.00점으로 비수도권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높은 연령대일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아동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이 철저해 지고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6-4-17〉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7) -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3.3	21.5	44	31.1	100.0(1,365)	4.03	0.8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3.8	24.0	47.5	24.3	100.0( 600)	3.92	0.81	
영유아부모	0.0	3.7	23.7	46.8	25.8	100.0( 600)	3.95	0.80	
전문가	0.0	0.0	4.2	20.6	75.2	100.0( 165)	4.71	0.54	
X <sup>2</sup> (df)/F			175.03(8) <sup>***</sup>					72.26 <sup>***</sup>	
연령대별									
20대	0.6	4.8	24.2	44.4	26.1	100.0( 356)	3.91	0.86	
30대	0.0	3.0	23.7	48.1	25.1	100.0( 796)	3.95	0.78	
40대	0.0	2.7	10.7	27.5	59.1	100.0( 149)	4.43	0.79	
50대 이상	0.0	0.0	3.1	28.1	68.8	100.0( 64)	4.66	0.54	
X <sup>2</sup> (df)/F			na					31.20 <sup>***</sup>	
가구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4.8	19.4	38.7	37.1	100.0( 62)	4.08	0.87	
200~300만원 미만	0.0	1.3	22.4	46.1	30.3	100.0( 228)	4.05	0.76	
300~400만원 미만	0.6	4.5	26.8	48.8	19.3	100.0( 332)	3.82	0.81	
400~500만원 미만	0.0	3.3	25.9	47.9	23.0	100.0( 305)	3.90	0.78	
500만원 이상	0.0	5.1	20.1	47.3	27.5	100.0( 273)	3.97	0.83	
X <sup>2</sup> (df)/F			na					3.79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p < .01$ , \*\*\*  $p < .001$ 

돌봄 공백이 있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래에는 현재수준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3.5%였고, 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4.62점으로 미혼 성인(3.77점), 영유아 부모(3.89점)보다 높았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3.97점으로 남자 3.86점보다 높았으며,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가 3.75점으로 중소도시(3.91점), 읍·면지역(3.88점)보다 낮았다.

〈부록 표 6-4-18〉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8) - 나홀로 아동 예방 및 지원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3.4	23.1	51.0	22.5	100.0(1,365)	3.92	0.7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4.7	27.7	53.0	14.5	100.0( 600)	3.77	0.76

(부록 표 6-4-18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유아부모	0.0	3.0	23.7	55.0	18.3	100.0( 600)	3.89	0.73
전문가	0.0	0.0	4.2	29.1	66.7	100.0( 165)	4.62	0.57
$X^2(df)/F$	223.71(8) <sup>***</sup>						91.89 <sup>***</sup>	
성별								
남자	0.0	4.2	24.0	53.8	18.1	100.0( 530)	3.86	0.75
여자	0.1	2.9	22.5	49.2	25.3	100.0( 835)	3.97	0.78
$X^2(df)/t$	11.20(4) <sup>*</sup>						-2.53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4.6	28.6	53.7	12.9	100.0( 581)	3.75	0.74
중소도시	0.0	2.6	23.3	54.5	19.7	100.0( 503)	3.91	0.73
읍·면	0.0	5.2	21.6	53.4	19.8	100.0( 116)	3.88	0.78
$X^2(df)/F$	na						7.20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1$ , \*\*\*  $p < .001$ 

전체 응답자의 65.7%가 '시설 아동 지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이 역시 전문가가 4.27점으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대도시에서 소규모 도시로 갈수록, 높은 연령대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 시설 아동 지원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6-4-19〉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9) - 시설 아동 지원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	4.3	30.0	52.5	13.2	100.0(1,365)	3.74	0.74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4.8	33.7	51.0	10.3	100.0( 600)	3.67	0.73
영유아부모	0.0	4.8	31.7	54.5	9.0	100.0( 600)	3.68	0.70
전문가	0.0	0.6	10.3	50.3	38.8	100.0( 165)	4.27	0.67
$X^2(df)/F$	126.44(8) <sup>***</sup>						51.78 <sup>***</sup>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7.2	36.0	50.1	6.5	100.0( 581)	3.56	0.73
중소도시	0.0	3.0	30.4	54.1	12.5	100.0( 503)	3.76	0.70
읍·면	0.0	0.9	25.9	60.3	12.9	100.0( 116)	3.85	0.64
$X^2(df)/F$	33.30(8) <sup>***</sup>						15.54 <sup>***</sup>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01$

‘위탁양육’에 대해서는 63.6%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1.7%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앞서 위탁양육의 의향에 대한 설문에서 8.3%만이 ‘위탁양육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는 상반된다. 전문가 집단이 4.13점으로 가장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여자가 3.71점으로 남자 3.63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의 평균 점수가 3.53점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는 높은 연령일수록 위탁양육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높아졌다.

〈부록 표 6-4-20〉 아동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10) - 위탁양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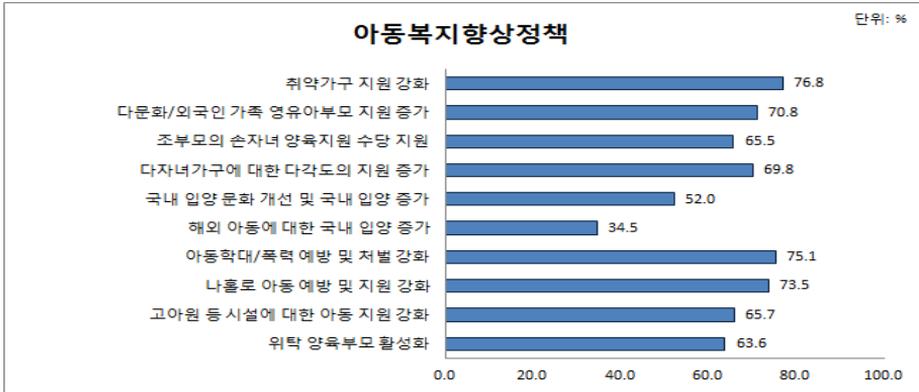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4	4.3	31.7	54.1	9.5	100.0(1,365)	3.68	0.72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7	4.5	35.3	54.0	5.5	100.0( 600)	3.59	0.69
영유아부모	0.2	5.0	32.5	54.8	7.5	100.0( 600)	3.65	0.70
전문가	0.0	1.2	15.8	52.1	30.9	100.0( 165)	4.13	0.71
X <sup>2</sup> (df)/F			115.85(8) <sup>***</sup>				39.37 <sup>***</sup>	
성별								
남자	0.6	4.5	34.0	53.4	7.5	100.0( 530)	3.63	0.71
여자	0.2	4.2	30.3	54.6	10.7	100.0( 835)	3.71	0.72
X <sup>2</sup> (df)/t			5.81(4)				-2.12	
지역규모별								
대도시	0.9	5.3	38.9	49.7	5.2	100.0( 581)	3.53	0.72
중소도시	0.0	2.8	29.8	60.6	6.8	100.0( 503)	3.71	0.63
읍·면	0.0	10.3	26.7	50.9	12.1	100.0( 116)	3.65	0.83
X <sup>2</sup> (df)/F			39.36(8) <sup>***</sup>				9.58 <sup>***</sup>	
연령대별								
20대	1.1	3.9	35.1	52.8	7.0	100.0( 356)	3.61	0.73
30대	0.1	4.5	33.0	55.7	6.7	100.0( 796)	3.64	0.68
40대	0.0	6.0	28.2	49.0	16.8	100.0( 149)	3.77	0.80
50대 이상	0.0	0.0	4.7	54.7	40.6	100.0( 64)	4.36	0.57
X <sup>2</sup> (df)/F			na				22.83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이상의 아동복지향상 정책 중 각 항목이 미래에 현재수준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그림 7-4-2).



[부록 그림 7-4-2] 아동복지향상정책 전망

아동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을 고르게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9%가 '취약 가구 지원 강화'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는 14.5%, '아동 학대 예방과 처벌 강화'는 14.1%로 나타났다.

<부록 표 6-4-21> '아동의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단위: %(명)

구분	취약 가구 지원 강화	다문화 가구 영유아 부모지원 강화	손자녀 양육 지원 수당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입양 문화 개선, 국내 입양 증가	해외 아동의 국내 입양 증가	아동 학대 예방·처벌 강화	나홀로 아동 예방 지원	시설 아동 지원 강화	위탁 양육 부모 활성화	계(수)
전체	31.9	12.7	10.6	14.5	4.3	1.5	14.1	6.4	2.7	1.2	100.0(1,365)

### 3)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양질의 여성 일자리 증가, 재취업 여성의 수 증가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8.9%로 집단이나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수도권은 3.95점, 비수도권은 4.15점으로 나타나 비수도권 응답자들이 미래 맞벌이 가구

지원 정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6-4-22〉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1) - 맞벌이 가구 지원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	2.0	18.8	50.8	28.1	0.1	100.0(1,365)	4.04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1.5	21.0	50.7	26.3	0.2	100.0( 600)	4.01	0.75
영유아부모	0.2	1.5	16.5	54.5	27.3	0.0	100.0( 600)	4.07	0.71
전문가	0.6	5.5	18.8	38.2	37.0	0.0	100.0( 165)	4.05	0.91
X <sup>2</sup> (df)/F			na					0.96	
권역별									
수도권	0.0	1.7	25.8	48.3	24.1	0.2	100.0( 636)	3.95	0.75
비수도권	0.5	1.2	10.8	57.4	30.0	0.0	100.0( 564)	4.15	0.70
X <sup>2</sup> (df)/t			48.26(4) <sup>***</sup>					4.82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sup>\*\*\*</sup>  $p < .001$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6.9%로, 집단구분별로는 전문가가 4.25점, 영유아 부모 4.01점, 미혼 성인 3.94점 순이다.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4.06점, 수도권 3.90점으로 비수도권 응답자들이 미래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점수값이 높다.

〈부록 표 6-4-23〉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2) - 양질의 여성 일자리 증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2	2.1	20.7	50.5	26.4	0.1	100.0(1,365)	4.01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5	2.7	22.3	51.3	23.0	0.2	100.0( 600)	3.94	0.78
영유아부모	0.0	2.0	21.7	49.7	26.7	0.0	100.0( 600)	4.01	0.75
전문가	0.0	0.6	10.9	50.9	37.6	0.0	100.0( 165)	4.25	0.67
X <sup>2</sup> (df)/F			na					11.41 <sup>***</sup>	
연령대별									
20대	0.6	2.0	22.5	49.2	25.6	0.3	100.0( 356)	3.97	0.78
30대	0.1	2.1	21.4	51.4	25.0	0.0	100.0( 796)	3.99	0.75

(부록 표 6-4-23 계속)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40대	0.0	3.4	17.4	45.6	33.6	0.0	100.0( 149)	4.09	0.80
50대 이상	0.0	0.0	9.4	59.4	31.3	0.0	100.0( 64)	4.22	0.60
$X^2(df)/F$	na							2.67*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01$ 

‘여성의 영유아자녀 가정양육 이후 노동시장복귀가 가능하여 재취업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에 대해 73.8%가 현재수준보다 미래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전문가는 4.50점으로 미혼 성인과 영유아 부모 3.89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여자가 4.01점으로 남자 3.89점으로 높아 여자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수가 미래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응답자(3.94점)들의 평균 점수가 수도권 응답자(3.84점)보다, 연령대별로 보면 2·30대보다는 4·50대보다 높다.

〈부록 표 6-4-24〉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3) - 재취업하는 여성의 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2.0	24.0	49.1	24.7	0.1	100.0(1,365)	3.96	0.76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3	2.8	26.0	49.2	21.5	0.2	100.0( 600)	3.89	0.78
영유아부모	0.0	1.5	27.5	51.7	19.3	0.0	100.0( 600)	3.89	0.72
전문가	0.0	0.6	4.2	39.4	55.8	0.0	100.0( 165)	4.50	0.61
$X^2(df)/F$	na							50.81***	
성별									
남자	0.2	2.1	26.0	51.5	20.0	0.2	100.0( 530)	3.89	0.74
여자	0.1	1.9	22.8	47.5	27.7	0.0	100.0( 835)	4.01	0.77
$X^2(df)/t$								10.36(4)*	-2.73
권역별									
수도권	0.2	3.1	30.8	43.7	22.0	0.2	100.0( 636)	3.84	0.80
비수도권	0.2	1.1	22.2	58.0	18.6	0.0	100.0( 564)	3.94	0.68
$X^2(df)/t$								28.11(4)***	-2.17*

주: na는  $X^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p < .05$ , \*\*  $p < .01$ , \*\*\*  $p < .001$

육아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7%로, 전문가 집단이 4.62점, 미혼 성인(3.74점), 영유아 부모(3.79점)보다 높았고, 여자가 3.92점으로 남자 3.79점보다 높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3.70점으로 중소도시(3.84점), 읍·면지역(3.81점)보다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가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부록 표 6-4-25〉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3) - 일·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 확산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4.0	24.1	52.0	19.7	0.1	100.0(1,365)	3.87	0.77
집단구분1									
미혼 성인	0.2	5.5	26.8	54.5	12.8	0.2	100.0( 600)	3.74	0.75
영유아부모	0.2	3.3	27.5	55.0	14.0	0.0	100.0( 600)	3.79	0.72
전문가	0.0	0.6	1.8	32.1	65.5	0.0	100.0( 165)	4.62	0.56
X <sup>2</sup> (df)/F			261.55(8) <sup>***</sup>					103.39 <sup>***</sup>	
성별									
남자	0.2	4.0	27.5	52.6	15.5	0.2	100.0( 530)	3.79	0.75
여자	0.1	4.0	21.9	51.6	22.4	0.0	100.0( 835)	3.92	0.78
X <sup>2</sup> (df)/t			12.33(4) <sup>*</sup>					-3.00	
지역규모별									
대도시	0.3	5.5	28.9	54.0	11.2	0.0	100.0( 581)	3.70	0.75
중소도시	0.0	2.8	26.2	55.5	15.5	0.0	100.0( 503)	3.84	0.71
읍·면	0.0	6.0	22.4	55.2	15.5	0.9	100.0( 116)	3.81	0.77
X <sup>2</sup> (df)/F			13.48(8)					4.70 <sup>**</sup>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영유아 돌봄 및 보육·교육 서비스 분야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준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2.6%로, 하위집단 중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평균 점수가 4.18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3.75점으로 중소도시(3.92점), 읍·면지역(3.96점)보다 낮아 집단 차이가 있고, 2·30대보다는 4·50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부록 표 6-4-26〉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4) - 보육·교육 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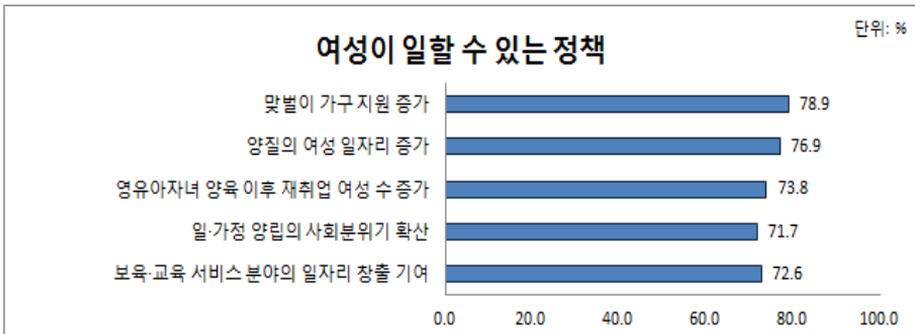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모름/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1	2.1	25.2	57.4	15.2	0.1	100.0(1,365)	3.85	0.69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0.0	1.8	29.3	57.8	10.7	0.4	100.0( 225)	3.78	0.65
미혼성인여	0.0	0.9	24.7	57.4	17.0	0.0	100.0( 223)	3.91	0.67
미혼대학생남	0.0	2.7	18.7	64.0	14.7	0.0	100.0( 75)	3.91	0.66
미혼대학생여	0.0	5.2	24.7	55.8	14.3	0.0	100.0( 77)	3.79	0.75
영유아부모 부	0.0	2.2	27.3	58.5	12.0	0.0	100.0( 183)	3.80	0.67
영유아부모 모	0.0	1.4	24.2	61.2	13.2	0.0	100.0( 417)	3.86	0.64
전문가(유아교육)	1.8	1.8	16.1	37.5	42.9	0.0	100.0( 56)	4.18	0.90
전문가(보육)	1.8	5.5	27.3	45.5	20.0	0.0	100.0( 55)	3.76	0.90
전문가(제3영역)	0.0	3.7	27.8	48.1	20.4	0.0	100.0( 54)	3.85	0.79
X <sup>2</sup> (df)/F				na					2.45*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1.5	32.2	55.6	10.7	0.0	100.0( 581)	3.75	0.66
중소도시	0.0	2.0	19.5	63.2	15.3	0.0	100.0( 503)	3.92	0.65
읍·면	0.0	2.6	17.2	60.3	19.0	0.9	100.0( 116)	3.96	0.68
X <sup>2</sup> (df)/F				31.13(6)***					10.68***

주: na는 X<sup>2</sup>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 < .05$ , \*\*\*  $p < .001$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 각 항목이 미래에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된 비율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부록 그림 7-4-3]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전망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맞벌이 가구 지원 증가’로 전체 응답자의 31.4%가 1순위로 선정하였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증가’ 24.2%, ‘양육 이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 20.2%순이다. 집단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순위가 다소 달라, 미혼 성인과 영유아 부모 집단에서는 ‘맞벌이 가구 지원 증가’가 30%이상으로 지지되었으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사회 분위기 확산’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6-4-27〉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구 지원 증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증가	양육 이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	일·가정 양립의 사회 분위기 확산	보육·교육 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영유아부모 근무시간, 장소 유연화	계(수)
전체	31.4	24.2	20.2	12.6	7.2	4.4	100.0(1,365)
집단구분 2							
미혼성인남	34.2	24.0	16.9	14.7	10.2	0.0	100.0( 225)
미혼성인여	31.4	26.0	25.6	8.5	8.5	0.0	100.0( 223)
미혼대학생남	33.3	20.0	25.3	10.7	10.7	0.0	100.0( 75)
미혼대학생여	32.5	20.8	27.3	10.4	9.1	0.0	100.0( 77)
영유아부모 부	41.5	29.0	17.5	7.1	4.9	0.0	100.0( 183)
영유아부모 모	33.1	28.5	20.9	10.3	7.2	0.0	100.0( 417)
전문가(유아교육)	10.7	5.4	8.9	25.0	3.6	46.4	100.0( 56)
전문가(보육)	16.4	3.6	10.9	41.8	0.0	27.3	100.0( 55)
전문가(제3영역)	5.6	18.5	20.4	20.4	0.0	35.2	100.0( 54)
X <sup>2</sup> (df)				600.83(40) <sup>***</sup>			

<sup>\*\*\*</sup>  $p < .001$



연구보고 2013-16

---

##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연구

---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금풍문화사 02) 2264-2306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48-0 93330